

산지니 도서목록

2024-2025
SANZINI Publisher
Catalogue

책이 넓고 멀리 보고 오래 버티는 산지니처럼

오래된 매를 뜻하는 산지니처럼,
오래 버티며 지속가능한 출판을 꿈꾸는 출판사

‘산지니’는 산에서 자라 오랜 해를 묵은 매를 말합니다. 수지니가 사람 손에서 기른 매라면 산지니는 야생의 매이고, 보라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매라면 산지니는 다 자란 매로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버티는 우리나라의 전통 매입니다. 다소 공격적인 이 이름을 지은 까닭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출판 환경과 지역출판의 여건 속에서 오래 버티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 버티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출판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의 주요 저자가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나 연구자들이라는 사실은 출판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가장 큰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역문화예술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책들을 발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출판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문화의 지역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심화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답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나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산지니의 책들이 나와 공동체의 소외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중독에서 해방되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기를 바랍니다.

산지니 편집부



인문	3
철학	4
중국근현대사상총서	14
크로스크리틱	16
종교	17
역사	20
사회	30
사회	31
여성	50
환경	53
지구과학 / 지리 / 지역계획	56
예술	70
소설	79
비소설 문학	107
살짜쿵	108
일상의 스펙트럼	109
에세이	111
동지북	128
글쓰기	129
문학연구	131
인물	133
크리티카&	134
평론	135
해석과 판단	140
희곡	142
시	143
잡지	151
어린이 청소년	154
실용	153
수학 / 과학 / 언어	164
패션	165
여행	166
음식 / 건강	169
비즈니스	171
찾아보기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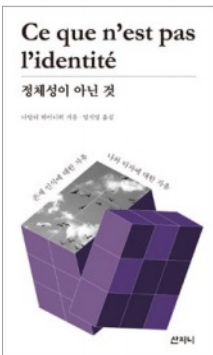
가상사회의 철학 비트코인·VR·탈진실

다이고쿠 다케히로 지음 | 최승현 옮김 | 367쪽 | 28,000원 | 2022년 6월 | 979-11-6861-029-3

다양한 문화 사건으로 가상사회를 파헤치다

TV, 라디오로 대표되는 대중매체 패러다임은 네트워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네트워크 패러다임은 조회수처럼 이윤에 직결되는 양적인 지표로만 정보의 가치가 인정된다. 이것은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본질이자 핵심 문제이다. 이 책은 정보가 어떻게 가치를 혁신하는가와 관련된 기제의 해명을 알리고 새롭게 구성 중인 가상사회의 가치를 고찰한다.

*교수신문 추천도서



정체성이 아닌 것

나탈리 하이너리 지음 | 임지영 옮김 | 190쪽 | 18,000원 | 2021년 5월 | 978-89-6545-722-0

우리는 왜 정체성을 논의해야 하는가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책.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사회적 낙인 문제는 정체성의 위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 한국 사회에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저자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정체성 개념을 비판하고, 정체성의 의미를 정리하여, 정체성이 아닌 것들을 통해 정체성이란 개념의 윤곽을 드러낸다.

*한겨레/시사인 추천도서



통찰 통찰명상 수행법

구치모 지음 | 232쪽 | 18,000원 | 2023년 4월 | 979-11-6861-136-8

명상의 길, 초심자를 위한 통찰명상 입문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꿰뚫어 보면서, 나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 책이 안내하는 통찰명상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내면에 집중하는 나를 발견하고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한국일보/국제신문/부산일보 추천도서



마음챙김과 통찰

습관적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재된 지혜를 활성화하는 명상

로브 네른·초덴·헤더 리간아디스 지음 | 구치모·김광수·최우영 옮김 | 416쪽 | 25,000원 | 2022년 4월 | 979-11-6861-026-2

현대 심리학, 신경과학, 불교로 풀어내는 마음챙김과 통찰을 위한 실천적 안내문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 명상을 한다. 그러나 명상의 목적은 행복도 평화도 아니다. 바로 통찰이다. 이 책이 가르쳐 주는 접근법에 따라 통찰을 위해 명상을 한다면 행복과 평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뉴시스 추천도서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

행간에 놓인 사랑과 철학, 위대한 대화들



엘즈비에타 에팅거 지음 | 황은덕 옮김 | 212쪽 | 13,000원 | 2013년 8월 | 978-89-6545-223-2

연인이었던 아렌트와 하이데거, 그 둘의 서신교환을 근거로 쓰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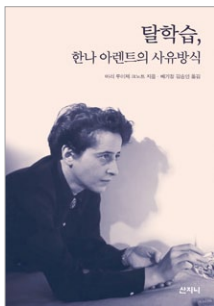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가 주고받은 서신 속 대화와 주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두 철학자의 삶을 구체화하며 한 편의 서사를 구성한다.

“신의 뜻에 따라
저는 죽음 이후에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Hannah Arendt & Martin Heidegger

- 폴란드 태생의 유대인 저자 엘즈비에타 에팅거는 같은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의 삶에 주목했다. **광주일보**
- 두 사람의 편지를 소재로 한 첫 책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두 철학자의 내밀한 생각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다. **경향신문**
- 편지와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에 피와 살을 붙인다. **조선일보**
- 사상적으로 주고받은 영향과 사랑과 결별 뒤에도 둘 사이에 이어져 있던 끈에 대해 얘기한다.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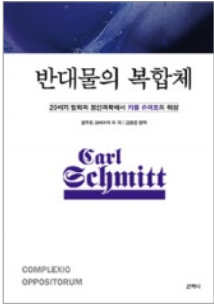
탈학습, 한나 아렌트의 사유방식

마리 루이제 크노트 지음 | 배기정·김송인 옮김 | 248쪽 | 14,800원 | 2016년 12월 | 978-89-6545-376-5

웃음. 번역. 용서. 표현. 네 개의 주제를 통해 아렌트처럼 생각해보기

저자는 한나 아렌트가 기존에 학습된 사고와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지적 자유를 얻고자 탐구한 '탈학습(unlearning)'에 주목한다. 상투적 표현과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한 새로운 아렌트를 웃음, 번역, 용서, 표현 네 가지 키워드로 만난다. 익숙했던 사고방식에서 새롭게 탈학습하는 아렌트의 사유방식은 생각을 포기했던 아이히만과는 정반대에 있었다.

*동아일보 / 한겨레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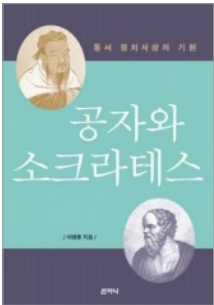


반대물의 복합체

헬무트 크바리처 외 지음 | 김효전 옮김 | 552쪽 | 38,000원 | 2014년 6월 | 978-89-6545-254-6

21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카를 슈미트 세미나 발표 논문 모음집.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사상, 헌법사상 세 가지 관점에서 논문 11편을 골라 번역하고 카를 슈미트 연보와 저작목록, 관련 인명록, 저작과 서평, 참고문헌과 색인을 더한 카를 슈미트 백과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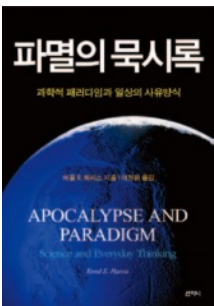


공자와 소크라테스

이병훈 지음 | 354쪽 | 25,000원 | 2018년 3월 | 978-89-6545-484-7

바람직한 국가란 무엇인가? 동서 정치사상의 기원을 찾아서

진리를 정치와 연결하여 바람직한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공자,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소크라테스. 법학자 이병훈 교수는 동서양 철학의 기원으로 자리매김한 두 인물의 삶에서 정치사상을 읽어내고 '국가와 인간의 관계'를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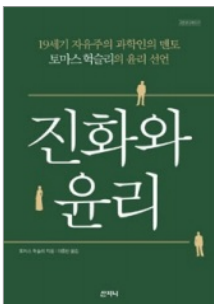


파멸의 묵시록

에를 E. 해리스 지음 | 이현휘 옮김 | 312쪽 | 20,000원 | 2009년 12월 | 978-89-92235-81-5

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방식

지속가능한 세계를 약속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류의 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한다. 기존의 낡은 세계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관과 새로운 문명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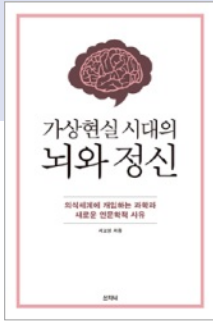
진화와 윤리 고전오디세이 01

토마스 헉슬리 지음 | 이종민 옮김 | 192쪽 | 16,800원 | 2021년 1월 | 978-89-6545-696-4

19세기 자유주의 과학인의 멘토, 토마스 헉슬리의 윤리 선언

유럽사회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던 19세기 후반, 자유방임적 진화를 내세운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인간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 선언. 과학발전 전에 따른 윤리의 문제를 제기한 책.

*20127월
한국출판인회의
북리펀드 선정도서



가상현실 시대의 뇌와 정신

의식세계에 개입하는 과학과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

서요성 지음 | 384쪽 | 28,000원 | 2015년 12월 | 978-89-6545-3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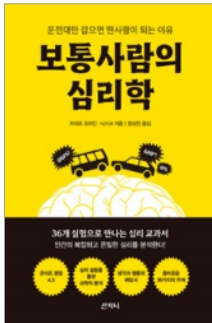
현대 뇌과학과 스피노자 철학, 영화 <매트릭스>를 넘나들며 뇌와 정신의 상관성을 해명하다

‘의식의 요람’이라 불리는 뇌, 그리고 ‘의식의 지향점’인 정신.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이러한 근원적 질문에 도전하는 이 책은 뇌 과학 연구를 풀어쓰는 데 그치지 않고 학문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며, 정신에 대한 철학 이론을 과학적 발견과 연관해 새롭게 해석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인간의 뇌에 대한 통찰

- 난해하기 그지없는 뇌 자체, 뇌에서 설명하는 의식, 의식의 지향적인 정신 등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신, 물질, 뇌의 여러 담론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뇌과학의 이론을 거쳐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교차지점을 뇌의 차원에서 다룬다. 특히 영화 <매트릭스>를 집중 분석하는 묘수도 발휘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신의 초월성과 순수성을 언급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우리의 뇌에 대한 통찰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역작이 아닐 수 없다. _한국과학기술도서상 심사평

*러시아판권 수출
*2016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2016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 수상도서



보통사람의 심리학 운전대만 잡으면 판사람이 되는 이유

자미르 모히딘, N.H.M 지음 | 정상현 옮김 | 240쪽 | 18,000원 | 2022년 10월 | 979-11-6861-106-1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심리를 여러 통계와 실험을 통해 파헤친다

페르소나, 마음 이론, 인지 부조화, 자기실현 예언 등을 통해 무의식의 패턴을 분석하고 기억 조작, 심리학의 정치적 활용 등을 과학적, 사회적 실험을 통해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했을 36가지 질문에 답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과 결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넷뉴스/
산업인뉴스/
메트로신문 추천도서



사회생물학,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

박만준 외 지음 | 400쪽 | 20,000원 | 2008년 2월 | 978-89-92235-36-5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통섭의 텍스트

11명의 생물학박사, 철학박사들이 각기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생물학을 조명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찰한 책이다.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 아시아총서 05

장재진 지음 | 448쪽 | 28,000원 | 2016년 9월 | 978-89-6545-374-1

사회 모순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유토피아’를 향한 사회적 제도를 구상하다

근대기 동아시아의 사상가인 한국의 최제우, 강일순, 중국의 홍인곤, 강유위의 신종교 관념을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한 책. 반봉건과 근대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사상에 내재한 실천윤리를 살핀다.

*2012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학술도서



일본 이데올로기론 〈제국 일본의 테오-크라시〉 총서 8

도사카 준 지음 | 윤인로 옮김 | 552쪽 | 35,000원 | 2020년 8월 | 978-89-6545-666-7

현대일본의 일본주의·파시즘·자유주의 사상 비판

1930년대 일본 학계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 저자는 당시 과시증화해 가는 일본 정부와 사회를 분석하고, 문학과 문학비평에 팽배했던 자유주의와 일본의 전통을 신성시한 일본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행동철학으로서 유물론의 유용함을 주장한다. 현재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필독서다.

*교수신문 / 세계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부산일보 / 연합뉴스
추천도서



근현대 중국 이상사회론 아시아총서 28

이연도 지음 | 319쪽 | 23,000원 | 2018년 6월 | 978-89-6545-537-0

오래된 미래, 중국식 사회주의의 기원을 찾아서

중국 정치사상의 흐름을 알기 쉽게 소개한 입문서로 중국 사회 및 학계의 움직임을 조망할 수 있는 사상적 시각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근대 이후 중국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상사회론의 내용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현 중국 체제를 포함하여 근대 이후 중국의 정책 목표 기저에 흐르는 의식을 밝히는 것으로 나아간다.

*한겨레 / 부산일보 /
교수신문 추천도서



루쉰과 동아시아 근대 아시아총서 27

서광덕 지음 | 376쪽 | 28,000원 | 2018년 6월 | 978-89-6545-511-0

루쉰을 따라가는 동아시아 사상의 여정

동아시아 담론에 천착한 중국학 연구와 중국 근대문학의 거장 루쉰을 두루 번역해온 서광덕의 첫 저서. 동아시아 근대를 통해 새로운 문명론적 비전을 추구했던 약 20년 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이론가들의 문제의식을 계승·정리하고, 루쉰의 사상을 통해 이를 규명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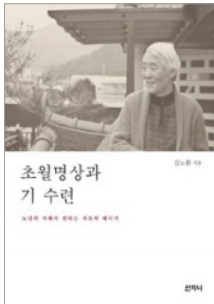


개달음

김종의 지음 | 304쪽 | 25,000원 | 2018년 5월 | 978-89-6545-516-5

일상을 여유롭게 만드는 마음의 기술

동양 전통 사상에서 펼쳐지는 사유들을 정리하고 강의해온 저자가 들려주는 동양철학 이야기. 학문적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갈고닦은 저자는 동양의 사유들을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변주하여 들려준다. 선인들의 사상은 현대인들에게 느림과 비움으로 행복해지는 '개달음'의 기술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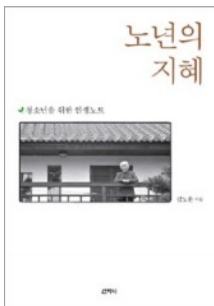


초월명상과 기수련

김노환 지음 | 142쪽 | 12,000원 | 2017년 4월 | 978-89-6545-411-3

노년의 지혜가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

저자는 오랜 수련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은 수련가로 '기수련', '지식호흡', '원근(遠近) 수련', '호 하, 신공 수련', '초월명상과 치유' 등의 주제를 가지고 전통 수련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노년의 지혜

김노환 지음 | 사진 이인우 | 208쪽 | 12,000원 | 2014년 3월 | 978-89-6545-245-7

청소년을 위한 인생노트

시골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연과 생명, 윤리와 철학 등 삶의 지혜를 전하는 책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순환을 중요시하며 사유와 명상 등으로 상처받은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고자 한다.

* 2014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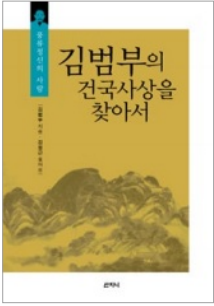


제갈량과 20세기 동양적 혁명을 논하다

역주 몽건제갈량

유원표 지음 | 이성혜 옮김 | 301쪽 | 20,000원 | 2015년 3월 | 978-89-6545-283-6

역관이자 계몽지식인이었던 유원표가 1908년 쓴 소설 『몽건제갈량』을 역주한 책이다. 유원표가 자국의 힘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체 계국주의 논리인 사회진화론, 우승열패론, 황백인증론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음을 밝혀 근대전환기 계몽지식인의 한계점을 짚어낸다.



김범부의 건국사상을 찾아서

범부 김정설 지음 | 김정근 풀어쓰기 | 248쪽 | 18,000원 | 2014년 9월 | 978-89-6545-261-4

풍류정신의 사상이 김범부가 제시하는 한국의 이상(理想)과 방향

“현대 한국 최고의 천재”, “하늘 밑에서는 제일로 밝은 머리”라고 칭송받는 사상이 김범부(본명 김정설, 1897~1966)의 건국사상집이다. 건국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범국가적 국민운동을 제창한 김범부의 과제는 언제나 한국인은 어떻게 살 때 가장 사람다운가 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집필된 범부의 건국사상을 ‘풀어쓰기’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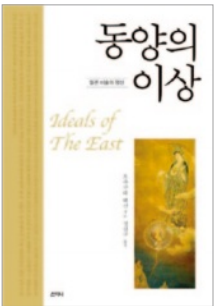
차의 책 The Book of Tea

오카쿠라 텐신 지음 | 정천구 옮김 | 256쪽 | 14,800원 | 2016년 10월 | 978-89-6545-379-6

다도를 통해 일본의 전통문화를 재미있고 매력 있게 해설한 책

출간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이 책은 아직도 서양인들에게 동양의 차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다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다도문화, 나아가 동양의 전통문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06년, 미국 보스턴미술관에서 동양부장으로 국제적 명성을 날리고 있던 오카쿠라 텐신이 영어로 펴낸 책을 번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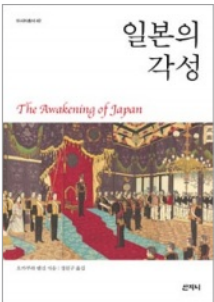
*2010년 10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동양의 이상 일본 미술의 정신 아시아총서 04

오카쿠라 텐신 지음 | 정천구 옮김 | 256쪽 | 20,000원 | 2011년 9월 | 978-89-6545-159-4

일본의 메이지시대에 일본미술의 현대화를 위해서 교육 및 행정에서 커다란 기여를 한 오카쿠라 텐신이 서양인들에게 동양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인도와 중국, 일본 등의 미술과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거기에 동양인의 사유방식과 미학의 특성 및 동양 각국이 구현해야 할 이상이 내재해 있음을 밝힌다.



일본의 각성 아시아총서 42

오카쿠라 텐신 지음 | 정천구 옮김 | 320쪽 | 25,000원 | 2021년 12월 | 978-89-6545-767-1

메이지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일본의 모순된 인식, 그 근원을 살펴보다

오카쿠라 텐신이 서양에 일본을 선전하고 옹호하기 위해 영어로 저술한 책. 이 책을 통해 당시 서양인들을 매료시킨 근대 일본 사회의 문화와 사상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일본인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겨레 / 국제신문 /
연합뉴스추천도서



순우리말 번역으로 아름답게 완역한 정천구 선생의 고전 번역 시리즈

정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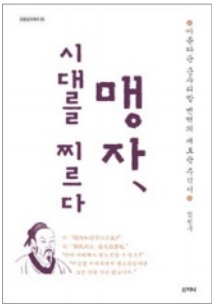
삼국유사를 연구의 축으로 삼아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학과 사상을 비교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학 밖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저서로는 『논어, 그 일상의 정치』가 있고, 역서로 오카쿠라 텐신의 『차의 책』과 『동양의 이상』, 일본불교설화집인 『모래와 돌』, 일본불교문화사인 『원형석서』, 명심보감 원본을 번역한 『밝은 마음을 비추는 보배로운 거울』 등이 있다.



논어, 그 일상의 정치 고전오디세이 09

640쪽 | 35,000원 | 2018년 4월 | 978-89-6545-500-4

『논어, 그 일상의 정치』에서는 20편에 이르는 논어 전편을 순우리말로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 한자 하나하나의 속뜻과 말뜻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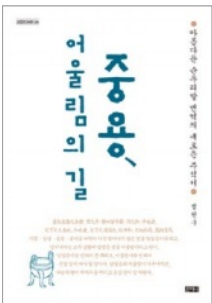


맹자, 시대를 찌르다 고전오디세이 05

608쪽 | 30,000원 | 2014년 4월 | 978-89-6545-244-7

『맹자, 시대를 찌르다』는 맹자 원문과 함께 등장하는,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을 주장한 고자와 맹자의 논쟁, 개인의 쾌락을 중시한 양주와 겸애를 주장한 목적을 향한 비판, 법가 사상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2014
부산문화재단
우수도서



중용, 어울림의 길 고전오디세이 04

340쪽 | 23,000원 | 2017년 2월 | 978-89-6545-4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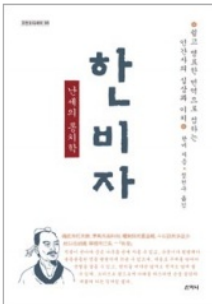
『중용, 어울림의 길』은 중용 본연의 내용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중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고전이 되었으며 저자는 누구인지 등 우선 그 근본을 묻고 답함으로써, 처음 읽는 사람은 물론 이미 정독한 사람들까지도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대학, 정치를 배우다 **고전오디세이 08**

420쪽 | 30,000원 | 2018년 5월 | 978-89-6545-499-1

‘대학(大學)’은 “큰일을 위한 학문 또는 큰일을 배운다”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때 큰일이란 바로 통치, 정치다. 그런 큰일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능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 적고 있는 책이 『대학, 정치를 배우다』이다.



한비자, 난세의 통치학 **고전오디세이 06**

566쪽 | 28,000원 | 2019년 7월 | 978-89-6545-608-7

『한비자, 난세의 통치학』은 한 개인, 기업, 국가가 어지러워졌을 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긴요한 방침과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해놓은 책인데, 전편을 완벽하여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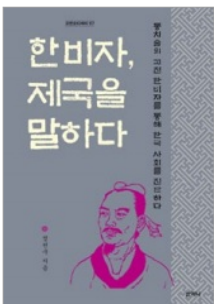


맹자독설 **고전오디세이 02**

정천구 지음 | 268쪽 | 15,000원 | 2012년 5월 | 978-89-6545-176-1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고전의 힘

『맹자』를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병증을 짚어보는 새로운 고전해설서. 많은 사람들은 고전을 ‘삶에 필요한 교훈’이나 ‘인생의 지침서’쯤으로 생각하는데, 이 책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맹자의 말을 통해, 이 시대를 날카롭게 통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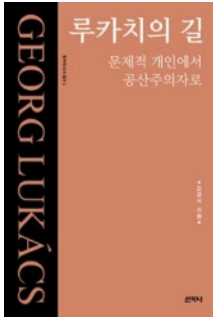


한비자, 제국을 말하다 **고전오디세이 07**

정천구 지음 | 256쪽 | 15,000원 | 2016년 3월 | 978-89-6545-343-7

통치술의 고전 한비자를 통해 한국 사회를 진단하다

『한비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다. 『한비자』를 맹목적으로 답습하기보다는 현재를 보는 꼬투리로 삼으며 재해석하여 이 시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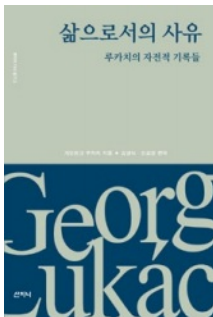
루카치의 길 문제적 개인에서 공산주의자로 루카치 다시 읽기 1

김경식 지음 | 345쪽 | 25,000원 | 2018년 12월 | 978-89-6545-570-7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실천적 사상가로서 루카치를 조망하다

루카치의 생애와 루카치의 초기 마르크스 사상, 루카치의 마르크스주의 문학론 구성요소, 마르크스주의 존재론의 발생사와 근본요소, 마르크스주의 미학의 방법론적 기초 등 루카치의 수록작, 논문, 리뷰를 바탕으로 루카치의 사상을 정리했다.

*교수신문 / 한겨레 /
경향신문 추천도서



삶으로서의 사유 루카치의 자전적 기록들 루카치 다시 읽기 2

게오르크 루카치 지음 | 김경식 · 오길영 편역 | 456쪽 | 30,000원 | 2019년 7월 | 978-89-6545-619-3

실천적 사상가의 사유를 따라가다

게오르크 루카치가 죽기 직전 병상에 누워 제자들과 나눈 대담과 그의 자전적 기록들을 옮긴 책. 대담으로 구성된 자서전 이외에 루카치의 이력서 두 편과 루카치의 자전적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루카치를 처음 또는 다시 공부할 사람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입문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신문 /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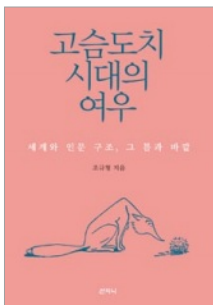
루카치가 읽은 슬제니친 루카치 다시 읽기 3

게오르크 루카치 지음 | 김경식 옮김 | 158쪽 | 18,000원 | 2019년 7월 | 978-89-6545-620-9

루카치가 문학비평가로서 남긴 마지막 실제 비평

1970년 11월 옛 서독의 루흐터한트 출판사에서 발간한 『슬제니친』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루카치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유물론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론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이론적 작업을 시도했는데, 이 책은 그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문학비평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교수신문 /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고슴도치 시대의 여우 세계와 인문 구조, 그 틈과 바깥

조규형 지음 | 232쪽 | 13,000원 | 2016년 5월 | 978-89-6545-350-5

고슴도치 시대에 여우를 상상하며 구조론에서 탈구조론을 논하다

저자는 견고한 구조의 논리가 가속화되는 지금의 시대를 고슴도치 시대라고 말하며, 개념의 틀로 직조된 구도 속에서 여우가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의 언어와 문화체계 그리고 그 표피인 기표를 파악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부유기표와 자가면역 그리고 거울 단계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주의에 대해 설명한다.

*2016
한국영어영문학회
YBM저술상 수상도서

근현대시대 중국의 고민이 담긴 텍스트들을 통해 중국 근현대사상이 던진 삶의 근본 문제와 대안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시대가 만들어야 할 문명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유익한 사상 자원을 제공한다.



인학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1

담사동 지음 | 임형석 옮김 | 320쪽 | 25,000원 | 2016년 2월 | 978-89-6545-332-1

근대적 가치의 불을 밝힌 담사동의 인의 학

『인학』은 담사동이 집필한 논변의 글로, 서구의 근대체제를 소개하고 중국 전통적인 덕목과 연결시켜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보여준다. 복잡다단한 동서 종교와 학문의 통합과 평등한 세계로의 제시, 그리고 이를 이끌어가기 위한 도덕 정신의 고양을 주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구유심영록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2

랑치차오 지음 | 이종민 옮김 | 352쪽 | 25,000원 | 2016년 2월 | 978-89-6545-333-8

새로운 문명의 건설에 대한 랑치차오의 예언

중국의 계몽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랑치차오(梁啟超, 양계초)가 1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여행을 통해 관찰하고 느낀 생각의 기록이자 신문명의 길을 찾아가는 탐험의 여정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랑치차오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자세는 『구유심영록』이 처음 출간된 지 백 년이 지난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진다.



과학과 인생관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3

천두슈 외 19명 지음 | 한성구 옮김 | 620쪽 | 35,000원 | 2016년 2월 | 978-89-6545-334-5

20세기 초 중국문화와 서양문화의 충돌로 빚어진 논쟁

중국 사상계를 뒤흔든 ‘과학과 인생관 논전’에 참가한 지식인들의 글 29편을 모은 책. 과학만능주의를 지지하는 후스와 천두슈, 이에 반대하는 랑치차오 등이 1년여에 걸쳐 벌인 논쟁이다.



신중국미래기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4

랑치차오 지음 | 이종민 옮김 | 208쪽 | 18,000원 | 2016년 2월 | 978-89-6545-335-2

신중국을 꿈꿨던 랑치차오의 미완의 정치소설

랑치차오의 미완의 정치소설. 서언과 5회의 소설로 구성되어 미래 신중국에 대한 구상과 당시 중국 현실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다. 당대 중국의 개혁방향이 랑치차오가 추구한 중국몽과 역사적 연계성을 지니게 되면서 최근 랑치차오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데, 『신중국미래기』는 랑치차오의 중국몽을 살펴보기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다.



권학편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5

장지동 지음 | 송인재 옮김 | 196쪽 | 18,000원 | 2017년 6월 | 978-89-6545-425-0

대격변의 시기를 이겨내는 새로운 지식의 힘

이 책은 내편 9편, 외편 15편으로 구성되어 굴욕과 대격변을 겪고 있던 중국의 상황과 새로운 지식,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 내편에서는 인(仁)을 추구하며 중국의 실존과 가치를 칭송하고 보호하는 논설로 이뤄져 있고, 외편에서 지혜와 용기를 추구하며 중국이 배워야 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과 내용을 소개한다.



천두슈 사상선집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6

천두슈 지음 | 심혜영 옮김 | 578쪽 | 38,000원 | 2017년 10월 | 978-89-6545-436-6

세상을 사랑하며 노력하는 개혁주의자의 길

『천두슈 사상선집』은 신문화운동에서 초대 당총서기까지, 천두슈 사유의 골간이 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글, 현대 중국의 혁명사나 사상문화운동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글, 천두슈의 개인적인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 천두슈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온 글 등 총 64편의 글을 만날 수 있다.

*2018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류스페이 사상선집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7

류스페이 지음 | 도중만 옮김 | 370쪽 | 32,000원 | 2017년 12월 | 978-89-6545-483-0

중국의 근대 격동기, 시대와 맞선 젊은 사상가의 지적 유산

도중만 교수의 꼼꼼한 번역 작업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된 류스페이의 논저. 류스페이는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저명한 국학자이자 사상가이다. 『류스페이 사상선집』은 류스페이가 중국 사상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1903년부터 1908년까지 발표한 논문 가운데 학술과 혁명에 관련된 20편을 뽑아서 우리말로 옮겨 묶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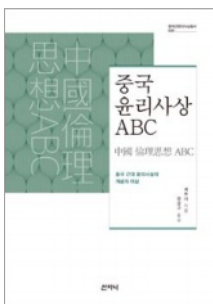
중국문화요의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8

량수밍 지음 | 강중기 옮김 | 552쪽 | 2020년 3월 | 978-89-6545-647-6

인류사에서 본 중국문화의 특수성

량수밍이 “과거의 중국을 인식하여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자”라는 구호 아래 사회문제(중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사상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량수밍 자신에 대한 평가에 가장 적합한 책이다. 인류 사회와 문화에서 중국 사회와 문화가 지니는 의의를 중국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해명하고 있다.

*동아시아출판인회의
선정 '20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100권의 책'



중국 윤리사상 ABC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09

세푸야 지음 | 한성구 옮김 | 198쪽 | 25,000원 | 2020년 5월 | 978-89-6545-657-5

중국 근대 윤리사상의 개념과 이상

20세기 초 중국 사상가 세푸야가 저술한 윤리학사로, 중국 윤리사상의 기본 관념, 중국 윤리의 최고 이상, 의무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어떻게 도덕을 개조해야 하는지, 개인과 사회가 취해야 할 도덕과 버려야 할 도덕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교수신문 / 금강일보
/ 연합뉴스 추천도서



취추바이 선집 중국근현대사상총서 010

『신아국유기新俄國遊記』 『적도심사赤都心史』

취추바이 지음 | 이현복 옮김 | 336쪽 | 28,000원 | 2021년 5월 | 978-89-6545-727-5

신생 소비에트러시아에서 전망을 찾는 취추바이의 여정

취추바이(瞿秋白, 구추백)는 중국 공산당의 초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러시아어 번역가이자 중국의 좌익 작가, 공산주의 혁명가이다. 이 선집에는 취추바이의 저술 가운데 중국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여정의 『신아국유기(新俄國遊記)』와 취추바이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이후 1년간 그곳에 머물며 쓴 『적도심사(赤都心史)』를 번역하여 실었다.

*2022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크로스크리틱

비평을 넘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새로운 길라잡이



지식의 윤리성에 관한 다섯 편의 에세이 크로스크리틱 01

윤여일 지음 | 196쪽 | 16,000원 | 2012년 4월 | 978-89-6545-175-4

지식의 논리적 완결성뿐 아니라 지식과 대면한 주체가 그 지식을 매개 삼아 변화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를 ‘지식의 윤리성’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치·현실감각 등 ‘지식의 심층해부’를 시도한다.



상황적 사고 크로스크리틱 02

윤여일 지음 | 296쪽 | 18,000원 | 2013년 7월 | 978-89-6545-221-8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이명박 집권기 동안 저자 윤여일이 쓰고 번역하고 비평한 글들을 모은 평론집이다. 이 책으로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독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2014
한국연구재단
우수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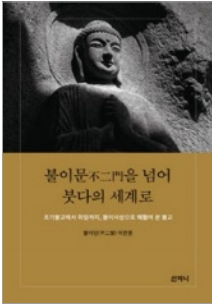
천 개의 권력과 일상 크로스크리틱 03

사공일 지음 | 224쪽 | 16,000원 | 2014년 7월 | 978-89-6545-257-7

들뢰즈와 푸코가 안내하는 일상의 권력과 탈주

현대철학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철학자 들뢰즈와 푸코로 일상의 권력을 사유한 책. 딱딱한 이론서라기보다 두 철학자의 핵심 이론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사유를 풀어내는데,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 친숙한 소재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14
한국연구재단
우수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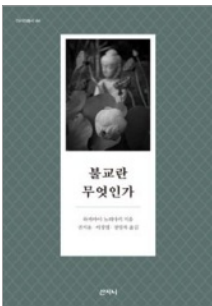
불이문을 넘어 붓다의 세계로

이찬훈 지음 | 544쪽 | 38,000원 | 2024년 2월 | 979-11-6861-236-5

초기불교에서 화엄까지, 불이(不二)사상으로 꿰뚫어본 불교

불교를 불이사상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 저자는 불이사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 나의 것, 나의 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무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불교를 관념적 종교로만 논하지 않고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대불교 / 매일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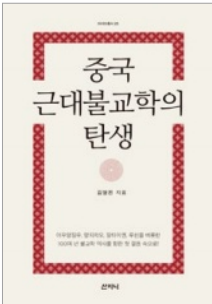


불교란 무엇인가 아시아총서 44

하카마야 노리아키 지음 | 권서용 · 이창엽 · 정영자 옮김 | 352쪽 | 32,000원 | 2022년 8월 | 979-11-6861-072-9

오로지 부처의 가르침에만 집중한 불교 입문서

종교로서의 불교는 무엇일까? 불교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도록 돕는 가르침이라 말하며 저자는 종교로서의 불교를 정의한다. 진리는 영혼을 통해 단박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깨달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아시아총서 25

김영진 지음 | 376쪽 | 25,000원 | 2017년 12월 | 978-89-6545-459-5

문헌학 역사학 철학으로 접근한 중국의 근대불교학

중국 근대불교학의 기원과 성장을 추적한 책. 저자 김영진은 문헌학, 역사학, 철학이라는 세 갈래 길을 따라 근대불교학의 잉태와 탄생을 드러낸다. 중국 근대 사상가들의 사유를 경유하여 동아시아 전통 종교와 학술이 '근대'라는 시공을 맞아 기꺼이 감내한 자기 변혁과 동서(東西) 학술의 교차가 빛을 창조성을 확인한다. 이 분야를 다룬 국내 최초의 학술서.

*2018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8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 수상도서



효사상과 불교

도웅(度雄) 스님 지음 | 312쪽 | 18,000원 | 2017년 9월 | 978-89-6545-435-9

불교에 나온 효 사상에 대한 연구

경남 거제에 있는 장흥사 주지 도웅 스님이 집필. 윤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윤리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효경(孝經)』에 의하는 한, 그것은 바로 효(孝)라고 말하며 불교에 나온 효에 대해 설명했다.



주심부와 유식

황정원 지음 | 304쪽 | 28,000원 | 2023년 9월 | 979-11-6861-174-0

보리(菩提)에 이르는 지름길, 연수대사의 유식 법문을 정리하다

연수대사는 북송 초기, 선교일치를 설명하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가 만년에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 『주심부』에 유식(唯識) 법문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대사가 유식의 중요성을 시종일관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주역의 대가 야청 황정원은 이 책에서 영명 연수대사의 『주심부』에 나오는 노래 중 유식에 관련된 것을 모아 초록해, 유식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와 여래장

황정원 지음 | 368쪽 | 28,000원 | 2020년 11월 | 978-89-6545-679-7

마음을 공부하는 능엄경 이야기

마음속으로 침잠하여 번뇌의 실체를 파악하여 스스로 깨달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철학자, 종교인, 불교학자뿐만 아니라 마음을 승화하려는 사람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더하고 지혜를 향상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능엄경> 제3권 이후에 나오는 여래장 법문들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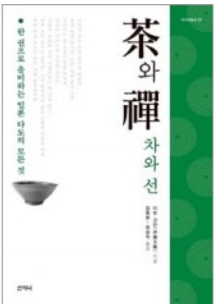


불교와 마음

황정원 지음 | 328쪽 | 17,000원 | 2011년 2월 | 978-89-6545-137-2

마음을 공부하는 능엄경 이야기

불교경전 <능엄경> 가운데 '마음'을 설명하는 부분만을 가려내어 쉽게 풀이함으로써 마음을 공부하는 독자들이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전 원문을 신고 해석과 더불어 강의 형식으로 쉽게 설명을 달아 누구나 쉽게 <능엄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와 선 아시아총서 20

이토 고간 지음 | 김용환 · 송상숙 옮김 | 336쪽 | 25,000원 | 2016년 4월 | 978-89-6545-345-1

한 권으로 음미하는 일본 다도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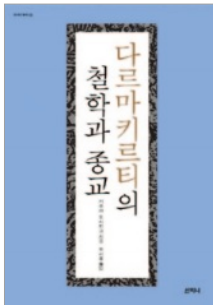
차 문화와 다도의 세계. 단지 마시는 것에서 나아가 다도의 법과 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특히 차를 통해 정신을 통일함으로써 마음의 산란을 방지하여 참된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 선의 경지와 일상생활 속에서 끌어내는 도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불교의 마음사상 유식사상입문 아시아총서 08

요코야마 고이츠 지음 | 김용환·유리 옮김 | 208쪽 | 18,000원 | 2013년 12월 | 978-89-6545-234-8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익숙한 사례와 다양한 도식을 들어 난해한 유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유식사상 입문서이다.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실천적 가르침으로서의 유식사상을 접하게 한다. 서론에서 유식사상을 개설하고 제1장에서 그 역사를 기술한 다음 제2장에서 유식사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르마키르티의 철학과 종교 아시아총서 03

키무라 토시히코 지음 | 권서용 옮김 | 448쪽 | 30,000원 | 2011년 4월 | 978-89-6545-140-2

7세기 인도의 불교철학자 다르마키르티에 대한 연구사와 다르마키르티의 인식론, 언어론, 종교론을 다루었다. 다르마키르티의 종교는 '해탈'을 목적으로 하며 다르마키르티의 철학은 '지혜'를 지향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인미답의 영역인 디그나가에 의해 정초되고 철학자 이면서 동시에 종교인인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완성된 불교인식논리학에 대해 다룬다.



무상의 철학 다르마끼르띠와 찰나멸

타니 타다시 지음 | 권서용 옮김 | 384쪽 | 18,000원 | 2008년 3월 | 978-89-92235-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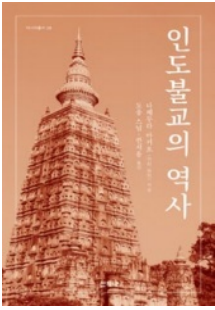
인도불교의 인식론과 논리학을 완성한 다르마끼르띠의 인식론, 특히 그의 존재론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서이다. 다르마끼르띠의 사상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어, 인도불교 최고의 사상가인 다르마끼르띠를 연구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준다.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인간의 직관이 낳은 최초의 막연한 일반화'인 무상을 다르마끼르띠의 찰나멸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도인의 논리학 문답법에서 귀납법으로

카츠라 쇼류 지음 | 권서용 외 옮김 | 328쪽 | 18,000원 | 2009년 9월 | 978-89-92235-61-7

서양의 존재론과 동양의 실천론 전통을 통섭하는 인도불교인식논리학. 인도불교인식논리학의 세계적 대가인 카츠라 쇼류 교수의 역저이다. 저자는 인도불교인식논리학이 서양사상과 동양사상을 이해하는 데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힌두교과 불교 원전을 두루 오가며 적절한 인용을 들어 인도논리학 전통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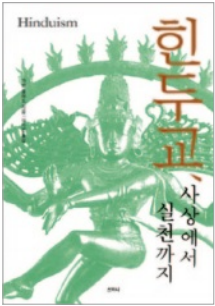


인도불교의 역사 아시아총서 29

다케무라 마키오 지음 | 도용 스님 · 권서용 옮김 | 288쪽 | 20,000원 | 2018년 8월 | 978-89-6545-539-4

석존 이후부터 밀교까지 인도 불교의 사상 정리

석존의 생애부터 입멸 후 부파불교의 전개, 대승불교의 출현, 공의 논리, 유식의 체계 등 인도불교 사상사를 정리한 책으로 아시아 불교의 근원인 인도불교 사상의 발전과 전개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한국에 유입된 대승불교의 출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다.



힌두교, 사상에서 실천까지

가빈 플러드 지음 | 이기연 옮김 | 516쪽 | 20,000원 | 2008년 5월 | 978-89-92235-43-3

영국 태생의 종교학자 가빈 플러드의 『힌두교, 사상에서 실천까지』. 인도의 전통종교인 힌두교의 주제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비슈누 등의 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힌두교의 특성에 대한 학계의 논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사찰 문화유산 답사

한정갑 지음 | 287쪽 | 28,000원 | 2021년 7월 | 978-89-6545-736-7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해설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33곳 순례기

사찰문화재를 불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으로, 흥련암, 보리암, 석모도 보문사 등 3대 관음성지와 삼보사찰, 5대 적멸보궁과 지역별 명찰을 선별하여 33군데 명찰을 뽑았다. 그렇게 가려낸 사찰에 개괄적인 해설을 더해 저자 나름의 독특한 해석을 덧붙이고, 다양한 명찰의 사진을 통해 답사, 연구, 구경, 여행을 도와준다.



재미있는 사찰 이야기

한정갑 지음 | 272쪽 | 18,000원 | 2017년 11월 | 978-89-6545-455-7

불교적으로 풀어 보는 사찰문화재 해설서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 사찰과 조형물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본격 사찰문화재 해설서. 저자는 전국의 전통 사찰을 답사하면서 사찰에 갖는 상징적 의미를 심도 깊게 풀어간다. 사찰 배치도에 담긴 불교의 교리와 의미, 사찰 조형물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문화재에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룬다.



고종, 근대 지식을 읽다 아시아총서 33

집옥재(集玉齋) 소장 중국 서적 12종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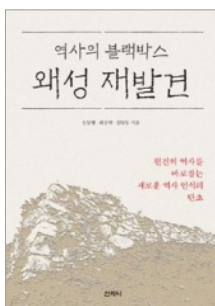
윤지양 지음 | 333쪽 | 25,000원 | 2020년 2월 | 978-89-6545-640-7

개혁을 위한 도전과 열망을 보여주는 고종의 독서 편력

집옥재에 소장되었던 12종의 중국 서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고, 고종이 왜 이 책들을 구입했으며, 무엇을 읽어냈는가를 탐색한 책.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고종의 장서를 통해 그의 독서 편력을 상상하고 개화를 향한 꿈을 엿볼 수 있다.

*2020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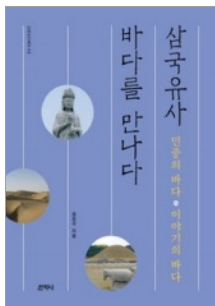
*한겨레/연합뉴스/
교수신문 추천도서



역사의 블랙박스, 왜성 재발견

신동명·최상원·김영동 지음 | 224쪽 | 25,000원 | 2021년 5월 | 978-89-6545-719-4

왜성은 임진왜란이라는 420여 년 전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블랙박스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왜성은 임진왜란의 침략을 대변하는 유적으로 인식돼 홀대를 받아왔다. 『역사의 블랙박스, 왜성 재발견』은 31개의 왜성 전체를 취재하여, 임진왜란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했다.



삼국유사, 바다를 만나다 고전오디세이 03

정천구 지음 | 291쪽 | 29,800원 | 2024년 5월 | 979-11-6861-300-3

민중의 바다, 이야기의 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상 한반도의 역사를 바다와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삼국유사』 중 바다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추려내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 저자가 일일이 발품을 팔아 찍은 사진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2013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도서



백두산에 묻힌 발해를 찾아서

진재운 지음 | 254쪽 | 15,000원 | 2008년 3월 | 978-89-92235-35-8

화산학으로 풀어 본 발해 멸망의 진실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발해는 왜 갑자기 망했을까? 자연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백두산 화산 폭발설을 제기해왔다. 이 책은 1천 년 전 백두산 화산 폭발이 가지는 의미를 발해사와 결합하면서 발해 멸망설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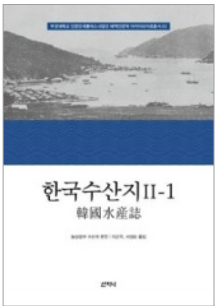
한국수산지 I |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해역인문학 아카이브자료총서 1·2

전2권 | 농상공부 수산국 지음 | 이근우, 서경순 옮김 | 각 45,0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208-2

한국 최초의 근대적 수산 조사서이자 인문 지리지, 115년 전 조선의 바다를 말하다

『한국수산지』는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서 편찬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수산백과사전이다. 제1권은 조선 지리와 수산에 대한 개관을 담고 있다. 1편은 위치, 면적, 구획, 인구, 지세, 하강, 연안, 기상, 해류, 조석, 수온, 수색, 수심과 저질, 해운, 통신 등 15장으로 2편은 수산물 종류, 수산물 양식, 수산 제품, 어채물의 수송과 판매, 제염업, 수산물 수출입, 어구와 어선 등 7장으로 구성되었다.

*교수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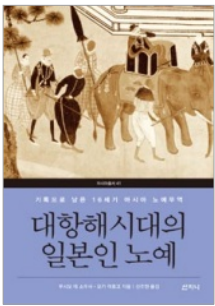
한국수산지 II |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해역인문학 아카이브자료총서 3·4

전2권 | 농상공부 수산국 지음 | 이근우, 서경순 옮김 | 각 45,0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210-5

한국 최초의 근대적 수산 조사서이자 인문 지리지, 115년 전 조선의 바다를 말하다

1910년 발행된 『한국수산지』 제2권은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의 지역별 지리와 주요 어획물을 기록하고 있다. 연안 마을에 대해서는 호구 수 및 어업활동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일본인 어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끊임없이 조선 연안을 침투해 온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115년 전의 한국의 바다에 대한 정보는 오늘날에도 가치가 있다.

*교수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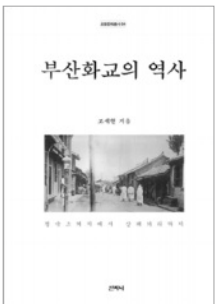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 아시아총서 41

루시오 데 소우사 · 오카 미호코 지음 | 신주현 옮김 | 280쪽 | 20,000원 | 2021년 10월 | 978-89-6545-746-6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대중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일본인 노예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 루시오 데 소우사는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그들의 족적을 쫓는다. 노예가 되어 유럽인에 의해 세례를 받고 타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 역사 속 새로운 마이너리티를 인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겨레/한국일보/
조선일보추천도서



부산화교의 역사 | 로컬문화총서 04

조세현 지음 | 208쪽 | 16,000원 | 2013년 12월 | 978-89-6545-236-2

청국조계지에서 상해거리까지

인천화교 중심이었던 기존 한국화교 연구의 폭을 확장한 책으로, 부산 화교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다.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유럽 무대에서 외교로 조선독립을 알리다

정상천 지음 | 316쪽 | 16,000원 | 2019년 2월 | 978-89-6545-579-0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유럽 외교관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언론인이자 소설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는 무장투쟁만 있지 않았다. 외교로 항일 투쟁하며 조선독립을 알린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는 오랫동안 역사에 묻혀 있었다. 책은 숨겨진 서영해의 삶과 사상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그가 남긴 글로 독립에 대한 열망을 그려본다.

*말레이시아
판권 수출

*MBC 다큐멘터리
<백년만의 귀향-집으로> 방영

*서울도서관
3.1운동 100주년
기념강의도서선정

*부산박물관
서영해특별전 전시

*오스트리아
출판기념회



역사 속에 숨겨진 서영해의 삶을 발굴하다

- 한국과 프랑스에 남아 있는 각종 사료, 유족들의 증언을 종합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서영해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추적한다. **한국일보**
- 외교관이자 언론인, 소설가였던 서영해는 일생을 서방세계에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서울신문**
- 그는 일찌감치 파리에 유학해 뛰어난 식견으로 프랑스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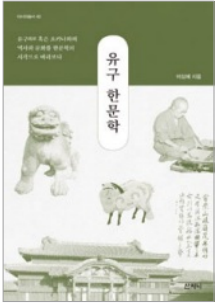
김명시 문힐 뻔한 여성 항일독립영웅

이춘 지음 | 400쪽 | 23,0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185-6

조선독립의 최전선에서 투쟁한 여장군, 김명시의 뜨거웠던 삶을 되살리다

소련과 중국을 넘나들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오랜 시간 역사에 묻혀 있었던 김명시. 이 책은 김명시의 삶과 행적을 정리한다. 김명시가 독립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마산지역의 역사적 배경부터 독립운동과 혁명운동을 펼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저자는 흩어져 있던 김명시에 관한 자료와 기사를 모아 김명시의 생애를 복원했다.

*한겨레/경향신문/
부산일보 추천도서



유구 한문학 아시아총서 43

이성혜 지음 | 376쪽 | 32,000원 | 2022년 4월 | 979-11-6861-028-6

동아시아 한문학에서 소외되었던 오키나와, 유구를 바라보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즉 유구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과 역사학에만 치중되어 있었다. 이 책은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독립국 유구의 한문학 생성과 발전 과정, 특히 조선과 조선 문인과의 교류를 파헤친다. 이러한 시도는 감춰진 중국 한문학 수용 국가를 드러내어 동아시아 한문학의 새 지평을 여는 동시에 한반도의 새로운 상호교류사를 만들어 낸다.

*2022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국제신문 / 연합뉴스
/ 부산일보 추천도서



근대 서구의 충격과 동아시아의 군주제 아시아총서 11

동아시아 5개국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박원용 외 지음 | 384쪽 | 28,000원 | 2014년 10월 | 978-89-6545-267-6

‘군주론’과 ‘군주이미지’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5개국의 역사를 비교한 책. 1부에서는 위기를 맞이한 각각의 군주제를 지탱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비교하였고, 2부에서는 사건이나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각국의 군주제가 어떠한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였는지를 살펴 보았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티베트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를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파악하려 했다.



해양사의 명장면 부경대학교 해역인문학 시민강좌 총서 01

김군기, 박원용, 박화진, 신명호, 이근우, 조세현 지음 | 296쪽 | 22,000원 | 2023년 11월 | 979-11-6861-191-7

세계의 바다를 물들인 여섯 빛깔 해양사

서양 근현대사에서 ‘해적’의 역할부터 조선 시대 ‘조선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 양상까지, 저자 각각의 시선으로 바라본 해양에 대한 다양한 역사와 해석이 담겨 있다.



동북아 바다, 인문학으로 향해하다

부경대학교 해역인문학 시민강좌 총서 02

서광덕 외 지음 | 288쪽 | 20,000원 | 2020년 5월 | 978-89-6545-656-8

동북아해역을 통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다양한 문화

역사적으로 동북아해역에서는 사람과 물자의 역동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책은 근현대 시기 동북아 해역에서 일어난, 지식과 사람 그리고 문화의 교류 양상을 인문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들여다본다.

*시사인 / 현대해양 /
부산일보 / 국제신문
추천도서



바다를 건넌 사람들 I | 부경대학교 해역인문학 시민강좌 총서 03

부경대학교 인문학플러스사업단 지음 | 240쪽 | 20,000원 | 2021년 6월 | 978-89-6545-724-4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바꿔 놓은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과 발전

대항해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 이들로 인해 세계사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 이윤을 위해, 종교전파를 위해, 근대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바다를 건넌 상인, 선교사, 유학생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로 바다를 통한 문화교류의 다채로운 양상을 발견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부산일보/국제신문
추천도서



바다를 건넌 사람들 II | 부경대학교 해역인문학 시민강좌 총서 04

부경대학교 인문학플러스사업단 지음 | 256쪽 | 20,000원 | 2022년 4월 | 979-11-6861-018-7

바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다

역사적으로 동북아해역에서는 사람과 물자의 역동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책은 우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야 했던 사람들을 다룬 총 10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바다를 횡단한 무법자들'은 해적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는 타의로 떠내려온 난민들, 일본인 노예들의 이야기, 3부는 일제강점기 해양산업에 종사했던 직업인, 즉 선원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부산일보/매일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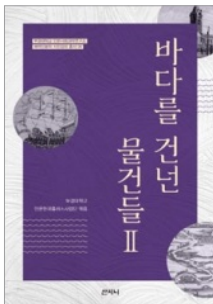
바다를 건넌 물건들 I | 부경대학교 해역인문학 시민강좌 총서 05

부경대학교 인문학플러스사업단 지음 | 240쪽 | 20,000원 | 2022년 12월 | 979-11-6861-127-6

바다를 건너게 만든 욕망, 대륙을 떠난 물건들

사람과 함께 이국의 땅에 도착한 물건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가치를 생성하고 세계와 문화를 바꾸었을까?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위해 파도를 넘은 다양각색의 물건들. 항구에 도착한 이국의 물건과 인간의 욕망이 탄생시킨 찬란한 문화, 비극의 역사. 새로운 문화를 생성했던 수많은 물건들처럼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세계를 새롭게 열 수 있길 기대한다.

*국제신문/부산일보
/교수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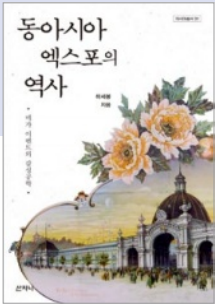
바다를 건넌 물건들 II | 부경대학교 해역인문학 시민강좌 총서 06

부경대학교 인문학플러스사업단 지음 | 224쪽 | 20,0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189-4

박래품(舶來品)이 품고 온 각국의 이야기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 물건들은 어떻게 바다 건너 먼 거리를 이동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을까. 바다를 건넌 물건들은 새로운 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역사와 같은 어두운 이야기도 함께한다. 국경을 넘어온 열 가지 물건들이 전하는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통해 동경과 비극이 뒤섞인 역사를 담았다.

*부산일보/교수신문
추천도서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 메가 이벤트의 감성공학 **아시아총서 31**

동아시아 박람회의 빛과 그림자

하세봉 지음 | 480쪽 | 35,000원 | 2019년 2월 | 978-89-6545-578-3

1851년 런던박람회부터 2012년 여수박람회까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박람회의 변천사를 문명과 과학의 박람회, 오락과 소비주의의 박람회, 이데올로기의 박람회, 환경생태의 박람회 시대로 나눠 다룬다. 이 거대한 이벤트를 통해 시대 상황을 들여다보고 박람회를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를 비춰본다.

***2019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연합뉴스/부산일보
추천도서**

동아시아 엑스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분석

“박람회는 근대성의 거대한 호수였다.”



부채의 운치 **교양으로 읽는 중국 생활 문화 1**

저우위저 지음 | 박승미 옮김 | 288쪽 | 25,000원 | 2006년 5월 | 978-89-956531-7-5

중국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채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부채의 연원부터 시작하여 예술품으로서의 부채, 문학작품 속에 부채가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혼례·장례 등 생활 속에서 부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부채의 모양을 본뜬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요리의 향연 **교양으로 읽는 중국 생활 문화 3**

야오웨이 원 지음 | 김남이 옮김 | 288쪽 | 25,000원 | 2006년 7월 | 978-89-95653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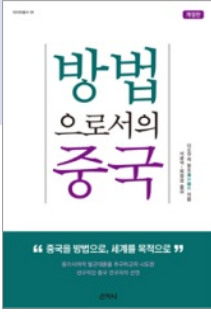
세계 최고 요리왕국이라 일컬어지는 중국의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백성이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국에서 요리의 발전 과정과 음식이 가지는 문화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차의 향기 **교양으로 읽는 중국 생활 문화 2**

리우이링 지음 | 이은미 옮김 | 256쪽 | 25,000원 | 2006년 7월 | 978-89-956531-8-3

하루도 차 없이는 못 사는 민족 중국. 이 책은 중국 차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차에 대하여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인에게 차는 어떤 의미일까, 진정으로 차를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국의 명차, 유명한 차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등의 궁금증을 풍부한 컬러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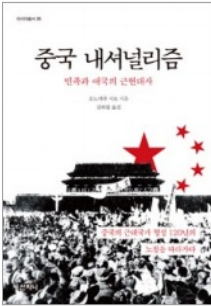
방법으로서의 중국 **아시아총서 18**

중국을 방법으로, 세계를 목적으로

미조구치 유조 지음 | 서광덕, 최정섭 옮김 | 304쪽 | 24,800원 | 2020년 9월 | 978-89-6545-670-4

선구적 사상이 미조구치 유조가 제시하는 중국학의 미래

근대성에 대한 독특한 사유를 전개한 사상이 미조구치 유조의 첫 저서로, 중국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 선진-후진이라는 틀이나 유럽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중국을 방법으로 삼아 세계를 볼 것을 제안한다.



중국 내셔널리즘 **아시아총서 35**

오노데라 시로 지음 | 김하림 옮김 | 312쪽 | 20,000원 | 2020년 2월 | 978-89-6545-645-2

중국의 근대국가 형성 120년의 노정을 따라가다

오늘날 경제 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존재감과 발언력을 보이는 중국.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영토와 주권, 역사 인식, 민족문제 등을 놓고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책은 현재 중국의 행동 양식을 '중국의 내셔널리즘을 역사로부터 읽어'냄으로써 이러한 의문들을 해명하고자 한다.

*문화일보/부산일보 / 연합뉴스 / 매일신문 / 교수신문 추천도서



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 **아시아총서 12**

류영하 지음 | 320쪽 | 24,800원 | 2020년 4월 | 978-89-6545-651-3

홍콩 역사박물관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간인 '박물관'에서 중국이 왜곡하고 있는 홍콩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과연 바람직한 중국-홍콩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홍콩박물관이 말하는 홍콩의 정체성이 홍콩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민족'과 '본토' 모두 특정한 주체에 의해 구현되어 국민국가와 민족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공간으로서 역사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서이다.

*홍콩 판권수출



청말 중국의 대일정책과 일본어 인식 **아시아총서 39**

엔리 지음 | 최정섭 옮김 | 352쪽 | 28,000원 | 2021년 12월 | 978-89-6545-768-8

일본어 인식이라는 새로운 열쇠로 근대 중국의 대일정책을 살펴보다

1860~80년대에 일어난 외교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과의 근대적 관계를 확립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저자 엔리는 '청조 관료의 일본어 인식'을 통해 당시 발생한 국가 간 국제정치적 문제를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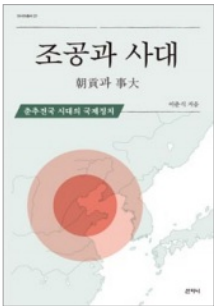
이미지 제국 건륭제의 문화 프로젝트 아시아총서 38

이은상 지음 | 334쪽 | 25,000원 | 2021년 1월 | 978-89-6545-706-0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다민족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건륭제의 시각정치학

건륭제는 정복과 회유의 정책을 적절히 운용한 통치자였다. 시각 이미지는 민족을 회유하고 통치하기 위해 직관적으로 황제의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민족 국가를 다스려야 했던 보편군주 건륭제, 천하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천자로서 건륭제의 고민과 노력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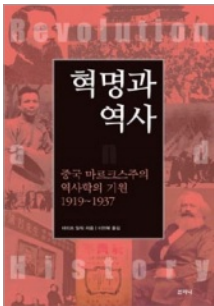
조공과 사대 춘추전국 시대의 국제정치 아시아총서 21

이춘식 지음 | 404쪽 | 28,000원 | 2016년 5월 | 978-89-6545-351-2

시대마다 달랐던 조공과 사대의 실체와 성격

중국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전체 입장에서 고찰하다

조공과 사대를 매개로 한 과거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질서를 살펴보고 G2로 격상된 현대 중국의 세계관과 외교 책략을 짚어본 책이다. 먼저 방읍국의 성읍국가 시대에 조공의 기원을 찾아보고, 은·주 왕조 시대와 춘추전국 시대의 조공 실체와 성격을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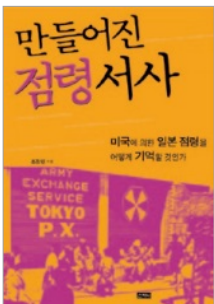
혁명과 역사 중국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기원 1919~1937

아리프 딜릭 지음 | 이현복 옮김 | 336쪽 | 28,000원 | 2016년 2월 | 978-89-6545-325-3

*연합뉴스추천도서

마르크스주의, 중국의 역사관에 혁명을 일으키다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소개된 이후 중국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유교적 역사관을 넘어 사회 자체에서 발전의 동력을 찾는 전대미문의 작업에 천착했는지 보여준다. 중국의 공식적 역사관이 조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해석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국 역사학 연구서와 차별화된다.



만들어진 점령 서사

조정민 지음 | 292쪽 | 16,000원 | 2009년 8월 | 978-89-92235-70-9

미국에 의한 일본점령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전후 일본 문학작품에 드러나는 중간자(창부와 통역가)들을 통해 미국에 의한 일본점령의 서사 메커니즘을 밝힌다. '사실'에 가까운, 또는 '진실'된 점령상을 찾기보다는, 하나의 점령상이 탄생되는 프로세스에 주목하는 가운데, 전후 일본문학이 패전 후 연합국(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단독 점령)의 일본 점령을 어떻게 기억하였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인도의 두 어머니, 암소와 갠지스

김경학 · 이광수 지음 | 240쪽 | 13,000원 | 2006년 8월 | 978-89-92235-00-3

암소와 갠지스를 대하는 인도인의 시선

인도인들이 성스러운 대상으로 추앙하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암소’와 ‘갠지스’를 통하여 인도사회를 들여다본다. 현지 조사와 오랜 문헌 연구를 통해 종교적으로 신비로운 사회와 IT 산업의 강국 사이의 극단적 이미지 사이에서 인도의 본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도는 보통 소를 신처럼 지극히 모시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책은 한편으로 인도인들이 소를 얼마나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도사에서 종교와 역사 만들기 아시아총서 32

이광수 지음 | 357쪽 | 25,000원 | 2019년 7월 | 978-89-6545-607-0

신화와 식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역사 만들기

인도의 고대와 중세를 살펴보면 신화와 종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상과 학문 사이에 만들어진 역사를 밝혀내면서 인도사에서 신화와 식민주의, 민족주의, 역사 만들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책은 인도사를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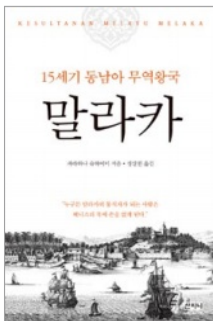
사포의 향수 고대 지중해의 풍요로운 향수 문화사

주세페 스킨라체 지음 | 김정하 옮김 | 228쪽 | 16,000원 | 2021년 6월 | 978-89-6545-709-1

사포에게 향수는 사랑의 흔적, 소크라테스에게는 경멸스러운 사치의 상징

향신료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시인 사포,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사가 테오프라스토스 등의 기록으로 향수 제조술의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향수 제조술의 비밀로 유지되었던 일련의 향료를 소개한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향료와 향수의 세계를 흥미롭게 재구성한다.

*2021 4월 책씨앗
인문교양부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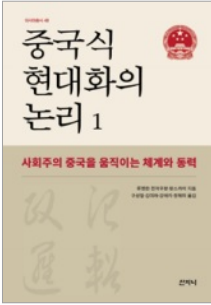
말라카 15세기 동남아 무역왕국

파라하나 슈하미미 지음 | 정상천 옮김 | 256쪽 | 18,000원 | 2020년 11월 | 978-89-6545-681-0

해양 실크로드의 중심지, 말라카의 모든 기록을 담다

15세기 동양 최대의 무역항이자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말라카의 모든 기록을 정리한 역사서. 말라카 해협은 중국이 석유와 무역상품을 수입하는 주요 관문이자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뱃길이다.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말라카 해협의 국가들과 동맹국을 맺으려는 이유다. 말라카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말라카를 모르는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국제신문/연합뉴스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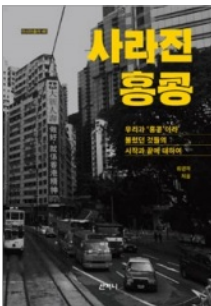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 아시아총서 48

전2권 | 류젠첸, 천저우왕, 왕스카이 지음 | 구성철, 김미래, 강애리, 정혜미 옮김 | 544쪽/472쪽 | 각 38,000원 | 2024년 2월 | 979-11-6861-241-9

*경향신문 / 국민일보 / 국제신문 추천도서

사회주의 중국을 움직이는 체계와 동력

중국은 어떻게 서구와 다른 길을 걸으며 독자적인 활로를 마련할 수 있었는가. 현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식 현대화'란 중국의 발전과 성장의 원인에 대해 중국의 체제가 내놓은 대답이다. 이 책은 그러한 대답이 제시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대답에 내재한 논리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일종의 해설서이다.



사라진 홍콩 아시아총서 46

류영하 지음 | 368쪽 | 25,800원 | 2023년 9월 | 979-11-6861-169-6

*대만 저작권 수출

*조선일보 / 연합뉴스 / 국제신문 추천도서

우리가 '홍콩'이라 불렀던 것들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홍콩 사회와 홍콩인 정체성 형성에 관심을 두고 30여 년간 홍콩을 연구해온 류영하 교수는 1840년 아편전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정리한다. 중국과 홍콩의 정체성은 각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왜 두 정체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 나라 간 갈등의 해법은 있는지 모색해본다.



전후일본의 역사인식

이오키베 가오루 외 지음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소 지음 | 352쪽 | 28,000원 | 2023년 9월 | 979-11-6861-171-9

*조선일보 / 부산일보 / 국제신문 추천도서

한일 간 정치와 외교를 가로지르는 논쟁적 주제, 역사인식 문제를 들여다보다

역사인식 문제는 정치·외교, 경제와 사회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한일 관계와 중일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역사인식 문제를 정치외교사적 관점에서 재검증할 목적으로 쓰였다. 책은 전후 일본이 밝아온 역사인식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동아시아의 역사화해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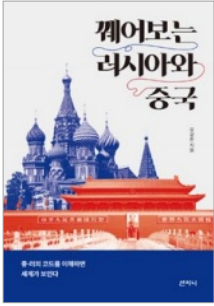
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오오타케 코지 지음 | 윤인로 옮김 | 506쪽 | 35,000원 | 2020년 2월 | 978-89-6545-630-8

*한겨레 / 연합뉴스 추천도서

카를 슈미트 생애 모든 문헌을 비평한 저작

20세기 정치 철학의 거인, 카를 슈미트의 초창기부터 말년까지의 사상을 망라하여 그 좌절과 가능성을 이끌어낸 저작.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에 슈미트는 어떤 모습으로 되살아날 것인가? 우파와 좌파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정치적 담론에서 항상 되살아나는 슈미트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 사상은 국제질서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오타케 코지가 그려내는 새로운 슈미트를 만나본다.



꺾어보는 러시아와 중국

오강돈 지음 | 272쪽 | 20,000원 | 2023년 2월 | 979-11-6861-130-6

중·러의 코드를 이해하면 세계가 보인다

이 책은 기존의 미국과 유럽 위주였던 제일 세계 중심의 시각을 러시아와 중국으로 넓힐 것을 제안한다. 국제관계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러시아와 중국을 비교문화, 지정학 관점으로 설명한다. 1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과 협력을, 2장에서는 두 국가의 음식, 주거, 대중문화를 다룬다. 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의료, 기념일 등 일상을 소개한다. 4장은 교육, 방송, 신분증 등의 국가 체제를 논한다.

*부산일보/민주신문
/한국일보 추천도서



벽이 없는 세계

아이만 라쉬단 왕 지음 | 정상천 옮김 | 304쪽 | 20,000원 | 2020년 7월 | 978-89-6545-662-9

국경 없는 세계에 필요한 지정학 전략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붕괴와 포퓰리즘 부상을 필두로 한 50개의 주요 이슈를 통해 국제 정치 현안을 다룬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국제 정치 현상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지정학의 세 가지 주요 열쇠인 권력, 지정학, 그리고 정체성 등을 오늘날 국제 정치의 주요 현안과 관련시켜 풀어낸다. 말레이시아 외교관이 본 지정학 전략은 한국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다.

*연합뉴스/한국일보
/내일신문 추천도서



지리로 보는 세계정세

아이만 라쉬단 왕 지음 | 정상천 옮김 | 384쪽 | 22,000원 | 2021년 8월 | 978-89-6545-741-1

17만 SNS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지정학자, 제3세계의 눈으로 세계정세를 분석하다

급변하는 현대의 세계정세 흐름을 현실주의와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말레이시아의 외교관이자 지정학자인 저자 아이만 라쉬단 왕은 세상의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 '권력, 지리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변수에 기초한 세 가지 열쇠를 제시한다. 저자의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국가 간의 갈등과 협력의 원인을 사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연합뉴스
/세계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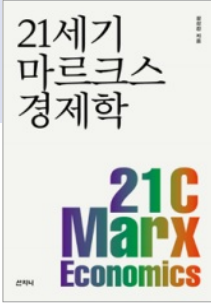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정광민 지음 | 416쪽 | 25,000원 | 2020년 4월 | 978-89-6545-654-4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고 남북이 함께 하는 비전을 찾다

분단시대의 체제경쟁을 상징하는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에 관한 책. 민생개발 경쟁으로 출발한 양자의 경제전은 국방개발 경쟁에 이른다. 이에 저자는 서로를 향한 총력전체제를 국방국가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 경제전이 남한과 북한의 체제와 민생복지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다.



21세기 마르크스 경제학

『자본론』부터 포스트자본주의까지 마르크스로 보는 새로운 21세기의 가능성

정성진 지음 | 310쪽 | 25,000원 | 2020년 2월 | 978-89-6545-644-5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을 어소시에이션 개념을 중심으로 새롭게 살펴보는 책. 포스트자본주의에서의 마르크스론의 대안, 즉 마르크스와 페미니즘의 연대, 환경과 도시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포스트자본주의 참여계획경제 구상 등을 모색한다.

*한겨레 / 중앙일보 / 부산일보 / 연합뉴스 추천도서

21세기 자본주의 모순의 격화 속 '마르크스 경제학'의 필요성을 제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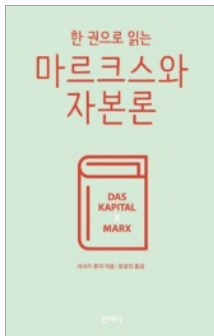
-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소시에이션, 참여계획경제로 생애위기 극복 가능하다고 말하며 마르크스에서 '인류와 지구 위기' 대안을 찾다. _한겨레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 '정치적 타율성'에 대하여

스미다 소이치로 지음 | 정성진, 서성광 옮김 | 448쪽 | 33,000원 | 2024년 5월 | 979-11-6861-297-6

『정치적 타율성』 아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완성하지 못했던 국가 비판을 수행하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론 및 경제적 형태규정에 기초한 폴리틱칼 이코노미 비판이 결여된 채 '정치적 자율성'론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 책은 포스트자본주의, 코뮌리즘으로의 이행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대항', '국가의 어소시에이션으로의 흡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테제를 마르크스의 '폴리틱칼 이코노미 비판' 방법론에 기초하여 논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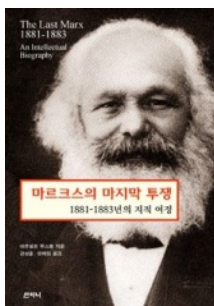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사사키 류지 지음 | 정성진 옮김 | 288쪽 | 18,000원 | 2020년 6월 | 978-89-6545-660-5

마르크스는 여전히, 아직도, 최강의 이론적 무기다

일본의 마르크스 연구를 주도하는 저자가 일본 내 마르크스 연구의 최근 성과들에 기반하여 쓴 마르크스와 『자본론』 해설서. 문학 소년이었던 마르크스가 어떻게 경제학을 연구하게 됐는지를 살피고, 마르크스의 포스트자본주의적 대안을 어소시에이션, 물질대사, 공동체, 젠더 개념을 중심으로 삼아 전개한다. 이 책은 『자본론』 등 마르크스의 여러 저작에 관심을 갖게 하는 가교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 / 한겨레 / 부산일보 / 교수신문 추천도서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마르셀로 무스토 지음 | 강성훈 · 문혜림 옮김 | 236쪽 | 20,000원 | 2018년 5월 | 978-89-6545-517-2

1881년부터 마르크스가 죽음에 이르는 1883년까지 마르크스 노년기의 삶과 사상을 주목했다. 엥겔스와 가족,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마르크스, 인간적인 마르크스 등 마르크스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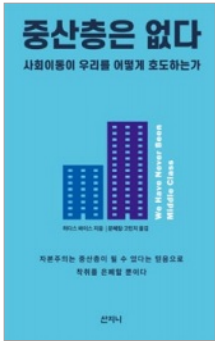
뉴턴과 마르크스 문과 이과의 융합을 위한 제언

도이 히데오 지음 | 이득재 옮김 | 232쪽 | 20,000원 | 2024년 2월 | 979-11-6861-235-8

문이과 구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다

우리나라에선 고등학교에서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졌지만 각 대학이 문이과 선택 과목을 지정하면서 문이과 통합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문과와 이과의 진정한 융합은 불가능한 것일까. 저자 도이 히데오는 문학과 역사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문과인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난독증 증상을 보이며 혼란을 느낀다. 이후 뉴턴과 마르크스를 만나고 경제학을 전공하며 문과와 이과의 분리가 상당히 인위적이었던 사실을 깨닫는다. 저자가 말하는 하나 된 학문은 무엇일까.

*2024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청소년 교양도서
*교수신문/
경향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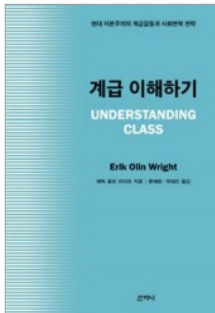
중산층은 없다 사회이동이 우리를 어떻게 호도하는가

하다스 바이스 지음 | 문혜림 · 고민지 옮김 | 272쪽 | 20,000원 | 2021년 5월 | 978-89-6545-721-3

우리는 결코 중산층이었던 적이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과감하게 풀어내는 책. 저자는 우리는 결코 중산층이었던 적이 없고,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만 존재한다고 과감하게 말한다. 그 이데올로기 핵심은 바로 '투자'다. 저자는 모호한 중산층 범위와 중산층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사유재산 제도, 인적 자본 투자, 변화한 정치적 특성과 가치에 대해 상세히 규명한다.

*연합뉴스/부산일보
추천도서
*2021 7월 책씨앗
인문교양부분
추천도서



계급 이해하기 현대 자본주의의 계급갈등과 사회변혁 전략

에릭 올린 라이트 지음 | 문혜림 · 박태진 옮김 | 412쪽 | 28,000원 | 2017년 1월 | 978-89-6545-400-7

세계적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가 제안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에 대한 진지한 토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을 분석하는 통합적 분석 틀과 사회변혁 전략을 제시한 책. 계급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접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비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불평등 이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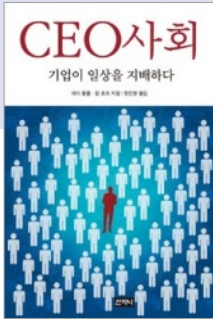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후지타 히사카즈 지음 | 박배근 옮김 | 264쪽 | 18,000원 | 2017년 4월 | 978-89-6545-412-0

전쟁법과 전쟁범죄에 대한 단 하나의 교양서

전쟁법과 전쟁범죄에 대한 교양서로서 다소 어려운 법적 문제를 역사적 흐름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균형 있게 소개한다. '전쟁법'의 성립 문제에 서부터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쟁범죄관, 전쟁범죄인들의 심판과 처벌, 전쟁 피해 배상 등을 다루며 전쟁범죄에 대한 독자들의 기본적 이해를 돕는다.

*2017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도서



CEO사회 기업이 일상을 지배하다

회사 문턱을 넘어 삶을 지배하는 CEO사회를 낚날이 파헤치다

피터 블룸·칼 로즈 지음 | 장진영 옮김 | 304쪽 | 18,000원 | 2019년 2월 | 978-89-6545-580-6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회의실에서 졸던 사람으로만 여겨지던 CEO는 어떻게 현대사회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CEO에 열광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 책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랑 등 우리 삶 곳곳에 CEO가 미치는 영향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한겨레/연합뉴스/서울신문 추천도서

도널드 트럼프,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그들은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신이 되었나?

- 그동안 별생각 없이 CEO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특히 시장 경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당연시해온 사람들, 나아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방향타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진지한 의구심을 품는 이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강수돌(고려대 교수, 『깜깜지 사회』『중독의 시대』 저자)**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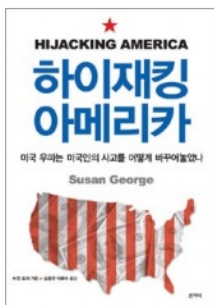
스티브 크로셔 지음 | 문혜림 옮김 | 184쪽 | 19,800원 | 2017년 7월 | 978-89-6545-429-8

변화를 원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창의적인 저항방식

미국, 유럽, 중동, 중국까지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시위 현장 모습을 일곱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한다. 특히 각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담은 79개의 사진은 독자들이 짝막한 글만으로는 그려보기 힘든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행동'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시사인**
- 인간적이며 지적인 비폭력 시위가 승리한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일보**

*한국일보/연합뉴스/시사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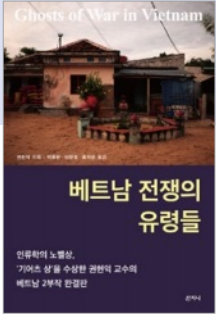


하이재킹 아메리카

수전 조지 지음 | 김용규·이효석 옮김 | 356쪽 | 18,000원 | 2010년 5월 | 978-89-92235-97-6

미국 우파는 미국인의 사고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미국적 가치와 이상이 단 몇십 년 만에 진창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IMF, WTO, 세계은행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해온 유명한 이론가이자 실천가인 수전 조지의 책.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 즉 미국의 현실정치적 신우파와 종교적 신우파들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왔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전후 베트남, 떠도는 영혼에 대한 대중적 상상과 역사적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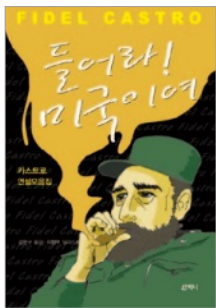
권현익 지음 | 박충환·이창호·홍석준 옮김 | 360쪽 | 25,000원 | 2016년 5월 | 978-89-6545-354-3

*2016제12회
경암학술상인문사회
부문 수상

전쟁 유령과 생존자, 그 생동하는 관계의 문화인류학

인류학의 노벨상, ‘기어츠 상’을 수상한 권현익 교수의 베트남 2부작 완결판. 1980년대 경제개혁 이후 베트남 사회에서 뚜렷한 문화현상으로 부각된 전쟁유령에 관한 기억과 기념행위가 갖는 사회적, 정치경제적, 종교적 함의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 베트남전 전몰 영혼을 내 편 네 편 없이 보듬다. _한국일보
- “우리는 산 자처럼 싸우지 않는다오” 망자의 음성 듣고, 가족이 되는 이들 _경향신문
- ‘유령’ 연구로 다시 읽어낸 베트남, 베트남전 _한겨레
-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사회에 던지는 질문 _교수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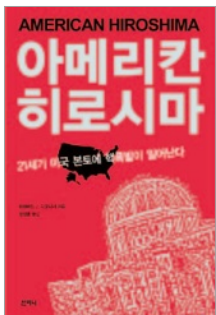


들어라 미국이여 카스트로 연설 모음집

피델 카스트로 지음 | 강문구 옮김 | 320쪽 | 13,000원 | 2007년 3월 | 978-89-92235-09-9

피델 카스트로가 세계를 향해 외쳤던 연설과 대담들

48년 동안 쿠바를 이끌어왔으며,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노혁명가의 절절한 외침이다. 베네수엘라, 파나마, 쿠바, 미국 등에서 행한 연설들로, 2000년 유엔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담, 200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회의에 참가해서 행한 연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메리칸 히로시마 21세기 미국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

데이비드 J. 디오니시 지음 | 정성훈 옮김 | 400쪽 | 15,000원 | 2006년 8월 | 978-89-92235-10-0

2005년 초 미국에서 출간된 후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전직 미 육군정보장교 출신이며, 한국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저자 데이비드 디오니시는 이대로 간다면 21세기 미국 본토에서 핵테러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체르노빌에서 증명된 핵무기의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 대외정책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추락하는 제국 냉전 이후의 미국 외교

워런 코헨 지음 | 김기근 옮김 | 334쪽 | 16,000원 | 2008년 10월 | 978-89-92235-49-5

흔들리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위상

냉전 종식 이후 15년간 미국이 '추락하는 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한 책이다. 외교정책이라는 무거운 주제와 달리 이야기식 서술로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미국 대외관계에 대한 날카롭고 권위 있는 설명을 통해 냉전 종식 이후 15년간의 미국 외교정책을 그 이전 40년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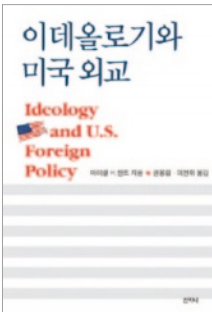


수전 조지의 Another world

수전 조지 지음 | 정성훈 옮김 | 356쪽 | 16,000원 | 2008년 6월 | 978-89-92235-42-6

폭압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실천적 제안서

노엄 촘스키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전 조지의 『Another world is possible if...』를 번역한 책. 더 나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

마이클 H. 헌트 지음 | 권용립 · 이현휘 옮김 | 488쪽 | 20,000원 | 2007년 12월 | 978-89-92235-30-3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는 미국 외교정책의 실체를 분석한 책. 저자는 미국 외교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관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면에서 미국 외교정책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어떤 거대한 '이념의 덩어리'를 먼저 포착하고, 그것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0
시사인 올해의 책



팔루자 리포트

빙 웨스트 지음 | 이종삼 옮김 | 560쪽 | 17,000원 | 2006년 11월 | 978-89-92235-06-2

치열했던 600일, 이라크 팔루자 전투 보고서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제2차 이라크 전쟁. 이 책은 바로 그 전화와 혼란의 구체적인 기록이다. 미군이 베트남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이라크라는 새로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저간의 사정을 밝혀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옮긴이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 본 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부산노동운동사 개항부터 촛불항쟁까지 부산지역 노동자 투쟁 기록

현정길, 윤영삼 지음 | 688쪽 | 48,0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183-2

부산노동자투쟁 100년, 격랑과 격동의 세월을 새기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의 역사를 7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 부산은 바다가 가까운 도시의 특성상 개항 시기부터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계급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책은 개항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부산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을 기록하고 시대별 부산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술하여 그 투쟁의 의의를 살핀다.

*제64회
한국출판문화상
학술부문 올해의 책
*부산일보 추천도서



지역정당

유현식 지음 | 360쪽 | 25,000원 | 2023년 11월 | 979-11-6861-216-7

거대양당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

지역정당은 활동범위를 정당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며 해당 지역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정당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 소속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했다.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부속물 취급하고 지역의 사안을 뒷전에 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 한국일보
/ 부산일보 추천도서



진실과 기억

홍순권 지음 | 336쪽 | 25,000원 | 2023년 12월 | 979-11-6861-223-5

한국 사회 과거사 청산을 위한 20년의 발걸음을 기록하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펴낸 역사 수상집이다. 한국 사회의 많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부마민주항쟁과 민주화 운동’, ‘일제 식민 지배로 인한 동아시아 과거사’에 집중하며 과거사 청산의 큰 흐름을 보게 한다.

*국제신문 / 교수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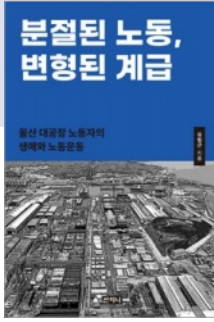
다시 시월 1979

10.16부마항쟁연구소 엮음 | 382쪽 | 18,000원 | 2019년 10월 | 978-89-6545-626-1

10.16 부마항쟁,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새로운 증언과 의미를 담은 책으로 부마민주항쟁과 ‘그날’ 이후 40주년을 기록했다. 부마항쟁을 기억하는 주역들의 인터뷰와 함께 그날을 회고하는 10명의 솔직한 목소리가 담겼다. 부마민주항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과제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2020
한국지역도서전
천인독자상 수상도서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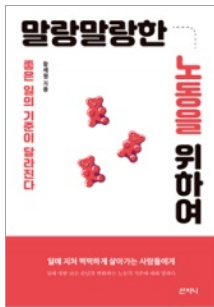
유형근 지음 | 512쪽 | 35,000원 | 2022년 10월 | 979-11-6861-097-2

울산 대공장 노동자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 노동계급의 '변형'과 '분절'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의 대공장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 노동운동을 노동계급 형성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민주화 이후 지난 35년의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이 지나온 행로를 이해하고 오늘날 그들의 집단적 실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철의 노동자'가 분절되는 과정이 단지 상층 노동계급의 이기심의 결과는 아니다. 열악한 노동운동의 유산에서 외환위기 이후 실업의 공포에 대응하는 실용적 전략이기도 했다. **경향신문**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23 ICAS 한국여
우수 학술도서 최우수
선정
*한겨레/경향신문/
국민일보 추천도서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좋은 일의 기준이 달라진다

황세원 지음 | 272쪽 | 16,000원 | 2020년 7월 | 978-89-6545-664-3

일에 지쳐 펑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가진 일에 대한 낡은 관념을 되짚어보고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말한다. 삶과 함께하며 일할 권리, 나쁜 노동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어떠한 고용형태라도 차별받지 않는 구조, 어린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등 일에 대해 활발하게 논한다.

오디오북

*2021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시사인/연합뉴스/
한겨레/국민일보/
서울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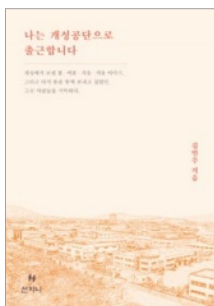
저는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석정연 지음 | 244쪽 | 15,000원 | 2019년 12월 | 978-89-6545-636-0

도서관 노동 현장을 이야기하다

초등학교 도서관의 계약직 사서로 근무한 저자가 6년 동안 경험한 도서관의 노동 현장과 학교와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적은 에세이집. 이 글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조건에서 일하며, 도서관 노동 현장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책나눔위원회
2020년 2월의
추천도서
*연합뉴스/매일경제/
국제신문 추천도서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

김민주 지음 | 222쪽 | 15,000원 | 2019년 12월 | 978-89-6545-635-3

개성에서 보낸 봄·여름·가을·겨울 이야기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6년, 저자가 1년간 개성공단 공장동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며 만난 북한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남북 간에 미묘한 김새가 있을 때마다 그 안에서 있었던 긴장감과 매일 일상을 통해 피어난 우정, 서로에 대한 연민 등이 녹아 있다.

오디오북

*일본 판권 수출
*부산일보/연합뉴스
추천도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

권중호 지음 | 192쪽 | 15,000원 | 2023년 2월 | 979-11-6861-133-7

오디오북

가장 쓸쓸한 죽음 고독사, 우리는 왜 고독사를 막지 못하는가

현직 경찰관인 저자가 수습한 고독사 현장의 참혹함과 저자가 고안한 예방법을 담은 책. 말미에는 저자 인터뷰를 실어 고독사 관련 정책과 현황을 정리했다. 저자는 고독사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을 다니면서 고독사라는 재앙을 알려왔다. 고독사 방지 홍보대사를 자처한 저자와 함께 고독사의 현실을 마주해 보자.

*KBS/오마이뉴스/
중앙일보 추천도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그 죽음들을 기록해 책으로 펴냈다. 곳곳에 그들의 외침이 실려 있다. **_MBC 스트레이트**
- 이 책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고독사 현장과 고독사 예방법을 담았다. 현직 경찰이 고독사 관련 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_경향신문**



아버지의 용접 인생 항만 도시 가오슝 노동자들의 일과 삶 아시아총서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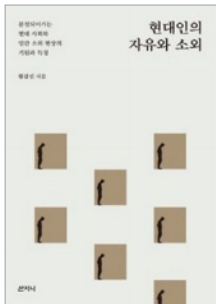
세자신 지음 | 박규환, 한철민 옮김 | 328쪽 | 22,000원 | 2024년 2월 | 979-11-6861-237-2

추레라 제작 숙련공의 삶이 반영하는 타이완 산업의 변천과 사회의 가치

항만 도시 가오슝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추레라(트레이러)를 제작하는 용접공들의 일과 삶을 추적한 책. 사회학자이자 용접공 아버지를 둔 저자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추레라 제작 숙련공들을 인터뷰하고 현장 연구하며 아버지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이완 사회의 변천을 목격한다. 노동, 항구, 가족 등 한국인에게 익숙한 주제 속에서 독자들은 타이완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22
대만문학금전상
최종 후보작

*국제신문 / 동아일보
/경향신문 추천도서



현대인의 자유와 소외

황갑진 지음 | 300쪽 | 20,000원 | 2020년 7월 | 978-89-6545-663-6

분절되어가는 현대 사회와 인간 소외 현상의 기원과 특징

근대 시기 급속한 발전과 함께 자본의 도구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소외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권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방점을 두고 사회 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도민일보/
교수신문 / 세계일보/
부산일보 / 연합뉴스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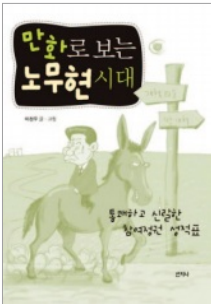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전태일 50주기 공동 출판 프로젝트 너는 나다 7

이창우 글·그림 | 319쪽 | 16,000원 | 2020년 5월 | 978-89-6545-653-7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한국 진보정치사

전태일 사후 대중적 진보 운동의 주요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엮었다. 진보정당의 궤적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와 진보정당이 추구한 정치 목표와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진보의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전한다.



만화로 보는 노무현 시대

이창우 글·그림 | 256쪽 | 10,000원 | 2007년 6월 | 978-89-92235-20-4

이창우 화백의 정치평론 만평집

21세기 벽두 한국사회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는 만평집. 노무현 정부의 임기와 일치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가 망라되어 있다. 이창우 화백은 본질을 꿰뚫는 재치가 넘치는 글과 그림을 제시하며 색다른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박영미 지음 | 226쪽 | 15,000원 | 2018년 2월 | 978-89-6545-486-1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온 30여 년의 활동을 정리하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꾸준히 노력해온 박영미 대표의 현장 활동기. 공장 노동자, IMF 시기 여성 실업자, 한부모, 미혼모 등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해온 저자의 삶이 들어 있다. 그녀는 지역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활동한 결과 호주제 폐지 등 여러 결실을 맺기도 했다.

*2018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사람 속에 함께 걷다

박영미 지음 | 214쪽 | 15,000원 | 2019년 12월 | 978-89-6545-638-4

조금은 낮은 곳에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발로 뛰며 일하다

오랫동안 여성운동, 지역운동, 사회운동을 해온 박영미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두 번째 책. 1부에는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이야기가 에세이로, 2부와 3부에는 다양한 활동 내용이 인터뷰 형식으로 실려 있다.



선택 진보로 부산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현정길 지음 | 244쪽 | 15,000원 | 2018년 3월 | 978-89-6545-490-8

부산의 사회운동가 현정길, 그의 새로운 도전!

현정길은 부산의 시민운동이 20여 년의 역사를 곳곳이 이어왔지만, 여전히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다 논쟁 없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도 그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서 정작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 노조, 줄어드는 일자리, 정치권의 쫓대 없는 일처리는 노동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노기섭과 '함께' 노동, 인권, 시민의 삶을 위하여

노기섭 지음 | 256쪽 | 17,000원 | 2022년 2월 | 979-11-6861-006-4

부산시의원 노기섭이 노동, 인권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

부산시의원 노기섭이 부산의 노동, 인권 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한 책. 저자는 노동존중 부산을 목표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 노동의 현재,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부당해고자, 청소노동자 등을 인터뷰했다. 이 책은 함께 만들어가는 조금 더 나은 사회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진보와 대화하기 따뜻한 진보, 김석준을 만나다

김석준·김외숙·송성준 지음 | 240쪽 | 11,000원 | 2006년 2월 | 978-89-956531-3-2

진보주의 정치인 김석준의 대담집

김외숙 변호사와 송성준 기자가 김석준 교수를 인터뷰한 대담집. 이 책에는 김석준 교수가 어떻게 진보적인 사회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진보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부산의 산업, 경제, 복지, 교통 문제 등에 대하여 어떤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김석준 교수의 생각과 고민이 담겨 있다.



나는 시의회로 출근한다 김영희 의정일기

김영희 지음 | 300쪽 | 15,000원 | 2011년 2월 | 978-89-6545-136-5

부산시의회 5대(2006~2010년) 의원을 지낸 김영희 시의원의 의정일기.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일기라는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공무원과 이해 관계인들의 로비와 압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보정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 그들과 타협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뭔지 적나라한 증언과 고백이 펼쳐진다.



다문화 박사의 '진짜' 다양성 이야기

조형숙 지음 | 224쪽 | 16,000원 | 2022년 2월 | 979-11-6861-004-0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

다문화-이중언어 교육 전공자인 조형숙 저자가 다문화를 배우고 교육하며 얻은 것을 경험으로 녹인 책. 저자는 미국 이민 경험과 전공 공부를 바탕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방식을 조목조목 짚는다. 이 책은 정체성의 인정, 문화 간의 차이 인지 등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해준다.

*국제신문 / 연합뉴스 / 한국강사신문 추천도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NGO의 정책제언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지음 | 이혜진 · 이한숙 옮김 | 256쪽 | 13,800원 | 2007년 5월 | 978-89-92235-17-4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맞은 일본 NGO의 정책 제언. 저자들은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미래를 꿈꾸며 인권과 공생을 위한 법 정비를 촉구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주자의 현실 문제를 검토한 다음, 우리 사회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개선안도 제안하였다.

*200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청소년도서



우리 옆의 약자

이수현 지음 | 304쪽 | 15,000원 | 2006년 3월 | 978-89-956531-4-0

이주노동자, 장애인, 미혼모, 희귀·난치병 환자, 병역거부자, 청소년, 노숙인, 쪽방사람들,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어민들, 성소수자, 독거노인, 탈북 새터민까지 이 땅에서 차별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 소수자들. 저자 이수현은 우리 옆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찾아 현장취재를 하고, 르포 형식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아파트키드 득구 고층아파트 주거 문제

이일곤 지음 | 232쪽 | 13,000원 | 2010년 3월 | 978-89-6545-124-2

아파트 주거의 문제점을 살펴보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주거로 인해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영향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자란 득구, 친구의 성장기를 통해 초고층 아파트 주거의 문제와 내 아이가 겪는 아파트키드 현상이 무엇인지, 이외의 아파트 주거의 문제는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2012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2011 2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절망사회에서 길 찾기

현장 편집부 엮음 | 270쪽 | 12,000원 | 2008년 2월 | 978-89-92235-32-7

현장 16인이 말하는 희망사회로 가는 길

이데올로그들의 논평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낸 무크지. 그 안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비정부 기구 활동가, 학생, 가정주부 등이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모든 소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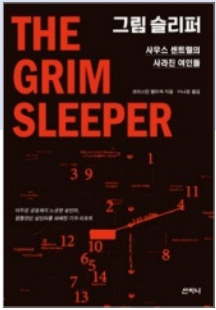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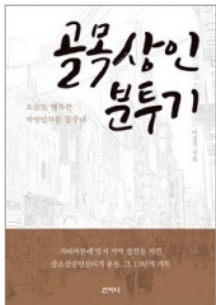
그림 슬리퍼 사우스 센트럴의 사라진 여인들

크리스틴 펠리섹 지음 | 이나경 옮김 | 456쪽 | 18,000원 | 2019년 6월 | 978-89-6545-605-6

어두운 공동체의 느긋한 연쇄살인마, '그림 슬리퍼'를 파헤친 한 기자의 기록

15년 동안 범죄 기자로서 그림 슬리퍼의 수사 과정을 추적해온 크리스틴이 수사관 인터뷰, 유일하게 살아남은 피해자 탐방 기사 및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모아 담아낸 책. 정의로 가는 길고 험난한 길을 생생하고 정확히 포착하여 담아낸,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범죄 르포집이다.

*2019
서울국제도서전
<어름, 첫 책>
선정도서
*조선일보/경향신문
/한국일보 추천도서



골목상인 분투기 오늘도 행복한 자영업자를 꿈꾸다

이정식 지음 | 344쪽 | 16,000원 | 2019년 10월 | 978-89-6545-625-4

13년간의 상인운동 기록을 담다

평범했던 자영업자가 생업까지 뒤로하고 중소기업인을 살리기 위한 단식과 삭발투쟁에 나섰다. 거대자본에 스러져가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외침이 담겨 있는 책이다. 저자의 13년간의 상인운동 기록을 통해 전국에 7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2020 부산시
지역출판문화활성화
지원도서
*동아일보/국제신문
/부산일보/KNN
추천도서



의술은 국경을 넘어

나카무라 테츠 지음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옮김 | 400쪽 | 13,800원 | 2006년 2월 | 978-89-956531-2-4

아시아 변방 오지 마을과 해발 2,800미터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환자와 함께한 17년 희망 스토리. 저자 나카무라 테츠는 의사로서 1984년 페샤와르에 부임해서 활동했지만 처음부터 숭고한 인도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마음씨 착한 산악지대 양치기들에 매료되고, 평화로운 마을이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따름이었다.



도시, 변혁을 꿈꾸다

정달식 지음 | 225쪽 | 15,000원 | 2009년 11월 | 978-89-92235-76-1

도시와 건축, 아파트와 인간의 관계를 묻는다

도시 내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비롯한 건축물 속에서 경계 짓기의 현상들을 하나둘 들춰내면서 대한민국 도시의 문제점들을 날카로운 필치로 해부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도시의 소통'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자연을 찾고, 휴머니즘을 담아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02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싸움의 품격 안건모 인터뷰집

안건모 지음 | 248쪽 | 15,000원 | 2020년 1월 | 978-89-98079-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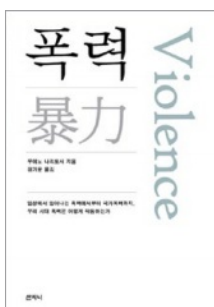
지지 않고 나아가는 10인의 이야기

품격 있게 싸우면서 보람 있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인터뷰집.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치와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아야 할 삶의 도는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걸어온 삶으로 보여준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근사한 싸움을 하는 이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된다.

*2019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선정도서

*한국일보 / 한겨레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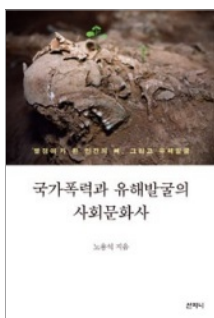
*2020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폭력 우리 시대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에노 나리토시 지음 | 정기문 옮김 | 208쪽 | 17,000원 | 2014년 3월 | 978-89-6545-241-6

아렌트, 슈미트, 벤야민,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등 20세기 전반 독일어권 사상가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폭력의 근원을 다시 물으며, 폭력과 뒤얽힌 근대, 국가, 전쟁, 정치, 이성 등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에 입각해 충실하게 논의를 펼친다.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노용석 지음 | 320쪽 | 25,000원 | 2018년 7월 | 978-89-6545-541-7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피학살자 유해발굴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다

한국전쟁 전후기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전개 과정을 밝히고, 피학살자들의 유해발굴 과정과 그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 책. 저자는 유해발굴의 의미를 단순히 가족의 시신을 발견하는 '좁은 단위'에서 국가와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이야기하는 '넓은 단위'로 확장한다.

*2019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한겨레 / 한국일보 /
세계일보 추천도서



도시는 정치다 도시정치, 도시재생, 도시문화 읽기

윤일성 지음 | 420쪽 | 30,000원 | 2018년 12월 | 978-89-6545-568-4

도시정치의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 재생과 문화를 살펴보는 도시사회학 서적. 토건주의 세력의 이익을 위한 부산시 난개발의 사회정치적 구조와 동학을 밝히고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라는 구체적 사례를 모아 고발한다. 도시 성장과 재생의 밑거름이 되는 도시문화의 단상들을 모아 도시에 대한 공간의 사회학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다.

*시사인 / 연합뉴스 /
서울신문 추천도서



문제는 교육이야!

김석준 지음 | 220쪽 | 12,000원 | 2014년 2월 | 978-89-6545-240-9

교육이 부산의 희망입니다

부산에 대한 깊은 연구를 실천해온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사범대 교수 30년 경력을 살려서 교육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는 결심으로 펴낸 책이다. 우울한 교육현장을 꿈과 자부심과 희망이 꽃피는 곳으로 바꿔내는 길을 찾아보자는 저자의 생각을 담았다.



대학과 청년

류장수 지음 | 240쪽 | 15,000원 | 2019년 5월 | 978-89-6545-598-1

한국 사회의 '대학과 청년'이 처한 위기와 비전을 말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장수 교수와의 대담과 그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정리하며, 우리의 대학과 청년들이 처한 위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대학과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연합뉴스/국제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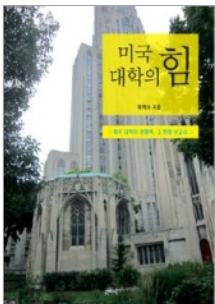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09-2014-2019

정진상 지음 | 224쪽 | 20,000원 | 2020년 4월 | 978-89-6545-655-1

교사 의식변화 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교육의 방향과 미래

사회정치 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을 조사 분석하고, 설문 결과를 비교 해석하여 한국교육 변화의 흐름을 가늠하게 한 책.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교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는 사람들이다. 교육과 사회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노정하는 방향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학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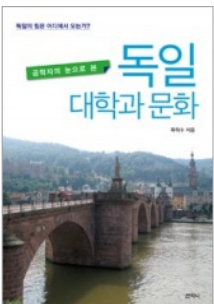
목학수 지음 | 368쪽 | 20,000원 | 2013년 12월 | 978-89-6545-232-4

미국 대학의 경쟁력, 그 현장 보고서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목학수 교수의 미국 대학 견문록. 오하이오 대학교(Ohio University)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미국 대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면밀히 관찰하고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을 비교함으로써 그 너머에 존재하는 두 사회의 같음과 다름까지 탐구한다. 생생한 미국 대학의 현장을 통해 선진 대학의 힘을 고스란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4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2014 한국연구재단
우수저서



공학자의 눈으로 본 독일 대학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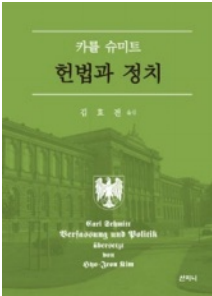
목학수 지음 | 240쪽 | 16,000원 | 2014년 11월 | 978-89-6545-270-6

전작 『미국 대학의 힘』에서 여러 미국 대학을 탐방하며 한국 대학과 사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목학수 산업공학과 교수가 이번에는 독일로 떠났다. 그리하여 유학과 연구년, 출장 등 오랜 시간 보고 느낀 독일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탐문하였다. 독일의 대학과 연구소를 기본으로 예술과 자동차 문화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보고, 저자의 유학 생활기를 함께 실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김효전

1945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빙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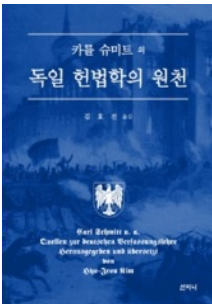
헌법과 정치

카를 슈미트 지음 | 김효전 옮김 | 1,222쪽 | 95,000원 | 2024년 2월 | 979-11-6861-234-1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202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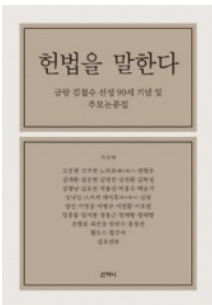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15인 지음 | 김효전 옮김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 978-89-6545-503-5

대한민국 헌법 제정 만 70년,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6명의 독일 법학자들의 논문 31편을 실었다.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 전문 연구자인 김효전 교수가 50여 년간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2018목촌법률상
수상도서
*2018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헌법을 말한다 금강 김철수 선생 90세 기념 및 추모논문집

김효전 엮음 | 1008쪽 | 90,000원 | 2023년 7월 | 979-11-6861-160-3

한국 헌법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금강 김철수 선생을 추모하며

한국의 헌법학을 기초부터 일군 대표적 인물 김철수 선생은 유신시대, 민주화를 위해 불의에 맞서 유신정권을 비판했고, 한국 헌법재판의 초석을 다지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도록 도왔다. 김철수 선생과 오랜 시간 각별한 인연을 맺은 학자와 제자들이 선생의 90세를 축하하며 기고한 논문과 추모글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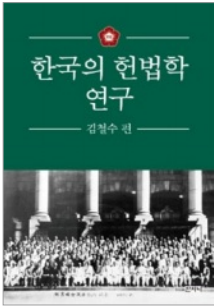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헤르만 헬러 지음 | 김효전 옮김 | 996쪽 | 70,000원 | 2016년 12월 | 978-89-6545-392-5

*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9년, 제정 100주년이 되는 바이마르 헌법과 그 정치사상을 논한 책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직후인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한 1933년까지 존속하였다. 당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

김철수 엮음 | 842쪽 | 50,000원 | 2019년 7월 | 978-89-6545-611-7

*202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학술원통신〉
추천도서
*한겨레/연합뉴스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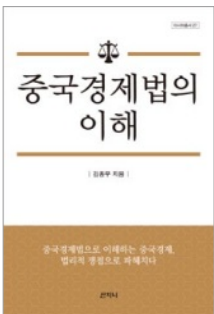
인간의 권리 인권사상·국내인권법·국제인권법

김철수 지음 | 1028쪽 | 90,000원 | 2021년 2월 | 978-89-6545-710-7

*202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기본권의 중요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의 인권 사상을 살펴본다. 또한 헌법발전사를 비교적 고찰하고 현대 각국 헌법상의 기본권 해석과 실천에 대해 검토한다. 외국의 기본권 이론과 적용 현황을 상론함으로써 한국 헌법이 고립된 것이 아니고 세계화 조류 속에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중국경제법의 이해 아시아총서 27

김중우 지음 | 554쪽 | 35,000원 | 2018년 6월 | 978-89-6545-535-6

중국경제법으로 이해하는 중국경제, 법리적 쟁점으로 파헤치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한다. 중국 경제법은 중국 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변화를 알기 힘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활동을 함께해야 한다면, 법리적 쟁점으로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이 책이 꼭 필요하다.



부산언론사 연구 로컬문화총서 03

시대별·매체별로 바라본 부산 언론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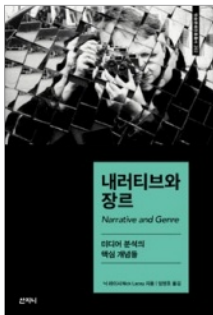
채백 지음 | 608쪽 | 38,000원 | 2012년 8월 | 978-89-6545-183-9

부산 언론의 역사를 한 권으로 정리하여 발간한 연구서. 개항 직후부터 최근까지 130년에 걸친 부산 언론의 역사 중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시간적 순서대로 고찰하였다.

*201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2013 한국언론학회
학술상

현실이 된 부산 언론의 위기, 답은 역사 안에 있다

- 6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19세기 말 개항 직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130년 동안 부산 지역 언론이 변화 발전해온 과정을 통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 언론사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가 각종 문헌과 신문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부산 언론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_연합뉴스
- 1960년대 초반에는 일본 TV 붐이 일어 서울의 부유층이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TV 시청이 가능한 부산에 셋방을 구하러 오는 등 언론과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 곳이 부산이기도 하다. 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풍부한 문헌과 사진들을 제시하며 보여 주고 있다. _부산일보



내러티브와 장르 미디어 분석의 핵심 개념들

닉 레이시 지음 | 임영호 옮김 | 464쪽 | 25,000원 | 2020년 2월 | 978-89-6545-642-1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내러티브를 들여다보다

내러티브의 이론부터 실제까지 미디어의 핵심을 파헤치는 개론서. 인간과 함께해온 이야기 분석의 핵심이 되는 언어, 내러티브와 장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달 관행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한다. 주요 내러티브 이론가들의 이론을 다루고, 장르 기본 구조와 규칙,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통해 각 장르의 레퍼토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방송문화진흥회
저술지원도서
*조선일보 추천도서



SNS시대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남기

김주완 지음 | 302쪽 | 15,000원 | 2012년 12월 | 978-89-6545-206-5

뉴미디어 시대, SNS 도구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다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남는 방법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저자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사례 보고서이다. 신문이 위기 상황이지만 SNS 도구의 활용을 통해 지역신문이라는 매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약속과 예측 연결성과 인문의 미래 **젠더·어펙트 총서 01**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지음 | 528쪽 | 30,000원 | 2020년 12월 | 978-89-6545-690-2

정동 이론을 젠더 연구와 연결시키고, 이를 젠더·어펙트 연구로서 제시하다

물질과 담론, 자연과 문화, 주체와 객체 등 근대적 이원론으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 보이는 정동적 분석을 담은 열두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외부에서 수입된 이론이 아니라 자생적 연구를 통해 ‘젠더·어펙트’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정초하고자 하며, ‘연결성’을 탐색하는 다채로운 시선과 함께 ‘정동적 전회’ 이후 ‘인문의 미래’를 약속한다.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연결 (불)가능한 신체의 역사 **젠더·어펙트 총서 02**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지음 | 584쪽 | 32,000원 | 2022년 4월 | 979-11-6861-027-9

연결성과 연결 불가능성 신체의 사유에 대한 비교역사적 접근

연결성과 연결 불가능성의 신체에 대한 사유가 주체 인식,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인간과 다른 종의 관계 설정 등에 미친 영향을 비교역사적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존재론적 차이와 구조적 차별 사이에 놓인 신체에 대한 사유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크게 생명정치, 근대 사속 신체 교육, 문화 콘텐츠 속 연결성, 가정 안의 연결 신체를 다룬다.

*뉴시스 / 베리타스
알파 추천도서



몸들의 유니버스 너머 **젠더·어펙트 총서 03**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지음 | 548쪽 | 35,000원 | 2023년 5월 | 979-11-6861-143-6

‘몸들의 유니버스 너머’에는 끊임없이 마주치고 부대끼며 변신하는 몸들이 있다

몸들과 마찬가지로 정동 연구 역시 유니버스라는 단일한 세계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몸 둘 바’로부터 다양하게 발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독자들의 ‘몸 둘 바’에 닿아 뒤엎히면서 이상블라주를 이룰 것이다. 그 이상블라주에서 흐르는 정동이 독자들을 새로운 ‘되기’의 영역으로 밀어 올리기를 희망한다.

*경향신문 / 부산일보
/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연결신체학을 향하여 정동적 존재론과 정의 **젠더·어펙트 총서 04**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지음 | 568쪽 | 38,000원 | 2024년 4월 | 979-11-6861-294-5

시간과 공간의 규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실천,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연결신체학’

연결성을 재구축하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위에서 벌어지는 실천 사례들과 ‘연결신체학’을 규정하는 새로운 지식을 제안하는 12편의 결과물이 수록되었다. 기존 분과학문을 갱신하며 새로운 분과학문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을 충실하게 담아냈다. 각각의 글은 학문적 경계와 위계를 뛰어넘으며 연결되고, 새로운 실천의 대안을 제시한다.

*교수신문 추천도서



침묵의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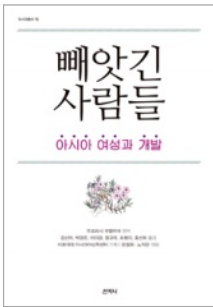
인도-파키스탄 분단으로부터 듣는 여러 목소리

우르와쉬 부말리아 지음 | 이광수 옮김 | 464쪽 | 28,000원 | 2021년 4월 | 978-89-6545-715-2

인도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우르와쉬 부말리아가

10년 동안 70명의 희생자를 인터뷰하고 기록한 피지배자들의 역사

인도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자 비주류 역사가인 우르와쉬 부말리아는 인도-파키스탄 분단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작은 개인들이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통해 피지배자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유테인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폭력이 난무했지만 그 실체는 철저하게 은폐되고 새로운 독립국 인도의 탄생이라는 지배자의 역사만이 기술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는 10년 동안 희생자 70여 명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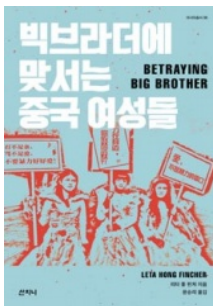


빼앗긴 사람들 아시아 여성과 개발 아시아총서 15

우르와쉬 부말리아 편저 | 507쪽 | 30,000원 | 2015년 7월 | 978-89-6545-294-2

아시아 개발 이후를 연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담은 책이다. 특히 자원 수탈,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 정체성과 역사 말살, 지식과 생명체의 약탈, 상품화, 여성의 착취와 억압 등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도의 여성운동가로서, 아레나(ARENA)의 젠더 프로젝트에 관여해온 저자는 아시아 각국의 여성과 아이들이 개발 한가운데서 어떻게 권리를 빼앗기고 희생당하는지 통계를 통해 자세히 드러낸다.

*한겨레 추천도서



빅브라더에 맞서는 중국 여성들 아시아총서 36

레타 홍 편저 지음 | 윤승리 옮김 | 332쪽 | 20,000원 | 2020년 4월 | 978-89-6545-650-6

감시와 검열이 만연한 중국 사회에서 권력에 맞서 연대했던 여성들을 기록하다

사회운동에 관한 통제가 극심한 중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은 과연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을까? 2015년, 시진핑 정부는 페미니스트 활동가 다섯 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잡아 가뒀다. 책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 레타 홍 편저는 이들을 심층 인터뷰하며 중국 내 페미니즘 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한다.

*뉴욕타임스 / 워싱턴 포스트 추천도서

*한겨레 / 한국일보 / 서울신문 추천도서



완월동 여자들 살아남아 사람을 살리는 여성 연대의 기록

정경숙 지음 | 256쪽 | 16,000원 | 2020년 8월 | 978-89-6545-668-1

언니들을 만나, 언니들을 살리다

최초의 '공창'이자 최대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부산 완월동의 폐쇄로 성매매 집결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완월동 폐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문제다. 이들이 보장 받고 회복해야 할 권리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들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활동가들이다. 성매매 여성들과 끝까지 이들의 곁을 지킨 활동가들의 18년 동안의 기록을 담았다.

오디오풀

*일본 판권 수출

*세계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추천도서



소녀 취향 성장기 나를 성장시킨 여자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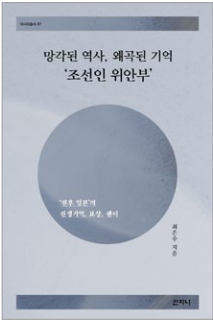
이주라 지음 | 232쪽 | 18,800원 | 2024년 2월 | 979-11-6861-239-6

소녀 서사에서 로맨스를 거쳐 소수자의 이야기로, 눈과 귀를 통해 들어와 나를 채운 그 세계에 관하여

이 책은 이른바 ‘소녀 취향’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서사를 분석하고 그 서사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을 섬세한 시선으로 짚어낸 대중문화 비평서이다. 작품들에서 소녀는 성장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여성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여성들은 마침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조우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사유한다.

오디오북

*여성신문 / 국제신문 /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망각된 역사, 왜곡된 기억 '조선인 위안부' 아시아총서 37

최은수 지음 | 288쪽 | 25,000원 | 2020년 10월 | 978-89-6545-676-6

'전후 일본' 대중문화의 장에서 기억되고, 표상되어 온 '일본군 위안부'를 읽다

패전 이후 일본사회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어떤 식으로 표상되어 왔으며 그 속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근래에 일본에서 보이는 '위안부'=자발적 성매매 여성설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한다. 저자는 '위안부' 문제를 편협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남성주체 중심의 담론의 틀을 부수고 여성폭력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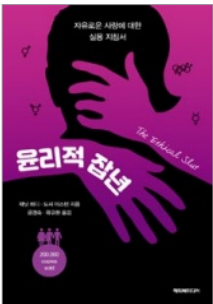
*교수신문 / 독서신문 / 한겨레추천도서



폴리아모리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

후카미기쿠에 지음 | 박규환·진효아 옮김 | 235쪽 | 15,000원 | 2018년 3월 | 978-89-98079-27-7

폴리아모리의 개념과 실제로 폴리아모리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소개하여 쉽고 정확하게 다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폴리아모리 입문서'이다. 일본의 사회인류학 전공자 후카미 기쿠에가 미국에서 만난 폴리아모리리스트들은 어떤 모습일까? 생생한 현장조사 에세이를 통해 폴리아모리의 실체로 다가간다.



윤리적 잡년

재닛 하디·도세 이스턴 지음 | 금경숙·박규환 옮김 | 446쪽 | 20,000원 | 2020년 5월 | 978-89-98079-33-8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실용 지침서

화제의 스테디셀러. 사랑과 성에 대한 열린 관계를 탐구하며 전통적인 일부일처제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고 윤리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자기 성찰과 솔직한 의사소통에서부터 안전한 섹스를 실천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이고 책임감 있는 다원적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룬다.

*작은책 / 한겨레 / 한국일보 추천도서



먹는물이 위험하다 과불화화합물을 쫓는 집념의 르포

모로나가 유지 지음 | 정나래 옮김 | 318쪽 | 25,000원 | 2024년 2월 | 979-11-6861-225-9

영원한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 오염 사태로 드러난 시대와 사회의 병폐

아사히신문의 기자인 저자는 도쿄의 수도물이 발암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품고 조사를 시작한다. 정부의 부실한 대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한 정부기관의 거짓말, 미군과의 불평등한 협정에 따른 환경 피해, 가려져 있던 오염 등 숨겨져 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난다. 저자가 밝혀낸 것은 물오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위기의 심층이기도 했다.

*동아일보 / 뉴시스 추천도서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홍석환 지음 | 288쪽 | 20,000원 | 2021년 6월 | 978-89-6545-731-2

환경복지와 불평등,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홍석환 저자가 환경·생태문제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환경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환경정책 문제, 이를테면 에너지정책이나 산림정책 등을 지적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짚는다.

*경향신문 / 서울신문 / 시사인 추천도서

*월간작은책 / 환경과조경 추천도서



맥시멀 라이프가 싫어서

신귀선 지음 | 252쪽 | 16,000원 | 2021년 4월 | 978-89-6545-716-9

90년생 주부, 미니멀리스트가 되다

90년생 주부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 미니멀리스트가 되어가는 과정,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책. 맥시멀리스트였던 저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과 함께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여 겪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미니멀 라이프와 제로 웨이스트의 실천 팁을 전한다.

오디오북

*동아일보 / 북DB 추천도서



습지와 인간 인문과 역사로 습지를 들여다보다

김현우 지음 | 288쪽 | 15,000원 | 2008년 10월 | 978-89-92235-48-8

인간이 살아 숨 쉬게 만드는 허파 구실을 하면서 역사적으로는 사람살이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습지. 이러한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인문과 역사를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 습지를 들여다보는 책이다. 우포늪(소벌), 주남저수지 등 여러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인 갯벌들을 둘러본다.

*2008환경부 우수환경도서

*20104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2°C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

생태 근대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다

김옥현 지음 | 272쪽 | 20,000원 | 2018년 11월 | 978-89-6545-564-6

*인사이트 추천도서

모호했던 기후변화 대응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졌다

지구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1도 이상 올라간다면 엄청난 생태위기가 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일까. 저자는 '왜 2도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2도 목표가 가지는 의미와 2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차원적인 제약 요인을 상세히 설명한다.

- '왜 2도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2도 목표가 가지는 의미와 2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차원적인 제약 요인까지 상세히 설명한다. [인사이트](#)



기후변화와 신사회계약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하여

김옥현 지음 | 292쪽 | 20,000원 | 2015년 8월 | 978-89-6545-314-7

*2015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자연, 인간, 사회가 모두 얽혀 복합적이면서 글로벌한 성격을 띠는 기후변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관점이 필수이다. 자연과학·사회과학적 관점이 고루 담긴 이 책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전달한다. 사회발전론을 연구해 온 저자 김옥현 교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함께 전 지구적인 사회계약을 통한 변화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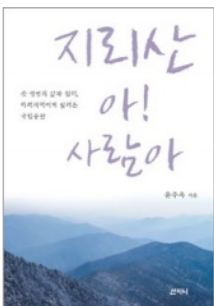


한반도 환경대재앙 산샤담

진재운 지음 | 288쪽 | 15,000원 | 2007년 4월 | 978-89-92235-16-7

*2008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담이 그 규모만큼이나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책은 산샤 협곡의 역사적, 문화적, 자연생태적 가치를 설명하고, 산샤담이 들어서면서 생겨난 산사태, 지진 등 환경재해, 기상변화, 수물민의 문제, 환경·생태적 피해와 산샤담이 산샤 주변 지역뿐 아니라 동중국해를 시작으로 황해 전체에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지리산 아! 사람아

윤주옥 지음 | 260쪽 | 15,000원 | 2017년 10월 | 978-89-6545-443-4

뭇 생명의 삶과 쉼터, 지리산국립공원 보고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윤주옥 실행위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리한 국립공원에 대한 보고서이자 연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리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애뜻함과 개발에 신음하는 국립공원을 향한 분투를 담백한 문체로 드러낸다. 그리고 국립공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과 함께 자신을 가꾸는 아름다운 삶을 소개한다.



귀농, 참 좋다 행복을 찾아가는 15인의 귀농열전

장병윤 지음 | 292쪽 | 15,000원 | 2015년 11월 | 978-89-6545-322-2

15인 귀농인들이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은 책이다. ‘귀농’의 범주를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짓지 않고 농사공동체에 기여하는 여러 유형의 귀농 사례를 한데 모아 엮었다. 비록 많이 벌지 못해도 욕망과 소비를 줄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귀농인들의 삶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배제되는 ‘식량’의 소중함과 ‘행복’ 등 도시생활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정신적 가치를 다시금 환기한다.



폐교, 문화로 열린다 문화 공간으로 살아난 전국 폐교 답사기

백현충 지음 | 304쪽 | 20,000원 | 2015년 5월 | 978-89-6545-299-7

달린 공간이자 사라짐의 공간인 폐교가 상상력과 소통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 현황을 보여준다. 창작, 전시,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 교육, 휴식 등의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폐교들을 저자는 지자체의 지원, 운영자의 기획능력, 공간 활용의 다양성 등 다각도로 바라보며 분석하고 있다.



촌놈 되기 신진 시인의 30년 귀촌 생활 비록

신진 지음 | 254쪽 | 15,000원 | 2017년 9월 | 978-89-98079-22-2

왜 촌놈 되기인가? 촌놈 되기=사람 되기의 길!

신진 시인의 30년 귀촌 생활 비록. 도시생활의 뻘뻘함과 여유 없음. 무언가 탈출구는 필요한데, 앞은 캄캄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말한다. 삶은 단순치도 않지만 복잡하지도 않다. 시골생활의 꿈, 이모저모 고민으로 머리 복잡한 사람들에게 판단의 나침반 역할을 할 신진 시인의 시골생활 비법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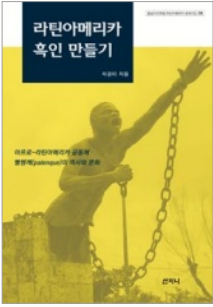


숲에서 행복한 아이들

최현숙 지음 | 224쪽 | 16,000원 | 2014년 7월 | 978-89-98079-04-8

살아 있는 교육, 숲 유치원

숲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숲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다룬 책. 숲교육의 중점적인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더불어 사계절의 순리대로 아이들과 경험한 체험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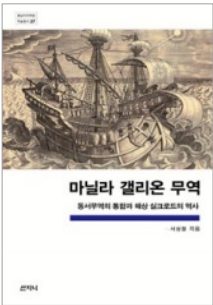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흑인 만들기 라틴아메리카 문화지도 05

아프로-라틴아메리카 공동체 빨랭게의 역사와 문화

차경미 지음 | 210쪽 | 17,000원 | 2017년 6월 | 978-89-6545-428-1

17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빨랭게 데 산 바실리오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아프로-라틴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저항의 역사 그리고 기억의 문화를 재정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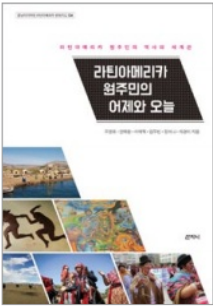


마닐라 갤리온 무역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7

동서무역의 통합과 해상 실크로드의 역사

서성철 지음 | 304쪽 | 25,000원 | 2017년 6월 | 978-89-6545-427-4

세계무역의 격전지였던 마닐라와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해 이어진 태평양 실크로드에 얽힌 역사를 풀어내고 있다. 상업적 교류와 다양한 문물 및 인적 교류까지 이루어졌던 태평양 실크로드. 그 역사를 재구성하며 과거의 거대했던 세계무역사의 격동을 느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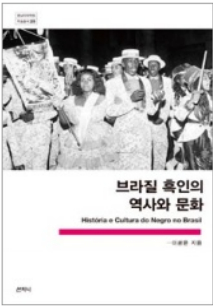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어제와 오늘 라틴아메리카 문화지도 04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와 세계관

구경모 외 지음 | 240쪽 | 17,000원 | 2016년 6월 | 978-89-6545-362-8

라틴아메리카의 아이마라 원주민, 브라질 원주민, 마야 원주민 등 다양한 원주민들의 세계관과 역사를 알아보고 현재 원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원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한 책이다.



브라질 흑인의 역사와 문화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5

이광윤 지음 | 292쪽 | 20,000원 | 2015년 5월 | 978-89-6545-295-9

축구에서 삼바까지, 브라질의 대표 문화에는 모두 흑인의 삶이 담겨 있다. 300년간 지속된 노예제도가 브라질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였으며, 흑인 문화였던 삼바, 카니발 등이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었는지를 다룬다.



여러 겹의 시간을 만나다 라틴아메리카 문화지도 03

부에노스아이레스, 카르타헤나, 카라카스, 그리고 마테차와 마야문명

구경모 지음 | 204쪽 | 17,000원 | 2015년 3월 | 978-89-6545-296-6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에 다가서려면 각 지역의 매력을 알아야 한다. '지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도시와 같은 친숙한 주제를 통해 중남미의 오늘을 구성하는 시공간을 소개한다.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2

노용석 지음 | 224쪽 | 18,000원 | 2014년 5월 | 978-89-6545-252-2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 중미(Central America) 지역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과거청산, 민주주의 복원 과정을 서술하였다. 과거사를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현실로 받아들이는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으며, 과거청산이라는 문제가 현재의 민주주의와 어떤 형식으로 결부되어 있는가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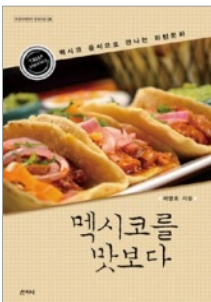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의 언어적 다양성과 언어정책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4

김우성 지음 | 276쪽 | 20,000원 | 2014년 5월 | 978-89-6545-251-5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영어, 네덜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언어상황과 다민족으로 구성된 이들의 문화, 정책 등을 되짚어 보는 책이다. 특히 중남미 각국의 독자적인 언어규범 확립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01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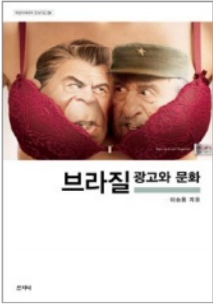


멕시코를 맛보다 라틴아메리카 문화지도 02

최명호 지음 | 320쪽 | 20,000원 | 2014년 5월 | 978-89-6545-253-9

멕시코 음식으로 만나는 라틴문화

멕시코의 대자연이 주는 식재료, 언제나 농담하며 밝게 웃는 사람들, 작렬하는 태양, 갓 짠 주스와 함께하는 멕시코 음식 이야기. 단순한 요리나 맛집 소개에서 벗어나 멕시코 음식에 얽힌 라틴문화와 역사까지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다. 총 4파트로 구성되어, 멕시코 음식 문화부터 코스별, 지역별, 키워드로 보는 멕시코 음식과 문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브라질 광고와 문화 라틴아메리카 문화지도 01

이승용 지음 | 264쪽 | 20,000원 | 2014년 5월 | 978-89-6545-249-2

브라질 광고에 담긴 브라질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저자는 우리와 전혀 달라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브라질 문화를 다양한 광고의 사례로 접근한다. 광고를 대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태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브라질 사람들의 속내까지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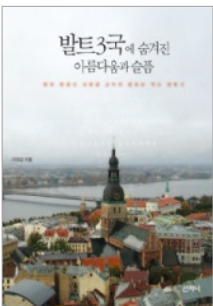
사막의 기적?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3

조경진 지음 | 292쪽 | 20,000원 | 2014년 5월 | 978-89-6545-250-8

칠레 북부 흥망성쇠의 문화와 지역개발신화

칠레 북부 사람들의 개인사와 지방사, 역사를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롭게 풀어낸 책으로 한국 사회 속에 남아 있는 개발신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1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발트3국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슬픔

이상금 지음 | 224쪽 | 15,000원 | 2010년 9월 | 978-89-6545-118-1

발트 전문가 이상금 교수의 문화와 역사 탐방기

발트3국의 문화와 역사 탐방기를 수록한 책이다. 역센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비의 아름다움을 지닌 땅, 발트3국의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2013년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발트3국의 역사·문화·언어 발트3국의 문화와 문학 1

이상금·박영미·윤기현·이현진·허남영 지음 | 184쪽 | 15,000원 | 2011년 3월 | 978-89-6545-131-0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역사, 언어, 정치, 경제, 사회 등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새로운 인식과 이해, 현실적인 반추,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대한 생각을 통해 이들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독일발트문화와 에스토니아문학 **발트3국의 문화와 문학 2**

이상금 지음 | 178쪽 | 15,000원 | 2011년 3월 | 978-89-6545-132-7

다중언어와 민족의식, 질풍노도시기 독일발트문학의 근대성 등을 기술하고, 발트3국 가운데 에스토니아문학의 현대성, 망명시기의 문학과 그 이후의 양상, 그리고 오늘날 발트3국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토니아의 안 크로스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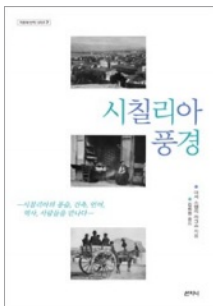


발트3국의 언어와 근대문학 **발트3국의 문화와 문학 3**

이상금 · 서진석 지음 | 296쪽 | 30,000원 | 2017년 3월 | 978-89-6545-405-2

발트3국 언어의 계통과 리투아니아 문학의 기원을 찾아서

미지의 영역 북동유럽의 발트3국에 대한 연구서로, 이 나라들의 언어와 근대문학에 대해 다룬다. 제1권 『발트3국의 역사·문화·언어』, 제2권 『독일발트문화와 에스토니아문학』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 역사 문화적 접근을 통해 발트3국의 언어, 민족과 국민, 문학과 예술, 그리고 환경과 지정학적 위상 등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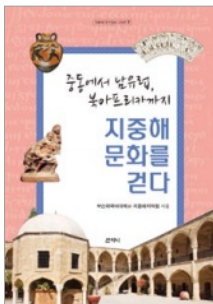


시칠리아 풍경 **지중해 번역 시리즈 7**

아서 스탠리 리그스 지음 | 김희정 옮김 | 264쪽 | 18,000원 | 2015년 6월 | 978-89-6545-304-8

시칠리아의 풍습, 건축, 언어, 역사, 사람들을 만나다

백여 년 전 미국의 역사학자 아서 스탠리 리그스가 시칠리아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의 수도 팔레르모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 마르코 폴로 선박으로 섬을 떠나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된다.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서사는 과거와 현재를 중첩하며 독자들을 시칠리아로 안내한다.



지중해 문화를 걷다 **지중해 국가정보 시리즈 7**

중동에서 남유럽, 북아프리카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지음 | 242쪽 | 18,000원 | 2015년 6월 | 978-89-6545-305-5

지중해 인접국가의 다종다양한 지리와 역사, 문화를 서로 다른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이 집필하여 총망라한 지역학 교양서. 헬레니즘 문명과 헤브라이즘 전통이 어우러진 그리스·로마 문명에서부터 지중해 여러 문명이 교차하던 시칠리아 섬, 세계 다문화 문명이 꽃피운 르네상스의 발원지 이탈리아, 지중해의 항구 프랑스 마르세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남부 유럽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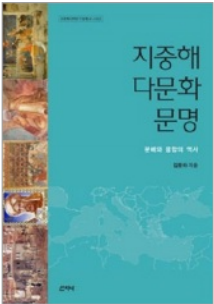


지중해 언어의 만남 지중해지역원 인문총서 시리즈

윤용수 · 최춘식 지음 | 228쪽 | 18,000원 | 2015년 6월 | 978-89-6545-303-1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요르단, 레바논을 중심으로 근대 이후의 정치적·군사적 지배로 인해 유럽어가 아랍어 세계에 확산된 과정을 살핀다.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시행된 각국의 아랍어화 정책을 평하며 민족 정체성과 언어의 미래 또한 비추고 있다.

*2015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지중해 다문화 문명 지중해지역원 인문총서 시리즈

김정하 지음 | 204쪽 | 15,000원 | 2014년 9월 | 978-89-6545-2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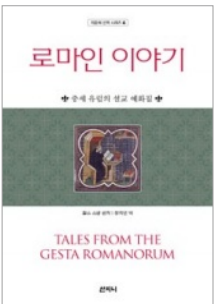
분배와 융합의 역사로 지중해 문명을 살펴본 책.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아랍과 유럽 간 교류를 흥미롭게 다뤘으며, 특히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다시 자국의 문화로 융화되는지, 지적 교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지중해의 영화 지중해 국가정보 시리즈 6

박은지 지음 | 240쪽 | 15,000원 | 2014년 6월 | 978-89-6545-259-1

아랍(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을 아우르는 지중해 지역의 영화를 책 한 권에 모았다. 뤼미에르 형제가 <시오타 역에 도착하는 기차>를 찍기 위해 남프랑스 지중해로 향한 것처럼, 지중해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도구보다도 완벽한 빛을 영화사에 남겼다. 영화의 탄생부터 전개되는 책은 지중해 영화의 역사와 함께, <아멜리에>, <증오>, <코뿔소의 계절>, <천국을 향하여>와 <오마르> 등 지중해 영화의 다양한 면면을 살핀다.



로마인 이야기 중세 유럽의 설교 예화집 지중해 번역 시리즈 6

찰스 스완 편저 | 장지연 옮김 | 224쪽 | 14,000원 | 2014년 6월 | 978-89-6545-258-4

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세 유럽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가치 있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모음집. 동양과 서양의 이야기 전통의 융합, 대중적 이야기의 기독교화 확립, 중세 후기 로맨스와 알레고리 문학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등 유럽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

타이베이를 여행하는 또 다른 방법

왕즈훙 외 9인 지음 | 광규환 외 4인 옮김 | 306쪽 | 20,000원 | 2017년 10월 | 978-89-6545-445-8

타이베이 52곳의 도시사를 따라가는 다크 투어리즘 인문서

이 책에서는 조금 불편한 타이베이 여행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TV에서 보던 화려한 관광지로서의 타이베이는 없다. 대신 국가권력, 자본주의, 이성애주의 등과 같은 주류의 힘에 맞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 잊히고 있는 이야기.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에는 그런 도시의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 화려한 관광지로서의 타이베이 대신 국가권력, 자본주의, 이성애주의 등 주류의 힘에 맞서는 저항의 도시로서 타이베이를 조명한 책 _한겨레
- 용산사 민주강연, 중산북로 포위사건 등 타이완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 일어난 52곳을 도보로 찾도록 안내한다. _경향신문

*2016타이베이 국제도서전 '올해의 책' 선정

*2016대만문화부 번역지원도서



현대 타이베이의 탄생 아시아총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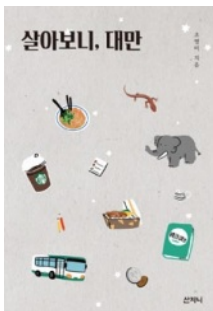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타이베이와 볼 수 있는 타이베이

수취민 지음 | 광규환·남소라·한철민 옮김 | 400쪽 | 25,000원 | 2020년 2월 | 978-89-6545-641-4

타이베이는 언제 제어 가능한 '도시'가 되었는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대만의 타이베이가 고유한 의미의 '장소'에서 현대 도시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담은 도서. 식민지 시대 획일적으로 형성된 타이베이의 건설 과정을 풍부한 지도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자세하게 보여주며, 도시 발전 결과의 명과 암을 공간 비평자의 눈으로 밝힌다.

*2019대만문화부 번역지원도서



살아보니,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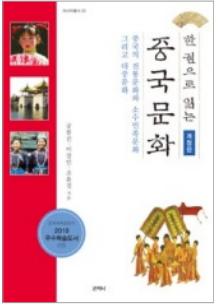
조영미 지음 | 272쪽 | 16,000원 | 2021년 10월 | 978-89-6545-759-6

한국어 선생님의 다사다난 대만살이

한국, 미국, 캐나다, 대만의 여러 대학에서 이십 년 이상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온 조영미 교수의 에세이. 가이드북보다 실속 있고 여행 서보다 현장감 있는 대만상륙기를 담았다. 큰 외로움을 감내하고 일어서기를 연습한 저자의 고뇌가 보인다. 챕터마다 삽입한 '대만살이 팁'에서는 대만과의 교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저자의 뜻을 느낄 수 있다.

*채널에스11월 1주 '이주의신간' 선정도서

*국제신문/뉴스/한국강사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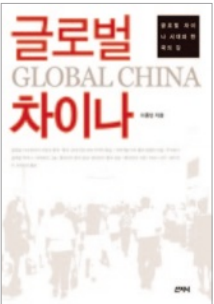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중국문화 아시아총서 23

중국의 전통문화와 소수민족문화 그리고 대중문화

공봉진 · 이강인 · 조윤경 지음 | 264쪽 | 17,000원 | 2016년 5월 | 978-89-6545-352-9

중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는 물론, 소수민족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2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55개의 소수민족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3부는 중국 대중문화를 단순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내용들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정의를 살펴보고 대중문화가 가지는 특징들과 현재 대중문화가 나아가는 방향을 살펴본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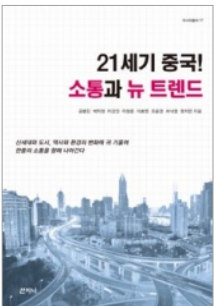


글로벌 차이나

이종민 지음 | 320쪽 | 15,000원 | 2007년 1월 | 978-89-92235-29-7

글로벌 차이나 시대와 한국의 길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반자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오해와 편견의 시각으로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반성하며,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성장을 위해 글로벌 분업시스템 속에서 중국을 사고할 것과 글로벌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중국! 소통과 뉴 트렌드 아시아총서 17

공봉진 외 지음 | 248쪽 | 18,000원 | 2015년 8월 | 978-89-6545-313-0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가치관 변화를 고전과 한류의 인기, '사회주의 생태문명'에 대한 지향에서 읽어내고, '부강한 중국'을 강조하는 제5세대 지도부 하에서 중국이 어떻게 소통과 통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살핀다. 신세대와 도시, 역사와 환경의 변화에 귀 기울여 한·중 소통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찰을 담았다.



차이나 인사이트 현대 중국 경제를 말하다

김동하 외 지음 | 320쪽 | 20,000원 | 2014년 11월 | 978-89-6545-272-0

눈앞에 펼쳐진 13억 시장이라는 망망대해로 나아갈 독자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책이다. 중국의 세대구분과 농촌노동자 문제, 지역개발 정책과 서삼각경제권 물류산업환경, 해외투자동향, 골프관광객, 위생검역규정, 경상계정 불균형, 경제 선형지표 유효성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을 통해 최신 중국 경제를 깊고도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체문화와 스포츠

박원용 지음 | 318쪽 | 25,000원 | 2019년 2월 | 978-89-6545-581-3

스포츠라는 거울을 통해 격동의 러시아 현대사를 들여다보다

‘스포츠’라는 소재를 활용해 1920년대 이후 소련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도서. 저자는 스포츠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살피며, 1920년대와 스탈린 시대, 냉전 시대로 이어지는 러시아사를 들여다본다.

*201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뉴시스/교수신문/
국제신문 추천도서



극동러시아 리포트

전세표·강승아 지음 | 232쪽 | 13,000원 | 2009년 5월 | 978-89-92235-64-8

극동러시아 진출을 위한 현장 보고서

막연히 ‘기회의 땅’으로만 알려진 극동러시아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전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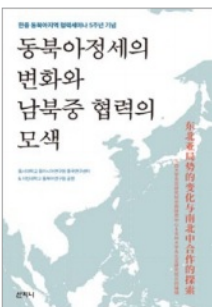


한중 협력의 새로운 모색, 부산-상하이 협력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소, 통지대학교 중국전략연구원 공편 | 304쪽 | 25,000원 | 2020년 12월 | 978-89-6545-682-7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다

2016년 사드배치의 긴장과 얼어붙은 한중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 동아시아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동서대와 통지대 부산-상하이 협력포럼이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중 관계를 분석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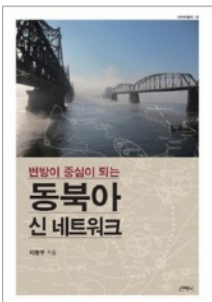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남북중 협력의 모색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소·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공편 | 256쪽 | 25,000원 | 2021년 10월 | 978-89-6545-757-2

동북아정세 속 남북중 3각 협력 방안을 모색하다

미중 전략 경쟁, 남북관계,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유로 국제 정세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소와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이 협력하여,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동북아시아의 대표 국가 남북중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교수신문 추천도서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아시아총서 10

이창주 지음 | 296쪽 | 20,000원 | 2014년 4월 | 978-89-6545-246-1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물류·구조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시한다. 물류는 정치·경제·문화가 교류하는 교량으로, 물류 네트워크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했다.



단절

칭화대 쑤리핑 교수가 진단한 90년대 이후 중국 사회

쑤리핑 지음 | 김창경 옮김 | 400쪽 | 15,000원 | 2007년 8월 | 978-89-92235-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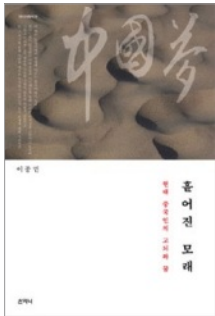
중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쑤리핑 교수의 깊이 있는 분석

성장일로의 중국사회에서 날로 증폭되어가는 양극화 현상 등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경제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한 책으로, 현재 중국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사회의 중심에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오늘의 중국을 바라보는 유의미한 관점을 제공한다.

- 중국사회의 중심에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오늘의 중국을 바라보는 유의미한 관점을 제공한다. _경향신문
- 현재 중국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_부산일보

*2008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0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월의
책



흠어진 미래 현대 중국인의 고뇌와 꿈 아시아총서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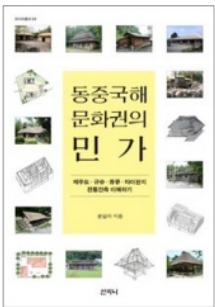
이종민 지음 | 320쪽 | 28,000원 | 2013년 12월 | 978-89-6545-235-5

중국인 담론과 문학작품을 통해 바라본 20세기 초 중국 지식인들의 고뇌

20세기 초 근대 지식인들의 중국인 담론을 들여다보고, 20세기 중국의 모습과 더불어 21세기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문학작품을 사례로 제시한다.

*2014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서울신문 / 경남신문
추천도서



동중국해 문화권의 민가 아시아총서 24

남방문화 건축을 통해 본 동중국해 문화교류

윤일이 지음 | 292쪽 | 25,000원 | 2017년 2월 | 978-89-6545-4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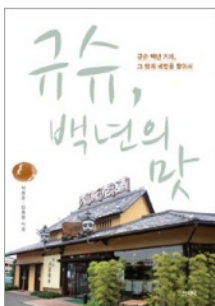
동중국해 문화권인 제주도, 규슈, 류큐(오키나와), 타이완 지역의 해양 민가를 비교 분석해 동중국해 연안·도서지역의 남방문화 건축 특성과 문화교류 흐름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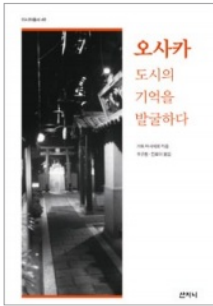
규슈, 백년의 맛

규슈 백년 가게, 그 맛과 비법을 찾아서

박종호·김종열 지음 | 256쪽 | 16,000원 | 2013년 12월 | 978-89-6545-233-1

규슈 지역의 오래된 맛집을 탐방하며 그들의 문화와 영업 노하우, 전통을 잇는 자부심, 그리고 대를 이어 음식을 만들며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에 실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한 가문의 일대기를 생생하게 녹였으며, 가게의 위기와 그 극복과정 또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오사카 도시의 기억을 발굴하다 **아시아총서 40**

가토 마사히로 지음 | 박규환·진효아 옮김 | 256쪽 | 20,000원 | 2021년 8월 | 978-89-6545-739-8

잊혀가는 오사카의 모습을 생생히 되살리다

오사카가 현대 도시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택을 검토하고, 이 선택으로 인해 탈락된 장소들에 대해 서술한 책. 저자는 도시사회지리학적 관점으로 오사카의 선택과 탈락을 엮고 그려낸다.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 오사카의 장소 변천과 관련 인물의 서사가 도시의 숨겨진 풍경을 펼쳐낸다. 새롭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오사카가 독자를 기다린다.



르포, 절망의 일본열도

가마타 사토시 지음 | 김승일 옮김 | 264쪽 | 14,000원 | 2009년 7월 | 978-89-92235-67-9

문어방 사회 일본, 통분의 현장을 가다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사회 현실을 구석구석 파헤쳐 르포 형식으로 담은 책.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르포작가인 가마타 사토시가 일본의 진보적 시사주간지인 <주간금요일>에 연재한 기사를 모은 것으로, 절망적인 일본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20108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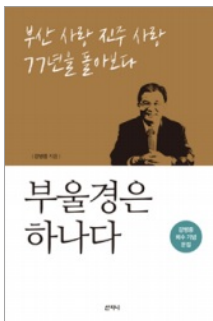


신문화지리지 **로컬문화총서 01**

김은영 외 지음 | 254쪽 | 18,000원 | 2010년 4월 | 978-89-92235-91-4

158개가 넘는 설화가 살아 숨 쉬는 부산, 160곡의 대중가요가 영근 부산, 278점의 문화재와 8곳의 조각공원에 228점의 조각 작품을 가진 부산, 960여 곳의 출판사가 등록된 부산, 288곳의 당산이 산재한 부산의 문화적 콘텐츠를 담았다.

*20111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부울경은 하나다 부산 사랑 진주 사랑 77년을 돌아보다

강병중 지음 | 256쪽 | 15,000원 | 2015년 7월 | 978-89-6545-306-2

부산의 큰 기업인이자 지역의 굼직한 경제 현안을 풀어내며 부산지역 경제계를 이끌어온 넥센(NEXEN)그룹 강병중 회장이 부산·경남의 발전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부산의 오늘을 묻고 내일을 길다 **장지태 칼럼집**

장지태 지음 | 272쪽 | 15,000원 | 2016년 2월 | 978-89-6545-339-0

<부산일보>에서 30여 년간 재직했던 장지태 기자의 칼럼 71편을 엮은 책. 항구도시로서 부산의 해양허브 역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 등 최근까지 이슈가 되었던 부산의 지역현안을 기자의 애정을 담아 되짚는다.



기록을 찍는 사람들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조현준·전민규 지음 | 312쪽 | 25,000원 | 2022년 9월 | 979-11-6861-087-3

인쇄되지 않은 기록, 대구 인쇄골목을 거닐다

이 책에는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과 남산 100년 향수길, 인쇄 전시관의 모습과 함께 대구 인쇄 문화 속에서 살아간 대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 속에서 남산동 인쇄골목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기록한 이 책은 대구 인쇄골목과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첫 번째 인쇄물이다.

*2023
대구 올해의 책

*2023
한국출판평론상
우수상

*2022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인문교육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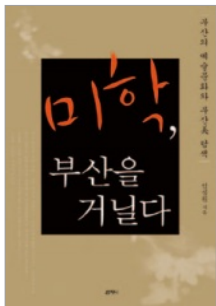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

임성원 지음 | 272쪽 | 20,000원 | 2019년 11월 | 978-89-6545-633-9

지금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에서 로컬미학을 생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로컬의 재발견'이 진행 중이다. 저자는 지방과 지역이 '로컬'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와 '분권'을 제시한다. 또한 로컬을 '지금 여기'로 정의하며, 저자에게 '지금 여기'인 부산과 기장의 미학과, 고향과 삶터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미학, 부산을 거닐다

임성원 지음 | 327쪽 | 15,000원 | 2008년 11월 | 978-89-92235-50-1

부산의 예술문화와 부산美 탐색

2007년 9월부터 1년간 부산에서 펼쳐진 예술문화의 풍경과 절경을 담아낸 책이다. 부산이라는 공간을 거닐며 영화, 미술, 춤, 음악, 문학, 연극, 대안예술 등 부산 예술문화의 풍경을 들여다본다. 가을축제와 가을야구,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요산 김정한 탄생 100주년 문학제 등 예술문화제전 등으로 문화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부산의 예술을 이야기한다.

*2010년 5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맨발동무도서관 엮음 | 160쪽 | 15,000원 | 2013년 11월 | 978-89-98079-02-4

옛 사진과 이야기로 재구성한 대천마을의 기억과 삶

부산시 북구 화명동 대천마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사진과 이야기로 담아낸 사진 자료집이다. 마을의 뿌리를 알리는 역사부터, 마을 어르신과 젊은 새댁에 이르는 동네주민들의 구술자료 등을 통해 마을의 옛집과 신도시 아파트를 오가며 대천마을의 역사를 복원했다. 집집마다 서랍 속에 묻혀 있을 낡은 사진을 꺼내 마을의 과거와 이야기, 풍경과 일상을 기록했다.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부길만 지음 | 144쪽 | 10,000원 | 2017년 2월 | 978-89-6545-401-4

언론학자 부길만의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칼럼

언론학자이자 출판인인 부길만의 칼럼집. 이 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중앙집중화에 따른 부조리와 병폐, 경제의 양극화, 구시대적 교육 패러다임, 언론의 문제 등으로 진단하고 나름의 대책을 제시한다.



감천문화마을 산책 감천, 사람과 문화를 품다

임희숙 지음 | 184쪽 | 13,800원 | 2016년 7월 | 978-89-98079-17-8

인공적 관광지가 아닌 사람이 사는 터전으로서의 감천문화마을을 조명하며, 그 고유한 장소성과 역사적 가치까지 아우르는 인문학적 마을 보고서다. 어떻게 마을이 형성됐는지 그 고난의 시간을 따라가며 오늘날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길 위에서 부산을 보다 부산 스토리텔링북

임희숙 지음 | 255쪽 | 15,000원 | 2012년 11월 | 978-89-6545-202-7

부산의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며 오감으로 부산을 느끼게 해주는 부산 관광 스토리여행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자가 발견한 부산 이야기는 단지 보고 마시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한 도시를 차근차근 알아가게 해준다.



수다, 꽃이 되다

임숙자 엮음 | 백복주 사진 | 175쪽 | 12,000원 | 2012년 12월 | 978-89-963292-7-5

부산 화명동 인근 대천천 마을 여자들이 서로의 생각과 인생을 나누었다. 가까이 살지만 얼굴만 알고 지냈던 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아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간다. 맨발동무 도서관에 모인 30~50대 여성들과 경로당 할머니들의 소소한 이야기는 누구나 고민했을 일들을 구성지게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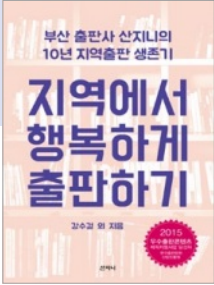


우리가 만드는 문화도시 로컬문화총서 02

문화도시네트워크 지음 | 328쪽 | 20,000원 | 2010년 10월 | 978-89-6545-120-4

부산시민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도시상을 지향하고, 문화도시 만들기 운동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모색한다. 문화도시 만들기 운동이 가야 할 방향 모색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전하는 글을 엮었다. 더불어 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심도 깊은 논의와 실천 활동 사례로 구성하였다.



지역에서 행복하게 출판하기

부산 출판사 산지니의 10년 지역출판 생존기

강수걸 외 지음 | 292쪽 | 15,000원 | 2015년 11월 | 978-89-6545-321-5

부산 지역 출판사 산지니가 출판사의 창업에서부터 다사다난했던 출판사 운영과정을 엮어 책으로 출간했다. 10여 년에 걸친 지역출판사의 생존 기록인 셈이다. 산지니 출판사 사례를 통해 지역의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는 향후 지역출판의 과제와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오디오북

*2015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도서
*대만 판권 수출

지역에서 책을 펴내고 팔기까지, 십여 년의 기록을 담다

- 지역에서 출판사를 꾸려나가는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담았다. 독특한 방식으로 지역출판의 가능성을 입증해온 산지니의 흥미로운 역사를 에세이 형식으로 그려냈다. **경향신문**
- 출판사 창업을 꿈꾸는 예비 출판인이나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출판사의 속내를 궁금해하는 일반 독자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 첫 책 『반송 사람들』을 시작으로 300여 권의 책을 펴낸 산지니의 기록을 한데 모았다. **경남도민일보**



강수돌 교수의 나부터 마을혁명 로컬문화총서 01

고층아파트 저지 투쟁과 마을공동체

강수돌 지음 | 272쪽 | 15,000원 | 2010년 5월 | 978-89-92235-93-8

마을공동체와 농촌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신안마을 주민들의 노력, 그 현장 보고서

조상 대대로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온 논과 밭, 과수원과 구릉을 허물고 앞산 뒷산도 다 가리는 고층아파트 건설 계획에 주민들은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2010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2010 11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해운대 바다상점 만원의 행복 1

마을기업 에코에코협동조합, 바다에 빠지다

화덕현 지음 | 144쪽 | 10,000원 | 2017년 7월 | 978-89-98079-21-5

해운대 바다 쓰레기, 다시 태어나다

비치코밍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바다상점'의 이야기를 담은 책.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 그곳에 자리 잡은 에코에코(Eco Echo)협동조합의 이모저모와 '바다상점'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한다.

*2018 우수환경도서



부산 탐식 프로젝트

낙동강, 기장, 원도심, 골목까지 부산의 진짜 '맛'을 찾아서

최원준 지음 | 304쪽 | 22,000원 | 2022년 11월 | 979-11-6861-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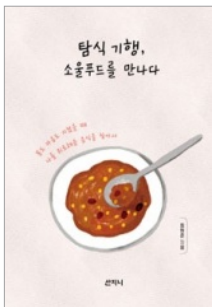
*조선일보 추천도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중심에 위치해온 부산의 식문화를 탐구한 도서. 시인이자 음식문화 칼럼니스트인 최원준은 이러한 부산의 음식을 통하여 사람, 역사, 문화를 탐구했고, 그 '탐식(探食)' 과정을 책에 담아냈다.

'돼지국밥은 어떻게 부산의 소울푸드가 되었을까?

밀면은 왜 공유와 배려의 음식일까?' 47가지 음식으로 전하는 부산 이야기

- 부산(釜山)은 한자 이름에서 보듯 '가마솥의 도시'다. 모든 지역의 음식이 부산이라는 가마솥에 들어가기만 하면, 한데 뭉뚱 끊다가 개성 있는 부산 음식으로 재탄생한다. 이런 관점으로 부산을 이해할 수 있는 47가지 부산 음식과 식재료를 깊이 들여다본 책이 '부산 탐식 프로젝트'이다.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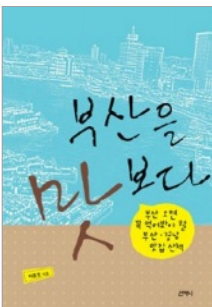
탐식 기행, 소울푸드를 만나다

최원준 지음 | 304쪽 | 20,0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178-8

*202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선정작
*국제신문 / 부산일보
/주간조선 추천도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의 소울푸드를 찾아 떠나는 탐식 기행

음식문화 칼럼니스트 최원준 시인이 부산·경남의 산과 들, 강과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소울푸드를 찾기 위해 탐식 기행을 떠났다. 설 틈 없는 일상 속에서 문득 정성스레 차려낸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다. 그 계절의 식재료로 만든 제철 음식, 지역민의 향토 음식, 만드는 이의 정성이 담긴 요리는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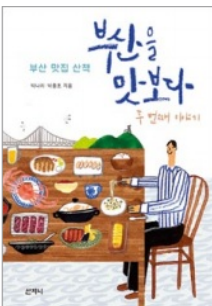
부산을 맛보다

박종호 지음 | 270쪽 | 15,000원 | 2011년 6월 | 978-89-6545-154-9

*일본 판권 수출
*2011 9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부산 오면 꼭 먹어봐야 할 부산·경남 맛집 산책

돼지국밥, 생선회, 밀면, 양곱창, 부산 오텍 등 부산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명물음식의 유래와 대표 맛집을 소개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부산과 경남의 지역별 맛집을 찾아보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부산의 대표적인 이색 카페와 연인끼리, 가족끼리, 모임별로 가기에 좋은 장소들을 따로 엄선해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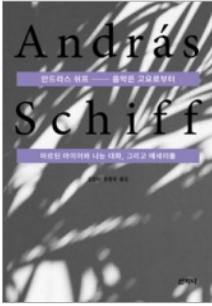


부산을 맛보다: 두 번째 이야기 부산 맛집 산책

박나리 · 박종호 지음 | 264쪽 | 16,000원 | 2016년 11월 | 978-89-6545-381-9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 진정한 맛의 가치를 전하는 맛집 큐레이터(Curator). 부산의 각 구·군별 맛집을 정리해 부산 어느 지역에서도 맛있는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 부산일보 위크엔조이 맛 담당 기자인 저자가 그동안 취재한 수많은 맛집 중 부산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맛집만을 선정해 엮었다.

예술



안드라스 쉬프 음악은 고요로부터

안드라스 쉬프 지음 | 김윤미, 윤종욱 옮김 | 464쪽 | 29,800원 | 2023년 9월 | 979-11-6861-162-7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가 말하는 음악의 본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의 음악세계를 알 수 있는 책이다. 1부 음악 저널리스트 마틴 마이어와의 대화에는 공산주의 헝가리에서 보낸 유년시절의 기억과 망명 이후 가난한 음악가에서 세계적 거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담겼다. 2부에는 깊고 단단한 쉬프의 사유가 담긴 에세이가 수록되었다. 시대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피아니스트, 그리고 한 사람의 여정을 찬찬히 따라가 보자.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문학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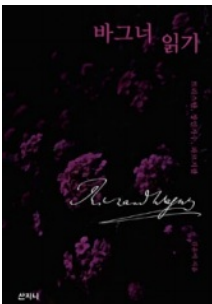
바그너의 마지막 인터뷰

오해수 지음 | 352쪽 | 25,000원 | 2023년 7월 | 979-11-6861-172-6

21세기 바그네리안, 위대한 작곡가 바그너와 마지막 인터뷰를 하다

저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바그네리안이다. 그런 저자가 19세기 후반 말년의 바그너를 만나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콘셉트로 이 위대한 예술가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광활한 음악세계를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났지만 바그너가 남긴 열세 편의 오페라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회화,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일보 / 국제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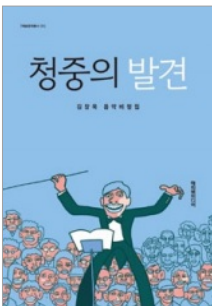
바그너 읽기 트리스탄, 장인가수, 파르지팔

김윤미 지음 | 404쪽 | 18,000원 | 2021년 3월 | 978-89-6545-712-1

광활한 바그너의 작품 세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바그너 안내서

우리가 바그너를 즐기려면 정말 쉽지 않다. 이 책은 바그너라는 이름이 주는 광활한 세계 앞에 용감히 선 사람들에게 든든한 초행길 파트너가 되어준다. 저자는 낯선 음률과 예측이 어려운 음률을 읽어내아가며 서서히 바그너와의 거리를 좁혀간다. 작품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풀어가는 에피소드들을 읽다 보면, 독자들은 천천히 산책하듯 바그너의 세계를 즐기게 될 것이다.

*매일경제 추천도서



청중의 발견 예술문화총서 1

김창욱 지음 | 296쪽 | 19,800원 | 2023년 5월 | 978-89-98079-73-4

홍난파 음악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창욱 음악박사의 음악비평집

연주 및 공연에 대한 리뷰와 오늘날 음악현상에 대한 시평, 음악가들과의 인터뷰, 음악서평 등을 실었다. 책을 통해 부산 음악계의 연주 및 공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음악에 대한 식견 또한 자연스럽게 넓고 깊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화 형식의 역사 예술문화총서 07

오혁진 지음 | 224쪽 | 20,000원 | 2022년 11월 | 978-89-98079-56-7

*연합뉴스/국제신문
추천도서

서양 근대만화에서 현대만화로 만화의 형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다

우리에게 익숙한 만화의 형식은 언제, 어떻게 이뤄졌을까? 이 책은 서양 만화 역사의 결정적 지점을 인물과 작품을 통해 다루면서 근대만화에서 현대만화로 이어지는 궤적을 따라가고, 이 과정에서 만화 형식이 어떠한 맥락으로 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조망함으로써 만화 형식의 본질에 관해 탐구한다.



부산에서 찾아보는 이중섭 흔적 예술문화총서 11

정석우 지음 | 288쪽 | 19,800원 | 2023년 12월 | 978-89-98079-82-6

*국제신문/부산일보
/서울아트가이드
추천도서

흘려진 이중섭의 삶을 이어 붙여 부산에서의 삶을 복구하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중섭은 1956년 사망 전까지 부산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며 머물렀으나 부산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왜 부산은 그를 잊어버렸을까. 이 책은 이중섭의 회고담, 기사 등을 모아 1950년대 부산에서의 화가 이중섭을 재구성하였다.



일상 그리기

심수환 지음 | 272쪽 | 20,000원 | 2023년 2월 | 979-11-6861-131-3

*서울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 추천도서

소소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상 드로잉

풍경 수채화 화가로 활동하는 심수환 작가가 꾸준히 기록해 온 180여 편의 일상 그림이 담겨 있다. 일상을 이루는 작은 물건부터 사람들, 출퇴근길의 풍경, 여행지의 풍경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한데 모았다. 심수환 작가는 그림 그리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보다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태도'라고 말한다.



잃어버린 콩나물을 찾아서 예술문화총서 10

김창욱 지음 | 256쪽 | 18,000원 | 2023년 5월 | 978-89-98079-72-7

*국제신문/부산일보
추천도서

악보 속 콩나물을 연주하는 멋지고 애달픈 음악가의 삶을 그린다

부산의 음악평론가 김창욱의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음악비평 에세이. 저자는 자신을 포함한 클래식 음악 종사자들의 일화들을 풀어놓으며 이러한 현실을 진솔하게 전한다. 무대 밑의 애달픈 일상과 무대 위의 박수갈채 사이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음악과 음악의 길이 펼쳐진다.



근대 건축과 하이데거

이동언 지음 | 256쪽 | 20,000원 | 2021년 8월 | 978-89-6545-742-8

건축 작품 그 자체로서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기 위하여

개념적 건축과 창조적 건축의 구분을 위한 시도가 담긴 책이다. 건축 작품은 그 자체로 순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학적, 언어적 분석 방식과 도구적 측면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작품을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상징으로,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이 책에서 찾아간다.

*2022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겨레/교수신문/
국제신문 추천도서



공공미술, 도시의 지속성을 논하다 예술문화총서 03

구보호 지음 | 254쪽 | 25,000원 | 2021년 5월 | 978-89-98079-42-0

마을과 도시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는 공공미술

이 책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도시 속 공공미술과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낸 책이다. 장소 속의 미술, 장소로서의 미술보다는 참여·개입으로서의 공공미술에 비중을 두고 서술하였다. 저자는 사업이 끝난 후 다시 마을을 찾아, 지속적으로 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 마을을 둘러보며 애정 어린 고민을 담았다.

*2014 한국연구재단
우수저서



생명건축, 그 아름다운 원 풍경

백승완 지음 | 336쪽 | 20,000원 | 2012년 1월 | 978-89-6545-167-9

신개념의 공간구성과 디자인을 통해 병원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다

최고보다 유일을 추구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건립과정을 담은 책. 병원건축의 핵심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역할,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까지 병원 건립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저자의 8년간의 체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앙공급실, 중앙수술실, 장례식장, 중환자실, 통증치료실, 종교실, 분만실 등 병원의 건립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추천도서



한국의 사랑채

윤일이 지음 | 272쪽 | 25,000원 | 2010년 12월 | 978-89-6545-129-7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통주택들을 답사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종손(宗孫)·종부(宗婦)를 대상으로 일일이 설문조사하는 힘든 작업을 거쳐서 조선시대 사랑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그 연구성과를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크게 5장으로 나누어 사랑채의 형성배경과 성격, 공간구성, 지역별 사랑채, 계층별 사랑채, 행태별 사랑채를 기술하였다.

*연합뉴스/
부산일보/뉴스
추천도서



한국 근대 서화의 생산과 유통 예술문화총서 04

이성혜 지음 | 301쪽 | 25,000원 | 2014년 12월 | 978-89-98079-08-6

*2015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양반 계층의 전유물이 기성품이 되기까지

조선시대의 서화는 관에 소속된 서화가들이 왕실의 주문을 받아 제작하거나, 사대부 양반들이 여기(餘技) 활동으로 만들어 지인들에게 증여하였다. 하지만 직업화가인 화원을 관리했던 국가기관 도화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서화가는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신분제의 해체로 양반 문인서화가 또한 증발하였다. 이로써 서화가는 생계를 오직 자신이 해결해야 하게 되었고, 서화는 대중들 또한 비용을 지불하고 향유하는 '상품'으로 거듭난다.



조선무용의 미학과 하이데거의 진리 예술문화총서 09

배학수 지음 | 296쪽 | 28,000원 | 2023년 1월 | 978-89-98079-71-0

*부산일보 추천도서

하이데거의 진리를 통한 미학적 탐구로 우리 춤의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다

한국의 전통무용을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그 동작 속 진리를 파헤쳐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정의되던 한국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존재의 진리는 작품 속에 은폐된 진리가 드러나고 감상자가 그 존재의 진리를 발견할 때 예술 작품의 가치가 드러난다. 저자는 이를 기반으로 개별 무용 작품을 파헤쳐 조선무용의 동작 속에 담긴 미학과 진리를 독자들이 직관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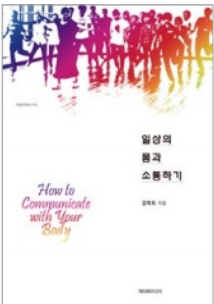
최은희, 한국춤의 긴 여정

최은희 지음 | 504쪽 | 100,000원 | 2023년 3월 | 979-11-6861-132-0

*한국일보/국제신문
/부산일보 추천도서

최은희 무용가가 걸어온 40여 년의 한국춤 여정을 갈무리하다

최은희 무용가는 경성대학교 무용학과에서 38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부산과 경남의 민속춤 연구를 이어왔다. 이 책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 온 최은희 무용가가 자신의 춤 여정을 집대성한 방대한 기록물이다. 국내외에서 250회 이상 무대에 오르고, 65편의 작품을 만드는 동안 수집한 화보, 포스터, 팸플릿, 신문기사, 세미나 등의 자료가 실려 있다.



일상의 몸과 소통하기 예술문화총서 06

강미희 지음 | 252쪽 | 20,000원 | 2016년 12월 | 978-89-98079-18-5

*국제신문 추천도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경험 예술로서의 자유로운 춤

무용가 강미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고 표현할 수 있는 춤에 대하여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풀어놓은 책이다. 저자는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춤을 통해 굳은 표정과 긴장된 몸들은 재치 있고 순발력 있는 몸으로 변하고, 소극적이던 사람은 밝게 웃으며 몸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열기가 뜨거워진다.



미국 영화비평의 혁명가들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총서 2 1940년대 평론가들은 미국 영화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데이비드 보드웰 지음 | 옥미나 옮김 | 276쪽 | 20,000원 | 2019년 2월 | 978-89-6545-574-5

저자는 오티스 퍼거슨, 제임스 에이지, 매니 파버, 파커 타일러를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신의 계시를 받아 서사시를 낭송했던 음유시인에 비유하여 랩소디라 명명했다. 각 평론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시작하여, 미국 영화 비평사에서의 위치, 당대의 영화를 바라보는 개별적 관점 등을 골고루 논한다. 책은 네 명의 평론가들의 작업을 통해 1940년대 미국 영화 문화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보여준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영화 평론의 선구자 4인방, 미국 영화사의 결정적 순간을 옮기다

- 할리우드 황금기에 영화 비평계에서 활약한 오티스 퍼거슨, 제임스 에이지, 매니 파버, 파커 타일러를 소개한다. **_부산일보**
- 유려하고 톡톡 튀며, 활기와 영감이 넘치는 보드웰의 글은 이 책에 쓴 비평가들의 가장 뛰어난 비평만큼이나 훌륭하다. **_데이빗 코엠펜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영화 열정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총서 1 시네마테크의 아버지 앙리 랑글루아

리처드 라우드 지음 | 임재철 옮김 | 318쪽 | 22,000원 | 2018년 10월 | 978-89-6545-5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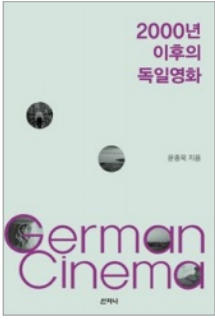
리처드 라우드가 앙리 랑글루아의 지인 및 관계자 76명을 인터뷰한 책. 피짜 영화광에 대한 흥미로운 평전으로, 랑글루아 개인의 생애뿐 아니라 무성 영화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영화문화사의 형성기를 들여다보며 필름 아카이브의 역사와 필름 보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다.

*한겨레 / 부산일보 추천도서

앙리 랑글루아에게는 영화가 곧 삶이다.- 프랑수아 트뤼포

시네마테크의 아버지 앙리 랑글루아는 누벨바그 감독들을 키워내는 등 프랑스 영화운동의 본거지로 꼽히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창립자다. 영화 산업을 예술로 끌어올린 그의 삶을, 미국의 영화 평론가가 무려 76명을 인터뷰하는 등 꼼꼼한 취재를 토대로 복원해냈다. **_한겨레**

- 리처드 라우드는 정말로 중요한 책을 썼다. 영화 역사에 대한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로 손꼽힐 것이다. **_마르셀 오웬스, <아메리칸 필름>**



2000년 이후의 독일영화

윤종욱 지음 | 416쪽 | 28,000원 | 2021년 2월 | 978-89-6545-707-7

독일영화의 경향과 독일영화계를 이끌어가는 다섯 감독의 작품세계를 분석하다

독일영화계가 침체의 시기를 지나 21세기에 어떻게 다시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되었는지, 독일영화계의 긍정적인 변화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독일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장르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시대 독일영화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최근 독일영화의 경향을 이해하고, 독일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과 작품세계를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2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영상문화의 흐름과 서사미학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총서 28

정봉석 지음 | 304쪽 | 25,000원 | 2013년 2월 | 978-89-6545-211-9

한국영화의 이해를 돕는 감독과 영상 흐름 분석

작가적 소양을 갖춘 감독들의 영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서사미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화 교역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영화의 흐름을 돌아보며 지역의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영상 콘텐츠로 개발하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책이다.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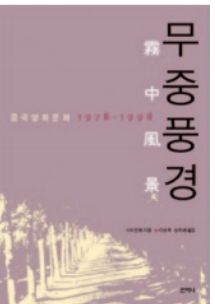
배리어프리 영상제작론 방송문화진흥총서 187

김정희 지음 | 232쪽 | 20,000원 | 2018년 8월 | 978-89-6545-540-0

영화는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배리어프리 영상제작을 꿈꾸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제작론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배리어프리에 대한 이해부터 배리어프리 영상제작론, 배리어프리 작가론, 실전 배리어프리 제작론까지 다룬다. 저자가 작가와 연출가로 참여한 작품을 중심으로 제작 과정 전반을 소개하면서 실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신문추천도서



무중풍경 중국영화문화 1978~1998

다이진화 지음 | 이현복·성옥례 옮김 | 592쪽 | 20,000원 | 2007년 5월 | 978-89-92235-18-1

중국 현대 영화사와 영화비평에 관한 고전

20년간의 중국 영화 변천사. 사유의 깊이와 폭넓음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 다이진화의 저작. 세대로 나누어진 중국 영화 20년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해당 시기 주요 중국 영화를 상세히 소개, 분석했다.

*2006
영화진흥위원회
학술도서

*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경향신문 / 동아일보
/ 한겨레21 추천도서



영화로 만나는 동아시아 패권주의와 다문화

백태현 지음 | 270쪽 | 18,000원 | 2017년 6월 | 978-89-6545-423-6

영화의 창을 통해 동아시아의 풍경을 담다

독자들에게 친숙한 영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풍경, 패권주의와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이 책은 국가우선주의와 패권주의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적 지향성을 갖는 소통과 교류의 정치외교적인 패러다임이 정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2017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중국 청년감독 열전 아시아총서 22

미지의 청년감독을 찾아서

강내영 지음 | 328쪽 | 25,000원 | 2016년 4월 | 978-89-6545-365-9

새로운 중국영화계의 물결을 만드는 청년감독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영화정신과 시대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중국사회가 처한 객관적 상황과 영화 환경 속에서 도전하며, 가능성의 빛을 밝히는 청년감독들을 통해 미래 중국영화의 희망과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중국영화계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영화적 미학을 설명한다.

*부산일보 / 국제신문
/ 경상일보 추천도서



상업영화 중국을 말하다 아시아총서 19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영화를 통해 본 중국 문화정책과 대중 코드

김명석 지음 | 270쪽 | 20,000원 | 2016년 2월 | 978-89-6545-337-6

중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와 국가 중심의 이데올로기

중국의 상업영화를 통해 중국 영화가 중국의 문화정책과 상업주의를 만나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중국 상업영화를 매개로 중국의 문화정책과 체제 이데올로기, 대중을 겨냥한 문화전략 등을 설명한다. 평소 중국 영화를 좋아하고 즐겨본 독자라면 영화라는 친숙한 매체로 중국 사회를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 / 경기일보
/ 경남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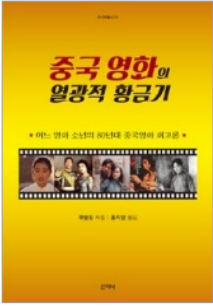
중국 영화의 오늘 영화 대국에서 영화 강국으로 아시아총서 16

강내영 지음 | 360쪽 | 22,000원 | 2015년 7월 | 978-89-6545-308-6

정책, 산업, 작품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영화를 소개하다

중국영화에 대한 연구나 저술이 과거 기념비적인 작품이나 저명 감독들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 책은 파편적인 주제와 비대칭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동시대의 중국영화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체제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관계, 산업과 작품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하여 중국 영화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론을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 아주경제
/ 부산일보 추천도서



중국 영화의 영광적 황금기 아시아총서 14

어느 영화 소년의 80년대 중국 영화 회고론

류원빙 지음 | 홍지영 옮김 | 350쪽 | 25,000원 | 2015년 1월 | 978-89-6545-276-8

1980년대 중국영화, 그 영광의 의미를 논하다

개혁개방 이후 10대를 보낸 저자는 1980년대의 영화관을 ‘파라다이스’로 기억하고 있다. 영화의 호시절을 누린 저자가 기억하는 중국 영화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 책은 오늘날의 중국 영화를 있게 한 중국 내의 제도적 측면, 관중들의 수용, 스타 시스템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시사인/교수신문
추천도서



영화로 만나는 현대중국 아시아총서 06

박수경 외 9인 지음 | 320쪽 | 17,000원 | 2012년 2월 | 978-89-6545-172-3

12편의 중국영화로 바라본 12가지 측면의 현대 중국사회

중국 영화를 매개로 중국 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 크게 중국 현대사, 개혁개방과 사회, 대중문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 경제, 정책, 사회, 문화를 골고루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한 편당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을 설명하고 있으며, 글의 마지막에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른 영화들을 추천하여 이해를 더했다.

*충청투데이/
국제신문 추천도서



20세기 상하이영화: 역사와 해제 아시아총서 02

임대근 외 지음 | 480쪽 | 30,000원 | 2010년 12월 | 978-89-6545-128-0

20세기 상하이영화 총 288편의 데이터베이스

중국현대문학, 대중문화, 영화, 도시, 문화인류학 등의 연구자 7명이 모여 총 288편의 상하이영화를 연구한 소개서. 저자들은 영화 텍스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중국 영화사에서 주요하게 거론되는 작품의 목록을 검토하고, 수천 편을 포괄하는 목록 속에서 다시 상하이와 관련된 영화, 즉 직접적으로 상하이의 문제를 다루었거나 상하이를 중심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선별하였다.

*연합뉴스/뉴시스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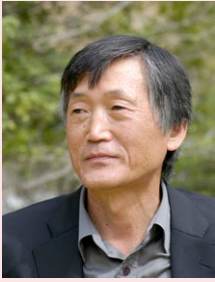
상하이영화와 상하이인의 정체성 아시아총서 01

임춘성 외 지음 | 416쪽 | 25,000원 | 2010년 3월 | 978-89-92235-88-4

21세기 글로벌 중국을 이해하는 관건, 상하이와 상하이영화

중국 근현대사의 진행과정을 압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도시 상하이. 상하이에 대한 이해는 근현대 중국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유효한 방편인데, 이 책은 그 가운데 상하이영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하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상하이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한다. 상하이와 상하이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근현대 중국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합뉴스/국민일보
추천도서



조갑상

19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혼자 웃기」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다시 시작하는 끝』, 『길에서 형님을 잃다』, 『테하차피의 달』, 『병산읍지 편찬역사』, 장편소설 『누구나 평행선 너머의 사랑을 꿈꾼다』, 『밤의 눈』을 냈고 산문집으로는 『이야기를 걷다』가 있다. 요산문학상, 이주홍문학상, 만해문학상, 서라벌문학상을 수상했다.



밤의 눈

조갑상 지음 | 400쪽 | 16,000원 | 2020년 12월 | 978-89-6545-691-9

누가 생사(生死)를 운명이라고 말하는가?

가상의 공간 경남 대진읍을 배경으로,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을 다룬 장편소설이다. 전쟁이 남기고 간 깊은 회생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그렸다.

-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인 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들의 억울한 희생을 소재로 역사적 사실을 힘 있고 실감나는 서사로 형상화해낸 귀한 열정과 공력을 높이 사 만장일치로 수상작 선정에 합의했다. **만해문학상 심사위원회**
- 전쟁기 학살과 그 이후 일어난 일들 중에는 르포, 보고서나 논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널려 있다. 이 소설은 그중 하나를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것 같다.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오디오북

- *2013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 *2013 만해문학상 수상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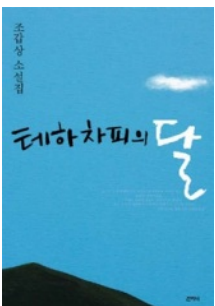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숲

조갑상 지음 | 400쪽 | 18,000원 | 2022년 11월 | 979-11-6861-099-6

한국 현대사의 비극, 그 내면화된 상처에 대한 응시

여산의 삼산면을 배경으로 작가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보도연맹 사건'과 함께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루며 우리 현대사의 아픈 단면을 살펴본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전후로 이념대립이 불러온 피바람이 이웃과 이웃, 개인과 개인을 갈갈이 찢어놓는 상황. 세 가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차마 입도 병긋할 수 없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김인철'이라는 인물을 통해 펼쳐놓는다.

- *202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도서
- *2024 원복원부산 후보도서
- *세계일보/국재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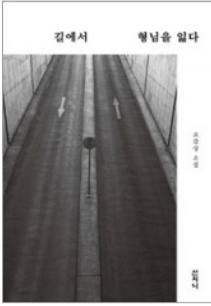
테하차피의 달

조갑상 지음 | 260쪽 | 10,000원 | 2009년 10월 | 978-89-92235-74-7

막연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상을 그려내다

부산의 대표적인 증견작가 조갑상의 소설집. 총 8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테 지역문학, 노년문학, 회상의 문법이라는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제작인 「테하차피의 달」은 미국 모하비 사막의 테하차피에 위치한 태고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차분하고도 깊은 먹빛을 지닌 노년문학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2011 이주홍문학상 수상도서



길에서 형님을 잃다

조갑상 지음 | 320쪽 | 20,000원 | 2022년 11월 | 979-11-6861-100-9

일상 속 어두운 기억에 대한 우직한 천착

증견 소설가 조갑상은 유교적 가치관의 변화, 월남전, 파월교육대, 마을의 구멍가게에서 팔던 통일콩 등 한국 사회가 지나쳐온 면면을 소설 속에 기록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 소시민의 일상적 삶과 그 삶에 질게 드리워진 허무의식 혹은 존재론적 고독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저자는 어제같이 선명한 장면들을 다시금 불러내어 우리에게 선사한다.



누구나 평행선 너머의 사랑을 꿈꾼다

조갑상 지음 | 320쪽 | 20,000원 | 2022년 11월 | 979-11-6861-101-6

상처 입은 사랑, 깊은 회환, 현실에 발 딛지 못하고 걸도는 한 남자의 방향

김창기는 아이의 죽음 이후 아내와 틈이 생겼다. 이때 같이 교사 생활을 했던 이선재에게 연락이 왔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다. 아내가 둘의 만남을 눈치채면서 부부 사이는 더욱 위태로워진다. 김창기의 마음이 청년 시절 진실로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정희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 시간이 지난 지금, 평행선처럼 닿지 않았던 김창기의 마음은 결국 정희옥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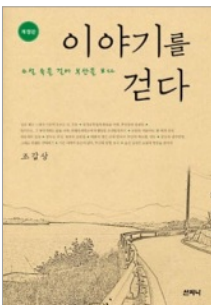
다시 시작하는 끝

조갑상 지음 | 434쪽 | 16,000원 | 2015년 6월 | 978-89-6545-281-2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소설의 시작

25년 만에 재출간된 조갑상의 첫 번째 소설집. 총 17편의 중단편이 실렸고, 데뷔작 「혼자 옷기」를 포함하는 은경동 3부작이 처음으로 함께 모였다. 고단한 삶과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들, 공간에 대한 긴 묘사, 그리고 쉬이 위로하지 않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현실을 삼켜 소화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담은 소설을 만날 수 있다.

*국제신문/뉴스스/부안일보 추천도서



이야기를 걷다

조갑상 지음 | 304쪽 | 16,000원 | 2017년 12월 | 978-89-6545-463-2

11년의 간극을 가로지르는 어제의 부산, 오늘의 부산

소설을 통해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한 조갑상 소설가의 에세이집. 개정판은 10여 년 동안 변한 부산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작가는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각 장소를 일일이 다시 찾아다니며 또 한 번 취재를 감행했다. 새롭게 추가된 부산 배경의 소설들은 초판보다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2006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경향신문/한겨레/연합뉴스/추천도서



하근찬

193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전주사범학교와 동아대학교 토목과를 중퇴했다.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수난이대」가 당선되었다. 6·25를 전후로 전북 장수와 경북 영천에서 4년간의 교사생활, 1959년부터 서울에서 10여 년간의 잡지사 기자생활 후 전업 작가로 돌아섰다. 1970년 한국문학상, 1983년 조연현문학상, 1984년 요산문학상, 1989년 유주현문학상, 1998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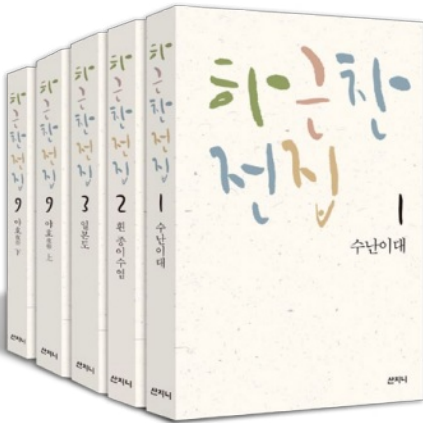
하근찬 전집

시대의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을 그린 하근찬의 문학세계

한국 단편미학의 빛나는 작가 하근찬, 그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간행한 <하근찬 문학 전집>이다. 평범하고 힘없는 소년의 시선이 담겨 있고, 시대의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당시를 살아 내던 민중들의 모습이 인간답게 그려진다.

*한국일보/한겨레/
연합뉴스/국제신문
/중앙선데이/
추천도서

195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하근찬 등단작 「수난이대」부터 미완성 장편까지! 그의 문학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다



- 지금까지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의 작품도 발굴해 전집의 자료적 가치도 높였다. 작가연보와 작품연보에 대한 실증적 작업을 거치고 연구자들의 해설을 더함으로써 전집의 연구사적 가치 또한 높였다. **한국일보**
- 전집 간행위원회는 “하근찬은 밑바닥에 흐르는 진실을 탐구한 작가였다”며 “웅숭깊은 그의 이 시선과 거룩한 문학적 성취는 한국문단에서 보기 드문 문학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1 수난이대 단편집
- 2 흰 종이수염 단편집
- 3 일본도 단편집
- 4 화가 남궁 씨의 수염 단편집
- 5 낙도 단편집
- 6 기울어지는 강 중편집
- 7 삼미의 비 단편집
- 8 산의 동화 단편집
- 9 야호 장편
- 10 달설 이야기 장편 (예정)

- 11 월레소전 장편
- 12 산에 들에 장편
- 13 작은 용 장편 (예정)
- 14 징깡맨이 장편 (예정)
- 15 검은 자화상 장편 (예정)
- 16 남한산성 장편 (예정)
- 17 제국의 칼 장편 (예정)
- 18 싯다르타 장편 (예정)
- 19 사랑은 풍선처럼 장편 (예정)
- 20 제복의 상처 장편 (예정)
- 21 은장도 이야기/직녀기 미완성 장편 (예정)
- 22 산중 눈보라 미완성 장편 (예정)



심지층 저장소

핵폐기물과 방사능에 대한, 스위스 문학상 수상작가 아네테 후크의
문학적 상상력과 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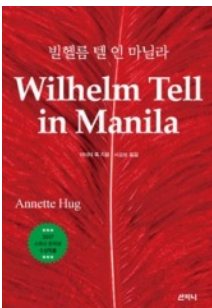
아네테 후크 지음 | 서요성 옮김 | 320쪽 | 19,800원 | 2024년 4월 | 979-11-6861-298-3

*부산일보 추천도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저자의 문학적 고민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많은 사람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핵폐기물 문제를 파고들어 소설을 써 내려갔다. 이 작품으로 아네테 후크는 “사회 문제를 판타지와 함께 책임감 있게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으며 2022년 스위스 쉐러 재단이 수여하는 쉐러상을 수상하였다.

핵폐기물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 모인 다섯 인물 그들이 펼쳐 보이는 분투, 실패, 대안의 세계

- 후크는 소설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핵폐기물 영구저장과 같은 미래의 문제를 독창적으로 다루었다. **_율리안 슈트(스위스 라디오 텔레비전 SRF 문학비평가)**
- 후크는 스위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작가 중 한 명이다. 대담하면서도 우울한 이번 소설에서 작가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원을 발명한다. **_<아르가우어 신문>**



빌헬름 텔 인 마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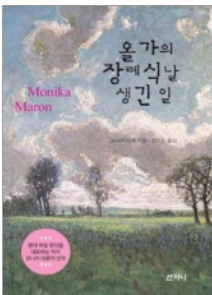
아네테 후크 지음 | 서요성 옮김 | 264쪽 | 15,000원 | 2018년 9월 | 978-89-6545-545-5

*2017스위스문학상
수상작품

*경향신문/
국제신문 추천도서

문학이 세상을 향해 쓰는 붉은 화살과 같은 힘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 호세 리살을 주인공으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오가며 풍부한 비유와 환상적 전개가 펼쳐진다. 스위스 독립을 이끈 전설 속의 인물 빌헬름 텔과 그를 소재로 한 희곡 『빌헬름 텔』, 그리고 작품을 번역해 고국의 독립운동에 불씨를 지핀 호세 리살.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며 전하는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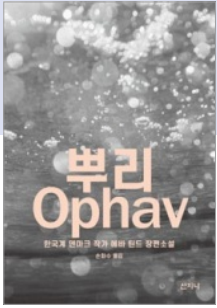
올가의 장례식날 생긴 일

모니카 마론 지음 | 정인모 옮김 | 200쪽 | 13,000원 | 2016년 10월 | 978-89-6545-378-9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추천도서

『슬픈 침승』의 작가 모니카 마론의 신작

현대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모니카 마론의 작품. 삶이 가지는 의미를 죽음 통해 심도 있게 그려냈다. 주인공 ‘루트’는 남편과 헤어진 후에도 친구처럼 연락하며 지냈던 시어머니 ‘올가’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장례식날 아침 갑자기 루트에게 알파벳 철자가 눈앞에서 뚝뚝 떠다니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리 Ophav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별과 여행을 거듭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

에바 틴드 지음 | 손화수 옮김 | 430쪽 | 18,000원 | 2021년 7월 | 978-89-6545-734-3

어떤 일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꾸기도 한다

딸의 독립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 카이와 좋은 엄마보다 커리어를 선택한 미리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수이. 이들은 삶의 어느 순간 찾아온 상실의 순간에 각자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인도의 대안 커뮤니티, 스웨덴의 깊은 숲, 그리고 한국의 마라도로 저마다의 여행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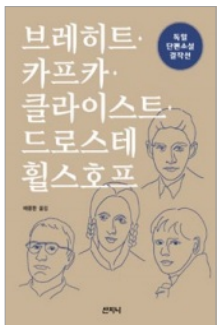
*덴마크문화부
번역지원도서

*경향신문 / 서울신문
/연합뉴스 추천도서

부산에서 태어나 1살 때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계 덴마크 소설가 에바 틴드 장편소설

- 가족이었던 세 사람이 각자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근원을 찾으려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한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연합뉴스>
-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강렬한 방식으로 휴머니즘과 페미니즘을 다룬 이상적인 소설 <위크엔드아비센>



브레히트·카프카·클라이스트·드로스테 휠스호프

독일 단편소설 걸작선

브레히트 외 지음 | 배중환 옮김 | 440쪽 | 29,8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175-7

독일의 대문호들이 그리는 인간과 사회의 세밀화

신랄하게 정치적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창작한 브레히트, 존재의 불안함을 포착하여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카프카, 인간의 실존과 본질적 비극을 노래하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룬 클라이스트, 19세기 독일 최고의 여성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 드로스테 휠스호프. 이들의 소설은 현대의 독자에게 삶과 죽음, 사랑과 정의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

*뉴시스 /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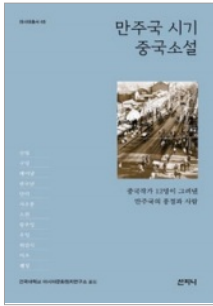
마르타

엘리자 오제슈코바 지음 | 장정렬 옮김 | 352쪽 | 15,000원 | 2016년 1월 | 978-89-6545-330-7

여성의 삶과 행복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1873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마르타의 치열한 삶을 묘사한 소설로, 출간 후 15개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다. 근대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생존을 위해 싸우는 25세 여성 마르타의 삶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경남신문 / 연합뉴스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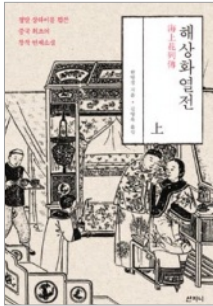
만주국 시기 중국소설 아시아총서 45

산딩 외 11인 지음 | 건국대학교 아시아문화정치연구소 옮김 | 616쪽 | 48,000원 | 2023년 6월 | 979-11-6861-151-1

동아시아 문학사의 빈 공간, 만주국 문학을 읽다

만주국은 동아시아 근대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사상적 자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적 원인, 정치적 입장, 경제적 동기를 지닌 민족들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책은 건국대학교 아시아문화정치연구소 연구진들이 다년간의 광범위한 작품 독해 과정을 통해 만주국 문학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22편의 작품을 선별하여 번역한 결과물이다.

*국제신문 추천도서



해상화열전 上/下

한방경 지음 | 김영옥 옮김 | 519쪽/550쪽 | 각 25,000원 | 2019년 4월 | 978-89-6545-584-4

청말 상하이로 휩쓴 중국 최초의 창작 연재소설

19세기 말 중국의 상하이 조계지 화류계를 다룬 중국 최초의 창작 연재소설이자 만청 시기의 대표 작가 한방경이 남긴 마지막 소설. 1892년 상하이에서 발행된 중국 최초 문예잡지에 연재된 이 소설은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중국 소설사가 정리되는 동안, 문체와 전개 방식, 내용적 측면에서 현대성을 선취한 독보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연합뉴스/뉴시스/
세계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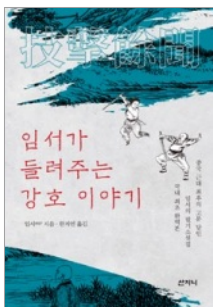
마니석, 고요한 울림

페마체덴 지음 | 김미현 옮김 | 336쪽 | 15,000원 | 2018년 10월 | 978-89-6545-563-9

페마체덴이 들려주는 낯설고도 가까운 티베트 문학

티베트 출신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인 페마체덴의 단편 소설집. 표제작 「마니석, 고요한 울림」을 포함해 모두 10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대화의 중첩과 생생한 묘사로 잔잔하게 오늘날 티베트인에게 들이닥치는 삶의 변화를 그려낸다. 그 속에는 티베트인의 삶과 죽음이 있고 종교와 사상이 있고 또 일상이 녹아들어 있다.

*국제신문/매일경제/
한국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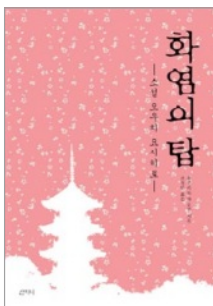
임서가 들려주는 강호 이야기

임서 지음 | 한지연 옮김 | 244쪽 | 16,000원 | 2021년 3월 | 978-89-6545-713-8

최후의 고문(古文) 달인 임서, 중국 근대 필기소설의 서막을 열다

청나라 말기의 이름난 번역가이자 문학가인 임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쓴 필기소설집이다. 필기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써 내려가는 일종의 수필형식으로, 임서가 경험하고 직접 들은 이야기 46편을 기록하였다. 책은 당시 필기의 자유로움과 소설의 서사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중국 근대 필기소설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제신문/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화염의 탑 소설 오우치 요시히로

후루카와 가오루 지음 | 조정민 옮김 | 272쪽 | 13,000원 | 2013년 4월 | 978-89-6545-217-1

중세 일본 남북조 시대의 무장 오우치 요시히로의 일대기

장대한 꿈을 안고 죽음을 맞이한 오우치 요시히로의 생애를 통해 일본 무사도의 정신세계와 함께 칼끝에 영혼을 담는 일본 봉건 시대 무장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경남도민일보/
서울경제/세계일보
추천도서



독심해전 소설 이사부

김문주 지음 | 272쪽 | 16,000원 | 2022년 12월 | 979-11-6861-124-5

우리 해전의 시작은 이사부다

독도와 관련하여 많은 역사적, 정치적, 국제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사부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업적에 건취 남겨진 역사적 사료가 적기 때문이다. 김문주 소설가는 여기에 의문을 품고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이후 231년 동안 왜의 침입이 없었다는 <삼국유사> 기록에 주목하여 우산국 편입 과정을 우리 역사 최초의 진선을 만드는 순간을 집필했다.

*경남도민일보/
경북일보/경남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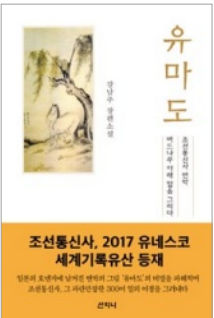
랑 김문주 장편소설

김문주 지음 | 342쪽 | 23,000원 | 2024년 4월 | 979-11-6861-299-0

화랑의 부리가 된 두 여성 원화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려내다

신라 시대의 부흥을 이끈 원동력이자, 남성들의 집단으로만 알고 있었던 '화랑'의 기원을 두 명의 여성 '원화'에서 찾아보는 역사 장편소설이다. 작가는 '원화'에 대한 짧은 기록에 상상력을 더해 주체적이고 당당했던 신라 시대 여성의 삶을 그린다. 소설 속에는 신라 시대, '화랑'을 이끌었던 두 원화의 삶과 사랑이 층층이 그려진다.

*뉴스/이데일리/
불교신문/국제신문
추천도서



유마도

강남주 지음 | 264쪽 | 13,800원 | 2017년 10월 | 978-89-6545-444-1

조선통신사 변박, 버드나무 아래 말을 그린다

일본 시코쿠 섬에 있는 외딴 절에서 200여 년 전 조선 화가의 작품이 발견된다. 그것도 조선에서는 이름도 없는 변방 동래의 화가의 작품이. 유마도, 이 작품은 버드나무 아래 있는 말을 그린 것으로 변박의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의 작품이 '유마하도'라고 잘못 알려진 채 일본의 절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2024
양산시립도서관
올해의책
*2018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 도서 선정도서



교룡 삼의당·담락당의 운명적 만남

표성흠 지음 | 256쪽 | 16,000원 | 2022년 3월 | 979-11-6861-021-7

조선시대 문필가 부부, 그들의 운명적 사랑과 문학

『교룡』은 조선 후기, 삼의당과 담락당 하립 부부의 운명 같은 사랑을 그리고 있다. 실학에 바탕을 둔 소설 혼을 일깨우는 남편 하립과 노동의 기쁨, 자식의 죽음에 애통해하며 삶을 노래한 아내 김삼의당 시의 세계가 교차하며 문학 부부의 이상적 세계가 펼쳐진다. 하립의 문학 세계에서는 시대적 배경이, 삼의당의 시 세계에서는 민중의 삶이 그려진다.

오디오북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2021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우수오디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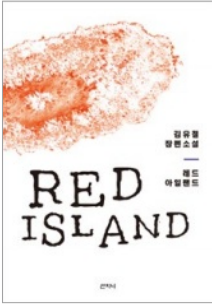
목화 소설 문익점

표성흠 지음 | 320쪽 | 13,000원 | 2014년 3월 | 978-89-6545-247-8

새로운 문익점의 모습에 주목하다

붓두껍에 목화씨를 가져왔다는 일화에서 벗어나 문익점의 생애에 주목하며 새로운 문익점을 탄생시킨다. 이렇게 탄생한 문익점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인물로 다가온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공민왕의 개혁 정치, 새로운 국가 조선을 건국하려 했던 신흥세력, 갑작스럽게 닥친 왜구의 침략 등 굵직한 역사 속 사건들과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흥미로운 일화가 만나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했다.

*2014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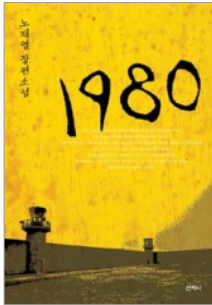
레드 아일랜드

김유철 지음 | 352쪽 | 14,000원 | 2015년 7월 | 978-89-6545-307-9

4월의 붉은 제주, 시대의 격랑 속에 휩쓸린 자들의 이야기

해방 전후 시대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폭력과 상처를 가감 없이 보여주며 그 속에서 변해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놓인 인물들과 현실적인 구성을 통해 1948년 4월 3일 제주를 다시금 바라보고자 한다.

*2015
부산국제영화제
북투필름 선정 도서
*경향신문 / 연합뉴스
/ 한겨레 추천 도서



1980 노재열 장편소설

노재열 지음 | 320쪽 | 13,000원 | 2011년 9월 | 978-89-6545-160-0

1980년 부산의 학생투쟁을 겪은 청춘의 기록

부마항쟁과 1980년 부산의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그 운동의 당사자였던 저자가 1980년을 전후한 격랑의 시간, 폭력과 굴종 속에서 고뇌하는 한 청춘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소설로 풀어냈다. 절망과 도피, 저항과 극복이라는 뜨거운 정념의 시간들을 사유와 성찰의 시간으로 엮으며 고난의 순례를 서사화한다.

*2011
한국출판인회의
북리펀드 선정 도서



신불산 빨치산 구연철 생애사

안재성 글 · 구연철 구술 | 260쪽 | 15,000원 | 2016년 8월 | 978-89-6545-366-6

이념의 대립 속에 가려진 인물과 역사를 다시 조명하다

영남알프스 신불산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마지막 빨치산' 구연철 일대기. 구 씨는 양산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신불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했다. 그의 80년 긴 생애의 모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기록하기보다는 사상적, 정치적 행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산일보 / 연합뉴스
/ 한겨레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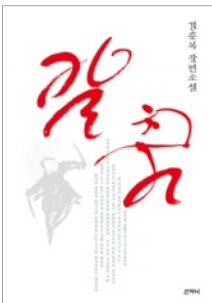
나의 아버지 박판수

안재성 지음 | 248쪽 | 13,000원 | 2011년 10월 | 978-89-6545-161-7

현대사의 한복판을 돌고 살아온 한 가족의 역사

해방과 더불어 5년여 동안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박판수, 하태연 부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 부산지역 생존 빨치산에 대한 구술정리 작업의 일부로, 좌우 이념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해방공간과 6·25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절을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겪은 빨치산 출신들의 경험을 기록하였다.

*2012
한국출판인회의
북리펀드 선정 도서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추천 도서



칼춤

김춘복 지음 | 366쪽 | 15,000원 | 2016년 1월 | 978-89-6545-324-6

시대와 문명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담다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소설가가 된 준규와 밀양 검무기생 운심의 환생인 은미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또한 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국면을 꺾진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작가는 두 주인공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시대의 대립이 완화되길 바라며 장장 10여 년에 걸쳐 소설을 집필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
국제신문 / 연합뉴스
추천 도서



이규정

경남 함안 출생. 1977년 단편 「부처님의 멀미」를 월간 『시문학』에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 1979년 계간 『문예중앙』에 의해 80년대의 신예작가 10인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 전개. 소설집 『부처님의 멀미』 등 9권과 장편, 동화집, 이문서, 산문집, 칼럼집 등 2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부산시문화상, 한국가톨릭문학상, 요산 김정한문학상, 부산가톨릭문학상, 이주홍문학상 등을 받았다. 2018년 별세.



사할린 이규정 현장취재 장편소설

이규정 지음(전3권) | 각 16,000원 | 2017년 5월 | 978-89-6545-414-4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끌려간 동포들의 애달픈 삶과 꿈

러시아 사할린 동포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1930년대, 사할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사할린 현지를 방문하는 1990년대 초반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경남 함안, 북한, 일본, 러시아 등을 오가며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진 여정을 웅장하게 담고 있다.

*한국일보/한겨레/연합뉴스/국제신문/중앙선데이/추천도서

91년 사할린 현지 취재, 5년에 걸친 집필!

- 해방은 되었지만 일제하 민족운동에 대한 박해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뒤틀리고 비화되어 억울하게 희생되어야 했던 역사적 상황 등이 날카롭게 교직되고 있다. **한겨레 이명원 칼럼**
- 일제강점기에 속아서, 돈이 필요해서, 강제로 탄광으로 끌려간 사할린 동포의 눈물과 회한의 삶 **국제신문**

번개와 천둥

이규정 지음 | 328쪽 | 14,000원 | 2015년 3월 | 978-89-6545-282-9

몽골의 '신의(神醫)' 이자 숨겨진 독립운동가의 삶

1910년대 몽골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의사로서 활동했던 대암 이태준을 조명하는 장편소설. 먼 타지에서 자신의 본분을 묵묵히 다해낸 대암 선생을 의사, 독립운동가, 신념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낸 한 인간으로 그려낸다.

*2015 부산문화재단 우수도서 *몽골판권수출



치우

이규정 지음 | 242쪽 | 13,000원 | 2013년 9월 | 978-89-6545-227-0

사람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한국인의 간고한 삶을 인간주의 시각에서 회복시킨 소설집. 오랫동안 가톨릭 신자로 살아온 이규정 소설가의 구원의 서사를 담았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조총련, 간첩단 사건, 보도연맹, 연좌제, 반공주의 등 한국 현대사의 상처들을 한 인간의 인생 속에 끄집어 내어 우리의 현재를 다시 살펴보게 한다.

*2013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2014 이주홍문학상 수상도서





경성브라운

고예나 지음 | 384쪽 | 18,000원 | 2023년 11월 | 979-11-6861-215-0

경성의 불과 아주 보통의 독립운동가들

일제강점기 카페 '경성 브라운'의 여급 홍설과 혁명의 기회를 노리는 독립운동가 요한, 그러한 요한을 뒷받침하는 궁녀 출신 기생 명화, 친일과 이완용의 손자인 한량 미스터 리,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독립운동의 과정을 소설로 풀어냈다. 생과 삶의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당시 청년들의 마음을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 생생하게 그린다.

*2024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청소년 교양도서
*국제신문 추천도서



S언니 시대

조화진 지음 | 260쪽 | 17,000원 | 2023년 7월 | 979-11-6861-152-8

그 시절 우리는 S언니와 S동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S언니'는 step sister, 혹은 수양 언니의 준말로, 친자매만큼이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뜻한다. 1970년대, 청소년들은 공개적으로 S언니, S동생을 찾고 관계를 선언하며 친분을 과시하였다. 소설은 '수자'라는 한 여중생의 목격담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폭력이 만연하고 당연시되었던 1970년대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핀다.

오디오풀

*연합뉴스/부산일보
/국제신문 추천도서



배달의 천국

김국속 지음 | 304쪽 | 18,000원 | 2023년 7월 | 979-11-6861-163-4

'배달 강국'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지옥도

소설은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전염병의 창궐 속 경제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은 채 살아가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포착했다. 우리 사회 모순과 병폐를 에두르지 않고 생생하게 고발하는 문학 정신에는 작가의 실제 자영업 경험과 함께 전태일 문학상 수상 작가로서의 관록이 묻어난다.

*한국일보/경향신문
/서울신문 추천도서



기연

박도하 지음 | 208쪽 | 16,0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179-5

바래지는 자아 속에서 사랑을 찾다

박도하 소설가의 첫 장편소설. 대충 묶어둔 매듭 같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년 여성의 자아와 삶,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 그 심리를 반짝이는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삼십여 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자신의 삶과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는 한 남자와의 조우를 통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한국일보/경상일보
추천도서



데린쿠유

안지숙 지음 | 264쪽 | 15,000원 | 2019년 6월 | 978-89-6545-606-3

마음속 지하도시를 헤쳐나가는 어른들의 성장소설

세상에 일조하고픈 마음은 조금도 없는 백수 민현수. 이런 현수에게 세리는 꺼림칙한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 인터넷상에서 송찬우를 괴롭혀 달라는 것인데, 현수는 송찬우의 삶을 파고들면서 자신의 삶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퍼즐을 맞춰나간다.

*서울신문/
국제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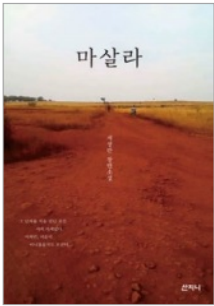
쓰엉

서성란 지음 | 288쪽 | 13,800원 | 2016년 11월 | 978-89-6545-377-2

쓰엉을 둘러싼 어긋난 사랑과 욕망, 희망이 펼쳐진다

흑갈색 눈동자와 검은 피부의 베트남 여인 쓰엉, 젊고 건강한 그녀는 한국 시골 마을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만난 김종태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 달리, 시어머니와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모른 척하는데…

*베트남 판권 수출
*2017 세종도서
우수문학도서
*2017 부산문화재단
우수도서
*2017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북투필름 선정도서



마살라

서성란 지음 | 240쪽 | 15,000원 | 2019년 2월 | 978-89-6545-582-0

소설가 '이설'을 찾아 소음과 흙먼지와 마살라 향 가득한

인도의 골목을 헤매다

소설을 쓰기 위한 완벽한 조건에도, 결국 미완의 작품을 남기고 사라진 '이설'을 찾아 낯선 도시를 헤매는 '나'의 이야기. 빈틈없이 묘사해 놓은 인도의 풍경을 상상하다 보면, 그 누구라도 거리 가득한 마살라 향에 취하고 싶고, 바나나 잎에 짠 오믈렛 맛을 보고 싶어질 것이다.

*연합뉴스/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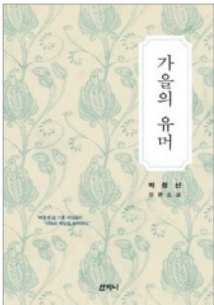
유산

박정선 지음 | 302쪽 | 15,000원 | 2018년 10월 | 978-89-6545-548-6

해결되지 못한 불편한 진실

친일파의 후손인 주인공 이함은 자기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고 가문의 친일파 그 잔재를 청산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수난사, 윤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와 공포, 역사의 줄기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등 친일 청산을 둘러싼 다양한 각도의 문제들을 표면 위로 끌어올린다.

*KNN <행복한
책임기> 추천도서
*국제신문 추천도서



가을의 유머

박정선 지음 | 240쪽 | 13,000원 | 2016년 12월 | 978-89-6545-391-8

마흔셋, 뜨거운 사랑이 찾아온다

주인공 승연(나)은 남편과 함께 힘든 삶의 시간을 견뎌내느라 진짜 나의 모습들을 잊고 살아온 보통의 중년 여성이다. 승연을 통해 작가는 사회적 금지영역에 속해 있는 기혼 남녀의 연애와 사랑을 다루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제신문 추천도서



아버지의 바다

김부상 지음 | 264쪽 | 17,000원 | 2021년 11월 | 978-89-98079-44-4

남태평양 사모아 어장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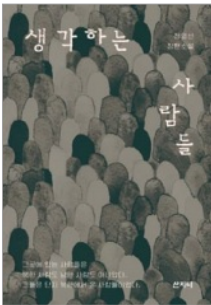
한국 해양문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김부상 소설가의 해양 장편소설. 뱃사람이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바다로 나가는 것을 꿈꾸던 청년 일수는 원양어선 지남2호의 항해사로서 남태평양의 사모아로 떠난다. 1963년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지남2호의 조난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일수의 성장을 그리고 있다.

*부산일보/현대해양
추천도서



정영선

1963년 경남 남해 출생.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와 동 대학원 국문과를 거쳐 경성대학교 국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 소설집으로 『평행의 아름다움』(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선정), 장편소설로 『실로 만든 달』, 『물의 시간』, 『물경하고 쫓득한 두려움』, 『람들』이 있다. 부산소설문학상, 부산작가상, 봉생문화상, 요산김정한문학상을 받았다. 2013~2014년 교육부 파견교사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청소년 학교에서 근무했다.



생각하는 사람들

정영선 지음 | 304쪽 | 19,800원 | 2024년 6월 | 979-11-6861-306-5

탈북민들을 향한 끊임없는 구별과 배제 그리고 외로움에 관하여

19세기 탈북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 내 청소년학교에서 2년간 파견교사로 근무한 정영선 작가의 장편소설. 자유를 찾아 남한을 선택한 수지, 축구를 하고 싶었던 창주, 글을 잘 쓰는 선주 등 각기 다른 이유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이 소설은 탈북자들을 소재로 하여 남한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과 외로움, 한국사회의 또 다른 어둠을 그려낸다.

오디오북

*말레이시아
판권수출

*2022
서울국제도서전
〈다시,이책〉선정

*2019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북투필름 선정도서

*제35회
요산김정한문학상
수상도서



물의 시간

정영선 지음 | 295쪽 | 12,000원 | 2010년 5월 | 978-89-92235-89-1

명성왕후가 살해된 후, 조선의 시간을 재는 물시계도 멈췄다

조선의 마지막 국모인 명성왕후의 시해사건을 ‘시간’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중세와 근대의 시간이 교차하는 1895년 조선을 배경으로 서양 시간과 조선 시간을 둘러싼 권력과 자신의 시간을 잃은 여성, 조선의 시간을 잃어 가는 황후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담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창작 지원도서

*20108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빛

김곰치 지음 | 392쪽 | 12,000원 | 2008년 7월 | 978-89-92235-44-0

37살 노총각, 노처녀 그리고 예수의 삼각관계 이야기

연애소설의 형식을 빌린 종교소설이다. 2007년 가을과 겨울, 부산을 배경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우리 주변의 소심한 인간들이 질투하고, 애원하고, 화내고, 성질부리는 연애 이야기 속에 예수 문제를 풀어내었다.

*2008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문화일보/부산일보
추천도서



정광모

소설가. 부산 출생. 「어서 오십시오, 음치입니다」로 《한국소설》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작화증 사내』, 『존슨기억 판매회사』, 『나는 장성택입니다』, 『콜트45』, 장편소설 『토스쿠』, 『유토피아로 가는 네 번째 방법』, 『마지막 감식』, 그 외 『작가의 드론독서 1, 2, 3』이 있다. 부산작가상, 아르고창작기금, 부산소설문학상을 수상했다.



유토피아로 가는 네 번째 방법

정광모 지음 | 368쪽 | 16,000원 | 2021년 6월 | 978-89-6545-730-5

꿈은 그에게 또 하나의 세상을 선물했다

부산작가상, 부산소설문학상 등을 수상한 정광모 소설가의 세 번째 장편소설. 아르고문학창작기금을 수상한 이번 작품에서는 꿈 속의 꿈을 꾸며 유토피아의 건설을 꾀하는 인물들을 통해 진정한 유토피아의 의미를 되짚는다.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깨어 있는 꿈으로 들어오는 인물들. 그들은 진정한 유토피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오디오북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뉴스스/부산일보 추천도서



토스쿠

정광모 지음 | 336쪽 | 13,800원 | 2016년 5월 | 978-89-6545-356-7

필리핀의 섬에서 실종된 로봇공학자, 그가 만난 '또 다른 나'

명쾌한 이성적 사고로 삶을 대하는 '장 박사'와 함께 나무를 매만지며 상처를 다독이던 이들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겪게 되는 신비한 체험. 생명의 은인파도 같은 장 박사를 찾아 떠난 3인은 미지의 섬에 있다는 그와 무사히 귀국할 수 있을까?

*2016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국제신문 / 미주중앙일보 / 부산일보 추천도서



콜트45

정광모 지음 | 232쪽 | 15,000원 | 2020년 12월 | 978-89-6545-692-6

과거로부터 이어진 끝없는 불안과 보이지 않는 미래,

장르를 넘나들며 구축되는 새로운 세계관

리얼리즘부터 판타지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면서도, 저마다 인간의 내면을 똑바로 마주보는 6편의 작품을 담았다. 표제작 「콜트45」는 일상의 표면과 역사의 심층을 포개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소설은 부산 수정동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수정동은 산지가 많고 평지가 좁은 부산의 특성과 피란수도 역사를 반영하는 공간이다.

*경남신문 / 국제신문 /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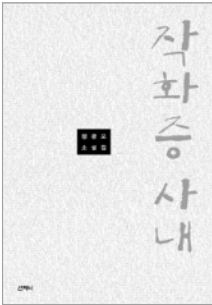
나는 장성택입니다

정광모 지음 | 224쪽 | 14,000원 | 2018년 5월 | 978-89-6545-501-1

“행복하면서 불행했습니다”

표제작 「나는 장성택입니다」는 역사적 인물의 고백으로 진행되고, 선택의 기로 앞에 선 주인공의 삶과 행복을 돌아본다. 또한 리얼리즘 작품에서부터 역사적 소재로 시작해 스텔러적 분위기를 띠는 작품, 노인 문제를 빅데이터와 결합시킨 작품까지 다채로운 이야기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국제신문 / 경상일보
추천도서



작화증사내

정광모 지음 | 244쪽 | 12,000원 | 2013년 3월 | 978-89-6545-213-3

담담하면서도 치열하게 현실을 비틀다

일상의 내부를 비집고 들어온 치밀한 상상력으로 점철된 소설가 정광모의 세계는 담담하면서도 드라이한 개성을 지녔다. 현대인의 일상을 일곱 가지 단편으로 무덤덤하게 깊고 넘어간 이 소설집에서 작가는 기계화된 문명 속에서 체제 순응적 삶을 강요당하는 인간 군상을 포착해냈다.

*2013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2013부산작가상
수상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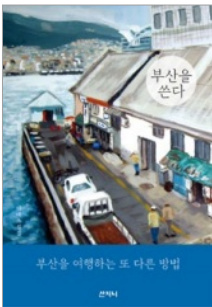
붉은 등, 닫힌 문, 출구 없음

김비 지음 | 268쪽 | 13,000원 | 2015년 10월 | 978-89-6545-319-2

동반자살을 결심한 가족, 비상계단에 갇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트랜스젠더 여성 소설가인 김비 작가의 네 번째 장편소설. 희망이 ‘고문’이 된 시대, 이 소설은 ‘후련한 절망’에서 첫걸음을 내딛어 암흑 속으로 몸을 던진다. 강렬한 이미지와 서스펜스는 영화를 연상시킨다.

*경향신문 / 맥스무비
추천도서



부산을 쓴다

정태규 외 27인 지음 | 318쪽 | 20,000원 | 2022년 3월 | 979-11-6861-024-8

소설로 쓰는 부산의 인문지리지

부산 공간을 소설로 담은 소설집. 범어사, 태종대, 을숙도 등 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살아 있는 장소 28곳을 부산을 대표하는 28명의 작가들이 각각의 공간에 대응하는 작품으로 장소성을 형상화하였다. 그야말로 소설로 쓰는 부산의 인문지리지다.

*2010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매일경제 / 부산일보
추천도서
*연합뉴스 / 부산일보
추천도서



마네킹이 필요하다고요?

곽성근 외 지음 | 200쪽 | 15,000원 | 2022년 11월 | 979-11-6861-109-6

소설가 17인이 구축하는 짧고 강렬한 삶의 단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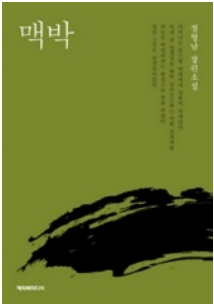
일상의 단면을 잘라내 삶의 내부를 전시하고 관찰하는 소설부터 묵직하고 강렬한 한 방을 날리는 소설까지 다양한 소설이 포진되어 있다. 소설집에 수록된 짧은 소설들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며, 때로는 강렬한 반전을 남기며 돌아서고 때로는 여운을 흠뻑리며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국제신문 / 뉴스
추천도서



정형남

『현대문학』 추천, 『월간문학』 신인상, 『세계의문학』으로 작품활동. 『남도(5부작)』로 제1회 채만식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창작집 『수평인간』 『장군과 소리꾼』 『진경산수』 『노루똥』 『심향』, 증편집 『반쪽 거울과 죽집계』 『백 갈래 강물이 바다를 이룬다』, 장편소설 『숨겨진 햇살』 『높은 곳 낮은 사람들』 『만남, 그 열정의 빛깔』 『여인의 새벽(5권)』 『토굴』 『해인을 찾아서』(대산창작지원금 수혜) 『천년의 찻씨 한 알』(문예진흥원지원금 수혜) 『삼겹살』(2012년 우수교양도서) 『감꽃 떨어질 때』(2014년 세종도서) 『꽃이 피니 열매 맺혔어라』 『피에 젖은 노을』 『맥박』을 세상에 내놓았다.



맥박

정형남 지음 | 280쪽 | 16,000원 | 2020년 5월 | 978-89-98079-32-1

삶의 뿌리와 근원에 대하여

세상의 굴곡에도 좌절하지 않고 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각박해진 세상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인물들을 통해, 흔들리고 희미해지는 삶의 뿌리와 근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는 끊임없이 뛰는 ‘맥박’처럼 고향에서 피어난 이야기를 다시 고향에 뿌리면서, 우리의 원천을 되돌아보게 한다.

*국제신문 / 세계일보 / 대구신문 추천도서



감꽃 떨어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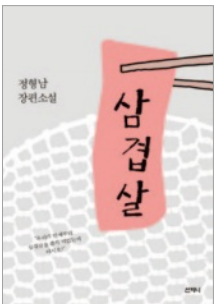
정형남 지음 | 320쪽 | 14,000원 | 2014년 7월 | 978-89-6545-262-1

한국 근현대사와 교차한 소박한 민초의 삶

시골마을의 소박한 정취를 배경으로 결코 운명이라 할 수 없는 비극적 시대를 살았던 한 가족의 한스러운 삶을 그리고 있다. 일흔셋의 한 할머니가 옛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소설의 전개는 역사의 비극으로 생이별한 아버지에 대한 딸의 그리움을 담았다.

*2014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뉴스스 / 울산매일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삼겹살

정형남 지음 | 254쪽 | 12,000원 | 2012년 7월 | 978-89-6545-182-2

"우리가 언제부터 삼겹살을 즐겨 먹었는지 아시오?"

명쾌한 이성적 사고로 삶을 대하는 ‘장 박사’와 함께 나무를 매만지며 상처를 다독이던 이들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겪게 되는 신비한 체험. 생명의 은인파도 같은 장 박사를 찾아 떠난 3인은 미지의 섬에 있다는 그와 무사히 귀국할 수 있을까?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국제신문 / 부산일보 / 연합뉴스 추천도서



심향 정형남 소설집

정형남 지음 | 224쪽 | 16,000원 | 2022년 6월 | 979-11-6861-052-1

마음 깊은 고향, 추억을 곱씹다

고향의 정취와 과거의 그리움을 보여주는 정형남 소설가의 소설집.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며 삶의 근원을 찾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일상을 살아가다 우연히 고향, 과거와 마주한 인물들은 추억에 젖거나, 그 당시로 되돌아가고자 하거나, 과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

*전남매일 / 국제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노루똥

정형남 지음 | 232쪽 | 13,000원 | 2017년 11월 | 978-89-98079-23-9

메마른 도시를 벗고 자연으로 귀향하다

여덟 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된 『노루똥』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작가의 모습을 십분 담고 있다. 전작에서 작가가 일관되게 보여준 산천의 사계와 고향의 정경,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이 그려내는 지난 세월의 풍경들은 이 소설집에서도 이어진다. 다 풀어낸 것 같은 고향의 이야기 보따리는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아 독자들과의 마음을 추억으로 적신다.

*울산매일신문
추천도서



진경산수

정형남 지음 | 220쪽 | 13,000원 | 2015년 12월 | 978-89-98079-14-7

산천의 사계와 벗 삼아 삶을 일구는 이들의 여덟 폭 진경산수화

전라남도 보성에서 창작활동에 전념 중인 중견 소설가 정형남의 단편소설집. 저자가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집이다. 전라남도 보성이라는 공간구성을 배경으로 도시를 벗어난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고 생생한 전남 사투리의 입담을 살려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한 여덟 편의 단편을 한데 엮었다.

*KNN / 국제신문 /
연합뉴스 추천도서



녹색 침대가 놓인 갤러리

이경미 지음 | 240쪽 | 16,000원 | 2021년 12월 | 978-89-6545-769-5

현대 가족 공동체 속의 모순과 갈등을 표출하다

섬뜩한 가족의 서사로 가족 공동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경미의 첫 번째 소설집. 현대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낸 모순과 그 속에 내재한 갈등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 사회 속에서 좀처럼 부각되지 않는 '가족'이라는 통증을 감내하고 있다.

*경기매일 /
경남도민일보 /
경남신문 추천도서



펭귄의 이웃들

오영이 지음 | 256쪽 | 14,000원 | 2022년 10월 | 979-11-6861-095-8

*국제신문 / 한국일보
/ 뉴시스 추천도서

가정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일까?

오영이의 소설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지언정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가려진 누군가를 찾아내고 그려낸다. 『펭귄의 이웃들』에 실린 6개의 단편은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이들은 울타리로 기능해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독자들은 이 소설집의 섬세한 내면 묘사를 통해 폭력, 방치, 가정의 부재와 소외를 마주할 수 있다.



사려니 숲의 휘파람새

장미영 지음 | 272쪽 | 17,000원 | 2023년 8월 | 979-11-6861-168-9

*부산일보 / 국제신문
/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현대인이 겪는 혼란과 모순된 심리를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내다

장미영 소설가의 첫 소설집. 일곱 편의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의 사이에서 이유 모를 혼란과 관계 변화를 겪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린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좇기를 시도하며 타인과 연결되려 하는 청년,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기억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는 가족, 진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남을 기만하는 인물들이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



아이 캔 두 이모

김우남 지음 | 168쪽 20일 | 16,000원 | 2023년 12월 | 979-11-6861-222-8

*국제신문 / 경남일보
추천도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이 전하는 희망

스스로 한글을 배우며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이모의 삶을 담은 「아이 캔 두 이모」,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수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해 뜰 날」 등의 단편이 실린 소설집. 김우남 소설가는 해당 단편들을 통해 차갑고 고독한 사회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마스함이 어린 인물, 그리고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



사람들

황경란 지음 | 224쪽 | 15,000원 | 2020년 6월 | 978-89-6545-069-6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한국일보 / 부산일보
/ 뉴시스 추천도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안에 존재했다

2012년 <농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황경란 소설가의 첫 소설집. 곳곳에 존재하지만 다양한 세상사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한 이들의 삶을 소설에 담았다. 작가는 주변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다가가며, 일상적인 뉴스거리로 소비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편한다. 소설이라는 확대경을 통해 독자에게 여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봐달라며 손짓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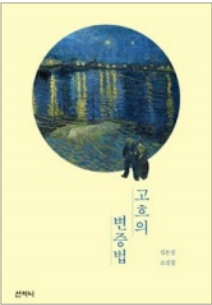
오후 네 시의 동물원

서정아 지음 | 224쪽 | 15,000원 | 2021년 5월 | 978-89-6545-728-2

당신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서정아 소설가의 두 번째 소설집. 서정아 소설가는 이 소설집으로 2021 요산김정환창작지원금을 수상받았다. 8편의 소설에는 인간 삶의 단면과 그 심층에 감추어진 복잡한 무늬들이 정교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상의 귀퉁이 한쪽이 깨진 채 오늘을 살아내는 인물들의 모습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다.

*연합뉴스/부산일보
/국제신문 추천도서



고흐의 변증법

심은신 지음 | 256쪽 | 15,000원 | 2021년 10월 | 978-89-6545-755-8

한 줄기 희망을 찾아 시공간을 방황하는 사람들

삶과 일상 속에서 자신의 좌표를 고민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심은신 소설가의 두 번째 단편집. 저자는 생동감 있고 다양한 문학적 공간들 속에서 그들의 삶을 그려낸다. 인물의 앞에 놓인 현실은 외롭고 막막하지만, 미미한 빛으로 전해지는 한 줄기 희망을 느낄 수 있다.

*울산매일신문
/울산제일일보
추천도서



봄비

한경화 지음 | 224쪽 | 15,000원 | 2021년 9월 | 978-89-6545-745-9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이상을 달린다

예리한 시선으로 보통의 사람들을 조망하는 한경화의 첫 번째 단편집. 치열한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나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작가는 '평범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풍경을 통해 삶의 가치에 대해 되묻는다. 소설 속 인물들은 잊어버리고 있던 기억을 더듬고 자신의 현실을 파헤치며 그 물음에 답한다.

*국제신문/뉴스+
서울신문 추천도서
*연합뉴스/부산일보
추천도서



모자이크, 부산

김민혜 외 지음 | 232쪽 | 15,000원 | 2021년 10월 | 978-89-6545-756-5

로컬에 시선을 둔 여섯 작가의 부산 이야기

부산의 역사와 현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테마소설집. 책은 로컬이 아니라면 알기 힘든 부산의 공간을 소환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여섯 명의 작가는 각자 자신의 시선으로 부산의 여러 장소에 담긴 슬픔, 숨겨진 폭력을 조명하였다. 항상 아름다운 바다를 연상시키는 관광도시가 아닌, 부산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국제신문/
경남도민일보/
뉴스+추천도서



캐리어 끌기

조화진 지음 | 240쪽 | 15,000원 | 2020년 9월 | 978-89-6545-667-4

어디에나 있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들의 이야기

여러 여성의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는 소설집.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어딘가 불안정하다. 부부관계, 모녀관계, 연인관계라는 세 가지 다른 관계 속 여성의 삶을 그려내는 일곱 편의 단편소설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삶의 균상을 작가의 깊고 유연한 시각으로 묘사한다. 불안정한 마음과 관계는 어쩌면 삶의 진실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바람, 바람, 코로나19

문선희 지음 | 264쪽 | 15,000원 | 2020년 12월 | 978-89-6545-687-2

형태와 빛깔이 다른, 저마다 고유하게 빛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세태 속에서 작가는 연륜과 진심이 깃든 8편의 작품을 담았다. 지친 현대인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아름다움을 일깨운다. 또한 각박한 현실 아래 상실되어 가는 절대가치의 회복을 주장한다. 표제작 「바람, 바람, 코로나19」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된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주부의 삶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천도서



봄밤을 거슬러

정미형 지음 | 240쪽 | 15,000원 | 2020년 10월 | 978-89-6545-674-2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나이 듦과 죽음의 불안, 불편한 인간관계

삶의 아이러니와 경이로움 속에서 줄타기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한 소설집. 표제작에서 이제는 노인이 된 시인은 봄날의 오후를 담담하게 그린다. 어느 날 노시인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 정원을 새로 단장한다. 특별할 것 없던 시인의 일상에 소음이 생기고 시인은 그 풍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과 다가올 죽음을 관조한다.

*국제신문 / 부산일보 /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볼리비아 우표

강이라 지음 | 256쪽 | 15,000원 | 2018년 12월 | 978-89-6545-573-8

인생의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 혹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이 인생에 생채기를 내고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뒤흔든다. 상처는 닦고 또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장판의 웅이 무늬처럼 남아 끈고하게 만들지만 그런 인생에 위로를 주는 것 또한 사람이다. 작가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상처와 아픔을 다룬다.

오디오북

*한국일보 / 연합뉴스 / 국제신문 추천도서



방마다 문이 열린다

최시은 지음 | 234쪽 | 15,000원 | 2018년 11월 | 978-89-6545-571-4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 세상의 문들이 열린다

폭력, 상처, 가난, 아픔 등 저마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말 못할 고통의 시간들이 담겨 있다. 냉동창고, 토막살인, 강간범, 개장수, 탈북 여성, 누에, 복어 등 낯것의 소재들이 현장감 있게 소설 속에서 그려진다. 섬세한 묘사로 완성한 소설집으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2019부산작가상 수상도서

*국제신문 추천도서



실금 하나

정정화 지음 | 240쪽 | 15,000원 | 2019년 12월 | 978-89-6545-637-7

일그러진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삶에 대하여

여덟 편의 작품을 통해 부모와 자식, 부부, 직장, 친구 사이에서 관계가 일그러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주목한다. 작가는 위선과 거짓이 팽배한 현실에서도 참된 삶을 갈망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주인공을 끊임없이 등장시키며 독자에게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 묻는다.

오디오북

*부산일보/경남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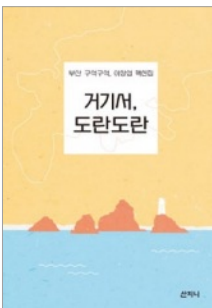
팔팔 끊고 나서 4분간

정우련 지음 | 240쪽 | 15,000원 | 2019년 9월 | 978-89-6545-628-5

다 자라지 못한 마음을 끌어안고 끊는점을 서성이는 인간들

정우련의 두 번째 소설집. 전작 『빈집』에서 유년 시절 가족과 집을 소재로 가족 균열의 모습을 담담히 드러냈던 작가는 이제 시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각 소설에 단단한 깊이를 더한다. 소설 속에서 화자의 시선은 모두 팔팔 끊거나, 끊었거나, 끊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다.

*연합뉴스/뉴시스/
부산일보/국제신문/
무등일보 추천도서



거기서, 도란도란

이상섭 지음 | 240쪽 | 14,000원 | 2018년 4월 | 978-89-6545-502-8

열여섯 편의 팩션으로 포착된 부산, 그 속에 담긴 삶의 목소리

해운대, 사직종합운동장, 대저 적산가옥, 정과정공원 등 부산의 역사가 깃든 몇몇 장소들이 작가가 그려낸 '허구'의 서사를 통해 16편의 이야기 속에서 재탄생했다. 작가는 지속적으로 '부산의 장소성'에 천착하여 역사적 실체이자 삶의 장소인 부산을 발견하는 다채로운 시선을 보여준다.

오디오북

*2018이주홍문학상
수상도서

*KNN/국제신문
추천도서



우리들, 킴

황은덕 지음 | 240쪽 | 13,000원 | 2017년 12월 | 978-89-6545-461-8

전 세계로 흩어진 '킴'들에 대하여

입양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구조와 남성권력을 겨냥하는 동시에 당사자들의 능동성과 연대성을 부각시키는 소설집. 표제작 「우리들, 킴」을 비롯해 「엄마들」, 「해변의 여인」 등의 작품을 통해서 입양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끊어진 관계를 둘러싼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만날 수 있다.

오디오북

*여성신문/연합뉴스
추천도서



폭식 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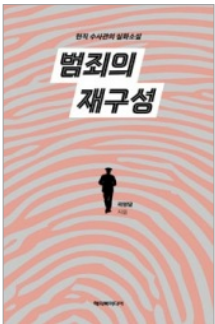
권리 지음 | 176쪽 | 12,000원 | 2017년 7월 | 978-89-6545-430-4

괴기한 시대의 이상하고 외로운 네 편의 이야기들

제9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권리의 첫 소설집. 환상적 기법을 통해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보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 블랙코미디로 녹여내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오디오클

*김해뉴스 / 부산일보 / 연합뉴스 추천도서



범죄의 재구성 현직수사관의 실화소설

곽명달 지음 | 240쪽 | 19,800원 | 2023년 12월 | 978-89-98079-83-3

사건을 통해 살펴본 우리 사회의 현주소

형사들의 활약상을 다룬 범죄소설로서, 40여 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했던 곽명달 저자가 그간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들 중 사회에서 주목받았던 사건들을 소설로 재가공했다.

*국제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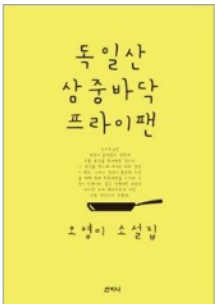
내게 없는 미홍의 밝음

안지숙 지음 | 246쪽 | 13,000원 | 2016년 12월 | 978-89-6545-384-0

투덜대며 문제를 풀어내고 사는 주인공들

작가는 스토리텔링 업체나 외주 업체에서 '을'의 입장에서 일한 경험, 수개월째 월급이 밀렸지만 결국 받지 못했던 경험을 살려 소설에 녹여냈다. 당연했고 만연했기에 지나쳤던 일상의 고통과 상처를 소설에서 가감 없이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각성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2017 세종도서 우수문학도서 *부산일보 / 브릿지경제 / 서울경제 추천도서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

오영이 지음 | 224쪽 | 13,000원 | 2016년 7월 | 978-89-6545-363-5

우리 시대의 민낯을 소설로 형상화하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엮은 소설집이다. 이 소설집에서 눈여겨볼 것은 오영이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문체다. 우리 사회의 음지를 바라보는 따뜻한 관찰력과 이를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문체는 다소 무거운 주제들도 쉬이 읽히도록 한다.

*제30회 전국 성호문학상 수상도서 *국제신문 / 뉴스 / 한국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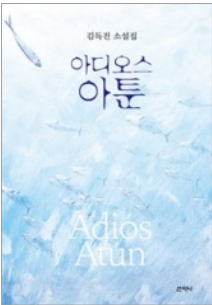
명랑한 외출

김민혜 지음 | 238쪽 | 13,000원 | 2017년 11월 | 978-89-6545-451-9

김민혜 작가가 그려내는 여덟 편의 외로운 이야기

제2회 금샘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김민혜의 첫 소설집. 오랜 시절 작가의 삶의 터전이었던 부산의 정서가 작품마다 녹아 있다. 아이와 현실 사이에서 아이를 포기하는 미혼모의 이야기를 다룬 표제작 「명랑한 외출」을 비롯해, 가족과의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 외로운 기러기 아빠 등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국제신문/일요신문
추천도서



아디오스 아툰 김득진 소설집

김득진 지음 | 212쪽 | 13,000원 | 2015년 12월 | 978-89-6545-327-7

부표처럼 떠도는 뱃사람들의 인생사

제8회 해양문학상 수상작인 중편 「아디오스 아툰」을 비롯해 총 여섯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2014년 단편 「나훗카의 안개」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득진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등단 후 짧은 시간 안에 특유한 스타일을 구축하였다.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덩덤하게 그려냈다.

*국민일보/동양일보
/연합뉴스추천도서



쌍푸춘, 새벽 4시

조미형 지음 | 272쪽 | 13,000원 | 2015년 12월 | 978-89-98079-11-6

삶의 수렁에서 건져 올린 출구 없는 세계의 비정성

신춘문에 당선작 「다시 바다에 서다」를 비롯해 7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저자는 이 소설집을 통해 삶의 심연을 드러내고 그 수렁을 건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지 탐문한다. 잔인한 시장논리가 사회를 떠받들고, 비인간적인 시스템이 도시를 지탱하는 냉혹한 세계를 불면증, 가려움, 편두통 등 인물들이 겪는 고통이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오디오북

*국제신문추천도서



내 안의 강물

김일지 지음 | 272쪽 | 13,000원 | 2015년 10월 | 978-89-6545-317-8

결핍된 가족구조 속에서 빛어지는 고독한 연인의 초상

1986년 「동서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한 김일지의 소설집. 『타란톨라』 이후 8년 만에 출간된 이 소설집에서 작가는 정서적 결핍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다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가족의 유대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근원적 고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제신문추천도서



고래 그림 비

유익서 지음 | 304쪽 | 13,800원 | 2016년 6월 | 978-89-6545-357-4

아름다움의 정명을 찾아가는 여정

『고래 그림 비』의 작품들은 '미학화'라는 삶의 방식을 추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오늘날 현실에 대한 미학적 반성을 불러온다. 저자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결핍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요소라고 본다.

*2016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 한겨레
추천도서



날짜변경선

유연희 지음 | 232쪽 | 13,000원 | 2015년 7월 | 978-89-6545-309-3

육지에서의 시간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뱃사람들의 이야기

『무저갱』 이후 4년 만에 출간된 유연희 작가의 소설집. 육지에서의 시간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뱃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각각의 소설들은 육지를 등지고 바다를 향해하며 겪는 주인공들의 섬세한 내면을 그린다. 표제작 「날짜변경선」에서는 선의(船醫)로서 배를 탄 화자의 시선을 통해 뱃사람들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국제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조금씩 도둑

조명숙 지음 | 244쪽 | 13,000원 | 2015년 4월 | 978-89-6545-286-7

상처 입은 여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공감의 태도

어둠을 식별하는 감각적 문체와 정주하지 않고 유목하는 글쓰기 행보를 보였던 작가는 이 책에서 상처 입은 여성들에 대한 세심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한 「점심의 종류」가 수록되어 있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와 현대인의 상실감을 엿볼 수 있다.

*국제신문 / 김해뉴스
/ 세계일보 추천도서



고도경보 김현일 항공소설집

김현일 지음 | 240쪽 | 13,000원 | 2014년 12월 | 978-89-6545-275-1

먹구름 같은 외로움과 삶의 저기압

‘공중사회’를 해부하는 본격 항공소설집.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다. 이착륙이 순조롭지 못할 때 생기는 분노와 불안, 원망은 제일 먼저 소설 속 주인공들을 붙잡아 상황을 해결하고 보상하라고 등을 떠민다. 30여 년간 항공사에서 근무한 작가의 경력이 허공에 뜬 고독한 인생들의 메시지를 풍부하게 바꾼다.

*국제신문 / 부산일보
/ 한겨레 추천도서



정태규

1958년 경남 합천 출생. 부산대학교 대학원(국문학과)을 졸업하였고, 199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설집으로 『집이 있는 풍경』(개정판 『청학에서 세석까지』), 『길 위에서』, 『편지』가 있으며, 산문집으로 『꿈을 굶다』, 평론집 『시간의 향기』 등이 있다. 제1회 부산소설문학상, 제28회 향파문학상을 수상했다. 부산작가회의 회장과 부산소설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21년 별세.



편지 정태규 창작집

정태규 지음 | 208쪽 | 13,000원 | 2014년 12월 | 978-89-6545-278-2

주소 없는 마음에 띄우는 애잔한 편지 한 장

단편소설 8편과 콩트 6편을 묶었다. 작품 한 편 한 편이 지닌 개성과 싱싱한 생명력을 통해 고통에 굴하지 않는 작가의 뜨거운 창작혼을 드러내고 있다.

- 「비원」은 루게릭병을 소재로 한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다. 원망과 회한이 죽음의 공포를 버텨낼 만한 강한 위안과 결심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그렸다. _경향신문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경향신문 / 연합뉴스
추천도서



청학에서 세석까지

정태규 지음 | 348쪽 | 16,000원 | 2014년 10월 | 978-89-6545-269-0

현대인이 잃어버린 인간됨의 문제를 탐구하다

중견소설가 정태규의 작품세계의 원형을 이룬 첫 소설집 『집이 있는 풍경』의 개정판. 표제작인 「청학에서 세석까지」를 비롯하여 열세 편의 소설들에서 작가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인간됨의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길 위에서

정태규 지음 | 336쪽 | 10,000원 | 2007년 11월 | 978-89-92235-25-9

누구나 한 번쯤 품었던 삶의 근원에 대한 의문들

정태규 작가의 두 번째 창작소설집. 돌아오지 않는 아내와 인터넷 사이트만을 배회하는 나의 이야기를 그린 「정글게임」, 아내의 죽음을 아내와 함께 여행한 공간을 여행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시간의 향기」 등 다소 그로테스크한 기법으로 인간과 시대,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했다.

*2008 이주홍문학상
수상도서
*부산일보 추천도서



서비스 서비스

이미옥 지음 | 264쪽 | 12,800원 | 2013년 9월 | 978-89-6545-226-3

성장을 저지당한 아이들의 세계

오타쿠, 외모지상주의, 등교거부 현상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들을 젊은 감각으로 끄집어 올리고 있는 이 책은 상처를 안고 시대를 떠다니는 영혼들을 깔끔하고 속도감 있는 문장들과 함께 펼쳐내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족 해체의 위기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끝 이병순 소설집

이병순 지음 | 238쪽 | 13,000원 | 2015년 9월 | 978-89-6545-315-4

날 선 감각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져 가는 일상의 의미

〈부산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인 표제작 「끝」을 비롯해 총 7편의 단편으로 채워져 있다. 이병순은 슬리퍼, 창, 스마트폰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을 통해 일상에 나지막하게 깔려 있는 삶의 질문을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가다듬어 나가는 인물과 소설 곳곳에 자리한 일상의 흔적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더불어 문학의 의미,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2015 부산작가상 수상도서

*2016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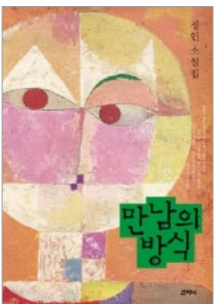


이상한 과일

서정아 지음 | 242쪽 | 13,000원 | 2014년 9월 | 978-89-6545-265-2

관계가 불러오는 불안과 고독을 포착하다

200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서정아 소설가가 세상에 내놓은 첫 번째 소설집. 관계를 화두로 하는 여덟 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남편과 아내, 엄마와 딸, 친구와 애인 등 인간관계가 불러오는 불안과 고독을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로 드러내고 있다.



만남의 방식

정인 지음 | 260쪽 | 13,000원 | 2014년 3월 | 978-89-6545-248-5

상처의 발자취를 좇는 집요한 시선

고백과 폭로라는 일관된 구조를 통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레 타진해온 정인 소설의 정통성은 이 소설집에서도 오롯하다. 8편의 소설마다 빠짐없이 존재하는 ‘나’들은 다양하게 변주된 학교폭력, 성폭력, 가족갈등 속에서 고백 혹은 폭로를 선택하며 숨겨진 의외성을 보여준다.

*2015 백신애문학상 수상도서

*부산일보/연합뉴스 추천도서



한산수첩

유익서 지음 | 304쪽 | 13,000원 | 2012년 6월 | 978-89-6545-180-8

구도(求道)를 위한 섬으로의 자기 유폐

중견소설가 유익서가 한산도에 머물면서 꾸준히 창작활동에 전념해온 결과물을 모은 소설집. 굵은 붓으로 그린 여덟 폭의 동양화처럼 선이 아름답고 여백이 많아 깊은 사유를 요하는 여덟 가지 각기 다른 소설 속에는 섬에서 살아가는 주변인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2012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2012성균관문학상
수상도서



댄싱 맘

조명숙 지음 | 260쪽 | 12,000원 | 2012년 3월 | 978-89-6545-173-0

어둠을 식별하는 동시대성의 감각

소설로 그림 읽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소설집이다. 프리다 칼로의 <버스> 등 7점의 그림에 7편의 소설작품이 조우하는 형식으로, 그림을 보고 느낀 감흥을 소설로 표현하고 있다. 「어깨의 발견」, 「거꾸로 가는 버스」 등이 수록되어 있다.

*2012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2012이주홍문학상
수상도서



불온한 식탁

나여경 지음 | 256쪽 | 12,000원 | 2010년 11월 | 978-89-6545-125-9

우리 주변 아웃사이드러들의 이야기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문체를 견지하면서도 든든한 서사성을 담보하고 있는 작가 나여경의 첫 소설집. 인간관계의 빛나감이 빛어내는 어두운 단면들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더미의 변명」, 「금요일의 썸머타임」, 「돈크라이」 등 7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1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2011부산작가상
수상도서



그는 바다로 갔다

문성수 지음 | 256쪽 | 10,000원 | 2009년 3월 | 978-89-92235-62-4

'바다'의 공간적 의미와 인간의 존재론적 근원을 탐구하다

지역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작품 속에 형상화하기 위해 늘 노력해온 문성수 소설가의 소설집으로, 바다의 공간적 의미와 인간의 존재론적 근원을 탐구하고 있다. 「춤추는 나신」과 단편 「출항지」, 「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바다로 갔다」 등 총 8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2010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부산일보/서울신문
추천도서



장미화분

김현 지음 | 243쪽 | 12,000원 | 2012년 12월 | 978-89-6545-207-2

세상을 향해 비추는 밝음과 어둠의 서사들

사회에서 잉여인간으로 치부되는 노인의 삶을 다룬 「소등」,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겪는 기구한 제주 해녀의 삶을 다룬 「숨비소리」 등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장미를 꽃피우려는 여러 주인공의 모습을 담았다.

*2013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국제신문/부산일보
/세계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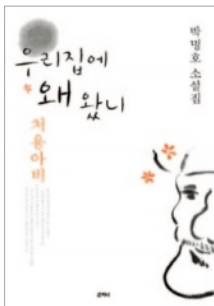
즐거운 게임

박향 지음 | 280쪽 | 13,000원 | 2012년 9월 | 978-89-6545-196-9

무기력한 인생을 조롱하는 맹랑한 속삭임

199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박향 소설가의 소설집. 10대 청소년부터 중년 여성에 이르는 다양한 층위의 주인공을 등장시켜, 그들의 무기력한 삶 속에 담긴 상실과 소외를 그려내고 있다.

*2012 부산작가상
수상도서
*2012 부산문화재단
우수도서
*2012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2013 현진건문학상
수상도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처용아비

박명호 지음 | 240쪽 | 10,000원 | 2008년 11월 | 978-89-92235-51-8

'근원'에 대한 진지한 사유

다양한 소재와 실험적인 기법을 과감히 채택해온 작가 박명호. 이번에는 관조와 절제의 미학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발 물러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감정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였으며, 다양한 소재와 리얼리즘 기법을 벗어나 이미지로 서사를 그리는 형식 실험에도 도전하였다.

*부산일보/연합뉴스
추천도서



달콤쌉사름한 초콜릿, 이야기

옥태권 지음 | 256쪽 | 10,000원 | 2007년 12월 | 978-89-92235-27-3

달콤쌉사름한 사랑과 삶을 다루다

1994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한 옥태권 소설집.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랑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과 함께 삶의 길 찾기, 역사와 권력, 일상성, 남자와 여자 등이 씨줄과 날줄로 직조되어 펼쳐진다. 빠른 전개와 탄탄한 구조, 말의 묘미가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2008 부산작가상
수상도서
*부산일보 추천도서

비소설 문학



살짜콩 휴양림 **살짜콩 01**

조혜원 지음 | 214쪽 | 16,000원 | 2023년 6월 | 979-11-6861-148-1

급할 것 없잖아, 천천히 걷다 보면 새길이 보이니까

휴양림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휴양'이었다

삶의 전환점이 된 전국 방방곡곡 휴양림 탐방기. 힐링으로 가득할 것이라 기대와 달리 휴양림 여행은 마냥 평화롭고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배고프고 다리 아픈,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행길이었지만 저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걸었다. 저자는 자신의 느린 여행이 버거운 나날 속에서도 한 발 두 발 나아가고자 애쓰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위안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란다.

오디오북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뉴스1 / 뉴스1
/ 전북도민일보
추천도서



살짜콩 군대요리 **살짜콩 02**

김지우 지음 | 224쪽 | 16,000원 | 2023년 6월 | 979-11-6861-145-0

요리는 대형 삽! 국자 들고 군대를 지키는 취사병의 세계

이 책은 군복무 시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작은 위로, 군대요리에 관한 글이다. 식칼 한번 잡아본 적 없던 작가는 군대 재수를 피하고자 하루아침에 200인분의 요리를 만드는 취사병이 됐다. 삽으로 고기를 휘저어야 했고 한 번에 수백 개의 달걀을 까야 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닦선 군대요리의 세계가 기분 전환이자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한 끼가 될 것이다.

*이데일리 / 국제신문
/ 국방일보 추천도서



살짜콩 책방러 **살짜콩 03**

강현욱 지음 | 220쪽 | 16,000원 | 2023년 12월 | 979-11-6861-220-4

사랑하는 마음이 일으킨 오늘, 문장을 쓰고 자연과 소통하며 꿈꾼 미래

평일에는 책 읽고 글 쓰고 농사 짓고, 주말에는 곳곳의 동네책방을 방문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저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꿈을 가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담담한 위로를 건네며 그 길을 걸어도 괜찮다고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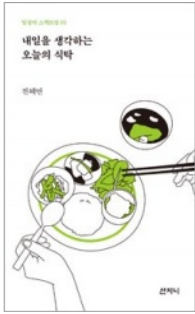


살짜콩 인형 **살짜콩 04**

최서현 지음 | 232쪽 | 16,000원 | 2023년 12월 | 979-11-6861-219-8

10년 차 키덜트, 인형이 만든 나의 다채로운 삶

저자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형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 책은 단순한 취미 생활기가 아니다. 저자는 무언가에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 구원받았고 유튜버, 전시 같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책에는 좋아하는 것에서 힘을 얻어 단단해지는 삶의 과정과 무언가를 좋아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의 식탁 일상의 스펙트럼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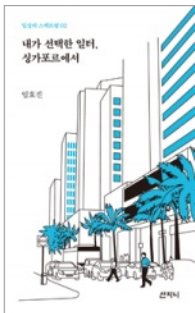
전혜연 지음 | 168쪽 | 10,000원 | 2019년 6월 | 978-89-6545-602-5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기준, 마크로비오틱

계절에 따라 다르게 채색되는 식탁 이야기, 입맛 돋우는 싱싱한 제철 재료 이야기, 전자레인지와 일회용품 없이 사는 고집스러운 삶에 관한 이야기. 저자가 들려주는 마크로비오틱한 삶이 즐겁다.

오디오북

*조선일보 / 한국일보 /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내가 선택한 일터, 싱가포르에서 일상의 스펙트럼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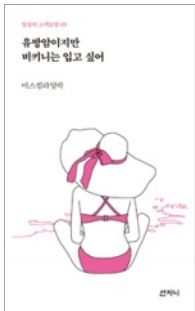
임효진 지음 | 188쪽 | 18,000원 | 2024년 5월 | 979-11-6861-305-8

해외취업에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다

지난 6년간 저자가 경험한 싱가포르에서의 일과 삶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 취업생의 일상, 외국 회사의 시스템과 조직 문화, 매일 밥 먹듯 해야 하는 언어 공부, 집 구하기, 취미 활동, 연애 등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유머 있게 풀어낸다.

오디오북

*2020 청소년 북토론 선정도서 *한국일보 추천도서



유방암이지만 비키니는 입고 싶어 일상의 스펙트럼 03

미스킴라일락 지음 | 162쪽 | 10,000원 | 2019년 10월 | 978-89-6545-604-9

4기 암 환자의 씩씩하고 엉뚱발랄한 일상

유방암 선고를 받은 저자가 항암 치료와 재발을 경험하면서 겪은 암 환자 버전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다. 자신의 블로그에 당당히 암 환자라는 것을 알리고, 암 치료 과정을 무겁지 않고 발랄하게 담아낸다. 저자는 아프기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며 씩씩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디오북

*경향신문 / 국제신문 / 이데일리 추천도서



베를린 육아 1년 일상의 스펙트럼 04

남정미 지음 | 168쪽 | 10,000원 | 2019년 10월 | 978-89-6545-631-5

아이 키우기로 베를린의 삶을 경험하다

특파원으로 일하게 된 남편과 함께 1년 동안 독일에서 지낸 경험을 담은 베를린 육아 일기다. 저자는 독일 사회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대하는지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배어 있는 독일의 육아법을 전한다. 1년 동안 여행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 베를린을 좀 더 깊숙이 만나본다.

*조선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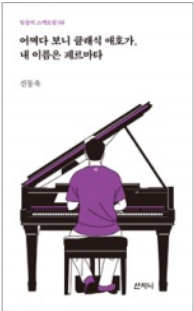
블로거 R군의 슬기로운 크리에이터 생활 **일상의 스펙트럼 05**

황홍선 지음 | 160쪽 | 12,000원 | 2021년 2월 | 978-89-6545-708-4

꿈이 있다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크리에이터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취미가 콘텐츠가 되는 R군의 이야기를 통해 좋아하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들려주고자 한다. 처음엔 작고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블로그로 자신의 삶까지 변화시킨 R군의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다. 매일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한경쟁 시대에, R군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콘텐츠를 만드는 이야기를 전한다.

*2022 청소년 북독권 선정도서
*뉴시스 추천도서



어쩌다 보니 클래식 애호가, 내 이름은 페르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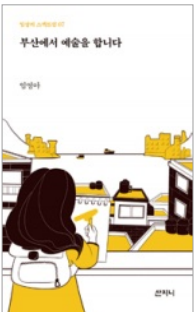
일상의 스펙트럼 06

신동욱 지음 | 224쪽 | 12,000원 | 2021년 7월 | 978-89-6545-735-0

클래식은 내 아이덴티티, 클래식을 사랑하는 20대 청년의 음악 에세이

클래식에 대한 그의 애정은 카페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심지어 공익근무를 하는 와중에도 불쑥불쑥 튀어 나온다. 좋은 음악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저자의 행보는 클래식을 가장 낡고 오래된 음악에서 더없이 익숙하고 부담 없는 음악으로 만든다. 클래식이 흐르는 한 청년의 일상을 통해 클래식의 매력에 성큼 다가가 본다.

*연함뉴스 추천도서



부산에서 예술을 합니다 **일상의 스펙트럼 07**

임영아 지음 | 220쪽 | 12,000원 | 2021년 11월 | 978-89-6545-758-9

어느 평범한 부산 예술가의 이야기

지역에서 예술하는 고단함과 외로움, 불안감을 딛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역 예술가의 이야기. “부산에서, 지역에서 예술로 먹고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저자의 용기를 북돋웠고, 또 다른 가능성을 전달한다. 코로나19 상황, 1인 미디어가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술계에서, 새로운 비대면 예술을 시도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오디오북

*2022 상반기 책씨앗 청소년 추천도서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도서관으로 가출한 사서 **일상의 스펙트럼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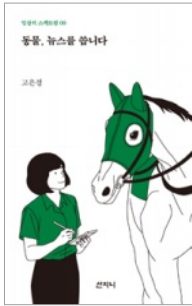
김지우 지음 | 164쪽 | 12,000원 | 2022년 3월 | 979-11-6861-017-0

도서관 마니아가 건네는 지금 도서관 이야기

도서관 불박이 소년에서 결국 사서가 된 도서관 마니아의 에세이. 우리가 무의식중에 가지고 있던 도서관의 이미지와는 다른 ‘지금’ 도서관의 모습을 들려준다. 행사를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서, 유튜브 버를 위한 1인 미디어실을 제공하는 도서관 등 윤택한 문장을 통해 그간 알지 못했던 사서의 일상과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디오북

*2022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 교양도서
*KNN / 동아일보 추천도서



동물, 뉴스를 씹니다 **일상의 스펙트럼 09**

고은경 지음 | 192쪽 | 14,000원 | 2023년 6월 | 979-11-6861-146-7

동물의 시선에서, 동물의 목소리를 전달하다

동물복지전문기자의 직업과 삶을 담은 에세이. 고은경 저자는 한국일보에서 뉴스레터 '고은경의 애니로그'를 운영하며 독자들에게 동물 뉴스를 전하고 있다. 책에는 동물 기사를 쓰게 된 계기, 유기동물 입양 홍보 코너인 <가족이 되어주세요>와 동물을 위한 청원 <애니청원>의 탄생 배경, 동물 뉴스 취재기, 반려인으로서의 이야기 등 다양한 동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오디오북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문화일보 / 사시인 /
한국일보 추천도서



슬기로운 아프리카 생활 **일상의 스펙트럼 10**

이은영 지음 | 176쪽 | 15,000원 | 2024년 03월 | 979-11-6861-243-3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가려진 아프리카, 진짜 나를 만나

작가는 유엔환경계획의 기후변화적응 담당관으로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일하며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작가가 경험한 코트디부아르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인 공간이었다. 그래서 작가가 풀어내는 일상에는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환경, 정치, 문화가 담겨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여행으로는 볼 수 없는 살아 있는 코트디부아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추천도서

에세이



깁대리 김대리 그대로 견대리

김제호 지음 | 272쪽 | 18,000원 | 2022년 11월 | 979-11-6861-110-8

깁대리 김대리의 미생으로 출근해서 완생으로 퇴근하기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며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직장인.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을까? IT 기업에서 일하는 깁대리는 자신이 회사 안과 밖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동료 회사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번아웃으로 휴직까지 해야 했던 깁대리의 직장생활은 독자에게 웃음을, 때로는 울음을 자아낸다.

*이데일리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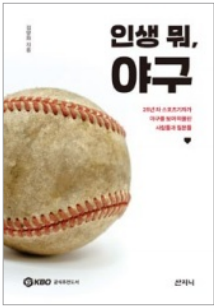
요리의 정신

박영봉 지음 | 224쪽 | 20,000원 | 2023년 2월 | 979-11-6861-129-0

요리부터 식문화까지, 요리의 세계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다

한국 요리에 대한 높아진 세계의 관심을 배경으로 저자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 음식과 요리 문화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김치, 된장 등 우수한 한국의 식재료는 물론이고 맥방, 상차림, 요리인, 문학 등 요리를 둘러싼 문화를 살펴본다. 저자에게 요리는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요리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했다.

*부산일보 / 뉴시스 /
뉴스1 추천도서



인생 뭐, 야구

김양희 지음 | 320쪽 | 25,000원 | 2024년 4월 | 979-11-6861-244-0

25년 차 스포츠기자가 야구를 보며 떠올린 사람들과 질문들

베테랑 야구 전문 기자가 오랜 경력을 토대로 풀어낸 야구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생의 희로애락의 순간을 담은 책. 25년간 프로야구 현장을 취재하며 그라운드를 누빈 김양희 기자는 야구의 힘을 일상성에서 찾는다. 그리고 기록과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야구인들의 삶과 우리 인생의 '야구적'인 순간을 포착해낸다.

*KBO 공식 추천도서
*스포츠경향 / 한겨레 / 채널에스 추천도서



김순남 씨, 이제 울릉도로 가요

박경자 지음 | 224쪽 | 18,000원 | 2024년 5월 | 979-11-6861-302-7

엄마와 함께 살던 울릉도의 지난날과 현재를 기억에 새기다

울릉도에서 태어나 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저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보낸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기로 마음먹는다. 부산에서 30년간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글쓰기 활동을 해온 경험을 통해 저자는 기록이 가지는 가치를 새기고 간직해왔다. 그리하여 저자는 울릉도에 여러 번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걸어 올린 기억을 글쓰기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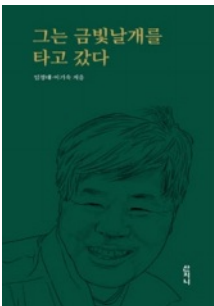
지구별에 도착하셨습니다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삶에 대하여

박태성 지음 | 240쪽 | 18,000원 | 2023년 8월 | 979-11-6861-167-2

우주와 자연에서 건져 올린 삶의 지혜와 자세

아침을 열기가 버거운 당신에게 이 책은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우주의 시공간을 생각하라고. 『지구별에 도착하셨습니다』에는 우주와 자연의 섭리를 일상 사건들과 연결해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오랜 기간 기자로 살아온 저자는 언론인으로서 행한 사회적 연결을 자연에 접목했다. 저자의 성찰과 깨달음 그리고 자연과 함께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자.

*부산일보 추천도서



그는 금빛날개를 타고 갔다

임정태, 이기숙 지음 | 208쪽 | 20,000원 | 2023년 12월 | 979-11-6861-214-3

남편을 보내고 100일, 남겨진 아내가 기록하는 남편과의 시간들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죽음을 연구하고 교육하던 저자가 남편과 사별 후 써내려간 글. 남편이 떠난 지 100일, 삶의 이곳저곳에서 사라져가는 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록을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서 떠오르는 기억을 붙잡으며 글을 써 내려가는 과정은 그를 온전히 보내는 작업이었고, 배우자를 갑자기 떠나보낸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부산일보 / 여성신문 추천도서



다정한 연결

안미선 지음 | 254쪽 | 18,000원 | 2024년 5월 | 979-11-6861-303-4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다정함’에 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작업을 해온 안미선 작가가 42권의 책에서 발견한 연결과 연대의 단어들을 소개한다. 일인 가구, 경력 단절, 중년, 한부모, 이주민, 홈리스 등 다양한 층위에 속해 있는 여자들이 겪는 불합리함과 부조리 속에서도 누군가가 소리 없이 베푸는 ‘어떤 다정함’이 그들을 여전히 살아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독서의 온도 모임의 체온

김성환 지음 | 256쪽 | 18,000원 | 2023년 1월 | 979-11-6861-128-3

독서모임 ‘북텐츠’ 운영자가 알려주는 지속가능한 독서모임을 위한 운영 노하우

책 읽지 않는 시대에 독서모임을 찾는 사람들. 저자는 이런 기이한 현실 속에서 독서모임을 지속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왜 독서모임을 해야 하는지, 독서모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코로나19를 딛고 독서모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등 독서모임을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전한다.

*2023 한국출판학회 올해의 책



나는 바다로 출근한다

김정하 지음 | 304쪽 | 19,800원 | 2023년 11월 | 979-11-6861-190-0

인생 역경과 꿈의 무대 바다, 그곳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해양인이 있다

30여 년간 해양문화를 연구해온 저자는 해양인에 대한 편견에 부당함과 의문을 느끼고 세간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바다로 향했다. 그리고 1년간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의 각종 해양수산 관련 현장의 실무자, 전문가, 애호가를 만나 인터뷰를 나누고 해양인들의 일과 삶을 정리했다. 독자는 책에 소개된 해양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넓은 해양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조선일보 / 이데일리 /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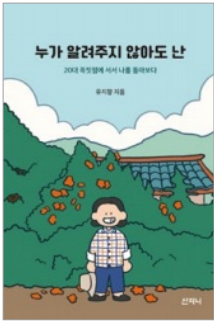
나는 매일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

한성진 지음 | 232쪽 | 18,000원 | 2023년 8월 | 979-11-6861-165-8

항해사에서 외교관까지, 인생이란 거친 물살을 헤치고 꿈을 향해 나아가다

이 책에는 항해사, 모스크바 유학생을 거쳐 외교관이 된 저자의 끝없는 모험이 담겨 있다. 3년간의 항해사로 일하며 마주한 거친 파도와 다양한 문화,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맺기 전 떠난 유학 생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체감하는 외교관까지.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부산일보 / 현대해양 추천도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난 20대 꼭짓점에서 서서 나를 돌아보다

유지향 지음 | 224쪽 | 16,000원 | 2022년 6월 | 979-11-6861-033-0

내 인생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이야기

자신의 인생을 남의 잣대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길을 걸고자 고민한 저자가 20대의 끝자락에서 쓴 에세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주변의 기대에서 벗어나 변산동체학교에서 지낸 생생한 경험과 글쓰기만의 인생길은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를 전한다. 더불어 숲해설가 과정을 하며 느낀 즐거움과 지구를 구하겠다는 새로운 꿈도 따스하게 보여준다.

*기획회의/작은책
/전북도민일보
/한국강사신문
추천도서

*2022 9월 책씨앗
문학부문 추천도서



불가능한 대화들

염승숙 외 18인 지음 | 264쪽 | 15,000원 | 2011년 3월 | 978-89-6545-139-6

젊은 작가 12인과 문학을 논하다

한국문학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시인과 소설가 12명의 창작에 대한 열의와 문학에 대한 신념을 담은 책. 우리문학계에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생성해온 염승숙, 김숨, 김이설, 김재영, 정한아, 김사과, 김언, 안현미, 최금진, 김이듬, 박진성, 이영광이 그 주인공이다. 창작 과정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작가의 창작노트인 '작가산문'과 비평가들의 비평적 열망 앞에 작가의 생생한 육성을 담아낸 '대담'으로 꾸며졌다.

*201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연합뉴스/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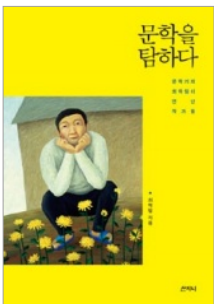
불가능한 대화들 2

정유정 외 15인 지음 | 272쪽 | 15,000원 | 2015년 6월 | 978-89-6545-290-4

우리 시대의 작가 10인에게 묻다

정유정, 김유진, 고은규, 김성중, 최진영, 이승우, 서효인, 김경인, 조혜은, 이안. 오늘날 한국문학이라는 너른 마당 속에서 뚜렷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열 명의 소설가와 시인을 젊은 비평가들이 만났다. 창작의 우물을 은밀하게 비춰보는 '작가산문'과 열띤 '대담'의 기록에서, 우리는 문학이 빛나는 문장과 사유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삶에 기여할 수 있기에 유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2013 부산문화재단
우수도서



문학을 탐하다

최학림 지음 | 304쪽 | 18,000원 | 2017년 4월 | 978-89-6545-410-6

문학기자 최학림이 만난 작가들

문학기자인 저자가 부산 경남 지역 작가 18명과 그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에세이. 지역을 지키며 묵묵히 글을 쓰는 작가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지역문화 기록집이다.



선생님의 보글보글

이준수 지음 | 230쪽 | 15,000원 | 2021년 2월 | 978-89-6545-711-4

오늘도 흔들리는 멘탈을 붙잡아라. 아이들과 교실에서 명랑하게 살아남기

이해할 수 없는 초등학생의 정신세계에 보글보글 열이 오르다가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글보글 사랑을 주고픈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았다. 매일 희비를 오가며 고군분투하는 저자의 명랑함과 고단함에 웃음과 감동이 함께 밀려온다. 여기에 녹록지 않은 학교와 교사 생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쏟아낸다.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재미난 학교 이야기가 보글보글 샘솟으니 귀 기울여 주시길!

오디오북

*2021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도서
*시사인/오마이뉴스
추천도서



황은덕 소설가의 공감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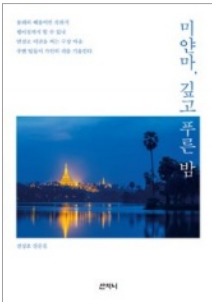
황은덕 지음 | 270쪽 | 16,000원 | 2022년 1월 | 978-89-98079-46-8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를 품는 공감 에세이

이 책의 저자는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글로, 마음으로 공감하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권력의 타락을 막은 사례를 비평한다. 현 시대를 읽는 작가의 안목에는 성찰이 녹아 있다. 저자는 이러한 성찰의 기록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는 시도를 하고, 공감을 공부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공감 능력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오디오북

*부산일보/뉴스1/
광주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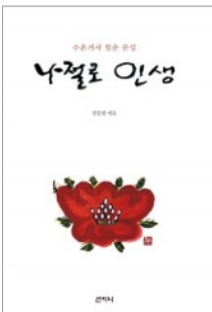
미안마, 깊고 푸른 밤

전성호 지음 | 256쪽 | 17,000원 | 2021년 11월 | 978-89-6545-763-3

미안마의 우기를 뚫고 함석지붕을 두드려라

섬세한 눈길로 미안마의 겉과 속에 대해 기술한 전성호 시인의 생애 첫 산문집. 뛰어난 작가이자 인류애의 실천가인 저자는 20여 년간 미안마에서 생활하며 걸어 올린 무수한 정념과 사유를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이 책으로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에 답한다. 미안마와 수많은 소수 민족의 삶, 나아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시인의 언어로 아름답게 구현해 내었다.

*뉴스1/
월드코리안신문
추천도서



나절로 인생

장동범 지음 | 304쪽 | 18,000원 | 2021년 5월 | 978-89-6545-726-8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아는 나이

기자, 방송국장, 대학교수, 작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장동범 시인의 산문집. 『나절로 인생』이라는 제목은 “산 절로 수 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었다. 이번 책에는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기록한 단상을 비롯하여 산문, 칼럼, 독서일기 등이 담겨 주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가 돋보인다.

*연합뉴스/부산일보
추천도서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삶을 지키고 나를 지키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국환 지음 | 232쪽 | 15,000원 | 2019년 9월 | 978-89-6545-623-0

예술과 철학에서 찾은 삶의 무게,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애정, 고통과 불안 속에 버티는 삶의 가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의미를 저자의 단단한 사유와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다. 흔들리고 고민하며 불안을 안은 채,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곧 다가올 오후도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다독인다.

오디오북

*2020년 원북원부산
일반부문 선정

*2019 12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말레이시아
판권 수출



삶을 지키고 나를 지키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 일상의 여러 감정들을 치밀한 논리와 따뜻한 문장으로 녹여낸다. 저자의 오래된 사유가 독자들에게 깊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독서신문**
- 예술과 철학에서 찾은 삶의 의미,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애정, 고통과 불안 속에 버티는 삶의 가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의미를 단단한 사유와 섬세한 시선을 통해 풀어낸다. **부산일보**



걸어서 들판을 가로지르다

박향 지음 | 208쪽 | 15,000원 | 2020년 11월 | 978-89-6545-680-3

여행과 일상, 그 경계에서 따뜻한 위로를 만나

제주 서쪽바다에서 보낸 열흘의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집. 여름의 끝자락인 8월의 막바지, 작가는 제주도로 열흘간의 길고도 짧은 여행을 떠난다. 직장인으로, 엄마로, 주부로, 아프고 늙은 부모의 자식으로,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아온 지난 시간이었다. 유행하는 한 달 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쁜 시간의 허리를 툭 때 내어 조용하고 여유롭게 '나'에게 집중하고 싶었다.

오디오북

*부산일보/국제신문
추천도서



나도 나에게 타인이다 소진기 에세이

소진기 지음 | 304쪽 | 16,000원 | 2020년 3월 | 978-89-6545-652-0

글 쓰는 경찰관이 써 내려간, 우리가 지나는 풍경

수필가이자 현직 경찰서장인 저자가 20여 년간 차곡차곡 쌓아 온 사유와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담겨 있다. 공직자와 자연인의 삶과 함께 가족을 향한 애정과 그리움이 묻어나고, 한국사회의 현실에 관한 아프지만 날카로운 시선도 엿보인다. 사소한 일상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따스한 시선이 돋보인다.

오디오북

*KNN 추천도서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고인돌에서 인공지능까지

김석환 지음 | 298쪽 | 16,000원 | 2020년 9월 | 978-89-6545-671-1

남도에서 만난 역사와 풍경,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이야기

주로 남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관한 단상을 전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인류와 역사의 발전 방향이 '확장'에서 '연결'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콘택트 세상의 핵심 가치는 '신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상대, 서비스,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졌다.

*부산일보/
광주매일신문
/금강일보/
연합뉴스 추천도서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이병철 산문집

이병철 지음 | 214쪽 | 14,000원 | 2019년 1월 | 978-89-6545-575-2

젊은 시인이 그려낸 우리 사회의 풍경

확자지결한 세상살이가 녹아 있는 책. 요지경인 세상에 경악을 금치 못할 때도,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 수많은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지만, 저자는 사람들에게 아직 삶은 아름답고,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전한다.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연합뉴스/경북매일
추천도서



시인의 공책

구모룡 지음 | 208쪽 | 13,000원 | 2018년 7월 | 978-89-6545-536-3

문학 평론가의 눈으로 들여다본 세계의 깊이와 넓이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된 후 부산을 거점으로 문학 평론가로 활동해온 구모룡의 에세이집. 책에서는 저자가 기존에 가졌던 고민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인문적 사색과 통찰을 만날 수 있다. 밀도 높은 글들을 통해 때로는 시보다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때로는 사회를 해부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공명을 흔들어놓는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뉴스/부산일보/
뉴스페이퍼추천도서



시로부터 최영철 산문집

최영철 지음 | 224쪽 | 14,000원 | 2019년 4월 | 978-89-6545-597-4

시의 대변자가 되어 시를 말하다

30년 넘는 세월을 왕성하게 활동해온 시인이 시의 대변자가 되어 시와 시인에 대해, 시 쓰기에 대해, 시 과잉과 시 폄박에 대해, 시를 안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가감 없이 써 내려간 책이다. 지금껏 밥벌이와 생의 원동력이었던 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며 시인만의 시론을 펼친다.

*한겨레/부산일보
추천도서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산골 해원 작은 행복 이야기

조혜원 지음 | 256쪽 | 18,000원 | 2023년 7월 | 979-11-6861-159-7

오디오북

사계절 가득 담은 밥상에서부터 철 따라 이어지는 산살림, 들살림까지! 깊은 산골, 하얀 집에서 펼쳐지는 알콩달콩 행복 이야기

서른을 훌쩍 넘겨 서울 생활을 접고, 아무 연고도 없는 외딴 산골에 첫 발을 디딘 용감한 여자가 있다. “잘한 선택일까, 과연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깊은 산골짜기 언덕 위의 하얀 집에 깃든 지 어느덧 5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산살림, 들살림을 맛깔스럽게 그려낸다.

- 당장 보파리 싸서 시골 가 살겠다는 사람이 무더기로 나타날까 걱정스럽다
_윤구병(농부 철학자)
- 일중독이었던 도시노동자,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_오마이뉴스
- 여기 진짜 <리틀 포레스트>가 있다. 전북 장수에 귀촌해 사는 조혜원씨 부부는 자연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일치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다.
_시사인

*2020 우수환경도서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오마이뉴스/시사인
/국제신문 추천도서



산골에서 혁명을 초록 눈 아나키스트와 꿈꾸는 자유영혼 '나'

박호연 지음 | 240쪽 | 14,800원 | 2018년 2월 | 978-89-6545-487-8

자유로움을 갈망하던 도시녀, 초록 눈의 아나키스트 남편과 자연에 들어가다

제도가 만들어놓은 패턴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방식으로 살아보기엔 도시보다 산골이 더 좋을 것 같아, 서울에서 나고 자라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여자는 캐나다인 남자를 만나 무주 덕유산 자락에 신혼집을 차렸다. 그리고 어느덧 아이 넷을 낳아 기르며, 요상한(?) 손님들을 맞으며 좌충우돌 살아가는 그 여자 박호연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생을 버티게 하는 문장들 박두규 산문

박두규 지음 | 220쪽 | 13,000원 | 2017년 3월 | 978-89-6545-404-5

외로운 당신에게 건네는 생명의 메시지

지리산 권역에서 활동하며 자기완성과 사회적 실천을 지향하는 시인 박두규의 산문집.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자연, 인간, 문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한다.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질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산의 품성과 자연이 전해주는 순수한 땀의 의미를 접할 수 있다.

*연합뉴스추천도서



다독이는 시간 김나현 수필집

김나현 지음 | 256쪽 | 15,000원 | 2018년 8월 | 978-89-6545-543-1

삶의 애환, 상처, 환희 등을 원숙하게 다독이다

저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삶의 애환, 상처, 환희 등을 원숙하게 풀어냈다. 쉽게 꺼내기 힘든 개인사의 상처도 글로 단정하게 담았다. 따끔거리며 읽다가 지나온 삶을 다독거리는 작가의 긍정에 힘이 난다. 일상의 다양한 일화를 솔직하게 보여준 저자 덕분에 읽는 이의 마음이 욕심 없이 맑아진다.

*제1회
문정수필문학상 수상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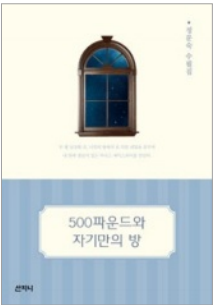
구텐탁, 동백아가씨

정우연 지음 | 260쪽 | 13,000원 | 2017년 12월 | 978-89-6545-462-5

인생과 문학, 예술에 대한 깊은 단상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아름다움을 읽는 저자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 저자는 글을 통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와 버린 '어딘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억에만 남은 그리운 '누군가'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말한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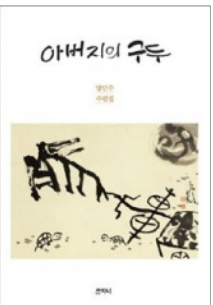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 정문숙 수필집

정문숙 지음 | 214쪽 | 13,000원 | 2017년 12월 | 978-89-6545-458-8

늦깎이 작가의 삶과 글, 그리고 예술

늦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해 크고 작은 공모전과 문학상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꿈을 키워온 저자의 수필들이 담겨 있다. 구성과 내용 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다소 힘에 부쳤던 과거의 일들을 담담한 문체로 풀어내며 비슷한 처지이거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넨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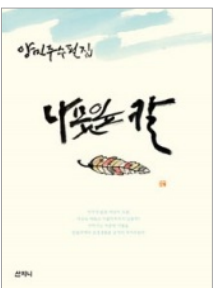
아버지의 구두 양민주 수필집

양민주 지음 | 240쪽 | 15,000원 | 2013년 9월 | 978-89-6545-225-6

섬세한 감수성으로 자신만의 수필 세계를 펼친 양민주 수필가의 첫 번째 작품집

2006년 문예지 『시와 수필』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수필가의 길을 걸어온 양민주 작가의 첫 번째 수필집. 저자는 육친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연의 이법을 따르는 삶 등 자신만의 고아한 수필 세계를 이 책에서 마음껏 펼쳤다.

*2015 원종인
수필문학상 작품상
*국제신문/뉴시스
추천도서



나뭇잎 칼 양민주 수필집

양민주 지음 | 200쪽 | 15,000원 | 2019년 5월 | 978-89-6545-600-1

고향마을 추억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전하다

고향마을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가족과 도시라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 자연을 품은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무장된 도시에서 저자가 전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이야기는 딱딱한 마음을 절로 넉넉해지게 한다.

*경남도민일보/
김해뉴스 추천도서



동부태평양어장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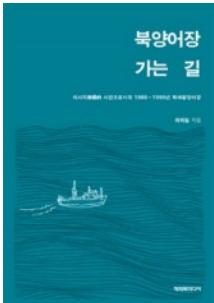
원양어선에서 마주한 인간의 욕망과 물고기의 아가미

최희철 지음 | 224쪽 | 16,000원 | 2021년 11월 | 978-89-98079-43-7

‘타자’로서 전하는 ‘원양어선 어선원’들의 이야기

어업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최희철 시인의 신념을 담았다. 어업에 대한 거시적 시선과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작가의 마음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유하게 만든다. 바다를 미화하는 낭만을 경계하며 현장에서 저자가 온몸으로 겪어낸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그리고 담담히 그려낸다.

*KNN / 동아일보 / 부산일보 추천도서



북양어장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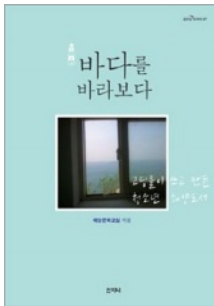
미시적 사건으로서의 1986~1990년 북태평양어장

최희철 지음 | 197쪽 | 13,000원 | 2014년 11월 | 978-89-98079-06-2

북태평양어장의 항해사였던 시인, 바다살이의 비늘들을 들추다

청년 시절 미국 알래스카와 가까운 북태평양어장에서 근무했던 최희철 시인의 바다살이에 대한 수필집. 혹한의 공해(空海)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했던 시인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이로서 바다와 그곳의 역동적인 생명들에 대해 서술한다.

*연합뉴스추천도서



바다를 바라보다 고딩들이 쓰고 만든 청소년 해양도서 꿈꾸는 보라매 07

해양문학교실 지음 | 176쪽 | 12,000원 | 2014년 11월 | 978-89-6545-274-4

바다를 사유하는 시간, 바다를 발견하고 바다에게 말을 걸다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예비해기사들의 다양한 산문과 운문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글쓰기 작품집. 동아리 ‘해양문학교실’에서 펼쳐진 다양한 특강과 논담회, 문학카페 활동, 웹진 제작의 결과물이 담겨 있다. 바다에서 생업의 절실함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신문추천도서



사람이 희망이다 파워인터뷰 42

손정호 지음 | 272쪽 | 15,000원 | 2016년 6월 | 978-89-6545-359-8

보통 사람 42인에게 듣는 삶의 지혜와 용기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솔직 담백한 인터뷰 모음집. 저자는 편견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42인을 만나 삶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 꾸밈없이 풀어냈다. 이 책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치고 고단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준다.

*부산일보추천도서



이니스프리, 그 이루지 못한 꿈

김완희 지음 | 248쪽 | 13,000원 | 2017년 11월 | 978-89-6545-450-2

여행의 '일상'이 문학과 어우러지다

총 46편의 짧은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가는 문학과 예술 작품을 주체 삼아 담담하게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부터 릴케의 '가을날'까지 국내외 해외 작품에 구분을 두지 않고 다루는 범위가 매우 넓다. 노년이 되어서도 시와 음악이 있어 즐겁고 행복하다는 저자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그 행복의 비결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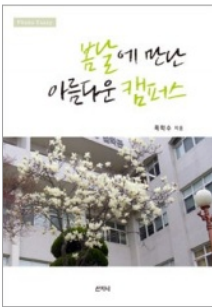
그날이 올 때까지

김춘복 지음 | 254쪽 | 15,000원 | 2018년 10월 | 978-89-6545-547-9

'우리'라는 한민족의 가치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을 말하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소년기에 전쟁을 겪고 전후 혼란의 시기에 청년으로 지냈던 질곡 많은 개인의 역사를 녹여낸 원로 작가의 산문집.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 고유 풍속과 거기에 얽힌 따뜻한 이야기, 소설가로 등단한 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동료 문학인들에 대한 회고록,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저자의 직간접적인 체험기가 담겨있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 선정도서
*부산일보/경남신문
추천도서



봄날에 만난 아름다운 캠퍼스

목학수 지음 | 144쪽 | 12,000원 | 2015년 8월 | 978-89-6545-312-3

여러 해에 걸친 봄날 캠퍼스의 단상을 엮다

부산시 금정산 자락에 세워진 부산대학교 장전동 캠퍼스에 대한 포토에세이집. 전작 『미국 대학의 힘』과 『공학자가 바라본 독일 대학과 문화』를 통해 외국의 대학사회와 문화를 살폈던 목학수 교수가 현재 몸담고 있는 부산대학교를 돌아보면서 여러 해에 걸친 봄날 캠퍼스의 단상을 엮어냈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저승길을 물어서 간다 박선목 수필집

박선목 지음 | 328쪽 | 20,000원 | 2016년 11월 | 978-89-6545-383-3

삶에 녹아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짚어보다

철학박사 박선목 부산대 명예교수가 팔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주한 삶의 모습과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철학에 이야기를 담았다. 유년시절의 기억부터 평생을 연구해온 철학과 삶에 대한 고뇌, 여행 속에 만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자연 등 깊이 있는 생각들이 가득하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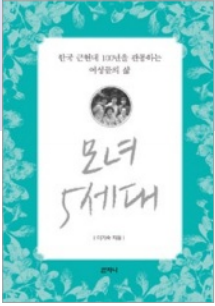
그 사람의 풍경

김춘자 지음 | 208쪽 | 14,800원 | 2017년 3월 | 978-89-6545-407-6

화가 김춘자가 들려주는 생명, 자연 그리고 예술

47편의 산문을 통해 작품 뒤에 숨겨진 작가의 일상과 사색을 담고 있다. 생명의 숭고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의 찰나에서 읊트는 삶의 의미를 포착하여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2017 세종도서
우수문학도서



모녀 5세대

한국 근현대 100년을 관통하는 여성들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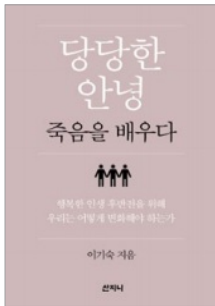
이기숙 지음 | 360쪽 | 20,000원 | 2015년 8월 | 978-89-6545-310-9

17세에 혼인하셨던 할머니에서 컴퓨터로 공부하는 손녀까지
변화하는 여성, 가족, 사회에 대한 기록

가족, 여성, 그리고 노인에 대해 40년간 연구해온 이기숙 교수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책을 펴냈다. 1900년대생 외 할머니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손녀까지, 부산에 거주해온 5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하는 여성과 사회를 마음으로 기록했다. 저자는 주거와 교육, 직장생활과 가족 관계처럼 일상에 맞닿아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부산 지역 여성들의 경험을 풀어낸다.

- 1900년대생 외할머니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손녀까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관통하는 여성들의 삶을 돌아본다. _독서신문

*2015년 10월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

이기숙 지음 | 262쪽 | 15,000원 | 2017년 9월 | 978-89-6545-437-3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삶의 가장 마지막 과제인 '잘 죽는 것'에 대한 에세이. 총 4부로 구성되어 죽음에 대한 경험과 준비, 노년의 삶과 최소의 치료, 보내는 이들의 사례와 애도 작업 등을 다룬다. 저자는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삶과 죽음을 토대로 좋은 죽음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친근한 어조로 설명한다.

*동아일보 / 부산일보
추천도서



기차가 걸린 풍경 나여경 여행산문집

나여경 지음 | 264쪽 | 16,000 원 | 2013년 7월 | 978-89-6545-222-5

위로의 풍경을 전하는 기차역 여행

소설 『불온한 식탁』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나여경 작가가 이번에는 인적이 드물어 간이역이 되었거나 폐역이 된 기차역들을 찾아 떠난다. 지나간 추억을 어루만지며 작가는 특유의 섬세함과 내밀함으로 기차역 주변 풍경과 시간을 재해석한다.

*2013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울속도, 갈대숲을 거닐다 이상섭 르포산문집

이상섭 지음 | 232쪽 | 13,000원 | 2017년 12월 | 978-89-98079-24-6

두 다리로 스케치한 부산 속 사람 냄새

부산의 이름난 명소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상섭 르포산문집. 이 책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근현대사가 곳곳에 새겨진 부산은 단순한 볼거리로서의 공간을 넘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독자들의 마음속에 다가선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기억을 맴도는 역사 지식은 덤이다.

오디오북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늙은 소년의 아코디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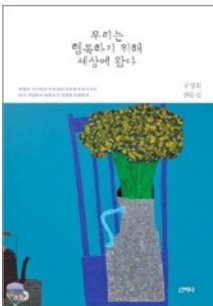
김열규 지음 | 184쪽 | 11,000원 | 2012년 6월 | 978-89-6545-179-2

마음껏 소년다울 수 있었던 그때 그곳

독보적인 한국학 학자로 지금껏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였던 김열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스스로의 80년 인생을 돌아보며 쓴 산문집이다. 누구나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아련한 '고향'에 대한 이야기와 그곳에서 자라나는 한 소년의 성장기를 그려내고 있다.

오디오북

*2012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의사 구정희의 따뜻하고 진솔한 인생철학

구정희 지음 | 298쪽 | 15,000원 | 2013년 10월 | 978-89-6545-231-7

저자는 여덟 개의 '좋은병원들'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이다. 경영자는 로맨티스트이면서 휴머니스트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구정희 이사장의 따뜻하고 진솔한 인생철학을 담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실천과 성공하기 위한 노력들,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 의사로서 사는 어려움 등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눈높이를 읽을 수 있다.

*연합뉴스 / 부산일보
/ 매일경제 추천도서



꿈을 굶다 정태규 산문집

정태규 지음 | 259쪽 | 15,000원 | 2012년 12월 | 978-89-6545-208-9

세상을 향한 작가의 꿈을 담아내다

교직을 겸하고 있는 작가의 교단일기와 부산일보에 연재되기도 했던 독서일기를 담은 책이다. 편지글과 일상글을 포함한 60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을 창작하게 된 계기와 함께 소설 쓰기의 원동력, 글에 대한 작가의 가치관 등이 오롯이 담겨 있다.

*국제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나는 나 가네코 후미코 옥중 수기

영화 <박열>이 담지 못한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의 삶

가네코 후미코 지음 | 조정민 옮김 | 384쪽 | 18,000원 | 2022년 6월 | 979-11-6861-030-9

오디오북

조선의 독립운동가 박열의 아내이자 일본의 젊은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1903~1926)가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쓴 수기이다. 7월 23일, 가네코 후미코 사망 86주기에 맞춰 발간된 이 수기는 어린 시절부터 박열과의 동거까지를 다루고 있다. 국가와 가부장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자신을 살고자 했던 가네코 후미코의 강인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2022 서울국제도서전 <다시,이책>선정
*오마이뉴스추천도서

이 수기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그녀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유일한 선물이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나 자신도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나의 반생을 여기에 펼쳐놓고 싶었다. 마음이 있는 독자라면 이 기록으로 충분히 알아줄 것이다. 나는 그럴 거라고 믿는다.”
_ 『나는 나』 맺음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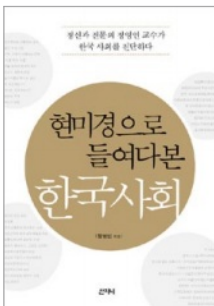
닥터 아나키스트 한 아나키스트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

정영인 지음 | 248쪽 | 15,000원 | 2019년 8월 | 978-89-6545-621-6

*한국일보/교수신문 추천도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저자는 아나키스트를 ‘기존의 가치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을 부정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책은 이러한 아나키스트적 시선으로 한국사회의 문제를 바라본다. 오랜 시간 몸담은 의료계와 대학사회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치부까지도 솔직하게 내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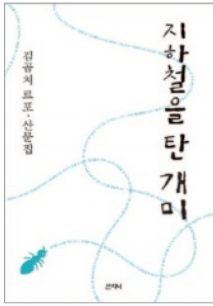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한국사회

정영인 지음 | 240쪽 | 13,000원 | 2011년 1월 | 978-89-6545-134-1

*20115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정신과 전문의 정영인 교수가 한국사회를 진단하다

의사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언론을 통해 비판한 대표적인 시론 칼럼니스트 정영인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을 담았다. 권위주의와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쇠고기 파문의 본질, 후진적 대학사회, 의료관광 허브의 허상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하철을 탄 개미

김곰치 지음 | 272쪽 | 13,000원 | 2011년 1월 | 978-89-6545-135-8

약자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응호

생명과 개발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장삼이사의 아포리즘을 나르며 발 바닥으로 뛰어다닌 결과물인 12편의 르포와 소설가의 감성으로 바라본 13편의 산문을 담은 김곰치의 두 번째 르포·산문집. 사람, 자연, 물건의 생명권을 함께 바라보자는 문제의식의 결과물이다.

*2011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2011 4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유쾌한 소통 저널리스트가 본 소통과 연대의 숲

박태성 지음 | 272쪽 | 13,800원 | 2010년 11월 | 978-89-6545-123-5

'소통'과 '연대'로 따뜻한 세상을 그려보는 저널리스트의 유쾌한 상상

개인의 삶이 나날이 파편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소통'과 '연대'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책이다. 20여 년간의 신문기자 생활과 2년간의 영국 유학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과 행복을 가로막는 사회 구조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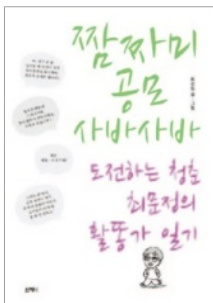
왜 사느냐고 묻거든 박병곤 칼럼집

박병곤 지음 | 280쪽 | 13,000원 | 2010년 6월 | 978-89-92235-95-2

의문부호(?)를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기자라는 직업

30년간 부산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해온 부산일보 박병곤 이사의 칼럼집. 언론과 함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저자는 상처와 고통조차도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가자고 말한다. 총 6부로 나누어 30년 동안 언론계에 몸을 담으면서 세상과 사회를 폭 넓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저자의 연륜이 느껴지는 글들을 소개한다.

*2010 11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짬짜미, 공모, 사바사바 도전하는 청춘, 최문정의 활동가 일기

최문정 지음 | 287쪽 | 13,000원 | 2012년 11월 | 978-89-6545-203-4

실업자의 아픔과 눈물, 소소하지만 유머 넘치는 저자의 일상

실업센터 활동가로 일했던 최문정의 좌충우돌 청춘기와 우리네 이웃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나를 둘러싼 또 다른 이웃에 대해,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부산일보/
오마이뉴스 추천도서



현재는 이상한 짐승이다 전성욱 산문집

전성욱 지음 | 352쪽 | 18,000원 | 2014년 12월 | 978-89-6545-279-9

자학도 자만도 밀려가는 저녁에 써내려간 젊은 평론가의 수기

비평전문계간지 『오늘의문예비평』을 이끌며 비평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평론가 전성욱이 펴낸 산문집. 영화·연극·사진을 보고,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고, 대화를 나누며 얻은 사유를 담았다.

*국제신문/
경북도민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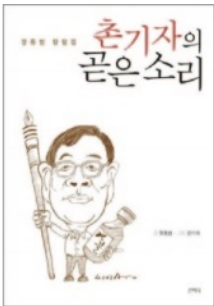
사람 다치지 않았느냐 윤현주 기자의 논어로 세상읽기

윤현주 지음 | 320쪽 | 15,000원 | 2012년 10월 | 978-89-6545-201-0

21세기 대한민국, 공자에게 행복을 묻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던 부산일보 논설위원 윤현주 기자가 기자적 시각으로 논어를 해석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한 글로서, 승자독식 이익제 일주의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따뜻한 공동체 건설 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이 책은 참된 리더십이 무엇이며, 우리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등 시대적 명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공자의 지혜를 빌려 제시한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촌기자의 끈은 소리

장동범 지음 | 안기태 그림 | 280쪽 | 15,000원 | 2010년 3월 | 978-89-92235-86-0

33년 언론의 변천사를 기록한 장동범 칼럼집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 항상 앞장서 모범을 보인 한 언론인의 시각을 통해 우리 언론사에 있었던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들여다본다. '번듯하기보다 반듯한 삶'이기를 바라는 한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와 잘못된 언론의 관행을 바로잡고자 애쓴 33여 년의 언론사를 담았다.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추천도서



미완의 아름다움 이상금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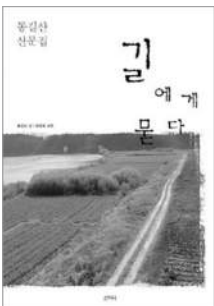
이상금 지음 | 240쪽 | 10,000원 | 2009년 3월 | 978-89-92235-59-4

지천명의 나이에 돌아본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 오십을 넘긴 중년의 대학 교수가 20여 년간 틈틈이 써온 글을 정리한 산문집. 인생을 살면서 느낀 아름다움이나 대학에서 바라본 사회에 대한 단상,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낀 우리 사회의 문제점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여기에 발트 3국의 문화여행기 등을 더했다.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20109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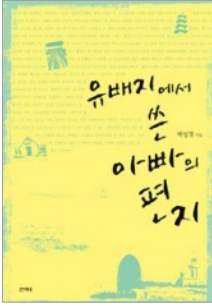
길에게 묻다 동길산 산문집

동길산 지음 | 240쪽 | 10,000원 | 2009년 2월 | 978-89-92235-57-0

천자는 마차를 타고 천재는 걷는다

부산 곳곳을 비롯하여 경남 20개 시·군을 한 군데 빠짐없이 발품해서 쓴 부산·경남 기행 산문집. 저자는 길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통로로 생각하고, 바로 그 길에서 나와 다른 남과 소통하는 광장을 발견한다. 1부는 아름다운 산책길 18곳을 소개하고 2부는 길을 걸으며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장소 17군데를 소개한다.

*20106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유배지에서 쓴 아버지의 편지

박영경 지음 | 316쪽 | 13,000원 | 2008년 9월 | 978-89-92235-47-1

대중교통과 걷기를 통한 전국의 유배지 탐색

딸에게 띄우는 아버지의 편지글. 전국의 유배지와 그 주변의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35통의 편지 마다마다에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꼭꼭 눌러 담은 저자는 글 속에 살아가면서 늘 품고 있는 생각들, 살아오면서 느꼈던 마음들, 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자신이 본 세상 풍경 등을 차곡차곡 쌓여두고 있다.

*연합뉴스/세계일보
/부산일보 추천도서



동백꽃, 붉고 시린 눈물 최영철 산문집

최영철 지음 | 박경호 그림 | 272쪽 | 13,000원 | 2008년 5월 | 978-89-92235-39-6

일상의 소재, 영동하고 날카로운 상상력

깊고 넓은 사색의 세계를 통해 시인이 살고 있는 동네, 부산의 진면목을 들춘다. 부산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전국 독자들에게 부산의 멋과 깊이를 전달하고, 외지에 살고 있는 부산 출신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제공한다. 1부는 「풍경들」 2부는 부산을 제재로 한 「작품들」을 담았다.

*2008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브라보 내 인생 손문상 화첩 산문집

손문상 글·그림 | 112쪽 | 10,000원 | 2007년 9월 | 978-89-92235-23-5

한 편의 시 같은 산문과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된 우리 이웃들

노동자, 대학생, 입양인, 그리고 농민 등 평범하고도 특별한 우리 이웃의 모습을 따스한 눈으로 그려낸 그림과 함께 감성이 풍부한 메시지로 담아내고 있는 화첩산문집이다.

*한겨레21 추천도서



보약과 상약 도심에서 키우는 농심

김소희 지음 | 224쪽 | 15,000원 | 2019년 12월 | 978-89-98079-29-1

생태농업을 경험하며, 자연에서 배우는 순리

생태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 방문 경험과 도시에서 일군 텃밭 생활 등을 통해 생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옛 농촌의 풍경을 전하는 책이다. 일일농부가 되어 경험한 생태농업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알게 하며, 우리가 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먹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일깨운다.

*경남도민일보/
김해뉴스 추천도서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윤성근 지음 | 256쪽 | 15,000원 | 2018년 6월 | 978-89-6545-525-7

책방지기의 이반 일리치 실천기와 헌책방 운영기

<이상한나라의헌책방>의 윤성근 책방지기가 현대 문명에 근원적 물음을 제기한 20세기의 주목받는 철학자 이반 일리치의 책을 읽고 자신의 삶과 책방 운영에 적용해본 흥미로운 실천기를 담았다. 더불어 10년 동안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겪은 재미난 일화와 일본 헌책방 고수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등지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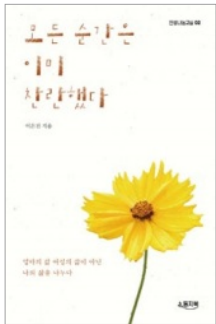


나, 너를 떠나기에 5일이면 충분했어 인생나눔교실 01

강양희 지음 | 224쪽 | 16,000원 | 2022년 8월 | 978-89-98079-53-6

'우리 천장'에 도전한 커리어우먼 30년 '나를 찾아서'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끝나버린 대기업 여성 임원의 30년 커리어. 퇴직의 두려움, 회사에 대한 애증을 해독하기 위해 글을 썼다. 동시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다. 신입사원, 퇴직을 앞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 등, 이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자신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저자는 바란다.



모든 순간은 이미 찬란했다 인생나눔교실 02

이은전 지음 | 208쪽 | 16,000원 | 2022년 9월 | 978-89-98079-54-3

엄마의 삶 여성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나누다

교직 30년, 믿고 싶지 않은 나이 60을 앞두고 요즘 저자에게 자주 떠오르는 의문. '나는 살아온 것일까? 살아진 것일까?' 답을 얻고 싶어 '나'가 아닌 '그'가 돼 흐르는 대로 물결을 따라가 써 내려간 잔잔한 성찰의 글.



가야만 하는 길 묵묵히 가기로 했다 인생나눔교실 03

정은유 지음 | 200쪽 | 16,000원 | 2020년 9월 | 978-89-98079-55-0

부모교육 강사로 아이들과 부모들과 함께한 십칠 년 작지만 소중한 내 삶의 기록

부모교육 강사로 '꽃꽃부모성장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저자의 에세이. 하루하루가 벅겁고 힘들었던 삶. 자신과 자신의 오늘을 자세히 오래도록 보며 묵묵히 걷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묵묵히 가다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풀꽃이 될 수 있다고.



글 위를 걷는 아이들

강도희, 김보경, 걸음글방 아이들 지음 | 272쪽 | 16,000원 | 2023년 1월 | 978-89-98079-70-3

느리게 갈수록 더 빠른 학교 밖 글방 이야기

문학 비평을 전공한 두 여성 청년이 아이들이 글과 친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연 글방 이야기를 담았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세대’ 아이들은 문자보다 이미지와 음성, 영상에 친숙함을 느낀다. 학교 수업마저도 영상으로 했던 아이들은 점차 글방에서 글쓰기를 통해 문자와 친해졌고, 선생님이 된 두 청년은 아이들에게 글 위에서 느리게 걷는 법을 알려주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터뷰 글쓰기 잘하는 법

은정아 지음 | 224쪽 | 15,000원 | 2020년 9월 | 978-89-6545-669-8

선명하게 듣고 진솔하게 쓰기 위해 인터뷰의 기본을 담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방법을 담은 인터뷰 글쓰기 책.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지만 인터뷰를 할 때 공통으로 챙기고 반드시 해야 할 기본이 있다. 이 책에서는 사전 준비부터 퇴고까지 인터뷰의 기본을 단계별로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책은 타인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듣고 진솔하게 쓰기 위한 기본에 집중한다.

오디오풀

*연합뉴스/남도일보
/금강일보/
세계일보 추천도서



좋은 문장을 쓰고 싶다면

이진원 지음 | 352쪽 | 18,000원 | 2020년 10월 | 978-89-6545-673-5

소소하지만 굉장한 우리말 맞춤법 이야기

교열 전문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글쓰기 노하우. 저자는 조금 더 나은 문장을 쓰고 싶어 하는 당신에게 우리말 맞춤법 이야기를 전한다. 중복되는 표현이나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글쓰기를 강조하며, 좋은 문장을 쓰고 싶다면 퇴고와 교열은 반드시 필요하고,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쓸 때 더욱 명료한 글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부산일보/국제신문
/독서신문 추천도서



엔딩 노트 나의 작은 자서전 만들기

이기숙 지음 | 240쪽 | 18,000원 | 2019년 4월 | 978-89-6545-596-7

250개의 질문으로 나의 생애를 정리하다

인생의 ‘엔딩’을 준비하는 중·노년을 위한 책으로 ‘나의 탄생’부터 ‘나의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250개의 질문으로 나의 전 생애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령자 의료지원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작성, 장례 의향서 등의 작성 방법과 그 의미를 소개한다. 이러한 죽음 준비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여성신문 추천도서



일기 여행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신비한 여정

말린 쉬위 지음 | 김창호 옮김 | 500쪽 | 20,000원 | 2019년 5월 | 978-89-6545-599-8

일기 쓰기를 통해 내면을 탐색하고 상실을 위로하다

여성이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서 삶을 기록하는 여정이 담겨 있다. 저자는 <여성 일기 연구회>를 창립하고 운영한 경험과 출판된 일기, 자서전을 읽으며 일기 쓰기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기록했다.

*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한겨레 / 동아일보 /
뉴스 / 교수신문 /
여성신문 추천도서



삐딱한 책읽기 안건모 서평집

안건모 지음 | 280쪽 | 15,000원 | 2017년 6월 | 978-89-6545-426-7

책을 통해 바뀐 생각, 다른 세상을 꿈꾸다!

1장 민주와 민주주의, 2장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눈, 3장 우리말·글 바로쓰기, 4장 만화의 힘, 예술의 힘, 5장 과거와 현재의 대화, 6장 국가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소개한다. 무더진 우리의 감각을 버리는 책. 저자는 책에 있는 끈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울고 엇나가는 삐딱한 시각을 요청한다.

*한겨레 / 부산일보 /
오마이뉴스 추천도서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리처드 앨런 포스너 지음 | 정해룡 옮김 | 224쪽 | 12,000원 | 2009년 1월 | 978-89-92235-54-9

표절의 정의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의 문제,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표절과 창조적 모방의 관계 등을 기술하는 책이다. 문학, 학문, 음악, 미술, 영화 등 문화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표절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20106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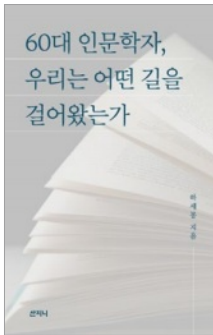
랄랄라 책 책으로 성장하는 청춘의 모습

책 읽는 청춘 지음 | 280쪽 | 15,000원 | 2013년 2월 | 978-89-6545-212-6

책 읽고 쓰고 함께 성장하는 청춘들의 기록

책이라는 이름하에 모인 열세 명의 청춘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사유하고 다시 자신만의 이야기로 기록했다. <책 읽는 청춘>의 저자가 고른 인문, 사회,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로, 알록달록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책과 함께 어우러진 청춘의 이야기는 마음속에 숨겨졌던 청춘의 별을 찾게 해줄 것이다.

*국제신문 /
경남도민일보 /
머니투데이 추천도서



60대 인문학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하세봉 지음 | 264쪽 | 20,000원 | 2021년 11월 | 978-89-6545-765-7

인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다

40년 동안 인문학을 연구한 학자가 인문학의 과거,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인문학의 중요성이 감소되어 이를 업으로 삼기 어려운 시대에 인문학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내부부터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더 나은 인문학의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자의 연구는 미래의 인문학을 위해 남긴 여러 시사점을 드러낸다.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추천도서



새롭게 읽는 『토지』

임희숙 지음 | 272쪽 | 25,000원 | 2022년 2월 | 979-11-6861-019-4

한국문학이 사랑하는 『토지』의 창작의 비밀을 파헤치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창작방법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분석한 책. 박경리 소설가가 지닌 생명관, 소설관 등을 서술하여 사상적 측면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인칭 변화, 인물 관계, 서사의 패턴 등을 분석하며 작가가 선택한 방법으로 인해 소설이 얻게 되는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이를 통해 『토지』만의 개성과 『토지』의 창작 비밀을 파헤친다.

*매일신문/국제신문
추천도서

*제22회부산작가상



고전시가, 사랑을 노래하다

황병의 지음 | 324쪽 | 25,000원 | 2010년 11월 | 978-89-6545-126-6

동서양의 세레나데와 우리 고전을 통해 살핀 사랑과 구애의 메커니즘

서양의 세레나데가 사랑하는 여성의 창밖에서 부른 존경과 사랑의 노래였다면, 동양의 구애 노래는 여성들이 모인 광산을 향해 부른 수줍은 두드림, 목화나 뽕을 따는 처녀를 향해 부른 간절한 약속의 언어였다.



공통성과 단독성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총서 32

허정 지음 | 456쪽 | 30,000원 | 2015년 12월 | 978-89-6545-326-0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넘어 공통성과 단독성을 사유하다

공동체 사유에 필수적인 공통성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단독성의 고민을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추상적일 수 있는 논의를 시, 소설, 이론비평 등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설득력 있게 펼친다. 최근 한국문학 작품으로 한국사회의 담론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연합뉴스 추천도서



서유기 81년 연구 아시아총서 30

서정희 지음 | 부산대 중국소설연구회 옮김 | 339쪽 | 20,000원 | 2018년 8월
| 978-89-6545-542-4

*국제신문 / 한겨레 /
뉴스스추천도서

'재난고사' 독해로 재탄생한 중국고전의 결작 서유기

서유기 모험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81개의 재난을 중심으로 서유기 서사를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혀, 기상천외한 상상의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과 삶의 정신을 탐색한 도서. '81개의 재난'을 중심으로 작가 오승은의 창작 의도를 비롯한 서유기의 문학성을 밝힌 저자의 성과는 서유기 읽기의 영역을 한층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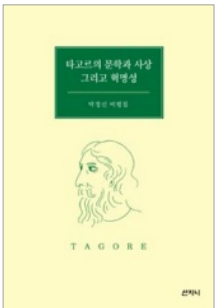
해양풍경 현대 해항도시와 해양문학의 상상 로컬문화총서 05

구모룡 지음 | 312쪽 | 20,000원 | 2013년 12월 | 978-89-6545-237-9

*국제신문 추천도서

해역세계에서 바라본 상상

현대 해항도시와 해양문학의 상상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20여 년 해양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한 글을 한 권으로 책으로 엮어 발표했다. 해항도시와 해양풍경, 해양문학의 상상으로 나눠 해양서사와 선원 하위문화, 해양문학과 지구적 상상력, 기원의 바다를 찾아가는 근대인의 모험 등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혁명성 박정선 비평집

박정선 지음 | 288쪽 | 20,000원 | 2020년 5월 | 978-89-6545-658-2

*영남일보 / 부산일보 /
독서신문 추천도서

시성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을 읽다

시인이자 소설가, 식민지 인도를 위해 분투한 교육자이자 민족주의자, 국제주의자였던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에 대해 다룬 비평집. 1부에서는 타고르가 노벨상을 받을 무렵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이 제국주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부에서는 타고르 문학의 태동기인 10대부터 최후의 문학을 집필한 70대까지 그의 삶을 연대별로 정리한다.



자연에 깃든 사람의 시: 신진론

오정혜 외 지음 | 304쪽 | 25,000원 | 2016년 3월 | 978-89-98079-15-4

신진 시인의 시 세계와 삶을 조명하다

치열한 현실과 맞서면서 자연과 하나 됨을 추구한 신진 시인의 시와 삶을 조명하였다. 1부는 허정 평론가와 신진 시인의 대담이 실려 있다. 2부는 각 시집의 작품세계를 논하고 있고, 3부는 신진 시인의 자작 산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다 보면 끝이 있겠지요 29년생 김두리 할머니의 구술생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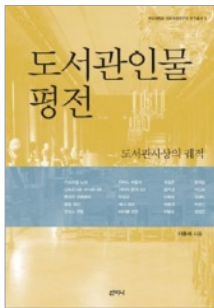
김두리 구술 | 최규화 기록 | 240쪽 | 16,000원 | 2021년 9월 | 978-89-6545-738-1

인간은 숫자가 아니라 생애로 기억돼야 한다

포항 사투리로 자신의 생애를 풀어낸 29년생 김두리 할머니의 이야기. 현대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줄 사건 혹은 숫자로 뭉뚱그려진 인물들의 삶을 대변한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위안부와 강제징병,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목격자이자 당사자로서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 그 안에는 앞으로 살아갈 손자를 염려하는 할머니의 마음 또한 녹아 있다.

*2021 서울국제도서전 '가을, 첫 책' 선정도서

*2022 상반기 책씨앗 청소년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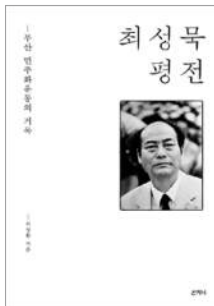
도서관인물 평전 도서관 사상의 궤적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총서 3

이용재 지음 | 300쪽 | 20,000원 | 2013년 2월 | 978-89-6545-210-2

민중의 대학을 선사한 도서관인물 20명을 말하다

도서관을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관이자 만민을 위한 '민중의 대학'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국내의 도서관인물 20인을 다룬 평전으로, 도서관인물을 통해 도서관사상과 도서관운동을 소개하며 빼곡한 장서로 가려진 도서관의 걸모습 안에 숨겨진 정신을 읽어주는 책이다. 인물의 삶과 업적, 도서관사상과 도서관운동을 통해 여태껏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현대 사회 속 도서관의 본질과 역할을 환기한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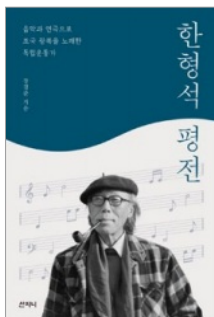
최성묵 평전 부산 민주화운동의 거목

차성환 지음 | 384쪽 | 20,000원 | 2014년 3월 | 978-89-6545-243-0

부산 민주화운동의 거목을 기억하다

부산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부산 중부교회 고 최성묵 목사(1930~1992)의 평전이다. 종교인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 참여의 길도 외면하지 않은 참 종교인의 삶을 그렸다. 저자 차성환은 최성묵 목사의 삶을 생생하게 복원하기 위해 주위 인물들의 다양한 증언과 자료들을 집대성하였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한형석 평전 음악과 연극으로 조국 광복을 노래한 독립운동가

장경준 지음 | 256쪽 | 20,000원 | 2020년 11월 | 978-89-6545-677-3

항일예술가 한형석,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 예술로 맞서다

중국 관내에서 예술구국활동으로 한국 독립 운동의 사기를 드높였던 한형석 평전.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예술부장,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대장을 지내고 한미합동 OSS 특수공작훈련을 받기도 한 독립유공자, 음악가 겸 문화운동가인 한형석은 중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감시를 피해 항일예술활동을 하며 예술구국과 문화예술운동에 생을 바쳤다.

*연합뉴스/서울신문 /국제신문 추천도서



한국시의 이론 크리티카& 01

신진 지음 | 368쪽 | 22,000원 | 2012년 8월 | 978-89-6545-195-2

*부산일보/국제신문
추천도서

차유의 시학과 우리 시의 논리를 다루다

우리 현대시와 시문학사를 관통하는 한국시 연구서. 서구의 신문학이 유입되던 100여 년 전 자생의 근대화를 이루고, 다양한 명분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변용하여 온 우리 시문학의 고유성을 다룬 책이다. 다양한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우리 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춘수 시를 읽는 방법 현상학적 해석과 치유시학적 읽기 크리티카& 02

김성리 지음 | 264쪽 | 20,000원 | 2012년 9월 | 978-89-6545-197-6

*국제신문 추천도서

차유의 시대, 김춘수의 시로 말하다

김춘수가 시에서 자신의 고통을 치유한 것처럼, 저자는 삶의 문제에서 비롯된 고통을 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치유시학”으로 개념화했다. 이 책은 시가 어떻게 치유성을 지니는가에 대해 학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근대문학 속의 동아시아 크리티카& 03

구모룡 지음 | 320쪽 | 22,000원 | 2012년 9월 | 978-89-6545-198-3

근대에 직면한 동아시아 지성들의 모험과 과제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한국의 근대문학을 논의한 결실이며 저자의 등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책. 근대를 성찰함과 동시에 문학을 통해 동아시아가 서구적 근대의 충격을 어떤 식으로 직면하고 극복하려 했는가를 탐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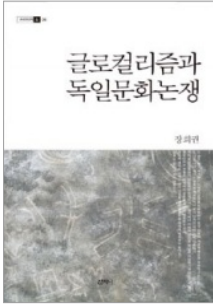
중국소설의 근대적 전환 크리티카& 04

천평위안 지음 | 이종민 옮김 | 448쪽 | 30,000원 | 2013년 5월 | 978-89-6545-214-0

*국제신문 추천도서

세계 정상에 올라선 중국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중국소설 서사양식의 변천을 일으키는 숨겨진 문화적 논리를 밝혀 근대소설이 탄생하게 된 이행기적 상황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그 미래적 가능성을 서사학적 측면에서 제시한다. 연구와 비평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 책이다.



글로벌리즘과 독일문화논쟁 **크리티카& 05**

장희권 지음 | 320쪽 | 25,000원 | 2013년 6월 | 978-89-6545-220-1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로컬적으로 행동하라!

전 지구화 시대의 로컬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으며 독일 지식인 마르틴 발저의 문제적 역사인식과 독일의 정신사적 지형도를 살핀다. 신보수주의자들의 분쟁이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유전공학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논지를 개진한다.

*부산일보/
충청투데이추천도서



배회하는 유령 **프로이트주의와 20세기 중국 문학 크리티카& 06**

인홍 지음 | 이몽욱 옮김 | 384쪽 | 30,000원 | 2015년 4월 | 978-89-6545-289-8

20세기 중국 문학의 무대 위에서 유령처럼 배회하는 프로이트

프로이트주의와 중국문학예술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중국 최초의 책. 비교문학의 연구방법으로 20세기 중국문학이 어떻게 프로이트주의를 수용하고 변환시켰는지, 프로이트주의가 중국문학에 어떠한 문화적 소질을 가져왔는지 그 특수한 과정을 파악하였다.

*연합뉴스추천도서

평론



비평의 자리 만들기 **남송우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1**

남송우 지음 | 332쪽 | 15,000원 | 2007년 3월 | 978-89-92235-12-9

문학비평이 설 자리, 비평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비평이 누구에게나 읽히는 평문이 될 때 비평의 자리가 지켜질 것이라고 말하는 남송우 부경대 교수의 문학 평론집. 저자는 문학비평이 그 성격상 논리와 개념을 필요로 하기에 그 내용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은 못되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평문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7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어려운 시들 **김남석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2**

김남석 지음 | 384쪽 | 18,000원 | 2008년 3월 | 978-89-92235-34-1

어려운 시에 대한 통렬한 비판

저자는 어려운 시쓰기의 경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 요즘의 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럼에도 시단과 시 비평은 너무나 유연하게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시의 흥수 시대에 직면한 우리 문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 탁월한 시, 미학적으로 뛰어난 시 등을 추려내는 눈과 글이라 주장한다.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감성과 윤리 구모룡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3**

구모룡 지음 | 416쪽 | 18,000원 | 2009년 7월 | 978-89-92235-68-6

제 3의 시각, 비판적 지역주의를 말한다

비판적 지역주의라는 프리즘으로 한국문학의 지형도를 그려온 구모룡 교수의 평론집. 시론, 소설론, 문학제도론, 지역문학론, 메타비평론 등 문학전반에 관한 저자의 입장에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목소리가 한결같이 녹아들어 있다.

*2009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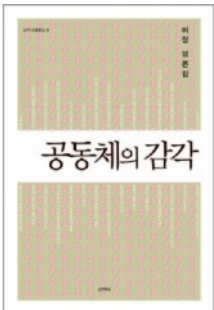
동화의 숲을 거닐다 황선열 아동문학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4**

황선열 지음 | 336쪽 | 15,000원 | 2009년 11월 | 978-89-92235-75-4

동화의 숲에서 천천히 거닐며 사색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맛있는 독서를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어떤 동화가 어떤 점에서 좋고 또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핀다. 또한 쉬운 일화를 소개하면서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텍스트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어떤 각도로 살펴볼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한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2010 12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공동체의 감각 허정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5**

허정 지음 | 360쪽 | 18,000원 | 2010년 6월 | 978-89-92235-94-5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를 모색하다

2000년대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감각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한 허정의 두 번째 평론집. 기존 공동체가 가진 억압적인 성격을 털어내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론, 소설론, 문학제도론, 지역문학론, 메타비평론 등 문학전반에 관한 저자의 입장에는 ‘비판적 지역주의’라는 목소리가 한결같이 녹아들어 있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바로 그 시간 전성욱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6**

전성욱 지음 | 376쪽 | 20,000원 | 2010년 9월 | 978-89-6545-119-8

미래의 시간을 요청하는 문학평론가 전성욱

특이성(내면성)의 탐구를 통해 공통성(사회정의)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전성욱 평론가의 평론집. 세상의 아름다움을 낭만적으로 동경하는 모든 사유의 반대편에서 사유하는 전성욱 평론가의 글을 통해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계와 적대하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젊은 평론가의 치열한 열정을 만나볼 수 있다.

*2010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2011 1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세이렌들의 귀환 김경연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7

김경연 지음 | 356쪽 | 20,000원 | 2011년 6월 | 978-89-6545-155-6

페미니즘의 시각을 견지하며 여성/여성문학에 초점을 맞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한국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한국문학의 주요 징후를 포착하고 해석한 김경연의 첫 평론집. 모든 남루한 자들과 더불어 변방을 결핍이 아니라 신생(新生)의 거점으로 사유하는 비평의 식을 보여준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시의 역설과 비평의 진실 정훈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8

정훈 지음 | 352쪽 | 20,000원 | 2011년 8월 | 978-89-6545-157-0

독자와 감응할 수 있는 시 비평서

한국문학계를 바라보는 참신한 시선, 시를 응시하는 예민한 감각이 물큰한 말들의 난장(亂場)을 헤집고 솟구친, 순연한 비평 언어로 어우러진 시 비평서. 감성이 녹아든 시 비평의 새로운 언어들을 통해 시의 세계, 그 속살을 보여준다.

*2011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지금, 이곳의 비평 남송우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09

남송우 지음 | 320쪽 | 20,000원 | 2013년 9월 | 978-89-6545-229-4

지금, 이곳의 문학을 논하다

평론가 남송우는 문학과 문화의 혼용 현상 속에서 문학 비평(지금)과 변방으로 밀려난 지역 문학작가(이곳)의 작품들을 살펴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문학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문화의 주변부에 문학이 위치할 지라도 문학은 문학으로서 존재해야 함을 역설한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집요한 자유 정미숙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10

정미숙 지음 | 372쪽 | 22,000원 | 2013년 12월 | 978-89-6545-238-6

젠더의 다양성을 탐문하다

페미니즘에서 젠더로, 이성애에서 동성애로 그리고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을 아우르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저자는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몫을 배분받지 못하고 살아 있으나 그 존재를 주장할 수 없는 삶이, 문학과 같은 예술 형식을 통해 어떻게 목소리를 얻게 되는지 섬세한 필체로 선보인다. 또한 문학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애정으로 문학을 평한 텍스트를 곳곳에 만나볼 수 있다.

*2014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비인칭적인 것 고봉준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11

고봉준 지음 | 437쪽 | 25,000원 | 2014년 12월 | 978-89-6545-273-7

비인칭, 한국문학에서 드러난 얼굴을 포착하다

고봉준의 네 번째 평론집.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의 최근 시대적 변화에 개입하여 주체, 문학과 정치, 민주주의, 주권, 노동시 등의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고자 한다. 다양한 학문적 담론을 차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작품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사상과 감성의 지형을 포착한다.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은유를 넘어서 구모룡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12

구모룡 지음 | 350쪽 | 25,000원 | 2015년 5월 | 978-89-6545-298-0

수사의 은유를 넘어서, 시를 이해하는 진정한 길

주체에서 시작되지만 세계로 열려가는 시쓰기의 과정을 다양한 평문과 비평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평론집. 시의 줄어든 위상에도 시적인 것을 찾아 온몸을 기투하는 시인들의 시들을 “사랑과 현대성”, “존재와 타자의 지평”이라는 주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시라는 장치 속에 담겨 있는 시적 지평을 들여다보며, 오늘날 균질화되고 추상화된 삶을 깨우치는 경험에 대해 논한다.

*경기신문/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힘의 포획 오길영 평론집 산지니평론선 13

오길영 지음 | 432쪽 | 25,000원 | 2015년 6월 | 978-89-6545-293-5

한국문학의 위기 속,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을 포획하다

근대문학, 근대비평의 종언과 같은 언설이 나오는 지금, 한국비평의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 주례사 비평으로 전락한 당대 한국비평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비평가가 본래 갖고 있는 문학에 대한 책무를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무한한 하나 뭉 없는 이들의 문서고 산지니평론선 14

김대성 지음 | 381쪽 | 25,000원 | 2016년 10월 | 978-89-6545-382-6

독점의 하나가 아닌 평등한 이들의 이름, 무한한 하나

2007년 『작가세계』 평론 부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김대성 평론가의 첫 번째 평론집. 노동, 지역, 공동체, 공생 등 타자와 자신을 읽는 글쓰기로 문학의 세계를 탐구한다. 이 책에는 저자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문학과 글쓰기, 평론과 삶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까 하는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비평의 비평 우리 시대의 증견 비평가론

오늘의문예비평 엮음 | 김경연 외 6인 지음 | 292쪽 | 15,000원 | 2015년 10월
| 978-89-98079-10-9

여전히 타협하지 않는 증견 비평가들에게 주목한다

국내 유일의 비평전문 계간지 『오늘의문예비평』이 국내 증견 비평가들에 주목하는 책을 펴냈다. 여전히 문학의 장에서 활약 중인 타협 없는 ‘불한당’들의 궤적을 포착하여 우리나라 비평의 지형도를 그린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 비평의 지형도를 그리며, 새로운 상상력을 짚티 워널 우리 비평의 탄탄한 기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구모룡

1959년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평론(『도덕적 완전주의-김수영의 문학세계』)이 당선된 후 문학평론가로 활동해왔다. 무크지 <지평>, 비평전문계간지 <오늘의 문예비평>, 시전문계간지 <신생>, 비평전문반년간지 <문학/사상>에 관여하였다. 저서로 『않는 세대의 문학』, 『구체적 삶과 형성기의 문학』, 『한국 문학과 열린 체계의 비평담론』, 『신생의 문학』, 『문학과 근대성의 경험』, 『제유의 시학』,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시의 옹호』, 『감성과 윤리』, 『근대문학 속의 동아 시아』, 『해양풍경』, 『은유를 넘어서』, 『제유』, 『시인의 공책』, 『폐허의 푸른빛』, 『보존과 창조』, 『예술과 생활』(편저), 『백신애연구』(편저) 등이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제31회 팔봉비평문학상을 수상했다.



폐허의 푸른빛 비평의 원근법 산지니평론선 15

구모룡 지음 | 472쪽 | 25,000원 | 2019년 9월 | 978-89-6545-629-2

중심부와 주변부를 돌아보며 로컬이라는 시적 거처에 대해 고민하다

여러 권의 비평서를 출간하며 ‘지방-지역-세계’라는 중층적 인식 아래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온 구모룡 평론가의 새로운 평론집이다. 저자는 다양한 평문과 비평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학 지향에 대해 살펴왔다. 이번 평론집에서는 21세기 한국문학과 지역문학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조선일보/뉴스+/
부산일보/국제신문
추천도서

중심부와 주변부를 돌아보며 로컬이라는 시적 거처에 대해 고민하다

- 지역문학론을 드높이는 평론집. 세계화 시대에 지역문학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역문학이 곧 세계문학이 되는 문학 환경 변화도 강조했다. _조선일보
- 이번 평론집에는 ‘폐허의 푸른빛’이란 시적 전망과 더불어 큰 줄기는 로컬(local)과 지역문학을 인식하는 방법을 담았다. _부산일보
- 노혜경 · 배옥주 · 조원론 · 조갑상 · 고금란 · 한창훈 등 지역 시인과 소설가를 중심으로 단단하고 내공 있는 비평을 담았다. 문학에 관한 원론적 질문부터 몸담은 지역 문단에 대한 평론가로서의 성찰도 포함됐다. _국제신문



보존과 창조 현대시조의 시학 산지니평론선 16

구모룡 지음 | 260쪽 | 20,000원 | 2020년 11월 | 978-89-6545-688-9

시조라는 주변 장르의 현대성을 궁구하다

제31회 팔봉비평문학상을 수상한 구모룡 평론가의 현대시조 비평집. 주변 장르로 인식되어왔던 시조의 가능성을 길어 올리며, 현대시조의 새로운 세계관을 가늠하고 있다. 저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한편의 시 속에서 함께 요동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잘못된 이분법을 거부하는 시조시학을 펼친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현대시조의 장르적 속성에서 대화적 개방성을 찾고, 그 묘미를 맛보길 바란다.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시간의 향기 일상의 시간을 탐문하는 소설쓰기의 미학

정태규 지음 | 224쪽 | 20,000원 | 2014년 10월 | 978-89-6545-268-3

우리를 기습하는 삶의 상처와 일상의 시간을 탐문하는 소설쓰기의 미학

시간이 가지는 비정함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소설쓰기를 두고, 정태규는 다양한 평문들을 통해 소설이 가지는 미의식을 탐구하였다. 저자의 비평은 대부분 부산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소설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데, 이는 지역작가에 대한 정태규의 애정을 엿볼 수 있어 평론집을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해석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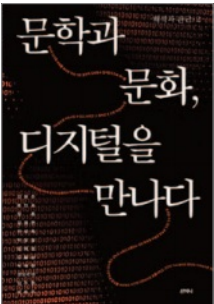
2000년대 한국문학의 징후들 해석과판단 1

〈해석과 판단〉 비평공동체 지음 | 348쪽 | 15,000원 | 2007년 3월 | 978-89-92235-11-2

*부산일보 추천도서

비평의 위기가 곧 한국문학의 위기

200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한국문학의 위기가 사실은 비평의 위기와 다르지 않으며 비평이 문학의 위기담론만 무성하게 생산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창작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책임전가를 했다는 시선에서 쓰인 책. 2000년대 한국문학의 현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생각의 날을 새롭게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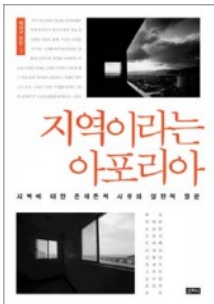
문학과 문화, 디지털을 만나다 해석과판단 2

〈해석과 판단〉 비평공동체 지음 | 302쪽 | 15,000원 | 2008년 5월 | 978-89-92235-41-9

*연합뉴스/부산일보 /한겨레 추천도서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하여 문학위기 극복 모색

2000년대 문학의 새로움이 갖고 있는 이중문화적 감수성의 해석과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디지털 매체에서 찾는다. 문학은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하여 다른 문화적 갈래들과 접촉함으로써 위기를 가능성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 이 책은 경계, 귀환, 성찰, 확장 of 네 부분으로 이를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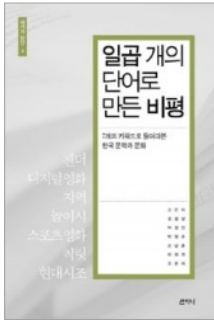
지역이라는 아포리아 해석과판단 3

〈해석과 판단〉 비평공동체 지음 | 308쪽 | 17,000원 | 2009년 12월 | 978-89-92235-80-8

*부산일보 /한겨레21 추천도서

문학과 문화에 지역의 인식을 담아내다

지금까지의 지역문학론과 지역문화론은 '중앙'과 이에 종속된 '지역'이라는 낡은 이분법에 갇혀 있었다. 이제는 오늘날 지역의 삶과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론과 실천의 접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방기해왔던 구체적 삶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여러 문학·문화 텍스트를 토대로 살핀 결과물을 담고 있다.



일곱 개의 단어로 만든 비평 해석과판단 4

*부산일보 추천도서

〈해석과 판단〉 비평공동체 지음 | 278쪽 | 20,000원 | 2010년 12월 | 978-89-6545-133-4

7개의 키워드를 통한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미시적 접근

한국문학과 문화의 동시대성에 응답하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디지털영화, 스포츠영화, 젠더, 지역, 놀이시, 칩릿, 현대시조’라는 키워드’는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출된 구심점이다. 이를 통해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사유를 펼칠 수 있도록 문학과 문화라는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미시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비평의 윤리, 윤리의 비평 해석과판단 5

*부산일보/국제신문 추천도서

〈해석과 판단〉 비평공동체 지음 | 270쪽 | 20,000원 | 2011년 12월 | 978-89-6545-168-6

한국 현대 사회에서 돌올하는 타자성에 대한 물음

2011년 한 해 동안 ‘폭력’, ‘실재’, ‘공동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사유한 결과물. 이 세 가지 키워드는 한국 현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는 ‘타자성’의 윤리적 접점들을 찾아보고자 짚은 방점으로 각각의 글들은 지금-이곳의 현실성에 대한 비평적 개입이자 가장 치열한 방식으로 현재를 사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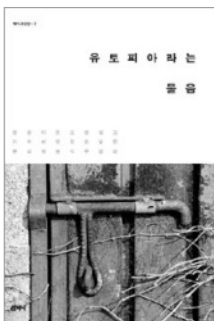
공존과 충돌 해석과판단 6

*국제신문 추천도서

〈해석과 판단〉 비평공동체 지음 | 276쪽 | 20,000원 | 2012년 12월 | 978-89-6545-205-8 |

폭력과 공동체 속의 문학

현대 사회의 밑바탕에 있는 폭력적 형태의 양상과 타자성의 윤리적 접점들을 모색했다. 텍스트 분석으로 당대의 지평을 훑어보는 데 주력했던 5집에 비해, 6집은 현실 문제와 텍스트의 연결을 고민하고 글 쓰는 이의 정치적, 존재론적 입장을 개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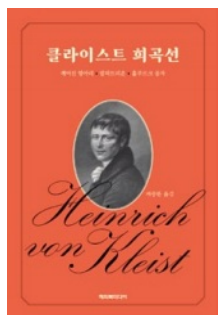


유토피아라는 물음 해석과판단 7

〈해석과 판단〉 비평공동체 지음 | 248쪽 | 20,000원 | 2013년 12월 | 978-89-6545-239-3

한국 문학 속 유토피아

유토피아이라는 주제로 구성원들이 함께 사유하고 토론하여 내놓은 비평집. 지금 우리 사회에 유토피아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논의하고 유토피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활발한 표출이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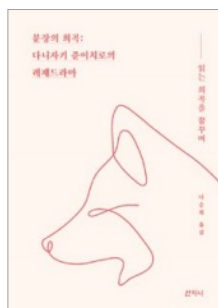
클라이스트 희곡선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지음 | 배중환 옮김 | 452쪽 | 28,000원
| 2022년 3월 | 978-89-98079-47-5

독일 문학의 거장, 클라이스트 그의 희곡을 만나다

클라이스트의 작품 가운데서도 희곡에 집중한 책. 독일 희극의 걸작 「깨어진 항아리」, 고대 신화를 재해석한 「암피트리온」, 국가 이념을 둘러싼 투쟁과 개인의 고뇌를 담은 「흄부르크 공자」 등을 특유의 문체와 운율을 최대한 살려 작품을 번역하였다. 또한, 클라이스트의 생애와 연보, 대략적인 줄거리를 덧붙여 작품의 이해를 높였다.

*경향신문/
국제신문/교수신문
추천도서



문장의 희곡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레제드라마

다니자키 준이치로 지음 | 나승희 옮김 | 279쪽 | 20,000원 | 2021년 6월 | 978-89-6545-733-6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극작가' 면모를 발굴하다

일본 탐미파 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극작가적 면모를 보여주는 희곡 작품집. 지금까지 국내에는 다니자키의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번역되어 극작가(희곡가)로서의 역량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을 통해 다니자키의 극작가로서의 숨겨진 일면에 주목하고, 근대 초기 한일 양국 소설가들의 희곡 창작과 레제드라마의 유행을 고찰해본다.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김지용 희곡집 예술문화총서 02

김지용 지음 | 632쪽 | 28,000원 | 2013년 11월 | 978-89-98079-01-7

현실의 문제를 풍자와 상징으로 은유하며 비판적 자세 제시

오랫동안 연출가와 극작가 활동을 함께 해오며 문학적성과 연극성을 겸비한 김지용의 첫 번째 희곡집이다. 상징과 우화를 통해 우리 시대 다양한 현실 문제를 은유적으로 풀었고, 희곡 그대로 무대에 올리기보다 연극적 놀이로 쉽게 풀어 관객에게 다가간다.

*2014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비어짐을 담은 사발 하나 최은영 희곡집 예술문화총서 05

최은영 지음 | 448쪽 | 28,000원 | 2015년 12월 | 978-89-98079-12-3

다양한 장르로 다채로운 극을 선보인 최은영의 첫 번째 창작희곡집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이자 연기자, 극작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은영의 창작희곡집. 제1회 김문홍 희곡상 수상작품인 표제작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도자기를 지키려는 도공들의 삶과 사랑,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2016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춤추는 소나무 예술문화총서 08

정경환 지음 | 432쪽 | 28,000원 | 2022년 12월 | 978-89-98079-69-7

*국제신문/부산일보
추천도서

명징한 역사인식, 인간에 대한 성찰, 창조적 연출기법이 돋보이는 정경환식 희곡의 세계

희곡에 연극성과 문학성을 함께 담으려고 하는 정경환의 이 희곡집에는 그가 2010년부터 쓰고 연출한 작품 중 대표작 6편을 담았다. 정경환식 희곡 세계는 직설적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꿰뚫어 보는 서사 창작 방식이 돋보이며, 이것이 희곡집으로 탄생한 것은 공연 관객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테러리스트 정경환 희곡집

정경환 지음 | 352쪽 | 15,000원 | 2009년 12월 | 978-89-92235-78-5

희곡문학의 이중성-‘연극성’과 ‘문학성’

부산지역 연극계에서 연출과 희곡 창작을 병행해오고 있는 정경환의 첫 희곡집. 그는 희곡문학에 ‘연극성’과 ‘문학성’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함께 아우르려고 하는 보기 드문 작가이다. 그의 희곡에는 대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치열한 현실인식과 아울러 관객(독자)들의 의식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려는 강한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시



최영철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다. 1984년 무크 『지평』, 무크 『현실 시각』, 198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등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아직도 쭈그리고 앉은 사람이 있다』 『가족사진』 『홀로 가는 맹인약사』 『야성은 빛나다』 『일광욕하는 가구』 『개망초가 쥐꼬리망초에게』 『그림자 호수』 『호루라기』 『찢러본다』, 육필시선집 『영경귀』, 어른을 위한 동화 『나비야 청산 가자』, 성장 소설 『어중씨 이야기』, 산문집 『우리 앞에 문이 있다』 『나들이 부산』 『동백꽃, 붉고 시린 눈물』을 냈다. 백석문학상, 최계락문학상, 이형기문학상을 받았다.



금정산을 보냈다 산지니시인선 001

최영철 지음 | 144쪽 | 11,000원 | 2014년 8월 | 978-89-6545-291-1

*2015 원북원부산
선정도서

시인이 살고 있는 동네, 부산의 진면목을 들추다

강인한 생명력과 자연의 진정성을 발굴한 전작과 달리, 최영철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생성과 파멸, 환희와 비명이 교차하는 시편들로 다시 한번 시적 변화를 감행한다. 시인은 물질과 속도에 중독된 우리에게 마주해야 할 세계의 진면목은 무엇인지 어둠을 직면하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



소금 성자 산지니시인선 002

정일근 지음 | 104쪽 | 13,000원 | 2023년 6월 | 979-11-6861-149-8

다 말하지 않고도 더 말하는 시의 힘

정일근의 열두 번째 시집. 이번 시집에는 ‘소금을 받아내는 평생 노역’인 히말라야의 한 노인과 그가 받아내는 소금 이야기가 담겼다. 이 시집은 ‘기억’과 ‘그리움’이 감각의 근원을 이룬다. 삶의 미궁에서 궁극의 시를 찾는 과정이 빛나는 그의 ‘새로운 서정’이 담겨 있으며 시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보다 압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2016년 1월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이달의 읽을 만한 책
*2016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석간신문을 읽는 명태 씨 산지니시인선 003

성선경 지음 | 166쪽 | 10,000원 | 2016년 3월 | 978-89-6545-341-3

생의 무력함 속에서도 빛나는 일상의 소중함과 정신적 성숙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진실을 환기하는 성선경 시인의 시집.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명태 씨’를 통해 “늙어감의 문제와 관련된 존재의 불가항력적 슬픔과 무력함”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다. 봄꽃이 피고 지고, 모래가 부서지는 시간의 무상함 속에서 말라빠진 명태처럼 푸석한 자신의 삶을 풍자와 해학, 골계와 아이러니 기법으로 풀어낸다.

*부산일보 / 국제신문
/ 경남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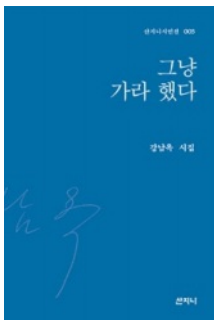
봄 꿈 산지니시인선 004

조향미 지음 | 160쪽 | 13,000원 | 2023년 6월 | 979-11-6861-150-4

끝없이 갈등하는 현실, 그 속의 우리

시인은 교단에서 만난 다양한 삶과 소중한 인연, 교육자의 눈에 비친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이번 시집을 꺼냈다. 이 시집은 넘치도록 충만하여 안주할 수 있는 현재에 대한 미련과 그토록 충분한 현실 속에서 무심코 툭툭 올라와 가슴을 흔들어놓는 존재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한겨레 / 국제신문 /
오마이뉴스 추천도서



그냥 가라 했다 산지니시인선 005

강남옥 지음 | 158쪽 | 12,000원 | 2020년 11월 | 978-89-6545-659-9

바다 너머 건너온 이방의 신체감각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시인은 이 시집에서 차이와 차별에 민감한, 이방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고단한 이민살이는 고향을 더욱 그리워하게도 하지만 시인의 시적 감각을 깨우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바다 건너서 전해오는 새롭고 애뜻한 고향 이야기에 대한 시인의 아련한 정서는 시를 읽는 사람에게도 전해진다.

*문학뉴스 추천도서



쪽배 산지니시인선 006

조성래 지음 | 144쪽 | 12,000원 | 2021년 5월 | 978-89-6545-725-1

이끼림 혹은 부름, 그리고 기다림

생명현상을 표현한 시부터 사별한 아내를 생각하며 쓴 시까지 총 예순편의 담긴 시집. 우울한 삶의 풍경이나 묵시록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도 주체를 부정하고 존재를 무로 돌리기보다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를 통해 현존재의 삶의 개입하는, 유년의 추억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국제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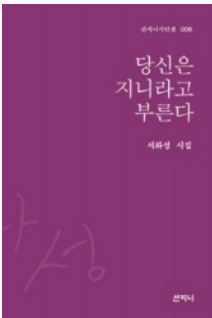
사슴목발 애인 **산지니시인선 007**

최정란 지음 | 200쪽 | 11,000원 | 2016년 9월 | 978-89-6545-375-8

절망을 사랑으로 포용하다

생동감 있는 시적 언어로 삶의 비애와 희망을 탐구해온 최정란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시인은 절망스러운 현실일수록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집 제목은 사슴목발을 짚고 걷듯이 미완성인 우리가 서로에게 애인처럼 사랑으로 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2017 세종도서
우수문학도서**



당신은 지니라고 부른다 **산지니시인선 008**

서화성 지음 | 138쪽 | 12,000원 | 2019년 8월 | 978-89-6545-622-3

휘청거리는 현실을 떠받치는 시어들

시인은 생활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언어의 조각들로 시 세계를 꾸린다. 곶탕, 리어카, 바셀린 로션, 양말 등 일상에서 빛은 시어들이 휘청거리는 현실을 떠받친다. 위태롭고 불완전하지만 시는 줄곧 '당신'을 향해 있다.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기꺼이 시선을 돌린다.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나는 기우뚱 **산지니시인선 009**

이지윤 지음 | 144쪽 | 12,000원 | 2021년 5월 | 978-89-6545-717-6

그대 향해 기울어져 있으니, 나는 기우뚱

2004년 <문학세계>를 통해 등단한 이지윤 시인의 첫 시집. 이지윤의 시는 삶의 무게로 아득히 기울어져 있다. 시로 사유하지 않는 날 선 생존의 시대에, 부재하는 그리움에 몸을 기울이는 시인은 기울어진 삶의 나날을 시로써 엮어낸다. 떠도는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는 시인의 곧은 서정은 섭요와 마침표 하나에까지 유동하고 또 유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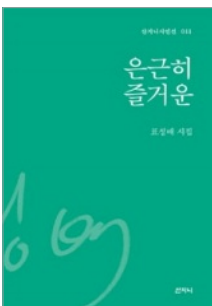


다음에 **산지니시인선 010**

조성범 지음 | 112쪽 | 12,000원 | 2021년 11월 | 978-89-6545-760-2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와 죽적을 남기는 시어들

삶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조성범 시인의 시집. 탄생의 순간을 기록하고, 유년의 추억을 회상하고,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피고 지는 이치”를 배운 시인은 각 시편에서 탄생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깊게 파고들어 삶에 대해 궁구한다. 시인의 작품은 여지껏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사유 속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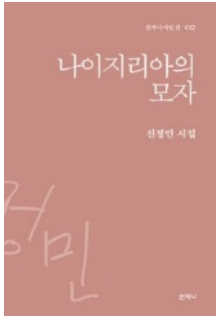
은근히 즐거운 **산지니시인선 011**

표성배 지음 | 164쪽 | 11,000원 | 2015년 4월 | 978-89-6545-288-1

속화된 자본의 시간을 견뎌내고 얻은 시인의 쇠밭

‘마창노련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표성배 시인의 시집. 노동자의 고단한 삶의 풍경들을 “은근히 즐거운” 일상으로 바꾸는 기쁨과 소박한 아름다움의 행보가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시집은 자연이 선물하는 계절의 바깥에 대한 서정성과 더불어 전투적인 노동시가 아닌, 자본주의의 속화된 시간을 자연사물에 빚낸 시어들이 가득하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나이지리아의 모자 산지니시인선 012

신정민 지음 | 144쪽 | 10,000원 | 2015년 12월 | 978-89-6545-328-4

낮선 언어로 빚어낸 현실의 생경함

익숙함에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내는 신정민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일상의 소재들을 통해 현실에 밀착된 시어들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신정민 시인은 직관의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일상을 균열하여 세계 안의 미세한 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시집은 시인의 언어로 만들어낸 세계의 균열을 표현해낸 결과물이다.

*부산일보/
강원도도민일보
추천도서



다다 산지니시인선 013

서규정 지음 | 140쪽 | 10,000원 | 2016년 5월 | 978-89-6545-355-0

낮선 곳에서 도약을 노래하다

거칠지만 자유롭게 자신의 시 세계를 펼치는 서규정 시인의 시집. 등단 이후 일곱 번째 펴내는 이번 시집에서 서규정 시인은 현실과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투박하지만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시인의 냉소적인 시선은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2016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2016 최계락문학상
수상도서



맨발의 기억력 산지니시인선 014

윤현주 지음 | 149쪽 | 10,000쪽 | 2017년 7월 | 978-89-6545-431-1

유년과 현실의 대비를 지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모험

부박하고 비루한 현실 속에 처한 사회적 자아를 돌아보고 진실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다. 유년과 고향을 주된 매개로 하여 때 묻지 않은 지난날의 순수한 경험들을 되새긴다. 또한 기억의 조각들로 이뤄진 유년 시절을 통해 현재의 나를 비춘다. 이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제로 재귀적 반복의 양식으로 표현된다.

*부산일보 / 세계일보
추천도서



새로운 인생 산지니시인선 015

송태웅 지음 | 154쪽 | 12,000쪽 | 2018년 9월 | 978-89-6545-544-8

고요에 잠아먹이지 않고 함께 느긋해지고 함께 팽팽해지다

송태웅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외롭고 쓸쓸하고 그림고 비겁한 내면의 풍경을 과장과 꾸밈이 없이 담백하게 담았다. 이 시집은 과거에 푹어든 인생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묵묵히 나아간 결과물이다. 시인 스스로를 구원하는 시들은 독자의 마음에도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내일신문/
경남도민일보/
프레시안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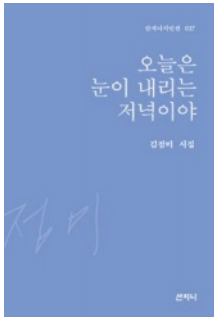
내가 살아온 안녕들 산지니시인선 016

김해경 지음 | 152쪽 | 12,000원 | 2021년 12월 | 979-11-6861-000-2

세계 아래의 미세한 실금을 조명하는 일관된 시선

지금-여기의 일상을 해부하며 삶의 풍경을 드러낸 시집.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시인은 감각을 열어 익숙한 풍경을 새롭게 바라본다. 시인이 바라보는 일상은 보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며, 위태로운 세계이다. 시인은 이 위태로운 세계를 외면하지 않는다. 끝은 시선으로 일상을 조명하며 그들의 일상 자체와 위를 바라보는 화자들의 눈빛을 주목한다.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 산지니시인선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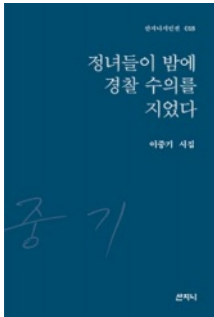
김점미 지음 | 148쪽 | 12,000원 | 2021년 12월 | 979-11-6861-001-9

사랑과 존재에 대한 물음

사랑과 기억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진 시집. 기억 속의 사건들과 감정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시편들은 기쁨과 슬픔을 모두 안은 삶에 대한 기행의 이야기이다. 이 시집에는 그림, 동화, 시, 소설 등 다양한 예술 속에서 만들어낸 이색적인 풍경이 가득하다.

*2023 이주홍문학상
수상도서

*매일신문 / 주간경향
추천도서



정녀들이 밤에 경찰 수의를 지었다 산지니시인선 018

이종기 지음 | 136쪽 | 12,000원 | 2022년 3월 | 979-11-6861-023-1

해방공간 영천, 그 내밀한 풍경과 역사의 중심에 놓인 지역 여성들

시인은 서글픈 농촌의 현실과 경북 영천, 대구의 10월 항쟁에 천착하여 한국 사회에 자리한 구조적 모순의 근원에 접근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10월 항쟁은 해방 이후 최초의 민중봉기였다는 사실에 비해 역사적 규명과 연구가 미비하다. 시인은 한국 현대사의 기저에 자리한 영천의 슬픈 역사를 상기하고 10월 항쟁의 진실과 의미를 묻는다.

*국제신문 / 뉴시스
추천도서



겨울 해바라기 산지니시인선 019

손화영 지음 | 126쪽 | 13,000원 | 2022년 7월 | 979-11-6861-057-6

사계를 아우르는 상실의 감각

부질없는 기다림으로 세월을 보낸 후 까맣게 변해버린 시적 자아의 상실을 나타내는 시들이 총 4부로 구성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포착한 저마다의 상실을 드러낸다. 화려한 색채를 잃었음에도 순환하는 계절을 따라 "날마다 조금씩 일어서고 싶은" 하루를 꿈꾸는 세계는 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순환하며 더디게 전진한다.

*전남일보 추천도서



어긋난 세계 **산지니시인선 020**

박종인 지음 | 144쪽 | 12,000원 | 2022년 10월 | 979-11-6861-094-1

평온한 환멸의 세상 담은 정교한 시적 언어

박종인 시인의 세 번째 시집. 구체적인 사물과 언어를 불러와 어긋나 있는 현실을 구성하는 새로운 세계를 표현한다. 평온하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 내재한 회의적이다 못해 환멸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현실 모습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은 어긋난 세계의 문제를 기술하는 동시에 그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한다.

*국제신문 추천도서



연변 나그네 연길 안까지 **산지니시인선 021**

박태일 지음 | 296쪽 | 17,000원 | 2023년 11월 | 979-11-6861-188-7

연변살이 고투에 바치는 그리움과 추억의 걸음걸음, 연변에 터를 닦은 이들의 삶에 시에 녹이다

지역에서 소외되었던 문학 전통을 되살리는 연구를 이어 온 박태일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의 일곱 번째 시집. 이번 시집에는 연변을 소재로 한 101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국내 지역뿐만 아니라 몽골, 도쿄, 중국 연변 등 재외지역 문학 연구에도 힘써 온 저자는 연변에 오고 간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보고 느낀 바를 이 시집에 담았다.

*세계일보/부산일보
/국제신문 추천도서



모두가 섬이다

한경동 지음 | 174쪽 | 12,000원 | 2021년 7월 | 978-89-6545-729-9

세상과 사람, 삶에 대한 사랑의 시

사랑, 향수, 현실, 삶 등 다양한 주제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시선을 보여 주는 아흔다섯 편의 시를 담았다. 한경동 시인은 애써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거짓 없이 꺼내놓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시 세계를 확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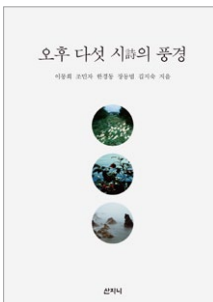
오후 다섯 시의 풍경

이몽희 외 지음 | 160쪽 | 13,000원 | 2021년 1월 | 978-89-6545-697-1

다섯 시인의 공동시집, 부산시문학시인회의 작은 지평을 열다

다섯 명의 시인이 스무 편씩을 모아 총 백 편의 시를 소개하는 시집. '다섯 명 벗의 시와 사진을 모아 엮은 책'이라는 뜻의 '오우시사집'이라는 가제는 시인들의 우정과 시에 대한 애정, 시와 어울리는 사진을 함께 신는 콘셉트에 대한 공통의견까지 담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늦은 오후 언저리를 보내고 있는 시인들의 삶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심폐소생술 이근영 시집

이근영 지음 | 128쪽 | 12,000원 | 2020년 3월 | 978-89-6545-649-0

작고 약한 존재에 대한 연민과 울분

시인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도 별로 달라진 것 없는 전라북도 남원의 학교 현장에서, 국어 선생으로 살아가며 아이들과 함께 일상을 보낸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내는 아이들을 향한 울분과 연민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다.

*국제신문 / 독서신문 / 전북도민일보 추천도서



슬로시티 김종목 시조집

김종목 지음 | 132쪽 | 12,000원 | 2018년 6월 | 978-89-6545-524-0

새벽 세 시를 쓰는 시간, 빛을 머금은 어둠의 시간을 통해 삶을 그려내다

우리 말의 향기와 가락을 품은 문장들은 시인의 풍경과 추억, 인생과 회포,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다.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시인의 감수성을 읽어 내려가며 오랜 시간 시적인 삶을 살아온 작가의 시간들을 더듬어볼 수 있다.



붉은 폐허 김일석 시집

김일석 지음 | 180쪽 | 12,000원 | 2017년 9월 | 978-89-6545-442-7

삶의 현장에서 시를 길어 올리는 김일석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민중의 소박한 양심을 직격하는 더러운 손들에 대한 조롱, 오랜 고난 중에 하나하나 힘겹게 발견한, 이름 없는 이들의 실낱같은 희망, 단 한 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던 내 숨 막히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모아 엮은” 일곱 번째 시집.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필연

사라·김도환 지음 | 112쪽 | 12,000원 | 2017년 4월 | 978-89-98079-20-8

늙은 부부가 싸내려간 사랑의 언어

밀양에서 수련원 ‘늘새의 집’을 운영하는 남편, 그 옆에서 ‘행랑채’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내. 50년을 함께 산 늙은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의 시어를 엮은 책.



인연 정민자 시집

정민자 지음 | 208쪽 | 12,000원 | 2014년 12월 | 978-89-98079-09-3

세상에서 만난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정리된다

2013년 <한국문인>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정민자 시인의 시집. 정 시인의 시작 공간이기도 한 경주 고택 수오재(守吾齋)의 풍경들을 사진에 담아 시와 함께 엮었다. 시인은 자유로운 영혼의 성찰을 위해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이곳 수오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시들을 건져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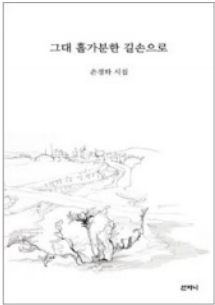


그대 흔적에 귀의합니다

김창호 지음 | 126쪽 | 12,000원 | 2021년 1월 | 978-89-6545-695-7

자연과 고향, 세상사를 시로 노래하다

오랜 세월 해직과 복직으로 사회의 이면을 경험하고, 시를 통해 세상과의 관계, 자연의 존재, 삶의 이유를 찾으려 한 저자의 시를 담았다. 저자는 생생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이치와 포근히 안아주는 고향의 포용력, 세상의 아이러니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그대 흠가분한 길손으로 손경하 시집

손경하 지음 | 224쪽 | 12,000원 | 2015년 8월 | 978-89-6545-311-6

인생의 '갯길'에 밀려난 노년의 현재를

문명비판적 시선과 자의식의 프리즘으로 바라보다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국면을 담아낸 시집이다. 시인이 목도한 한국 현대사의 장면들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던 무렵의 장면이나, 6·25 전쟁 직후의 삶에 대한 기억, 혹은 군부독재와 싸우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회상이 등장한다.

*국제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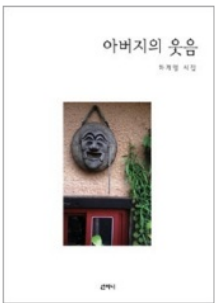
조까라마이싱 김일석 시집

김일석 지음 | 216쪽 | 12,000원 | 2014년 10월 | 978-89-6545-264-5

사유와 서정성이 빛나는 시들

세상을 향해 힘센 깃을 날리는 김일석 시인은 송전탑 건설과 싸우는 밀양 주민,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자본의 이익 앞에 내쳐진 사람들의 편에 서서 연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인은 시로써 투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반대편이 아닌 이웃임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전한다.

*경향신문 / 오마이뉴스 추천도서



아버지의 웃음 하계열 시집

하계열 지음 | 176쪽 | 12,000원 | 2013년 9월 | 978-89-6545-228-7

분주한 일상 속에 시인이 키운 시어들 삶의 정취가 시인의 투명한 시에 깃들다

『탱고를 추세요』로 제5회 남촌문학상을 수상한 하계열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분주한 일상 속에서 시인이 다듬은 따뜻한 시선과 삶의 정취가 맑고 투명한 시에 녹아 있다. 시인이 직접 찍은 사진은 시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충청투데이 추천도서



숲의 정신 이동순 시선집 산지나 시선 1

이동순 지음 | 182쪽 | 10,000원 | 2010년 6월 | 978-89-92235-96-9

생태적 자연주의 사상의 응축

생태적 상상력과 겸허의 미덕을 보여주는 이동순 시인의 시선집. 그동안 발간한 『발견의 기쁨』, 『개밥풀』 등 열세 권의 시집에서 100편을 엄선하여 담고 있다. 이 13권의 시집에는 공통적으로 생태적 자연주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동순 시인의 시세계가 이 한 권의 시집에 응축되어 있다.

*매일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파미르의 밤 산지니 시선 2

칭핑 외 7인 지음 | 김태만 옮김 | 224쪽 | 15,000원 | 2017년 3월 | 978-89-6545-406-9

21세기 중국 최고 시인의 절창

장타오, 시뚜, 시촨, 양샤오빈, 칭핑, 쟁띠, 장하오, 황찬란 등 21세기 중국 최고 시인 8명의 시를 편선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로 이어져 오는 시사적 궤적과 시작품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012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도서



무위능력 김종목 시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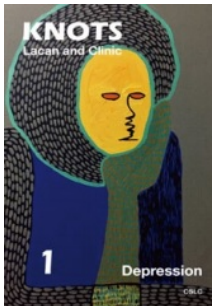
김종목 지음 | 144쪽 | 10,000원 | 2016년 6월 | 978-89-6545-358-1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인생 후반기의 삶

시인은 비가(悲歌)의 분위기 속에서 사랑에 관한 시조, 성찰과 지혜가 담긴 시조 등을 써내려갔다. 연륜에 묻어나는 성숙함이 맑고 구수한 시조의 향기에 일상의 언어로 배어 있다. 자신의 내면을 다듬으며 성숙한 시인의 성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6 부산문화재단
올해의문학선정
작품집

잡지



KNOTS 1 Depression

라캉과 임상 연구센터 지음 | 192쪽 | 20,000원 | 2017년 12월 | 978-89-6545-469-4

라캉 정신분석을 지향하는 한글 학술지 『KNOTS』

정신분석에 대한 학술 연구를 임상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라캉 정신분석의 대의에 동의하고 이를 추구하며 실천하려는 정체성과 의지에 근거한다. 정신분석가 러셀 그릭은 기초 논문을 기고했고, 정신분석가 라울 몬케이온 기 출간된 논문의 게재를 승인했다.



다시 지역이다 5·7문학 무크 1

5·7문학 편집위원 지음 | 260쪽 | 13,000원 | 2016년 5월 | 978-89-6545-353-6

지역의 삶을 섬세하게 대면한다

로컬은 들여다보고 느낄수록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양상이 선명해지는 지점이다. '5·7문학'은 공허한 담론의 재생산이 아니라, 로컬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삶의 진경을 표현하고 재현하는 문학적 실천을 천명한다. 창간호에 모인 지역의 대표적 시인·소설가·문학평론가 20인은 오늘날 지역에서 펼쳐지는 삶의 수많은 결들을 섬세하게 대면한다.

*연합뉴스/뉴시스/
부산일보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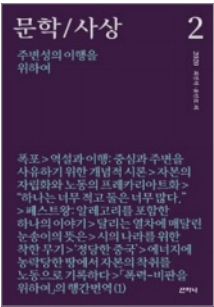
문학/사상 1 권력과 사회

구모룡·윤인로 외 지음 | 164쪽 | 15,000원 | 2020년 6월 | 978-89-6545-661-2

독자의,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비평지

‘권력과 사회’는 비평지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구모룡과 윤인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문학과 사상에 관한 생각을 전하고, 이 밖에 젊은 학자들이 번역과 서평 등을 통하여 권력과 사회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전한다.

*연합뉴스/뉴시스/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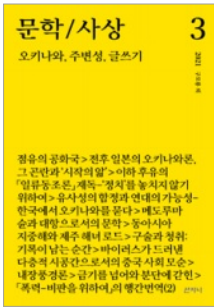


문학/사상 2 주변성의 이행을 위하여

최진석, 윤인로 외 지음 | 200쪽 | 15,000원 | 2020년 12월 | 978-89-6545-689-6

주변성의 개념과 그 이행을 위한 질문들을 던진다

2호에서는 ‘주변성’의 개념과 그 이행을 위한 질문들을 던진다. ‘중심’과 ‘주변’이라는 문제들은 실체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다르게 배분되는 정치적 힘을 가리키는 은유라고 해야 더 알았다. 우리는 중심/주변의 이행 대립을 깨뜨리기 위해 어떤 개념적 장치를 가져야 하는가?



문학/사상 3 오키나와, 주변성,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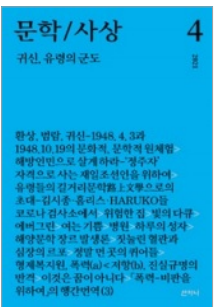
구모룡 외 지음 | 199쪽 | 15,000원 | 2021년 6월 | 978-89-6545-732-9

로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진실성으로

도미야마 이치로, 사키하마 사나, 곽형덕, 심정명 등 일본과 한국에서 연구와 담론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들이 오키나와에 관한 폭력과 지배 그리고 주변성에 입각한 문학으로 특집을 꾸며 주었다. 이들은 독자에게 국민국가와 지역, 그 관계에 대한 관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구모룡 교수는 날카로운 제주 X현장-비평을 실었다.

*2021 아르크
문예지발간지원
선정도서

*충청투데이
추천도서



문학/사상 4 귀신, 유행의 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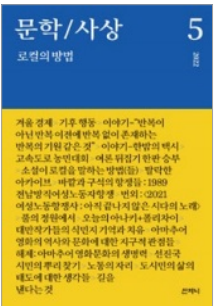
구모룡 외 지음 | 220쪽 | 15,000원 | 2021년 9월 | 978-89-6545-748-0

한층 다채로워진, 그러나 사상에 직조하는

4호에서는 ‘실체’적 혹은 ‘정상’적인 것의 경계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글로컬리즘을 다뤘던 지난 호들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시와 소설을 함께 실어 다채로운 색을 보여준다.

*2021 아르크
문예지발간지원
선정도서

*매일신문/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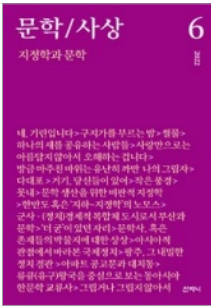
문학/사상 5 로컬의 방법

구모룡 외 지음 | 256쪽 | 15,000원 | 2022년 5월 | 979-11-6861-139-9

로컬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방법들

로컬은 지방과 자주 동일시되곤 한다. 그러나 로컬과 지방은 다르다. 로컬을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삶의 영역이라 인식한다면, 주변과 중심부에 자리한 로컬과 로컬 속에서 생동하는 인간의 서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삶의 영역으로서의 로컬에 대해 이야기 하고, 로컬을 바라보는 시선과 로컬의 방법들을 다채롭게 드러낸다.

*2022 아르크
문예지발간지원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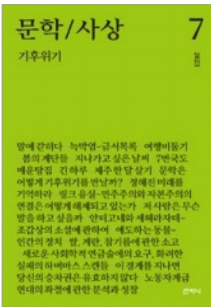
문학/사상 6 지정학과 문학

구모룡 외 지음 | 208쪽 | 15,000원 | 2022년 10월 | 979-11-6861-140-5

고전 지정학의 한계를 넘어서 비판적 지정학으로 문학을 바라보다

‘지정학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비판적 지정학의 관점에서 문학을 바라본다. 개인의 감각을 넘어 지정학적 사유를 통과한 문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방법론과 예를 제시한다. 지정학적 사유를 경유한 새로운 문학의 해석과 생산을 위해 로컬의 신비화와 낭만화를 경계하고, 이미 고정된 지정학을 뜯어내 다시금 로컬의 이면과 특징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2022 아르코
문예지발간지원
선정도서
*부산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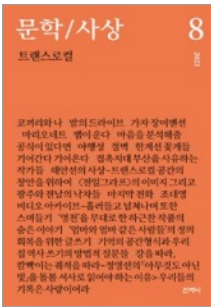
문학/사상 7 기후위기

구모룡 외 지음 | 224쪽 | 15,000원 | 2023년 4월 | 979-11-6861-138-2

기후위기 시대, 인류와 문학의 사유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와 지구가 처한 상황들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암담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 등,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답문들을 제기한다.

*아르코
문예지발간지원
선정도서



문학/사상 8 트랜스로컬

구모룡 외 | 224쪽 | 15,0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187-0

로컬의 횡단과 접선, 새로운 사상의 탄생

『문학/사상』이 끊임없이 견지해온 로컬을 지속적으로 호명하고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 속에서 희망을 지탱하는 삶에 주목한다. 로컬은 몸의 감각과 일상, 생활의 구체가 자리하는 경험적 삶이 실현되고 지속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구체성이 녹아 있는, 경험적 삶이 실현되는 장소인 로컬을 직시하며 그들의 횡단과 접선에 주목한다.

*아르코
문예지발간지원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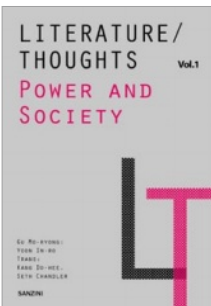
문학/사상 9 불가능한 말들

구모룡 외 지음 | 224쪽 | 15,000원 | 2024년 4월 | 979-11-6861-293-8

상호연대를 통해 만들어내는 지속가능한 삶

온전히 다가갈 수 없는 부재 영역을 향한 글쓰기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표제를 ‘불가능한 말들’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부정성과 불가능성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하고 형성하는 행위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핵심 현장의 로컬을 통하여 로컬과 국가, 지역과 세계에 중첩한 문제를 따져 읽고자 한다.

*아르코
문예지발간지원
선정도서



Literature/Thoughts vol.1 Power and Society

구모룡 외 지음 | 강도희 · 세스 챌들러 옮김 | 164쪽 | 15,000원 | 2021년 8월 | 978-89-6545-740-4

독자의,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비평지 『문학/사상』 영문판

주류 담론이 지배하는 환경에 반격을 가하고, 그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며 담론의 지형을 뒤흔든다는 기획 아래 창간된 비평지 『문학/사상』의 영문판.

어린이 청소년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

그림책으로 읽는 한나 아렌트의 철학 이야기

마리옹 뮐러 콜라 지음 | 클레머스 폴레 그림 | 정우경 옮김 | 64쪽 | 14,500원 | 2022년 2월 | 979-11-6861-0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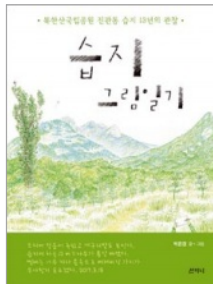
*경향신문 / 국제신문 / 부산일보 추천도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 사상을 쉽고 재미있게 담은 그림책

예순아홉 살의 한나 아렌트가 어린 한나를 만나 일어나는 일을 담은 동화. 저자 마리옹 뮐러 콜라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클레머스 폴레의 개성 있는 그림을 통해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쉽고 재미있게 담아 냈다. 악의 평범성, 공격 영역과 사적 영역 등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한나 아렌트의 사상과 철학에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입문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사의 극장에서 펼쳐지는 두 한나의 모험

- 『정신의 삶』을 집필 중인 예순아홉 살 한나 앞에 환영처럼 나타난 한 소녀의 이름도 한나. 극장으로 간 두 한나의 대화 속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등 철학개념이 곳곳에 펼쳐진다. **경남도민일보**
- 책은 현재에 변화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뉴시스**



습지 그림일기 북한산국립공원 진관동 습지 13년의 관찰

박은경 글·그림 | 175쪽 | 16,000원 | 2018년 6월 | 978-89-6545-518-9

13년의 관찰일기, 습지 생태 변화를 글과 그림으로 담다

박은경 습지 활동가가 북한산국립공원에 있는 진관동 습지를 보전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으로 13년 동안 습지생태의 변화와 다양한 생물을 지켜 이 담은 그림일기.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습지의 모습을 담았다. 저자는 습지 생물들에게 다정한 안부를 건네며 독자들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전하고 습지 보전에 대한 고민도 나눈다.

*2018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교양도서

*2020환경부 우수환경도서



내게 날아든 계절 청소년 짧은 소설

인문학동아리 귀를 기울이면 지음 | 김성현·이제훈 엮음 | 288쪽 17000원 | 2024년 2월 | 978-89-98079-84-0

짧은 소설에 우리가 성장한 사계절의 이야기를 담다

‘청소년’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쓴 짧은 소설 24편을 엮은 책. 작가들은 시간 여행, 아포칼립스, 인어, 초능력자, 귀신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꿈, 우정, 가족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다. 청소년은 친구들과 함께하기도 하지만 서툴게 부딪히기도 한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소설 속에는 저마다의 성장통이 담겨 있다.



혜수, 해수 1 영혼포식자 커피 매니아 저승사자와 상큼발랄 여고생의 악령 퇴치기

임정연 지음 | 248쪽 | 15,000원 | 2021년 4월 | 978-89-6545-718-3

여고생 선무당 혜수와 옛된 저승사자 해수가 무당과 신장으로 연결되어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과정을 그린 청소년 소설. 혜수는 무당인 할머니에게 점괘를 배워 친구들의 운세를 봐주는 평범한 고등학생. 어느 날 갑자기 신열이 올라 내림굿을 하다, 악귀를 쫓던 저승사자 해수와 무당과 신장으로 연결되는데. 맞는 것 하나 없는 두 사람의 상큼발랄 악령 퇴치기!

*프랑스, 베트남
판권 수출
*2021
부산국제영화제
E-IP 마켓 선정도서
*2021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도서
*스포츠크경향/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혜수, 해수 2 뱀파이어

임정연 지음 | 304쪽 | 17,000원 | 2022년 9월 | 979-11-6861-085-9

700살 저승사자를 변하게 한 상큼발랄 여고생 무당

700살 저승사자 해수와 여고생 무당 혜수의 친밀해진 모습과 이들이 드라큘라로부터 혜수의 친구 유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았다. 전작보다 강력한 빌런인 뱀파이어는 권속 관계인 패밀리어와 함께 혜수와 해수를 위협한다. 혜수와 해수는 유리를 무사히 구하고 드라큘라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



혜수, 해수 3 구미호

임정연 지음 | 208쪽 | 16,8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184-9

서로를 도우며 물들기 시작하는 저승사자와 여고생 무당

신장과 무당으로 연결된 여고생 혜수와 차사 해수는 차차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고, 둘은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된다. 한편, 혜수는 교환학생을 온 나코라는 여자아이를 만난다. 나코는 사실 사라진 아빠와 언니들을 찾으러 온 일본의 구미호다. 혜수는 여우에 의한 죽음을 조사하던 중 구미호에게 습격을 당한다.



지옥 만세

임정연 지음 | 256쪽 | 14,000원 | 2020년 3월 | 978-89-6545-648-3

퍽퍽 터지고, 명치 시큰한 인생이지만 이 지옥을 유쾌하게 헤쳐가자

고등학교 1학년생 평재는 여섯 명 대가족의 구성원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 우연한 사건으로 같은 학교의 절대 미녀인 유시아와 부딪히고, 며칠 뒤 학원에서 집으로 가던 평재는 의문의 여자 강패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는다. 유쾌한 캐릭터들과 함께 전개되는 예측 불허의 사건들. 한 번 붙잡으면 끝까지 놓을 수 없다.

*2020
문학나눔 선정도서
*2020
책씨앗 추천도서
*2020
기획회의 추천도서
*20207-8월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연합뉴스/뉴스스/
스포츠크경향/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타이타닉을 구하라 **꿈꾸는 보라매 24** (출간예정)

플로라 들라지 지음 | 이혜정 옮김 | 80쪽 | 2024년 6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를 구하기 위한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

빙산과 충돌해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구하기 위한 카르파티아호의 여정이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저자는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책에 그대로 옮겨와 당시의 재난을 눈앞에 그려 보인다. 이 책은 선상생활과 선원의 일을 소개하며 사건의 흐름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타이타닉호의 승객을 구하기 위한 카르파티아호의 평범한 선원과 승객들의 노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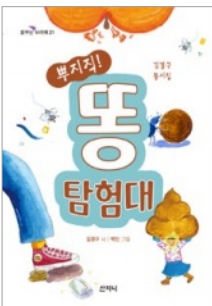


타임머신 정비사 루나 **꿈꾸는 보라매 23**

상상과 노력의 힘을 믿는 루나의 꿈 탐험기

글사 예벤 지음 | 차리 오다바쉬 그림 | 이선화 옮김 | 15,800원 | 2024년 5월 | 979-11-6861-301-0

다양한 꿈을 가진 루나가 들려주는 상상의 힘. 타임머신 정비사, 로봇 매니저, 날씨 관리자, 감정 디자이너,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전문가까지. 루나의 꿈은 색다르고 특이하다. 루나는 불가능하다 말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대신 끊임없이 꿈을 꾸고, 책을 읽고, 연구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루나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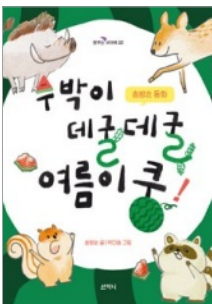
부지직! 똥 탐험대 **꿈꾸는 보라매 21**

김경구 지음 | 박인 그림 | 128쪽 | 14,000원 | 2023년 5월 | 979-11-6861-144-3

더럽고 냄새나는 똥? 아니, 아니! 신기하고 재미난 똥 이야기!

똥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양분을 담고 있는 똥은 식물이 자라는 데 좋은 거름이 되고, 사람의 똥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소재를 포착해 재미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김경구 시인이 이번에는 똥 이야기로 돌아왔다. 우리가 몰랐던 무궁무진한 똥과 화장실 이야기의 세계로 '똥 탐험대'가 되어 떠나보자.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소년한국일보/
어린이조선일보/
국제신문 추천도서



수박이 데굴데굴 여름이 쿵! **꿈꾸는 보라매 22**

송방순 지음 | 박다솜 그림 | 88쪽 | 13,000원 | 2023년 5월 | 979-11-6861-142-9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숲속으로 '수박이 데굴데굴' 굴러왔어요

깊고 깊은 숲속에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숲속 친구들은 어느 여름 날 데굴데굴 굴러온 수박을 발견하고 수박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추리를 시작해요. 친구들은 과연 무더운 여름을 이기게 해줄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맛볼 수 있을까요?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숨고 싶은 아이 **꿈꾸는 보라매 14**

호세리네 베레스 가야르도 글·그림 | 공여진 옮김 | 36쪽 | 13,000원 | 2021년 1월 | 978-89-6545-693-3

아이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며

칠레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콜리브리상을 수상한 그림책. 이 책은 여러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떠올리게 한다. 숨고 싶은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작은 괴물들과 함께 즐겁게 어울려 지낸다. 아이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가면을 벗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아냐뉴까 이야기 **꿈꾸는 보라매 15**

마카레나 모랄레스 벤델 지음 | 빠울리나 레예튼 그림 | 공여진 옮김 | 32쪽 | 13,000원 | 2021년 1월 | 978-89-6545-694-0

칠레 옛 이야기가 강렬한 색채와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다

칠레 북쪽 사막에서 자라는 꽃 아냐뉴까의 매혹적인 붉은빛 속에 숨겨진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여인 아냐뉴까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그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광부가 아냐뉴까가 사는 마을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온다.

*국제신문추천도서



침팬지는 낚시꾼 **꿈꾸는 보라매 08**

김희수 지음 | 최해솔 그림 | 40쪽 | 10,000원 | 2016년 8월 | 978-89-6545-364-2

영장류 박사 김희수 선생님이 알려주는 침팬지의 생활

『침팬지는 낚시꾼』은 아프리카 숲속에 사는 침팬지 현이네 가족의 하루를 통해 침팬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전한다. 아빠, 엄마, 이모, 오빠, 여동생과 함께 사는 현이는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하며 숲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이모와 함께 나뭇가지 흔들기를 하며 논다. 가끔 오빠와 다툼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걱정 마시라! 숲속에는 천연 약들이 가득하니까.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
*태국 판권 수출
*2021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도서



황금빛 물고기 **꿈꾸는 보라매 04**

김규정 글·그림 | 32쪽 | 10,000원 | 2012년 10월 | 978-89-6545-199-0

우리의 황금빛 물고기는 어디 있나요?

평화로운 금모래마을에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황금빛 물고기'가 상징하는 자연 역시 소외되고 훼손된다. 이 책의 은유는 담백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훼손된 환경 문제를 은유하고 있다.

*2013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13
한국출판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배고픈 노랑가오리 **꿈꾸는 보라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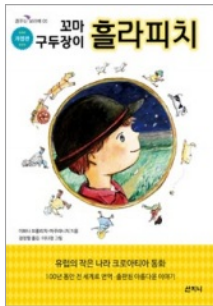
조미형 지음 | 박경효 그림 | 32쪽 | 13,000원 | 2021년 9월 | 978-89-6545-747-3

배고픈 노랑가오리의 좌충우돌 먹이 사냥!

해양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해양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먹이를 찾지 못해 배고픈 ‘노랑가오리’와 그의 친구 ‘솔배감팽’, 비닐에 갇힌 아기 바다거북 등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오염된 바닷속 모습을 실감나게 전달한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더러워진 바다가 해양 생물과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2022 상반기 책씨앗 추천도서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꼬마 구두장이 흘러피치 **꿈꾸는 보라매 05**

이봐나 브를리치 마주라니치 지음 | 장정렬 옮김 | 이다정 그림 | 212쪽 | 13,000원 | 2020년 10월 | 978-89-6545-344-4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고전, 장화 신은 소년의 모험

노벨문학상 후보로 네 번이나 추천된 ‘크로아티아의 안데르센’ 이봐나 브를리치 마주라니치의 동화. 성실하고 용감한 흘러피치의 모험담을 통해 개인의 작은 친절과 노력이 세상에 얼마나 거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미적, 오락적 가치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정직과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는 커다란 울림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오디오북

*2013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반려인간 신진 가족 동화집 **꿈꾸는 보라매 13**

신진 지음 | 권문경 그림 | 192쪽 | 13,000원 | 2020년 9월 | 978-89-6545-672-8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세상의 모든 생명 이야기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세상의 모든 생명 이야기. 작가는 10개의 작품을 통해 자연 생태와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표제작인 「반려인간」에서는 지구의 주인이 되어 버린 개들과 그들의 반려인간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 환경오염의 결과로 개들에게 생활 터전을 빼앗겨 버린 인간들의 모습은 동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지만, 인간의 무절제함이 불러온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경각심을 갖게 한다.

*2021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도서

*부산일보 추천도서



열세 달 은우 **꿈꾸는 보라매 18**

장세련 지음 | 박다솜 그림 | 122쪽 | 13,000원 | 2021년 11월 | 978-89-6545-761-9

꿈꾸는 어린이 ‘은우’의 동화 같은 일상 이야기

하루하루를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나간 은우의 일 년이 모인 이야기. 작가는 순진무구한 은우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여주면서, 가족이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애정 어린 시선, 때로는 엄격한 모습으로 은우를 대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다양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

*2022 상반기 책씨앗 초등 부문 추천도서

*2022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여름방학 권장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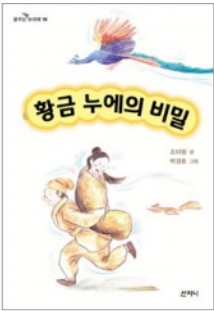
마녀 바라쿠다의 정원 **꿈꾸는 보라매 12**

이석용 글 | 이민경 그림 | 184쪽 | 13,000원 | 2020년 3월 | 978-89-6545-646-9

틀림 아닌 다름을 주장하는 명랑 쾌활 모험기

차별과 자연보호 문제를 다룬 판타지 창작동화로, 꼬마 마법사 메이린이 전설로 내려오는 마녀 바라쿠다의 정원을 찾아 나서며 겪는 모험을 그린다. 동백꽃 가문의 마녀이자 호기심 많은 '메이린', 봉황 가문의 후손이자 관찰력이 뛰어난 '봉수', 대나무 가문의 후손이자 섬세한 성격의 '두'를 비롯해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여럿 등장한다.

*2015
한국안데르센상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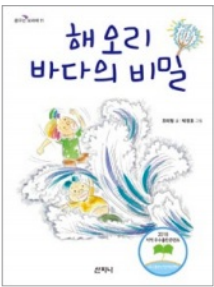


황금 누에의 비밀 **꿈꾸는 보라매 19**

조미형 글 | 박경호 그림 | 120쪽 | 13,000원 | 2021년 12월 | 979-11-6861-002-6

자유를 외치며 꿈을 펼쳐가는 우치와 지하의 황금빛 우정

신라 신분제 사회에서 자유를 외치는 우치와 지하의 우정을 그린 역사 동화. 누에를 키우기 위해 매일 뽕잎을 따는 우치와 잠재의 제물이 될 지하, 늘 웃는 우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귀족 비운 등 다양한 인물을 통해 잠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사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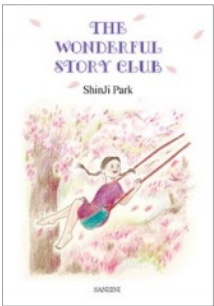
해오리 바다의 비밀 **꿈꾸는 보라매 11**

조미형 지음 | 박경호 그림 | 136쪽 | 13,000원 | 2018년 12월 | 978-89-6545-572-1

니오와 신지, 쓰레기로 뒤덮인 바닷속으로 들어가다

바다 환경 문제를 다룬 창작동화로, 니오와 신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겪게 되는 모험을 그린다.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소년 '니오'와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 '신지'를 비롯해 바다를 지키는 산갈치 '알라차',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괴물이 된 가오리와 바다유령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통해 더러워진 바닷속 모습을 생생하게 전한다.

*2020
중국 판권수출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2018 지역
우수출판콘텐츠
선정도서
*국제신문/
책씨앗(초등)
추천도서



The Wonderful Story Club

Shinji Park 지음 | 150쪽 | 13,000원 | 2018년 2월 | 978-89-6545-485-4

열 살 소녀의 영어 일기, 한 권의 책이 되다

어린 시절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쓴 영어 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에세이집. 당시 열 살이었던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마주하는 런던에서의 소소한 일상들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꾸밈없는 순수한 필체와 생각들을 통해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나는 강, 강은 나 **꿈꾸는 보라매 10**

이성아 지음 | 오서근 그림 | 103쪽 | 12,000원 | 2018년 8월 | 978-89-6545-538-7

지리산 용유담의 하늘꽃 약속

지리산 용유담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배경으로 솔이와 은강의 우정을 그리는 생태동화다. 한 계절 한 계절 쌓아가는 우정을 따라 지리산 자락의 동식물들을 만나고, 자연과 호흡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도시 아이 은강이 인디언 소년 솔이와 함께 뛰노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연의 품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201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북돋움 선정도서
*2019 아침독서
추천도서
*(사)행복한아침독서
/ 책씨앗(초등)
추천도서
*국제신문 추천도서



놀기 좋은 날 강기화 동시집 **꿈꾸는 보라매 09**

강기화 지음 | 구해인 그림 | 96쪽 | 10,000원 | 2016년 11월 | 978-89-6545-380-2

놀재! 신기하고 재밌는 상상의 나라에서

강기화 시인의 첫 동시집.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동시집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는 상상의 세계를 재기발랄한 시어로 묶어냈다. 시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함께 생활하며 관찰한 아이들의 세계와 속마음을 발랄한 시들을 통해 보여준다. 시인은 이 책을 통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상의 나라와 그 속에 담긴 긍정의 힘을 즐거운 동시에 담아 건넨다.

*2016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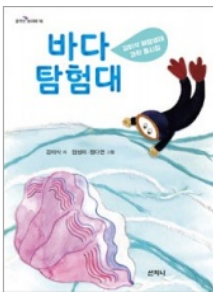
갯벌 탐험대 순우리말 생태동시집 **꿈꾸는 보라매 20**

김이삭 지음 | 엄성미, 정다연 그림 | 112쪽 | 12,000원 | 2022년 12월 | 979-11-6861-125-2

소중한 우리 갯벌엔 누가 살까요? 순우리말로 소개하는 갯벌 친구들!

우리 갯벌이 품고 있는 풍부한 생태계를 보여준다. 1부 '와글와글 갯벌 교실'에서는 우럭, 폴망둥어, 말뚝게 등 저서생물과 참수리, 황로, 갈까마귀 등 조류를 소개한다. 2부 '따각따각 풀꽃교실'에서는 갯메꽃, 해당화 등 염생식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친근한 그림들은 아이들에게 마치 갯벌을 직접 탐험하고 갯벌 생물들을 만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경상일보/울산매일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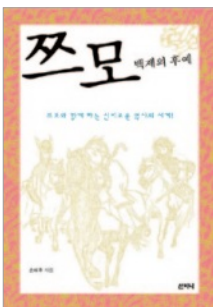
바다 탐험대 김이삭 해양생태 과학 동시집 **꿈꾸는 보라매 16**

김이삭 지음 | 엄성미 · 정다연 그림 | 128쪽 | 12,000원 | 2021년 7월 | 978-89-6545-737-4

함께 탐험해요, 신비하고 흥미로운 바닷속 세상 구성구석!

“사람들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요.”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바다 생물들을 소개하는 해양생태 과학 동시집. 귀여운 바다 생물 그림과 생소한 바다 생물에 대한 친절한 설명으로, 해양 생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쉽고 유쾌하게 전달한다.

*2022 청소년 북토크
선정도서



쓰모 1 백제의 후에 **꿈꾸는 보라매 01**

손혜주 지음 | 192쪽 | 8,000원 | 2007년 12월 | 978-89-92235-26-6

쓰모와 함께하는 신비로운 역사의 세계!

계백의 아들 '신'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 쓰모가 시간의 터널을 통해 백제가 망하기 직전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벌이는 흥미진진한 역사 판타지 이야기. 현직 중학교 교사가 독서에 흥미가 없는 제자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가르쳐 주고, 더불어 아이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판타지의 형식을 이용하고, 백제의 역사를 인용하여 글의 배경으로 삼았다.

*2008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도서



쓰모 2 엄지학교 **꿈꾸는 보라매 02**

손혜주 지음 | 전미경 그림 | 224쪽 | 9,000원 | 2009년 9월 | 978-89-92235-72-3

위기에 처한 땅 속 생명의 학교를 구하라!

악동들이 넘쳐나는 중학교에 갓 부임한 새내기 교사 쓰모의 글라스비즈 속 환상여행. 한밤중 학교 교무실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런 이야기는 아이들을 쉽게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그리고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다.

*2009 12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엄마 사용 설명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필수품!

도린 크로닌 지음 | 로라 코넬 그림 | 강도희 옮김 | 56쪽 | 16,800원 | 2018년 3월 | 978-89-6545-489-2

*2018 책씨앗 추천도서

칼데콧 아너상 수상 작가 '도린 크로닌'의 그림책

'엄마'를 하나의 제품으로 설정해 아이와 외출하기, 식사하기 등 갖가지 상황 속에서도 엄마가 고장나지 않는 방법을 그리고 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자 아마존 독자 평점 4.1(5점 만점)을 받았으며 아이에겐 웃음과 엄마에 대한 사랑을, 부모님에게는 공감과 재미를 선사한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이 책을 든 채 웃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 아이를 위한 책이자 엄마를 위한 책 _캐서린(독자)
-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지, 역설적인 유머로 그려냈다. _경향신문



어중씨 이야기 **공무는 보라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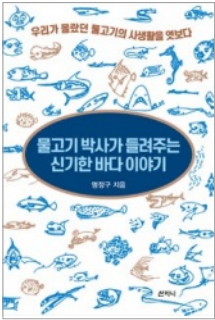
최영철 지음 | 이가영 그림 | 180쪽 | 12,000원 | 2014년 3월 | 978-89-6545-242-3

최영철 시인의 따뜻하고 유쾌한 청소년 소설

영똥하지만 사랑스러운 어중씨가 하루 동안 겪은 유쾌하고도 기이한 모험담을 따뜻하게 그린 소설이다. 우리는 계속 성장 중이기에 지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나 길, 이웃, 마을 등에 대한 어중씨 특유의 유쾌하고 엉뚱한 상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일상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오디오북

*2014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도서



물고기 박사가 들려주는 신기한 바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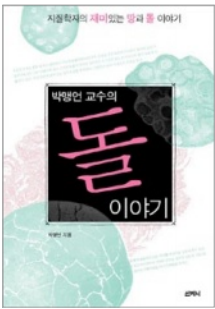
명정구 지음 | 256쪽 | 18,000원 | 2021년 3월 | 978-89-6545-714-5

우리가 몰랐던 물고기의 사생활을 엿보다

물고기의 시력은 어떻게 될까? 물고기는 어떻게 감각을 느낄까? 암수로 전환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평생을 물고기와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탐구에 매진해 온 자타공인 물고기 박사 명정구 교수가 연구자 생활을 마치며 바다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저자의 다양한 수중 탐사 경험과 바다에 대한 철학이 녹아 있다.

*2021 5월 책씨앗
인문교양부분
추천도서

*세계일보 / 서울신문
/ 연합뉴스 추천도서



박맹언 교수의 돌 이야기 지질학자의 재미있는 땅과 돌 이야기

박맹언 지음 | 243쪽 | 13,000원 | 2008년 5월 | 978-89-92235-40-2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돌의 역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남극의 지질탐사에서 체험한 내용을 함하여 엮었다. 지질자료와 함께 돌에 대한 관심에서 얻게 된 생각을 역사와 연관시켜 정리하여 담았다. 지은이는 돌이 그림이나 예술 조각품 같고 역사책이나 시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인문학적 감성이 풍부한 지질학자이다.

*2010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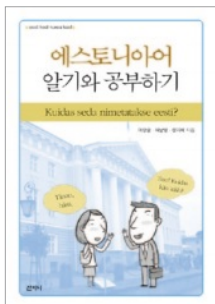


비즈니스 일본어에서 일본어의 비즈니스 인터랙션으로

정규필 지음 | 192쪽 | 23,000원 | 2017년 6월 | 978-89-6545-424-3

일본어의 비즈니스 인터랙션에 관한 분석 및 고찰

‘일본어의 비즈니스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서로, 저자는 실제 일본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국인이 일본인과 함께 일본어로 다양한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론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일본어교육학과 사회언어학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어 알기와 공부하기

이상금·허남영·성지혜 지음 | 208쪽 | 15,000원 | 2011년 8월 | 978-89-6545-158-7

북유럽 발트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어 입문서

에스토니아어 입문서. 에스토니아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에스토니아어의 음운적인 특징, 일상적인 표현 익히기, 외국어로서의 언어학습을 위한 문법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기능별 표현을 제시하여 관련 문법이나 어휘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패션, 음악영화를 노래하다

진경옥 지음 | 244쪽 | 20,000원 | 2019년 12월 | 978-89-6545-639-1

19편의 영화로 담아낸, 뮤지션이 사랑한 패션 이야기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 ‘라라랜드’의 미아와 세바스찬. 우리는 그들을 ‘음악과 패션’으로 기억한다. 책에서는 스타일의 교과서 역할을 해온 영화, 그중에서도 음악영화에서 나타나는 뮤지션의 패션을 한 눈에 살펴본다. 대중문화의 세 축인 음악, 패션, 영화가 서로에게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며, 대중문화에 녹아 있는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기회가 된다.

*2020
학교도서관저널
3월의 책
*조선일보/부산일보
추천도서

‘로켓맨’ 옷에 왜 크리스털 100만개 달았을까

- 영화로 만나는 화려한 의상은 덤.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가 왜 웨딩드레스를 입는지, ‘로켓맨’에 등장한 의상 88벌 등에 왜 100만개 이상의 크리스털을 달아야 했는지 등의 일화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조선일보**
- 영화 속 주인공들의 패션 이야기뿐 아니라, 영화 의상을 만들어낸 의상 감독과 의상에 숨겨진 뒷이야기, 패션 역사까지도 담겨 있다. 음악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려준다. **교수신문**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

진경옥 지음 | 320쪽 | 29,800원 | 2023년 10월 | 979-11-6861-173-3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패션의 스타일링으로 풀어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패션 트렌드 속에서 오드리 헵번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매혹적이다. 51가지 영화 속에 등장하는 패션을 통해 영화의상의 세계를 조명한다. 패션과 영화의상의 공생관계와 더불어, 패션 디자이너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던 영화의상 디자이너의 이야기, 시대를 주름잡은 영화 속 패션 아이콘들을 살펴본다.

*2016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2016 부산문화재단
우수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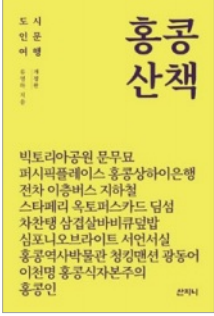
패션, 영화를 스타일링하다

진경옥 지음 | 304쪽 | 19,800원 | 2017년 12월 | 978-89-6545-456-4

영화의 스토리를 이끌어내는 영화 속 패션

영화와 패션의 관계를 디자이너의 눈으로 바라본 ‘영화 의상’ 안내서. 영화 의상은 단순히 영화의 한 부속품이 아니라 영화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때로는 스토리를 끌어내기도 한다. 책에서는 37편의 영화에 담긴 의상을 10개의 주제로 분류해, 패션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핀다.

*연합뉴스/부산일보
/경기신문 추천도서



홍콩 산책 도시 인문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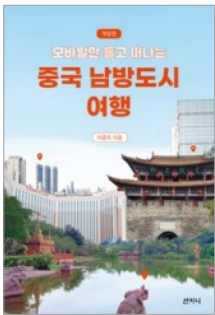
류영하 지음 | 215쪽 | 18,000원 | 2023년 9월 | 979-11-6861-176-4

어느 홍콩학 교수의 유쾌하고 뽀족한 인문 산책

홍콩의 정체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류영하 교수의 인문 여행 에세이 집. 30년간 홍콩을 연구하며, 살며, 여행하며 쓴 글들을 담았다. 홍콩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집대성했지만 쉽게 풀어 썼다. 그가 본 홍콩의 모습을 담은 스무 가지 글을 읽다 보면, 저마다 다른 색을 지닌 홍콩의 면면들에 빠져든다.

오디오북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조선일보/한겨레/
경향신문/문화일보/
한경비즈니스/
시사매거진/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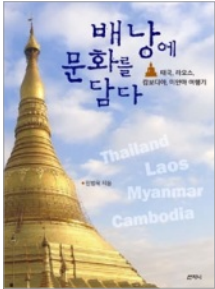
모바일만 들고 떠나는 중국 남방도시 여행

이중희 지음 | 292쪽 | 20,000원 | 2022년 3월 | 979-11-6861-020-0

중국의 남방도시, 모바일 폰 하나만 들고 떠나자

저자는 중국 남방도시를 오직 모바일 폰 하나만 들고 여행한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여행을 하며 남방도시의 모습과 현대 중국인의 삶을 보여준다. 이 책은 여행 안내서가 아니다. 여행지에 대한 정보보다는 오늘날 중국의 남방도시가 어떤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경제도시로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부산일보/국제신문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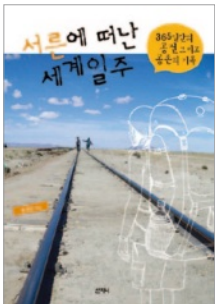


배낭에 문화를 담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여행기

민병욱 지음 | 244쪽 | 15,000원 | 2015년 4월 | 978-89-6545-285-0

1인 배낭여행자, 동남아 소승불교 4국의 과거와 현재를 순례하다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을 하며 차곡차곡 담은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혼자만의 배낭여행이기에 주어지는 자유를 만끽하며, 저자는 문화예술과 자연에서 역사와 사회를 읽는다. 핵심을 짚는 묘사와 적절한 인용문은 여행의 낭만을 살리고 현지 분위기를 포착한다.



서른에 떠난 세계일주

유윤빈 지음 | 276쪽 | 13,000원 | 2010년 1월 | 978-89-92235-82-2

365일간의 '공전' 그리고 '공존'의 기록

365일간 6대륙, 30개국, 135개 도시를 여행하는 가운데 만난 지구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사, 지리, 문화, 종교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대륙을 넘나들며 세계사의 흐름과 현재의 지구촌 정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과거 '힘의 논리'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다

*20104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걷기의 기쁨

박창희 지음 | 288쪽 | 18,000원 | 2021년 11월 | 978-89-6545-762-6

길 속의 길, 걸으면 보이는 인문풍경

길 안내자 박창희 교수가 알려주는 행복한 걷기 안내서. '걷기'를 통해 얻은 흥미로운 인문학적 지식들과 저자의 경험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에세이다. 두 발 밑에 있는 이 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위를 지나간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걷다가 느낀 저자의 단상은 우리말의 아름다움 또한 느끼게 한다.

오디오북

*KNN/뉴스스/
시빅뉴스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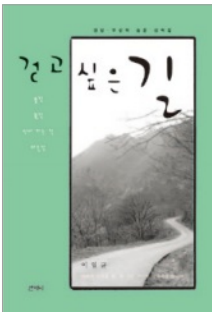
우아한 여행 배낭 멘 아줌마의 우리 아름다운 한국 홀로 여행

박미희 지음 | 240쪽 | 15,000원 | 2019년 12월 | 978-89-6545-634-6

아줌마의 여행이 주는 몽클한 위로와 단단한 용기

50대 아줌마가 씩씩하게 배낭 하나 메고 떠난 전국 일주 여행기. 착한 딸로, 살림하는 아내로, 아들딸 키우는 엄마로 성실한 삶을 살아오던 저자가 딸, 아내, 엄마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나'를 위해 떠난 542일 간의 전국 여행 기록을 담았다.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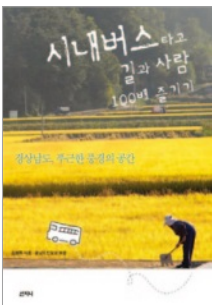
걷고 싶은 길 경남·부산 근교의 숨은 산책길

이일균 지음 | 256쪽 | 13,000원 | 2006년 10월 | 978-89-92235-04-6

'맛'이 있는 길을 찾아 떠나 보자

어느덧 걷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주변에 걸을 만한 길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 미처 알지 못했던 길의 재미를 찾아 발걸음을 옮겨보자. 이 책이 소개하는 길들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처음 느낌이나, 그보다 더 좋은 느낌으로 변화하는 길을 골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도서
*한겨레 추천도서



시내버스 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

김현주 지음 | 352쪽 | 20,000원 | 2012년 6월 | 978-89-6545-178-5

경상남도, 푸근한 풍경의 공간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버스 여행'의 색다른 묘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경남도민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저자의 흔적이 돋보이는 생생한 여행수기이다. 직접 여행지를 체험하고 다녀온 저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듯, 눈과 코와 귀를 모두 즐겁게 하는 묘사를 통해 독자들을 즐겁게 한다.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2014 환경부 우수
환경도서



취재남 감성녀 동상이몽 부부 한 달 전국여행

정학구·이수경 지음 | 304쪽 | 20,000원 | 2021년 12월 | 978-89-98079-45-1

동서남북 곳곳 아픔을 찾아나서는 황홀과 눈물의 다크투어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남편과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아내의 동상이몽 속 한 달 여행기. 제주도부터 부산까지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유명 관광지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근현대사의 아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한다. 묵혀 있던 이야기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와 아픔을 알려주며, 우리가 몰랐던 ‘역사’와 마음을 울리는 ‘감성’을 함께 즐기게 만든다.

*경남신문/문화일보
/연합뉴스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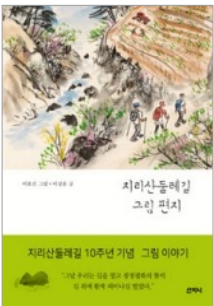
히말라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상배 지음 | 271쪽 | 17,000원 | 2017년 9월 | 978-89-6545-441-0

에베레스트 삼수생 늦깎이 산악인의 히말라야 원정기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전문 산악인의 삶을 시작한 저자의 히말라야 원정기. 단순히 취미로 등반을 즐기던 그를 에베레스트, 아콩카구야, 킬리만자로 등 세계 8천 미터급 고산의 최고봉으로 오르게끔 한 신념과, 늘 자연에서 세상사를 배우고자 하는 사유가 깃들어 있다.

*부산일보/경상일보
/뉴스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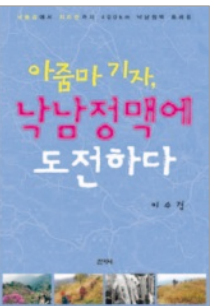
지리산둘레길 그림 편지

이상운 글 | 이호신 그림 | 256쪽 | 20,000원 | 2018년 2월 | 978-89-6545-488-5

지리산 품에 안긴 두 명의 순례자, 그 동행의 기록

‘길 위의 화가’ 이호신 화백의 풍부한 지리산 실경 산수와 ‘둘레길 지킴이’ 이상운 이사의 성찰이 함께 담겼다. ‘생명’과 ‘평화’라는 화두로 자연과 사람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지리산살이에 공감하는 뜻깊은 기록이다. 한 권의 책 속에 지리산의 빼어난 풍경과 더불어 그 속에 새겨진 삶의 현상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한겨레/시사인/
연합뉴스/국제신문/
경향신문/
경남매일신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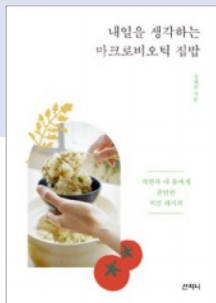
아줌마 기자, 낙남정맥에 도전하다

이수경 지음 | 234쪽 | 13,000원 | 2006년 10월 | 978-89-92235-03-8

낙동강에서 지리산까지 400km 낙남정맥 트레킹

낙남정맥의 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환경 파괴의 현장을 고발하며 한 발 한 발 정맥을 밟으면서 느끼는 감상을 재밌게 서술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밟아볼 수 있는 관광 루트로 개발하기 위해 ‘이 길은 낙남정맥입니다’라는 풋말을 만들어 둔다든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야생화를 이용하여 ‘야생화 체험학습 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안도 함께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도서



내일을 생각하는 마크로비오틱 집밥

자연과 내 몸에게 편안한 비건 레시피

전혜연 지음 | 264쪽 | 17,000원 | 2022년 1월 | 979-11-6861-003-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매 끼니를 기대하게 만드는 마크로비오틱 집밥 요리책

마크로비오틱은 자연에 가까운 요리법과 생활 방식을 지향하는 식생활 법이다. 이 책에는 마크로비오틱 식당 '오늘'과 비건 쿠킹 클래스를 꾸려 나가는 전혜연 작가의 요리법과 마크로비오틱한 생활양식이 담겨 있다. 저자는 마크로비오틱 집밥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경향신문 / 국제신문
/ 부산일보 / 뉴시스
/ 경기매일신문 /
경남도민일보 /
작은책추천도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

현미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자

- 채소의 잎, 줄기, 뿌리까지 모두 연결된 하나의 개체를 섭취했을 때 채소의 생명력을 모두 흡수한 것이라며 매크로바이오틱의 개념을 설명한다. 양배추의 심도 얇게 저며 자르면 잎파리처럼 먹을 수 있다. **경향신문**
- 마크로비오틱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건과 공통점이 있지만, 자연에 가까운 요리법과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채소 뿌리나 껍질 등을 사용하고, 신선한 제철 재료로 요리를 만든다. **경남도민일보**



와인의 정석

고창범 지음 | 336쪽 | 29,800원 | 2024년 2월 | 979-11-6861-238-9

한 권으로 끝내는 와인의 기초와 실전

아는 만큼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와인 소비자가 가지는 와인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을 정확한 와인 이론으로 풀어내고, 안내한다. 또한, 와인 평론지를 바탕으로 한 최신 와인 평점과 더불어 전문적인 와인 정보를 나라별로 체계화하였다. 쏟아지는 와인 관련 지식과 시사들을 정리하여 개정판에 담았다.

*부산일보 / 경남신문
/ 한국경제 추천도서



차의 20,000가지 비밀

빅토리아 지음 | 안원근 · 김희숙 옮김 | 288쪽 | 13,000원 | 2007년 1월 | 978-89-92235-08-2

자연 치료제 허브로 건강하게 사는 법

“차 없이 하루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흘 동안 밥을 굶는 편이 낫다.” 싱그러운 후오의 세이지 차, 통증과 두통을 덜어주는 만병통치약 페퍼민트 차,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해주는 로즈메리 차 등 차의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한겨레21 /
내일신문 추천도서



수술 권하는 정형외과의 비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관절 근육 통증의 진실

황윤권 지음 | 200쪽 | 17,000원 | 2022년 8월 | 979-11-6861-058-3

두드리고 누르고 펴면 아픈 증세는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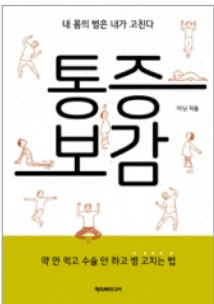
환자 스스로 관절 근육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에세이. 증상이 낫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절을 두드리고, 누르고, 펴는 것임을 알려준다. 저자 황윤권 정형외과 전문의는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와 수술을 강요하는 의사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근육이나 관절이 아픈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환자를 이용해서 증세를 해결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다. 과연 이런 상황들이 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 세상에 손에 쥘 황금을 놓아버릴 의사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꿈꾼다. 허리디스크니 척추관협착증이라는 병명이 사라지는 날을.

- 에필로그 중에서

-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하고 과도한 수술이나 마취를 통해 일시적으로 그 통증을 없애주는 잘못된 진료 방법을 비판한다. 뉴시스

*뉴시스/중앙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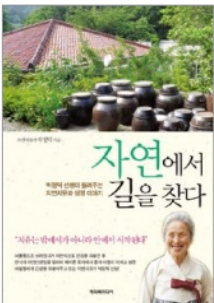


통증보감 약 안 먹고 수술 안 하고 병 고치는 법

아닌 지음 | 264쪽 | 16,000원 | 2020년 12월 | 978-89-98079-39-0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수술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우리 몸에는 몸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 있고,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병원에 익숙해진 독자들이 이 책으로 '몸의 주권'을 회복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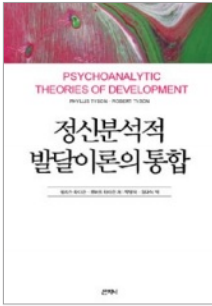


자연에서 길을 찾다

박정덕 지음 | 256쪽 | 18,000원 | 2013년 5월 | 978-89-963292-6-8

뇌졸중과 싸워 이긴 박정덕 선생의 체험 건강법

뇌졸중을 앓다 자연요법으로 새 생명을 얻은 박정덕 선생의 건강비법. 저자가 알려주는 자연요법은 체험을 통해 얻은 것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가 권하는 건강법은 게을러진 우리의 몸에 긴장을 주면서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법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정신분석적 발달이론의 통합

필리스 타이슨 · 로버트 타이슨 지음 | 박영숙 · 장대식 옮김 | 548쪽 | 34,500원 | 2020년 8월
| 978-89-6545-095-5

8개 국어로 번역된 정신분석학의 필독서

인간발달에 관한 정신분석 문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독창적인 발달 이론을 담은 책이다. 진화하는 감정, 행동, 인지, 사회적 체계를 고려하는 맥락에서 정신성 발달을 살펴본다. 정신분석의 전반적인 이론 통합으로 정신분석학 연구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의협신문/국제신문
추천도서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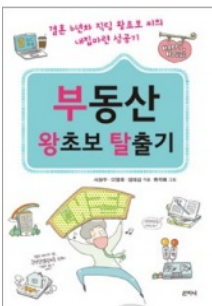
20세기 최고 CEO들의 경영철학 산책 1·2

자오원밍 · 황청루 지음 | 최정희 옮김 | 246쪽 | 12,000원 | 2007년 4월 |
978-89-92235-14-3

경영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경영학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 20세기 경영이론 선구자들 40인의 경영사상. 앙리 파올, 프레데릭 테일러, 피터 드러커, 막스 베버, 폴 갈빈, 알프레드 슬론, 잭 웰치, 앤디 그로브 등을 소개한다. 경영사상가들을 통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21세기 경영이 나아갈 길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일보/연합뉴스
/서울경제 추천도서



부동산 왕초보 탈출기

서성수 · 이영래 · 임태섭 지음 | 류지혜 그림 | 264쪽 | 15,000원 | 2016년 5월 |
978-89-6545-342-0

결혼 6년 차 직딩 왕초보 씨의 내 집 마련 성공기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지만 복잡한 부동산 지식 앞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책의 주인공 왕초보 씨. 그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며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통해 현직 부동산학 박사, 부동산 분석 전문가, 경제부 기자의 노하우와 최신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산일보 추천도서



부동산 투자실무

서성수 지음 | 174쪽 | 18,000원 | 2016년 12월 | 978-89-6545-399-4

이론부터 실천까지 배가 되는 투자 비법

초저금리 시대는 채테크 필수 시대이다. 안전성과 수익 면을 고려해 부동산으로 투자가 쏠리고 있다. 공식화된 수식으로 수익을 계산한다면, 안타깝지만 반드시 실패한다. 시장의 상황, 기회비용, 간접비를 포괄하는 정확한 분석만이 매물 비용을 최소화하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금강일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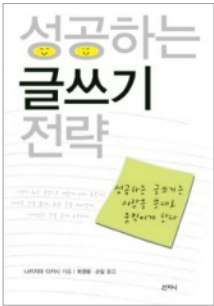


사람을 위한 회계

주태순 지음 | 210쪽 | 12,800원 | 2013년 8월 | 978-89-9632-929-9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계원리

우리말이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 딱딱한 회계이론. 저자는 이러한 회계이론을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도표와 그림 자료들을 통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안내해준다. 회계의 진정한 목적은 다름 아닌 '사람'에 있음을 이 책은 일깨운다.



성공하는 글쓰기 전략

나카지마 다카시 지음 | 최영봉·손일 옮김 | 192쪽 | 9,800원 | 2007년 7월 | 978-89-92235-21-1

비즈니스맨을 위한 실용적 글쓰기 책

오랜 영업사원 경력의 저자가 항상 상위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맨 글쓰기 노하우'를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알려주는 책이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재미있게, 재미있는 것을 깊게 표현하는 법을 알려준다.



세상에 나를 추천하라

정광위 지음 | 박규환·한철민 옮김 | 224쪽 | 15,000원 | 2018년 11월 | 978-89-6545-565-3

체면 차리지 말고 죽을 각오로 임하라

저자는 자신을 어필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능한 작가이자 사회자다. 세계적 진행자라는 꿈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도전 정신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자 원천이다. 이 책에서 그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냈던 경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전한다.

*한강타임즈
추천도서



인도 진출 20인의 도전

Cyber SERI 인도포럼 엮음 | 304쪽 | 13,000원 | 2008년 12월 | 978-89-92235-53-2

인도 시장을 개척한 20인의 생생한 현지 리포트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경제. 그 인도 경제의 현장에 진출하여 땀으로 성공을 일구어낸 한국인들의 이야기.

*20103월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책

- 1980 87
 2000년 이후의 독일영화 76
 2000년대 한국문학의 징후들 140
 20세기 상하이영화: 역사와 해제 78
 20세기 최고 CEO들의 경영철학 산책 1·2 171
 21세기 마르크스 경제학 33
 21세기 중국! 소통과 뉴 트렌드 62
 2℃ 54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 119
 60대 인문학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131
 CEO사회 35
 KNOTS 1 Depression 151
 Literature/Thoughts vol.1 153
 SNS시대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남기 49
 S연인 시대 89
 The Wonderful Story Club 160
- ㄱ**
 가상사회의 철학 4
 가상현실 시대의 뇌와 정신 7
 가야만 하는 길 묵묵히 가기로 했다 128
 가을의 유머 90
 감꽃 떨어질 때 94
 감성과 윤리 136
 감천문화마을 산책 67
 강수들 교수의 나부터 마을혁명 68
 갯벌 탐험대 161
 거거서, 도란도란 99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 35
 견고 싶은 길 167
 걷기의 기쁨 167
 걸어서 들판을 가로지르다 116
 겨울 해바라기 147
 경성브라운 89
 계급 이해하기 34
 고도경보 102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40
 고래 그림磔 102
 고슴도치 시대의 여우 13
 고인들에서 인공지능까지 117
- 고전시가, 사랑을 노래하다 131
 고종, 근대 지식을 읽다 21
 고흐의 변증법 97
 골목상인 분투기 44
 공공미술, 도시의 지속성을 논하다 73
 공동체의 감각 136
 공자와 소크라테스 6
 공존과 충돌 141
 공통성과 단독성 131
 공학자의 눈으로 본 독일 대학과 문화 46
 과학과 인생관 14
 교풍 86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09-2014-2019 46
 구유심영록 14
 구텐탁, 동백 아가씨 119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 33
 국가폭력과 유태발굴의 사회문화사 45
 권학편 15
 귀농, 참 좋다 55
 규슈, 백년의 맛 64
 그 사람의 풍경 121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142
 그날이 올 때까지 121
 그냥 가라 했다 144
 그는 금빛날개를 타고 갔다 112
 그는 바다로 갔다 105
 그대 출가분한 길손으로 150
 그대 흔적에 귀의합니다 150
 그림 슬리퍼 44
 극동러시아 리포트 63
 근대 건축과 하이데거 73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평피아 8
 근대 서구의 충격과 동아시아의 군주제 24
 근대문학 속의 동아시아 134
 근현대 중국 이상사회론 8
 글로벌 차이나 62
 글로벌리즘과 독일문화논쟁 135
 금정산을 보냈다 143
 기록을 짚는 사람들 66
 기연 89
 기울어지는 강 82
 기차가 걸린 풍경 122
 기후변화와 신사회계약 54
 길 위에서 103
 길 위에서 부산을 보다 67
- 길에게 묻다 126
 길에서 형님을 잃다 81
 김명시: 문힐 뻔한 여성 항일독립영웅 23
 김범부의 건국사상을 찾아서 10
 김순남 씨, 이제 울릉도로 가요 112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32
 김춘수 시를 읽는 방법 134
 깨달음 9
 꼬마 구두장이 흘러파지 159
 꿈을 굶다 123
 꿰어보는 러시아와 중국 32
 골 104
 긴대리 김대리 그대로 견디라 111
- ㄴ**
 내! 테러리스트 143
 나, 너를 떠나기에 5일이면 충분했어 128
 나는 강, 강은 나 160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 39
 나는 기우뚱 145
 나는 나 124
 나는 매일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 113
 나는 바다로 출근한다 113
 나는 시의회로 출근한다 42
 나는 장성택입니다 93
 나도 나에게 타인이다 116
 나뭇잎 칼 119
 나의 아버지 박판수 87
 나이지리아의 모자 146
 나절로 인생 115
 낙도 82
 날짜변경선 102
 내 안의 강물 101
 내가 살아온 안녕들 147
 내가 선택한 일터, 싱가포르에서 109
 내게 날아든 계절 155
 내게 없는 미홍의 밝음 100
 내러티브와 장르 49
 내일을 생각하는 마크로비오틱 집밥 169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의 식탁 109
 노기섭과 '함께' 42
 노년의 지혜 9
- 노루뚱 95
 녹색 침대가 놓인 갤러리 95
 논어, 그 일상의 정치 11
 놀기 좋은 날 161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난 114
 누구나 평행선 너머의 사랑을 꿈꾼다 81
 뉴턴과 마르크스: 문과 이과의 융합을 위한 제언 34
 늙은 소년의 아코디언 123
- ㄷ**
 다다 146
 다독이는 시간 119
 다르마키르티의 철학과 종교 19
 다문화 박사의 '진짜' 다양성 이야기 43
 다시 시월 1979 38
 다시 시작하는 끝 81
 다시 지역이다 151
 다음에 145
 다정한 연결 113
 닥터 아나키스트 124
 단절 64
 달콤쌔름한 초콜릿, 이야기 106
 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 122
 당신은 지니라고 부른다 145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 들다 66
 대학, 정치를 배우다 12
 대학과 청년 46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22
 댄싱 맘 105
 데리쿠유 89
 도서관으로 가출한 사서 110
 도서관인을 평전 133
 도시, 변혁을 꿈꾸다 44
 도시는 정치다 45
 독서의 온도 모임의 체온 113
 독섬해전: 소설 이사부 86
 독일 헌법학의 원천 47
 독일발트문학과 에스토니아문학 59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 100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128
 동물, 뉴스를 씹습니다 111
 동백꽃, 붉고 시린 눈물 127
 동부태평양어장 가는 길 120
 동북아 바다, 인문학으로

향해하다 24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남북중
협력의 모색 63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 26
동양의 이상 10
동중국해 문화권의 민가 64
동화의 숲을 거닐다 136
들어라 미국이여 36

ㄹ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어제와
오늘 56
라틴아메리카 흑인 만들기 56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57
라틴아메리카의 언어적 다양성과
언어정책 57
랄랄라 책 130
랑 86
레드 아일랜드 87
로마인 이야기 60
루쉰과 동아시아 근대 8
루카치가 읽은 술제치닌 13
루카치의 길 13
류스페이 사상선집 15
르포, 절망의 일본열도 65

ㅁ
마네킹이 필요하다고요 93
마녀 바라쿠다의 정원 160
마니석, 고요한 울림 85
마닐라 갤러온 무역 56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33
마르타 84
마살라 90
마음챙김과 통찰 4
만남의 방식 104
만들어진 점령 서사 28
만주국 시기 중국소설 85
만화로 보는 노루현 시대 41
말라가 : 15세기 동남아 무역왕국
29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39
망각된 역사, 왜곡된 기억 '조선인
위안부' 52
맥박 94
맥시멀 라이프가 싫어서 53
맨발의 기억력 146
맹자, 시대를 찌르다 11
맹자독설 12
먹는물이 위험하다 53
멕시코를 맞보다 57
명량한 외출 101
모녀 5세대 122

모두가 섬이다 148
모든 순간은 이미 찬란했다 128
모바일만 들고 떠나는 중국
남방도시 여행 166
모자이크, 부산 81
목화 86
몸들의 유니버스 너머 50
무상의 철학 19
무위능력 151
무중풍경 : 중국영화문화
1978~1998 76

무한한 하나 138
문장의 희곡 142
문제는 교육이야! 45
문학과 문화, 디지털을 만나다
140
문학을 탐하다 114
물고기 박사가 들려주는 신기한
바다 이야기 164
물의 시간 91
미국 대학의 힘 46
미국 영화비평의 혁명가들 75
미안마, 깊고 푸른 밤 115
미완의 아름다움 126
미학, 부산을 거닐다 66

ㅂ
바그너 읽기 : 트리스탄,
장인가수, 파르지팔 71
바그너의 마지막 인터뷰 71
바다 탐험대 161
바다를 건넌 물건들 I 25
바다를 건넌 물건들 II 25
바다를 건넌 사람들 I 25
바다를 건넌 사람들 II 25
바다를 바라보다 120
바람, 바람, 코로나19 98
바로 그 시간 136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48
박맹인 교수의 돌 이야기 164
반대물의 복합체 6
반려인간 159
발트3국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슬픔 58
발트3국의 언어와 근대문학 59
발트3국의 역사 · 문화 · 언어 58
밤의 눈 80
방마다 문이 열리고 98
방법으로서의 중국 27
배고픈 노랑가오리 159
배낭에 문화를 담다 166
배달의 천국 89
배리어프리 영상제작론 76
배회하는 유령 135
백두산에 묻힌 발해를 찾아서 21

번개와 천둥 88
범죄의 재구성 100
베를린 육아 1년 109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36
벽이 없는 세계 32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63
보약과 상약 127
보이지 않는 숲 80
보존과 창조 139
보통사람의 심리학 7
볼리비아 우표 98
봄 꿈 144
봄날에 만난 아름다운 캠퍼스
121
봄밤을 거슬러 98
봄비 97
부동산 왕초보 탈출기 171
부동산 투자실무 171
부산 탐식 프로젝트 69
부산노동운동사 38
부산언론사 연구 49
부산에서 예술을 합니다 110
부산을 맞보다 69
부산을 맞보다: 두 번째 이야기
69
부산을 쓴다 93
부산의 오늘을 묻고 내일을 길다
65
부산학교의 역사 22
부울경은 하나다 65
부채의 운치 26
북양어장 가는 길 120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39
불가능한 대화들 114
불가능한 대화들 2 114
불교란 무엇인가 17
불교와 마음 18
불교와 여래장 18
불교의 마음사상 19
불운한 식탁 105
불이문을 넘어 붓다의 세계로 17
붉은 등, 닫힌 문, 출구 없음 93
붉은 페허 149
브라보 내 인생 127
브라질 광고와 문화 58
브라질 흑인의 역사와 문화 56
브레히트 · 카프카 · 클라이스트 ·
드로스테 힐스호프 : 독일
단편소설 걸작선 84
블로거 R군의 슬기로운
크리에이터 생활 110
비어짐을 담은 사발 하나 142
비인칭적인 것 137
비즈니스 일본어에서 일본어의
비즈니스 인터랙션으로 164

비평의 비평 138
비평의 윤리, 윤리의 비평 141
비평의 자리 만들기 135
빅브라더에 맞서는 중국 여성들
51
빌헬름 텔 인 마닐라 83
빛 91
빼앗긴 사람들 51
뿌리 Ophav 84
뿌리지! 동 탐험대 157
빠박한 책임기 130

ㅅ
사다 보면 끝이 있겠지요 133
사라진 홍콩 31
사람 다치지 않았느냐 126
사람 속에 함께 걷다 41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41
사람들 96
사람을 위한 회계 172
사람이 희망이다 120
사려니 숲의 휘파람새 96
사막의 기적? 58
사슴목발 애인 145
사찰 문화유산 답사 20
사포의 향수 29
사할린 88
사회생물학,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7
산골에서 혁명을 118
산에 들에 82
산의 동화 82
살아보니, 대만 61
살짜콩 군대요리 108
살짜콩 인형 108
살짜콩 책방러 108
살짜콩 휴양림 108
살으로서의 사유 13
삼겹살 94
삼국유사, 바다를 만나다 21
삼미의 비 82
상업영화 중국을 말하다 77
상하이영화와 상하이인의 정체성
78
상황적 사고 16
새로운 인생 146
새롭게 읽는 『토지』 131
생각하는 사람들 91
생명건축, 그 아름다운 원풍경
73
생을 버티게 하는 문장들 118
서른에 떠난 세계일주 166
서비스 서비스 104
서유기 81년 연구 132
석간신문을 읽는 명태 씨 144

선생님의 보글보글 115
 선택 42
 성공하는 글쓰기 전략 172
 세상에 나를 추천하라 172
 세이렌들의 귀환 137
 소금 성자 144
 소녀 취향 성장기 52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체문화와 스포츠 63
 수다, 꽃이 되다 67
 수박이 데굴데굴 여름이 쿵 157
 수술 권하는 정형외과의 비밀 170
 수전 조지의 Another world 37
 숨고 싶은 아이 158
 숲에서 행복한 아이들 55
 숲의 정신 150
 슬기로운 아프리카 생활 111
 슬로시티 149
 습지 그림일기 155
 습지와 인간 53
 시간의 향기 140
 시내버스 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 167
 시로부터 117
 시의 역설과 비평의 진실 137
 시인의 공책 117
 시칠리아 풍경 59
 신문화지리지 65
 신불산 : 뱀치산 구연철 생애사 87
 신중국미래기 14
 실금 하나 99
 심지층 저장소 83
 심폐소생술 149
 심향 95
 싸움의 품격 45
 쓰영 90
 쌍부춘, 새벽 4시 101

○

아나뉴까 이야기 158
 아디오스 아툰 101
 아메리칸 히로시마 36
 아버지의 구두 119
 아버지의 바다 90
 아버지의 웅접 인생 40
 아버지의 웃음 150
 아이 캔 두 이모 96
 아줌마 기자, 낙남정맥에 도전하다 168
 아파트키드 득구 43
 안드라스 쉬프 : 음악은 고요로부터 71
 약속과 예측 50

어긋난 세계 148
 어려운 시들 135
 어중씨 이야기 162
 어찌다 보니 클래식 애호가, 내 이름은 페르마타 110
 엄마 사용 설명서 162
 에스토니아어 알기와 공부하기 164
 엔딩 노트 : 나의 작은 자서전 만들기 129
 여러 겹의 시간을 만나다 57
 역사의 블랙박스, 왜성 재발견 21
 연결 (불)가능한 신체의 역사 50
 연결신체학을 향하여 50
 연변 나그네 연결 안까지 148
 열세 달 은우 159
 영상문화의 흐름과 서사미학 76
 영화 열정 75
 영화로 만나는 동아시아 77
 영화로 만나는 현대중국 78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 147
 오사카 도시의 기억을 발굴하다 65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116
 오후 네 시의 동물원 97
 오후 다섯 시詩의 풍경 148
 울가의 장례식날 생긴 일 83
 와인의 정석 169
 완월동 여자들 51
 왜 사느냐고 묻거든 125
 요리의 정신 111
 요리의 향연 26
 우리 옆의 약자 43
 우리 집에 왜 왔니 106
 우리가 만드는 문화도시 67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123
 우리들, 김 99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117
 우아한 여행 167
 윌레스전 82
 유구 한문학 24
 유마도 86
 유방암이지만 비키니는 입고 싶어 109
 유배지에서 쓴 아빠의 편지 127
 유산 90
 유쾌한 소통 125
 유투피아라는 물음 141
 유투피야로 가는 네 번째 방법 92
 윤리적 잡년 52
 은근히 즐거운 145
 은유를 넘어서 138

을숙도, 갈대숲을 거닐다 123
 예술은 국경을 넘어 44
 이니스프리, 그 이루지 못한 꿈 121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 37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118
 이미지 제국 28
 이상한 과일 104
 이야기를 건다 81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43
 인간의 권리 48
 인도 진출 20인의 도전 172
 인도불교의 역사 20
 인도사에서 종교와 역사 만들기 29
 인도의 두 어머니, 암소와 갠지스 29
 인도인의 논리학 19
 인생 뭐, 야구 112
 인연 149
 인학 14
 일곱 개의 단어로 만든 비평 141
 일기 여행 130
 일본 이데올로기론 8
 일본의 각성 10
 일상 그리기 72
 일상의 몸과 소통하기 74
 임서가 들려주는 강호 이야기 85

ㅈ

자연에 깃든 사람의 시: 신진론 132
 자연에서 길을 찾다 170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 66
 작화중 사내 93
 장미화분 106
 재미있는 사찰 이야기 20
 저는 비정규직 초당시간 근로자입니다 39
 저승길을 몰아서 간다 121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건다 61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34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41
 전후일본의 역사인식 31
 절망사회에서 길 찾기 43
 젊은 작가 12인과 문학을 논하다 114
 정녀들이 밤에 경찰 수의를 지었다 147
 정신분석적 발달이론의 통합 171
 정전과 내전 31
 정체성이 아닌 것 4
 제갈량과 20세기 동양적 혁명을

논하다 9
 조공과 사대 28
 조그맣고 독 102
 조까라마이싱 150
 좋은 문장을 쓰고 싶다면 129
 주심부와 육식 18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17
 중국 내서널리즘 27
 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 27
 중국 영화의 열광적 황금기 78
 중국 영화의 오늘 77
 중국 윤리사상 ABC 15
 중국 청년감독 열전 77
 중국경제법의 이해 48
 중국문화요의 15
 중국국사의 근대적 전환 134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 31
 중산층은 없다 34
 중용, 어울림의 길 11
 즐거운 게임 106
 지구별에 도착하셨습니다 112
 지금, 이곳의 비평 137
 지리로 보는 세계정세 32
 지리산 아! 사람아 54
 지리산둘레길 그림 편지 168
 지식의 윤리성에 관한 다섯 편의 에세이 16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한다 67
 지역에서 행복하게 출판하기 68
 지역이라는 아프리카 140
 지역정당 38
 지옥 만세 156
 지중해 다문화 문명 60
 지중해 문화를 건다 59
 지중해 언어의 만남 60
 지중해의 영화 60
 지하철을 탄 개미 125
 진경산수 95
 진보와 대화하기 42
 진실과 기억 38
 진화와 윤리 6
 집요한 자유 137
 찜파미, 공모, 사바사바 125
 쪽배 144
 쓰모 1 백제의 후에 161
 쓰모 2 엄지학교 161

ㅊ

차와 선 18
 차의 20,000가지 비밀 169
 차의 책 10
 차의 향기 26
 차이나 인사이트 62

천 개의 권력과 일상 16
 천두슈 사상선집 15
 청말 중국의 대일정책과 일본어 인식 27
 청중의 발견 71
 청학에서 세석까지 103
 초월명상과 기 수련 9
 촌기자의 꿈은 소리 126
 촌놈 되기 : 신진 시인의 30년 귀촌 생활 비록 55
 최성목 평전 133
 최은희, 한국춤의 긴 여정 74
 추락하는 제국 37
 취재남 감성녀 168
 취추바이 선집 : 『신아국유기新俄國遊記』
 『적도심사赤都心史』 16
 치우 88
 침묵의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 51
 침팬지는 뉴시몬 158

ㄱ

칼춤 87
 캐리어 끌기 97
 클트45 92
 클라이스트 희곡선 142

ㄷ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혁명성 132
 타이타닉을 구하라 157
 타임머신 정비사 루나 157
 탈학습, 한나 아렌트의 사유방식 5
 탐식기행, 소울푸드를 만나다 69
 테하차피의 달 80
 토스쿠 92
 통증보감 170

통찰 : 통찰명상 수행법 4

ㅍ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23
 파멸의 목시록 6
 파미르의 밤 151
 팔루자 리포트 37
 팔팔 끓고 나서 4분간 99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 165
 패션, 영화를 스타일링하다 165
 패션, 음악영화를 노래하다 165
 펄권의 이웃들 96
 편지 103
 폐교, 문화로 열리다 55
 페허의 푸른빛 139
 폭력 45
 폭식 광대 100
 폴리아모리 52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130
 필연 149

ㅎ

하근찬 전집 82
 하이재킹 아메리카 35
 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33
 한 권으로 읽는 중국문화 62
 한국 근대 서화의 생산과 유통 74
 한국수산지 I 22
 한국수산지 II 22
 한국시의 이론 134
 한국의 사랑채 73
 한국의 헌법학 연구 48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 5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 155

한반도 환경대재앙 산사람 54
 한비자, 난세의 통치학 12
 한비자, 제국을 말하다 12
 한산수첩 105
 한중 협력의 새로운 모색, 부산-상하이 협력 63
 한형석 평전 133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29
 해상화열전 85
 해양사의 명장면 24
 해양풍경 132
 해오리 바다의 비밀 160
 해운대 바다상점 68
 헌법과 정치 47
 헌법을 말한다 47
 혁명과 역사 28
 현대 타이베이와 탄생 61
 현대인의 자유와 소외 40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한국사회 124
 현재는 이상한 짐승이다 125
 예수, 해수 1 : 영혼포식자 156
 예수, 해수 2 : 뱀파이어 156
 예수, 해수3 : 구미호 156
 홍콩 산책 166
 화가 남궁 씨의 수염 82
 화염의 탑 85
 환경에 대한 갑질을 멈출 시간 53
 황금 누에의 비밀 160
 황금빛 물고기 158
 황은덕 소설가의 공간공부 115
 효사상과 불교 17
 흠어진 모래 64
 히말라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168
 힌두교, 사상에서 실천까지 20
 힘의 포획 138

산지니 도서목록

발행일 2024년 6월 24일
 펴낸이 강수걸
 펴낸곳 산지니
 등록 2005년 2월 7일 제333-3370000251002005000001호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BCC 626호
 전화 051-504-7070 | 팩스 051-507-7543
 홈페이지 www.sanzinibook.com
 전자우편 sanzini@sanzinibook.com
 블로그 http://sanzinibook.tistory.com